2022년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운영사례집

여성가족부 |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CONTENTS

Ⅰ 국가간 청소년교류 사업소개 05

Ⅱ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운영사례 09

- 캄보디아(최우수 장관상) 11
- 말레이시아(우수 이사장상) 49
- 싱가포르(우수 이사장상) 115
- 몽골 145
- 브루나이 161
- 사우디아라비아 175
- 인도네시아 195
- 일본 215

Ⅲ 참고자료 245

Ⅰ 국가간 청소년교류 사업소개

1 사업 목적

- 청소년의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경쟁력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
-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세계문화시민으로 육성
- 청소년 교류를 통한 국가간 우의 증진 및 협력기반 조성

2 추진근거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제2항 –

3 추진경과

- 1965년 '한-말레이시아 문화협정' 체결, 1979년부터 교류 시행
- 2022년 현재 총 39개국과 협정 체결
- 1979~2021년까지 총 12,507명 참여
- 담당부처

1988	체육청소년부에 '청소년교류과' 설치, 교육부 업무 이관 받아 수행
1993 ~ 2005.4	문화체육부 및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2005.4 ~ 2008.2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2008.3 ~ 2010.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2010.3 ~ 현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4 2022년 추진개요

- 주 최
  - (한국) 여성가족부
  - (교류국) 교류협정 체결국 정부
- 주 관
  - (한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
  - (교류국) 교류협정 체결국 정부 및 기관·단체
- 기 간 : 2022. 6. ~ 11.
- 인 원 : 총 9개국, 245명(한국 126명, 상대국 119명)
  ※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 주요내용: 문화교류, 주제기반 토의활동, 공동과제 수행, 최종발표 등

5 2022년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개요

구분	국가명(안)	온라인 교류 일정	한국인원 (청소년, 통역)	교급
1	인도네시아	6.30.(목), 7.1.(금), 7.15.(금)	19명 (청소년 11, 통역 8)	대학
2	몽골	7.21.(목), 7.22.(금), 8.5.(금)	9명 (청소년 7, 통역 2)	고등
3	베트남	7.28.(목), 7.29.(금), 8.12.(금)	10명 (청소년 8, 통역 2)	고등
4	말레이시아	8.13.(토), 8.14.(일), 8.27.(토)	20명 (청소년 16, 통역 4)	대학

구분	국가명(안)	온라인 교류 일정	한국인원 (청소년, 통역)	교급
5	싱가포르	8.27.(토), 8.28.(일), 9.2.(금)	22명 (청소년 14, 통역 8)	대학
6	브루나이	9.15.(목), 9.16.(금), 9.30.(금)	10명 (청소년 8, 통역 2)	고등
7	캄보디아	9.15.(목), 9.16.(금), 9.30.(금)	12명 (청소년 8, 통역 4)	고등
8	사우디아라비아	9.22.(목), 9.23.(금), 10.7.(금)	9명 (청소년 7, 통역 2)	대학
9	일본	11.12.(토), 11.13.(일), 11.26.(토)	15명 (청소년 12, 통역 3)	대학
합계			126명 (청소년 91명, 통역 35명)	

II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운영사례

캄보디아

결과보고서

교류팀명	교류일정	교류인원
Bong Krom	2022.9.15.(목), 9.16.(금), 9.30.(금)	12명 (청소년 8명, 통역 4명)

1 기본사항

사업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캄보디아	교류팀명	Bong Krom
교류기간	2022.09.15 ~ 2022.09.30	교류인원	12명 (청소년 8명, 통역 4명)
활동 목표	1.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선입견 그리고 편견 등을 없애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한다. 2.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을 증진시켜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3.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다양한 플랫폼에 공유하여 캄보디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		
활동 계획	사전	서적 또는 다큐멘터리 영상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교류 활동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교류	• 아이스 브레이킹(ex.그림 그리고 무엇인지 맞추기, 밸런스 게임 등등)을 통해 양국의 분위기 화합과 친목을 다져 서로의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 문화 발표 주제로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되 폭넓게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접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인용하여 더 쉽고 재밌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ex. 드라마에 나오는 김치들을 종류별로 장면을 인용하여 이렇게 김치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는걸 알려주는 등등)	
	사후	활동하면서 배웠던 점,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영상이나 다양한 홍보물들을 제작하여 인스타그램,틱톡, 블로그 등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sns에 공유하여 이를 알린다. <u>세부사항:</u> 1. 유튜브 영상 제작 가) (전)참가자 인터뷰 나)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인터뷰 (5~7분) • 연락망 • 이메일: camemb.kor@mfa.gov.k • 전화번호: 02-3785-1041 • 가능하면 스브스뉴스를 오마주 • 현재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외교 상태 • 이런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캄보디아 음식점 • 지인 추천 음식 찾아 맛보기	

활동 계획	사후	라) 참가자 인터뷰 • 목소리 파일 • 이라온 – 한국 대표단 캐리커처 • 역할 • 영상편집: 이은섭 • 영상자료: 모든 멤버 2. 카드뉴스 가) 캄보디아 문화 홍보 – 캄보디아 문화발표 피피티 받기 나) 캄보디아와 한국 문화 (주제별로) 공통점과 차이점 다) 현지인이 추천해주는 캄보디아 여행코스 ▶ 역할: • 카드뉴스 제작: 김신영, 손예진, 임서진 ▪ 임서진: 캄보디아 문화홍보 ▪ 김신영: 현지인이 추천해주는 캄보디아 여행코스 ▪ 손예진: 캄보디아와 한국 문화 (주제별로) 공통점과 차이점 • 자료조사: 이지호, 이라온, 이유진 ▪ 이유진: 캄보디아 문화 홍보 ▪ 이라온: 캄보디아와 한국문화 (주제별로) 공통점과 차이점 ▪ 이지호: 현지인이 추천해주는 캄보디아 여행코스 3. 웹사이트 가) Google Sites 인용 나) 내용 ▪ 지금까지 해온 모든 활동과 자료 공유 ▪ 카드뉴스 정리 ▪ 대표단 소개 ▪ 느낀점 다) 홍보 방법: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 링크 걸기 라) 유튜브 영상 정리 해 올리기 마) 인스타그램 포스트 올리기 바) 교류 사진첩 만들기 ▶ 역할 • 웹사이트 제작: 이지호, 이유진 4. 인스타그램 가) 릴스로 캄보디아 국기 그리기 챌린지 – 스토리 또는 릴스 – 영상길이 = 30초 – 영상마다 한 친구 씩 태그해 챌린지 – 영상을 친구한테 받아 본 계정에 올리기

활동 계획	사후	나) @korea_cambodia_group → @korea_cambodia_youth 다) 웹사이트 링크 공유 라) 대표단 소개 – 제작: 이지호 – 내용: 이름, 생년월일, 역할, 취미, MBTI 마) 캄보디아 대표단 선물 언박싱과 사용후기 바) 활동 했던 것 게시물올리기 사) 사후활동 죄다 올리기 – 인터뷰 – 캄보디아 맛집 ▶ 역할 • 인스타그램 제작 및 관리: 이주원
활동 결과	사전	•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청 •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으로 "밸런스게임"와 "진진가"로 확정 (대본, PPT 완성) • 8개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준비 완료 (대본, PPT 완성) • 상대국 선물로 전통 무드등 준비 • 정해진 토의 주제를 일주일간 조사 후 사전미팅에서 조사한 것 공유 후 각자 의견 나눔
	교류	•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해 문화발표의 내용과 연결되는 게임 진행 • 8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화발표를 진행 • 토의활동 – Team A ✓ 그룹 이름 정하기, 각자의 MBTI 설명, 고유 나라의 음식 사진과 설명, 테마를 정한 뒤 사진 찍기, 각자 정한 이모티콘을 따라한 사진 찍는 미션을 한 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정에 관해 토의한 뒤 4가지 문제로 추린 후 Q&A를 하는 형식으로 PPT를 제작하여 발표했습니다. – Team B ✓ 그룹 이름 정하기,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간단한 한국&캄보디아 여행 계획을 세워 발표하기, 가장 좋아하는 자국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공유하고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말하기, 음식, 그중에서도 되도록 각자의 나라/지역/고장만의 고유한 음식에 대해 왜 특별한 지 설명하기, 상대국가 멤버의 초상화를 그려서 제출하기,본인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과 그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 설명하기를 하고, 이를 PPT로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 캄보디아 대표단을 위한 선물 소개 발표 – 한국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선물인 전통문양 (창살 문양 – 완자살) 무드등을 선택함
	사후	• 3일차 대면 활동이후 작성했던 평가 구글 폼 결과지를 바탕으로 평가회의록 (양식 6) 작성 • 평가회의록 작성 다음날 다같이 교류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 그 외 사후활동계획에 따라 진행 예정

	성명	역할	내용
팀원 역할	이지호	대표	• 사전미팅 일정을 계획하고 주도함 • 문화발표 자료조사 (K-건축물) • (Team B) 미션 활동 (우리나라 고유음식), 서기, 대본 작성 및 피피티 제작, 최종 교류 발표 • 폐회식 소감문 작성 및 발표 • 한국 청소년 선물 소개 PPT 제작 • 평가회의록 작성
	이유진	부대표	• 부대표로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한국 대표단의 화합을 이끌어냄 • 문화교류 자료조사 (김치) • 문화교류 발표 대본 준비 + 발표 • (Team A) 미션활동 대본 준비 + 발표
	김신영	교류활동	• 교류활동 담당으로써 전년 국제교류 경험을 살려 PPT, 대본 예시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문화발표를 준비하고 이끔 • 문화교류 발표 대본 준비 + 발표 • 문화교류 자료조사 (진돗개) • (Team A) 서기, 미션활동 영상 제작
	손예진	서기	• 양식 작성 및 제출 • 아이스 브레이킹 PPT 제작 • 문화교류 자료조사 (역사) • (Team B) 토의 주제 발표 PPT 제작 및 토의 주제 발표 대본 작성, 최종 교류 발표
	이은섭	사진촬영	• 줌 사전미팅 촬영 (스크린샷) + 3차교류하는 모습 촬영 •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 대본 작성 + 진행 • 문화교류 자료조사 (K-POP) • (Team B) 의장 및 문화 교류 최종 발표 대본 작성 및 발표, 토의 주제 발표 및 대본 작성
	이라온	자료수집	• 문화교류 PPT 제작 • 문화교류 자료조사 (전통모자) • (Team A) 토의활동 발표
	임서진	총무	• 캄보디아 대표단을 위한 선물 관련 지출내역 작성 • 캄보디아 대표단을 위한 선물 대본 작성 및 발표 • 문화교류 PPT 제작 • 문화교류 자료조사 (태권도) • (Team A) 대표로서 팀내의 역할을 나누고 이끌어감
	이주원	홍보대사	• 문화교류 PPT 제작 • 문화교류 자료조사 (K-Food)(K-Dog) • (Team B) 문화 발표 PPT 제작 및 발표, 최종 발표 대본 작성

2 사전활동 결과

가. 활동 요약표

번호	활동날짜	사전활동 내용	장소
1	2022.8.14	• 1차 교류를 위한 아이스브레이킹과 문화교류 브레인스토밍 및 역할 분담	줌 (zoom)
2	2022.9.11	• 토의그룹 나누기 및 토의활동을 위한 사전 조사진행 • 문화발표 리허설 • 아이스브레이킹 수정 • 사전결과보고서 작성 • 캄보디아 대표단을 위한 선물 검색 및 활동비 사용 내역 작성	줌 (zoom)
3	2022.9.12	• 아이스브레이킹 수정 및 대본 작성 → 밸런스 게임으로 확정	줌 (zoom)

나. 사전활동 결과 보고

사업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캄보디아
팀 명	Bong Krom	작성자	이지호, 이유진, 이은섭, 이라온, 이주원, 김신영, 임서진, 손예진
활동명	Bong Krom	참석자	이지호, 이유진, 이은섭, 이라온, 이주원, 김신영, 임서진, 손예진
목표 대비 성과	목표	성과	
	(ㄱ) 교류국에 대한 사전조사 (ㄴ) 아이스브레이킹 준비 (ㄷ) 문화교류 준비 (ㄹ) 상대국 선물 준비 (ㅁ) 토의 주제 조사 및 토의	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청 나)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으로 진진가 + 밸런스게임 확정 (대본, PPT 완성) 다) 8개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준비 완료 (대본, PPT 완성) 라) 상대국 선물로 전통 무드등 준비 마) 정해진 토의 주제를 일주일간 조사 후 사전미팅에서 조사한 것 공유 후 각자 의견 나눔	

활동 결과

Category	8월 14일 활동 정리
아이스 브레이킹	진진가 • 은섭 갈틱폰 • 지호
아이스 브레이킹	PPT 제작 • 예진
문화교류	문화 교류 주제: K-Culture in K-Drama 자료 조사 주제: • 신기한 음식: 주원 • 전통 모자: 라온 • 역사 (일제강점기): 예진 • 김치: 유진 • 건축물: 지호 • 음악: 은섭 • 태권도: 서진 • 동식물: 신영 PPT 제작 • 주원, 서진, 라온 발표 및 대본 • 유진, 신영

EVENT	DEADLINE	해당되시는 분들
아이스브레이킹 대본	8월 15일	지호, 은섭
아이스브레이킹 ppt	8월 21일	예진
자료조사	8월 21일	모두 다 • 신기한 음식: 주원 • 전통 모자: 라온 • 역사 (일제강점기): 예진 • 김치: 유진 • K-건축물: 지호 • 음악: 은섭 • 태권도: 서진 • 한국 토종 동식물: 신영
문화교류 발표대본	8월 28일	유진, 신영
문화교류 ppt	9월 4일 미팅 전까지	주원, 서진, 라온

Category	9월 4일 활동 정리
사전과제	• 토의 그룹 나누기 • 토의 주제 조사하기 (모든 예상 질문 답변 가능하게)
사전활동 결과 보고서	• 사전활동 목표 정리하기 • 사전활동 성과 정리하기 • 활동비 사용 • 캄보디아 학생들 선물
문화교류	•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활동 결과

아이스브레이킹	•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 진진가만 하기로 -> 총 6명 랜덤 선택 • 대본, 슬라이드 수정
Google sheets	• Participant list 채우기 • 나이는 만 나이로

Category	9월 11일 활동 정리
아이스 브레이킹	• 소그룹으로 찢어진 후 대본 다시짜기 • 대본 번역 • PPT 다시 제작 • 리허설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는 것을 깨달아 새로운 게임 추가 및 대본 작성 • 새로운 게임:밸런스게임
문화교류	• 소그룹으로 찢어진 후 리허설 • 수정 할 부분 수정하기
사전과제	• 각자 토의 그룹으로 찢어져 자료 조사한 것 공유 • 주제에 관해서 상의 • 두개의 사전과제 한 문서로 합치기 (우정 + 미래의 직업)

Category	9월 12일 활동 정리
아이스 브레이킹	• 밸런스게임 • 규칙 정하기 • 질문 정하기 • 대본 및 PPT 완성하기

자체 평가

- 네 번의 사전모임을 통해 팀으로써 목표했던 것(캄보디아 사전조사, 문화발표 준비, 아이스브레이킹 준비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함.
- 모든 팀원이 맡은 역할을 자기주도적으로 완수하여 네 번의 사전미팅 때 해야 할 것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함.
- 서로간의 유대감이 형성되었으며 협력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나감.
- 다양한 조사와 사전활동을 통해 교류국인 캄보디아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게 됨.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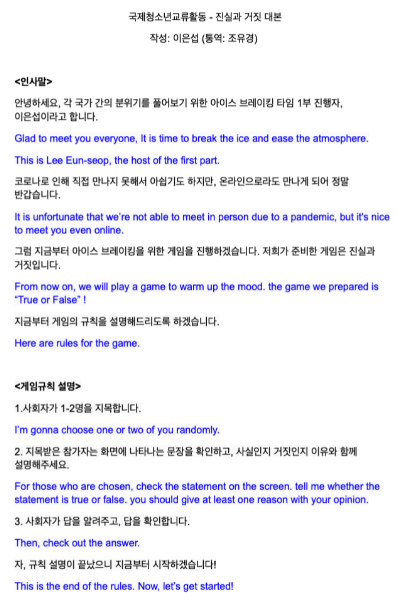
성명	역할	내용
이지호	대표	아이스 브레이킹 조사 및 대본 준비, 문화발표 자료조사 (K-건축물)
이유진	부대표	문화교류 발표 대본 준비, 문화교류 자료조사 (김치)
김신영	교류활동	문화교류 발표 대본 준비, 문화교류 자료조사 (진돗개)
손예진	서기	아이스 브레이킹 PPT 제작, 문화교류 자료조사 (역사)
이은섭	사진촬영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 대본 작성, 문화교류 자료조사 (K-POP)
이라온	자료수집	문화교류 PPT 제작, 문화교류 자료조사 (전통모자)
임서진	총무	문화교류 PPT 제작, 문화교류 자료조사(태권도)
이주원	홍보대사	문화교류 PPT 제작, 문화교류 자료조사 (K-Food)

지출 내역

물품	지출금액	용도
전통 무드등- 8개	148,800	교류국 대표단 선물 - 컬러: 블랙, LED 컬러: 웜, 선물포장: YES
총 계	148,800	

결과물

붙임 1. 아이스브레이킹 대본 & PPT



국제청소년교류활동 - 진실과 거짓 대본

작성: 이은섭 (통역: 조유경)

<인사말>

안녕하세요, 각 국가 간의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 1부 진행자, 이은섭이라고 합니다.

Glad to meet you everyone, It is time to break the ice and ease the atmosphere.

This is Lee Eun-seop, the host of the first part.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It is unfortunate that we're not able to meet in person due to a pandemic, but it's nice to meet you even online.

그럼 지금부터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진실과 거짓입니다.

From now on, we will play a game to warm up the mood. the game we prepared is "True or False" !

지금부터 게임의 규칙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e are rules for the game.

<게임규칙 설명>

1.사회자가 1-2명을 지목합니다.

I'm gonna choose one or two of you randomly.

2. 지목받은 참가자는 화면에 나타나는 문장을 확인하고,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유와 함께 설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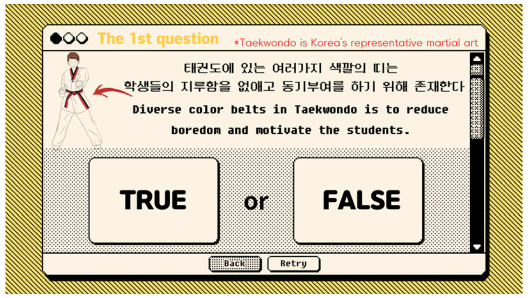
For those who are chosen, check the statement on the screen. tell me whether the statement is true or false. you should give at least one reason with your opinion.

3. 사회자가 답을 알려주고, 답을 확인합니다.

Then, check out the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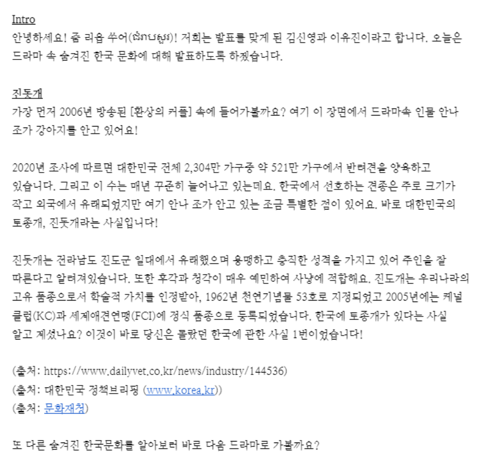
자, 규칙 설명이 끝났으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rules. Now, let's get started!



대본	PPT

붙임 2. 문화교류 발표 대본 & PPT



Intro

안녕하세요! 좀 리읍 쑤어(ជំរាបសួរ)! 저희는 발표를 맞게 된 김신영과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속 숨겨진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돗개

가장 먼저 2006년 방송된 [환상의 커플] 속에 들어가볼까요? 여기 이 장면에서 드라마속 인물 안나 조가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2,304만 가구중 약 521만 가구에서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선호하는 견종은 주로 크기가 작고 외국에서 유래되었지만 여기 안나 조가 안고 있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토종개, 진돗개라는 사실입니다!

진돗개는 전라남도 진도군 일대에서 유래했으며 용맹하고 충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인을 잘 따른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후각과 청각이 매우 예민하여 사냥에 적합해요. 진도개는 우리나라의 고유 품종으로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케널 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정식 품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한국에 토종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당신은 몰랐던 한국에 관한 사실 1번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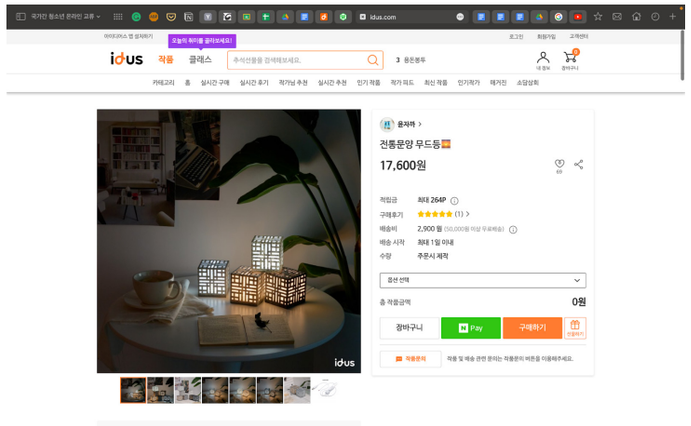
(출처: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1445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문화재청)

또 다른 숨겨진 한국문화를 알아보러 바로 다음 드라마로 가볼까요?

대본	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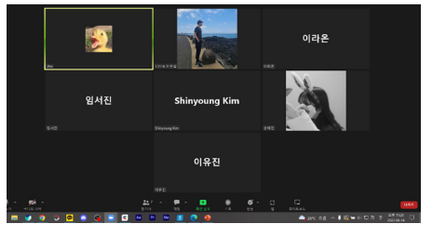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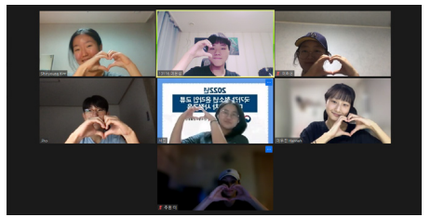
붙임 3. 교류국 대표단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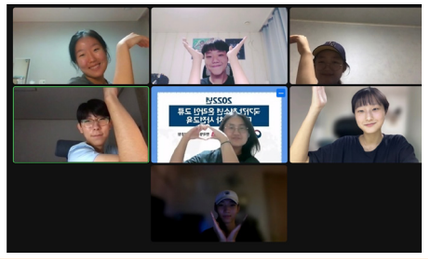
전통 무드등

붙임 4. 사전모임 2차 (8월 14일), 사전모임 3차 (9월 4일), 사전모임 4차 (9월 11일) 사진





8월 14일 2차 사전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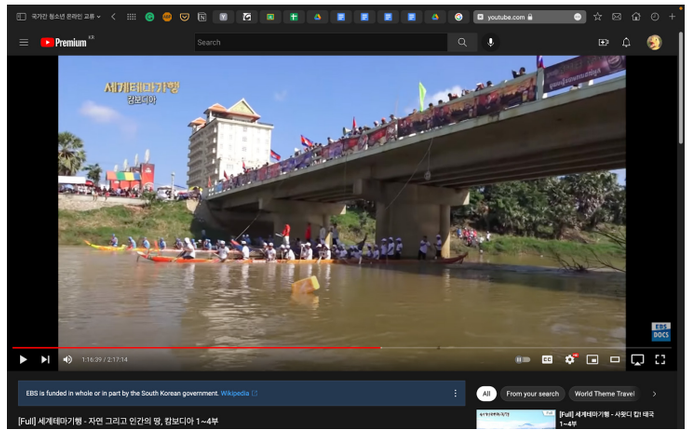


9월 4일 3차 사전모임

9월 11일 4차 사전모임

결과물

붙임 5. 다큐멘터리 시청



유튜브 – [세계테마기행 – 자연 그리고 인간의 땅, 캄보디아 1~4부

3 교류활동 결과

가. 일정표

일자	시간	세부내용
1일차 (09.15.)	14:00–15:00	ㅇ 양국 참가자 리허설(화면, 음향 등) ㅇ 참가자 안내 및 양국 참가자 사전점검
	15:00–15:10	ㅇ 개회 ㅇ 전체 일정 안내 ㅇ 단체 기념사진 촬영
	15:10–15:50	ㅇ (한국) 아이스브레이킹(30분) ㅇ 쉬는 시간 (10분)
	15:50–16:30	ㅇ (한국) 문화발표(30분) ㅇ 쉬는시간(10분)
	16:30–17:30	ㅇ 토의 그룹별 미팅 • 토의 그룹 자기소개 • 역할분담, 계획수립 등
	17:30–17:40	ㅇ 1일차 마무리

2일차 (09.16.)	14:00-15:00	ㅇ양국 참가자 리허설(화면, 음향 등) ㅇ참가자 안내 및 양국 참가자 사전점검
	15:00-15:10	ㅇ 개회 ㅇ 2일차 일정 안내
	15:10-16:10	ㅇ 그룹별 토의활동: 세션1(50분) ㅇ 쉬는 시간 (10분)
	16:10-17:10	ㅇ 그룹별 토의활동: 세션2(50분) ㅇ 쉬는시간(10분)
	17:10-18:00	ㅇ 공동과제 안내(10분) ㅇ 그룹별 공동과제 회의(40분)
	18:00-18:05	ㅇ 2일차 마무리
3일차 (09.30.)	14:00-15:00	ㅇ 최종발표 점검 ㅇ 양국 참가자 리허설(화면, 소리 등)
	15:00-15:10	ㅇ 3일차 일정 안내
	15:10-15:50	ㅇ 문화 발표 - (캄보디아) 문화발표(30분) ㅇ 쉬는 시간 (10분)
	15:50-16:50	ㅇ 그룹별 토의결과 및 공동과제 발표 • (그룹 A) 최종발표 및 질의응답(25분) • (그룹 B) 최종발표 및 질의응답(25분) • 쉬는시간(10분)
	16:50-17:10	ㅇ 폐회 ㅇ 교류활동 소감발표 ㅇ 선물교환 ㅇ 단체 기념사진
	17:10-17:40	ㅇ 평가회의(청소년 및 통역)

나. 세부 활동내용

• 1일차 (2022.09.15)

구분		내용
1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진실과 거짓), 밸런스 게임
	주요내용	캄보디아 친구들과 함께 진실 2개, 거짓 1개를 섞은 항목을 보여주어 그 중 거짓을 맞히는 게임을 했다. 두 항목 중 한가지를 고르고 이유를 설명하는 밸런스 게임을 했다. 밸런스게임 (설명): 아직은 친숙하지 않은 양국가간의 분위기를 풀기 위해 진행한 게임으로, 두 상황이 주어지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임입니다. 진실과 거짓 (설명): 한국 측의 문화발표때 발표 할 내용들을 재밌게 퀴즈 형식으로 미리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알려 캄보디아 측 학생들이 본 문화발표에 참여할때 집중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함.

2	프로그램	한국 측 문화발표
	주요내용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을 인용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사용된 드라마 목록: 가) 환상의 커플 (2006) 나) 지붕 뚫고 하이킥 (2009) 다) 응답하라 1997 (2012) 라) 미스터 선샤인 (2018) 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2018) 바) 킹덤 (2019) 사) 스위트 홈 (2020) 발표내용: 음식 • 본 활동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LA 갈비, 떡볶이, 와 김밥을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 에서 인용해 소개하였다. 건축물 • 본 활동에서 예시로 사용 된 대한민국의 건축물들은 드라마 스위트홈에 등장했던 충정아파트와 드라마 종이의 집에 등장한 국립 광주 박물관입니다. 충정아파트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 이며, 1932년 건축된 이후 아파트, 인민 재판소, 호텔 등 사용 용도가 다양했습니다. 서울 시장은 이 아파트를 지역 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고자 하였지만, 안전문제와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아 결국 2022년 6월 17일 오후 5시에 충정아파트는 철거되었습니다. 국립 광주 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지방 국립박물관이며, 재료와 건축 공법은 현대적이지만 외관만 전통건축을 본뜬 박조건축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김치 • 김치란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고춧가루, 파, 마늘 따위의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킨 음식입니다. 김치의 종류, 이용한 음식, 김치 냉장고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김치의 종류입니다. 1995년 기준, 학술용으로 조사된 김치의 종류는 약 336종 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김치 6가지, 배추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깍두기, 오이 소박이, 파김치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치를 이용한 요리인 김치 수제비, 김치 김밥 또한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김치만을 위한 냉장고인 김치 냉장고를 소개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보다 온도가 낮아 김치의 신선도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돗개 •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2,304만 가구중 약 521만 가구에서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었고, 한국의 반려동물 양육률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몰티즈, 푸들, 시추, 포메라니언 등은 크기가 작고 외국에서 유래된 견종입니다. 하지만 중.대형견 중에서는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인기가 많은 견종은 바로 진돗개입니다. (출처: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144536)

2	주요내용	• 진돗개는 전라남도 진도군 일대에서 유래한 한국 토종개로 용맹하고 충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인을 잘 따릅니다. 예민한 후각과 청각이 사냥에 적합합니다. 진도개는 우리나라의 고유 품종으로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케널 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정식 품종으로 등록돼었습니다. (출처: 문화재청) 태권도 • 태권도는 한국에서 발전한 현대무술입니다. 택견과 수박이라는 전통적인 무술이 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받아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점점 태권도라는 무술을 형성하고 이루었습니다. 태권도는 맨손 격투이며 인간성과 예절 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태권도는 손과 발 등을 사용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하며, 특히 발 기술이 이 무술의 특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는 등급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띠가 있습니다. 띠는 오방색을 기준하고 순서대로 하양, 노랑, 파랑, 빨강, 검정색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생들에게 지루함을 없애고 동기를 부여하려 더욱 많은 색깔의 띠가 존재합니다. (출처: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대한태권도협회, ITF 태권도협회) K-POP • 낱말 뜻 그대로 한국(Korea)의 대중음악(Popular Music)을 말한다. 일본의 J-POP이 폭넓은 일본의 대중음악을 지칭한다면 케이팝은 현재 아이돌 중심의 음악에 가깝다. 해외에선 특히 "K-POP= 아이돌 음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2007년 원더 걸스의 "Tell Me"를 기점으로 질적 · 양적으로 성장했으며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해외 음악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만든 음악뿐 아니라 군무 같은 퍼포먼스도 케이팝의 정체성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세계 음악 시장에서 당당히 케이팝이라는 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케이팝 [K-POP] (음악장르백과, 김학선, 박정용, 이경준)) 그동안 해외에서는 과거에는 매니악한 문화로 취급되었으나, K-POP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었다. 2017년부터 방탄소년단과 같은 보이그룹의 활약을 비롯해 후속 한국 그룹들의 빌보드 차트 진입 등 주류 시장에 진출할 여지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예로 블랙핑크가 방탄소년단에 이어 K-POP 그룹 두 번째로 빌보드, UK 싱글, 앨범차트에 중상위권으로 이름에 올랐다. 또한, 뮤직비디오나 퍼포먼스 비디오등에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이면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전통모자 • 우선 조선시대에서는 유교사상을 따라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불효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상관없이 태어나서부터 머리를 계속 길렀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머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위해 상투를 틀고 "망건"이라는 그물모양의 띠를 둘렀습니다.흑립은 양반들이 가장 많이 쓰던 외출 모자로 대나무 또는 말꼬리털을 엮어서 만들어집니다.* 흔히 "갓"이라고 불리며 외국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모자입니다.주립은 왕실 수비대 들이 주로 쓰던 모자로 붉은색이며 짐승의 털로 장식합니다.정좌관은 조선시대 선생들이 많이 쓰는 모자입니다.* 말꼬리털이 주 재료이며 산모양이 2,3겹으로 나타났는데 지위가 높을 수록 층이 높아졌습니다.* 갓처럼 주위로 넓게 펴지지 않아 주로 실내에서 착용했다고 합니다.이 외에도 조선시대 공무원들이 궁에서 일을 할때 쓰던 모자인 사모, 그리고 조선시대 천민들이 썼던 모자인 패랭이가 있습니다.

3	프로그램	그룹 미팅(A,B)
	주요내용	우정과 미래의 직업으로 팀을 나눠 각 팀에서 역할분담, 그룹별 규칙 수립을 하였다. <u>우정 (Group A):</u> 역할 • 임서진(대표) • 김신영(서기) • 이라온(촬영) • 이유진(대표단) • Roeun Rothsonita (Assistant Leader) • Tan Sodanyta (Note taker) • Sum Chanthy (Delegate) • Tep Panhaworn (Delegate) 규칙 가) 10초 이상 정적 유지하지 않기 Less than 10 seconds of silence 나) 시간 약속 잘 지키기 Keeping deadlines well 다) 다른 사람 의견 경청하기 Listen to other's opinions with respect 라) 자유롭게 의견 말하기 Share your opinions freel <u>미래의 직업 (Group B):</u> 역할 • 이은섭 (대표) • 이지호 (서기) • 이주원 (대표단) • 손예진 (대표단) • 안성호 (통역) • 김다휘 (통역) • Tola Cheal (Vice President) • Om Borana (Secretary) • Kanhchana Ratha (Delegate) • Lam Long (Delegate) 규칙 가) 10초 이상 정적 금지 나)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마이크 켜기 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제출하기

• 2일차 (2022.09.16)

구분		내용
1	프로그램	토의 활동(세션1)
	주요내용	팀 A는 진정한 우정, 원격 친구 등 우정에 관한 토의를 하였고 팀 B는 꿈꾸는 직업, 미래 유망 산업 분야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정 (Group A): 1. Should we need only one best friend? 베프(베스트프렌드)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까? • 소니타: 베스트프렌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한명이면 충분하다. 또한, 비밀이 잘 지켜지며 한 명 이상이면 서로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이다. • 소다니타: 한명이면 충분하다. 둘이서 함께하면 더 끈끈한 우정을 쌓을 수 있다 • 찬티: 한명이면 충분하다. 친구를 위해 선물을 사면 다른 친구가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다 • 유진: 많으면 좋다. 기쁜일이나 슬픈 일을 공유할 친구는 많을 수록 좋다. 5. Is it important to be friends for many years to be best friends? 베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친구로 지낸 기간이 오래되어야 합니까? • 라온: 오래되지 않아도 된다. 베프의 기준은 취향이 잘 맞는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유진: 베프가 되기는 기간보다는 성격이 얼마나 더 잘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랜기간 알고 서먹하게 지내는 친구보다 만난 시간이 길지 않아도 굉장히 잘 맞는 친구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 소니타: 성격이 비슷하면 빠르게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아는게 더 좋음.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오랜기간 친구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싫어지는 부분이 있음. 그에 따라 베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 • 판하원: 취미생활이나 성격을 알기에는 짧은 시간이면 충분하다 • 신영: 소니타와 비슷하게,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지 나와 정말로 잘 맞는지 알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나와 잘 맞고 친한 것 같아도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할 수도 있기에 베프가 되려면 사람을 오래 두고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6. Does a good friend have to tell you the whole truth? 좋은 친구라면 당신에게 비밀이 전혀 없어야 합니까? • 찬티: 원래는 베프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나에게 모든 비밀이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친구를 베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유진: 모든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은 다른사람에게 고민을 나누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는게 더 편한 경우가 있기에 자신이 편한대로 하면 된다. • 라온: 비밀을 다 알려주는게 오히려 친구와의 관계에 악역향을 끼칠수도 있다. 7. Should you have a bad relationship with someone who has a bad relationship with a good friend?당신의 좋은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 역시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야 합니까? • 소다니타: 좋은 친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게 좋다. 나와 좋은 친구가 불편해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 신영: 나의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나와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나의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나 역시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유진: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사이의 관계와 나와 그 사람의 관계는 별개. 선입견 없이 나의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볼 것임.

1	주요내용	미래의 직업 (Group B): 왜 이 주제를 선택 했습니까? • 은섭: 현재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 이 주제를 선택함 • 지호: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이 주제를 선택함 • 예진: 현재 한국의 고3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 을 다니며 미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이 주제를 선택함 • 주원: 미래에 직업에 대해 고민을 할 나이가 되어 이 주제를 선택함 왜 캄보디아와 교류를 하고 싶었나요? • 지호: 캄보디아 친구들과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고 싶었다 • 주원: 캄보디아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어 교류를 하고 싶었다 • 예진: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간 경험을 살려 캄보디아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싶었다 • 은섭: 국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었다 당신의 취미가 무엇인가요? • 은섭: 음악, 영화 감상 – 뮤직비디오 감상하면서. 또, 사진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 지호: 자유시간에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 주원: 영화, 음악감상, 친구들 만나서 놀기. • 예진: 무계획 여행 당신이 꿈꾸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 은섭: 영상작업 및 연출과 관련 된 직업 • 주원: 프로그래밍 및 국제관계학 • 예진: 해외에서 임상심리사 • 지호: 교정과 의사 or 암 관련 과학자 캄보디아 대표단측 질문: Where did you learn English? • 은섭: 어렸을 때 부터 유치원, 학교,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배웠습니다. 또,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영어에 더 노출 됐습니다. • 예진: 6살 때부터 학원에 다니며 영어를 배웠습니다. • 지호: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해외에서 (말레이시아, 미국) 6년간 거주하며 영어를 배웠습니다. • 주원: 학교 방과후를 통해 배웠고, 현재는 학원에 다니며 영국 유학준비를 하고있습니다. Any “weird” rules in Korean schools? • 중학교때 머리를 귀밑 10cm 이상 기를 수 없었다.
2	프로그램	토의 활동(세션2)
	주요내용	우정, 미래직업에 대한 토의를 추가적으로 하였다. 우정 (Group A): • 좋은 친구란? • Loyal하고 나와 강한 bond를 유지할 수 있는 • 나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 배울점이 많은

2	주요내용	•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나? • 없다. 한쪽이 호감이 있거나 썸이다. • 있다. 실제로도 남자인 친구가 아예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 남녀의 차이 때문에 불편하여서 친구가 되기 어렵다. • 친한 남자 베프가 실제로 있는데 서로에게 감정이 아예 없기에 남녀 사이에 친구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 온라인 상으로 만난 친구에 대한 의견 • 아직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다. • 온라인 상으로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친구의 친구여서 SNS으로 소통하다가 친해진 경우는 있다. •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들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산다면 그 친구를 만날 의향이 있나? • 안 만난다. 그 친구가 계속 만나자고 한다면 차단할 것이다. • 가장 오래된 친구는 몇년간 알고 지냈는지? •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내 10년 • 5살때부터 알고 지내 12년 • 3-4살 때부터 알고 가족끼리 친한 친구가 있음 • 초등학교 4-5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음 • 3-4살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이 있다. • 친구가 넘지 말아야할 선은? • 부모님 욕 •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 •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강요 <u>미래의 직업 (Group B):</u> Why did you choose this topic? • Tola Cheal: Wish to build friendship with the Korean delegation • Om Borana: (Technical issue – couldn't hear) • Kanhchana Ratha: Wish to build friendship with the Korean delegation • Lam Long: (Technical issue – couldn't hear) What do you guys do after school? • Play sports, listen to music (K-pop, etc.) Favorite food? • Chicken soup, pork-stir fry, amok*, etc. • amok*: a light fish curry, flavored with creamy coconut tones

2	주요내용	What is your hobby? • Tola Cheal: read books about the history of Cambodia, do math and physical exercises, read Earth book, English book and watch anime movie, listen to music rapper like Vannda, K-pop(Blackpink), eminem, etc. • Kanhchana Ratha: Watch TV, do chores, and listen to music. • Lam Long: play football, read books, and listen to music. • Om Borana: water the plants, read books, and play with her pigs What is your dream job? • Tola Cheal: IT programmer • Kanhchana Ratha: Accountant • Lam Long: Teacher (language) • Om Borana: Doctor or a teacher (language) Which profession do you think will be in demand in the future? • Tola Cheal: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scientific technologies • Kanhchana Ratha: Possible potential in media contents (social media) • Lam Long: IT and knowledge in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 Om Borana: IT and business Do you guys turn your phones in during the school day? • No, I don't. We are allowed to use phones under the teacher's instructions
3	프로그램	그룹 미팅
	주요내용	토의를 통해 그룹 프로젝트 미션을 4가지 이상 선정하였다. <u>우정 (Group A):</u> Chosen Topics: 1. Set a Group Name 그룹 이름 정하기 2. What is your MBTI? how relevant your results with your personality and discuss it with your buddy. 당신의 MBTI는 무엇인가요? 검사결과와 본인의 실제 성격이 유사한지 버디와 이야기 나누어 보기 3. Food presentation preferably signature dish from each other's country/ province/district (submit the photos of the dish, signature spices, cand the brief explanation) *inform what makes the dish special 음식, 그중에서도 되도록 각자의 나라/지역/고장만의 고유한 음식에 대해 왜 특별하지 설명하기 (음식의 사진, 주요 재료, 짧은 설명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4. Pick a theme of location, take a picture, and submit it (ex. In my room, in the supermarket, in a city landmark etc.) 테마를 정해서 그룹 멤버 모두가 각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기 (ex. 우리동네, 산 등) 5. Follow the emoticon on your smartphone, take a picture of it, and submit it (OK even if it's multiple people or alone).스마트폰의 이모티콘 따라해 보고, 그 모습을 찍어서 제출하기 (혼자여도 여러명이어도 OK)

3	주요내용	미래의 직업 (Group B): Chosen Topics: 1. Set a group name /그룹 이름 정하기 2. Make a simple travel plan for Korea & Cambodia introducing your country and submit it (recommended place, OO only in my town, etc.)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간단한 한국& 캄보디아 여행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기 (추천 장소, 우리동네에만 있는 OO, 등) 3. Share the link of the music video of your favorite native singer and share the reason you like the music video. / 가장 좋아하는 자국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공유하고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말하기 4. Food presentation preferably signature dish from each other's country/province/district (submit the photos of the dish, signature spices, and a brief explanation) * inform what makes the dish special / 음식, 그중에서도 되도록 각자의 나라/지역/고장만의 고유한 음식에 대해 왜 특별한지 설명하기 (음식의 사진, 주요 재료, 짧은 설명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5. Draw and submit a portrait of a member of the group / 상대 국가 멤버의 초상화를 그려서 제출하기 6. How do you gain peacefulness? and why? (When you feel down)/본인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과 그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 설명하기 (슬프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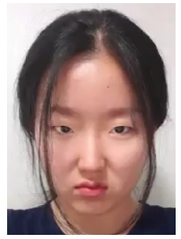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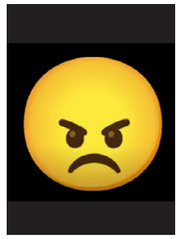
• 3일차 (2022.09.30)

구분	내용	
1	프로그램	캄보디아 문화발표
	주요내용	캄보디아 신전, 음식, 연휴, 유명 가수 등 문화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행사 Khmer New Year (April 14-16) • Day 1 • 새해 천사들을 위해 제사를 준비함 • 수도승들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설교를 듣기 위해 위해 초청함. • 모래산 행사 준비 Day 2, 3 •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선물 • 모래산 행사를 위해 수도승 초청 • 전통놀이 (Chol Chhoung Game, Scarf Hidden Game 등) Water festival • 12세기부터 시작되었음 (Angkorian King Jayavarman VII) •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사 • Boat racing, fireworks, floating light show, and giving offerings to the full moon 등을 진행함.

1	주요내용	Pchum Ben Day • 가족이 함께 쌀과 바나나로 케익 만듬. • 이 기간동안 저승의 문이 열려 조상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함. 전통 (춤, 종교, 음식, 의상, 무술) Apsara Dance (춤) • 전통 의상을 입고 추는 춤 • 악을 무찌르고 온 신과 왕족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 노로돔 보파데비 공주는 아스파라 춤을 외국에 선보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Religion (종교) = 90% 이상이 불교신자 Cuisines (음식) • Mi Kola (Kola Noodles) • Kuy Teav (Noodle Soup) • Nom Banh Chok (Khmer noodles) • Glutinous Rice • Coconut milk • Kapi (새우반죽 양념) • Prahok (소금과 함께 발효시킨 생선으로 만들어진 양념) • Banh Chaew (부침개 같은) Deserts (디저트) • Mango and Sticky rice (망고와 찹쌀) • Sticky Rice Banana Cake • Khmer Layer Cake • Mung Bean Pudding • Pumpkin Custard • Glutinous rice ball (콩과 땅콩으로 채워진 디저트) • Nom Lote Traditional Costumes (전통의상) • Krama = 허리와 머리, 손목에 감싸는 스카프 • Sarong = 시골에서 여성들이 많이 입음 • Sampot = 치마처럼 허리를 감싸는 사각형 천 • Sampot Phamuong = 사랑받는 직물, 52 colors, diverse patterns in geometric shapes • Sampot Chang Kben = 대부분의 여성이 특별한 날에 입음 Bokator (무술) • 크메르 왕(King Suryavarman II)들에 의해 만들어진 무술이라고 생각됨 인사법 Sampeah (삼페아) → 캄보디아식 인사 (감사, 사과, 존경, etc.) 1. Hold hands to chest (친구와 같은 나이의 사람)

1	주요내용	2. Fingertips to mouth (Boss, older person, or higher ranking) 3. Fingertips to the nose (Parents, Grandparents, Teacher) 4. Fingertips to eyebrows (왕, 수도승) 5. Thumb to eyebrow (신, 성스러운 조각상) 가수 Famous Singer (유명가수) • Sin sisamuth→ 과거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 Vannda(rapper) → 현재 가장 유명한 래퍼 • 14시간만에 백만뷰 = 크메르 노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음
2	프로그램	최종발표
	주요내용	그룹 프로젝트로 시행한 다양한 미션들의 결과를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했다. 우정 (Group A): 공동과제: 간단한 소개와 함께 5가지 미션활동을 빠르게 훑는 영상을 제작하여 발표함

#	미션	결과/예시
1	그룹 이름 정하기	Modu Mouy
2	MBTI	소다니타 – INFJ 이라온 – INTP
3	나라/지역 고유의 음식 소개하기	 캄보디아 – Nom Banh Chok 한국 – 송편

2	주요내용	4	테마에 맞는 사진 제출하기 (테마: 상대국에 없는 것)	 한국에 없는 Temple 캄보디아에 없는 눈 (Snow)
		5	이모티콘 따라하기	 

토의결과: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함

1. 온라인상으로 만난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나요? Can online friends become true friends?
2. 남녀가 친구가 (이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될 수 있나요? Can men and women be JUST friends?
3. 친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What is the definition of “friends”?
4. 친구가 힘든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나요? Must a friend help you go through tough times?

미래의 직업 (Group B):

토의결과:

•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 주제로 이끌렸습니다.
• 꼭 이 주제가 아니여도 교류를 쌓으며 다양한 경험 및 우정을 쌓고 싶었습니다.

2	주요내용	미래에는 어떤 산업 분야가 유망할 것 같나요? • 공통: AI 와 IT 관련 산업 • 한국: 심리 분야 • 캄보디아: 미디어 분야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Realization = Vivid Dream 공동과제: 1. 팀명: Woorineun Mouy 2. 양 국가간의 여행코스짜기 1. 한국 – 광안리 2. 캄보디아 – 앙코르와트, 프놈 바컹 좋아하는 자국 가수의 뮤직비디오 소개 및 이유 설명 1. 한국 – 태연 2. 캄보디아 – 반다 각 나라의 고유 음식 소개 1. 한국 – 김밥 2. 캄보디아 – 피쉬 아목 서로의 초상화 그리기 1. 지호 & 람롱 2. 은섭 & 보라나 3. 주원 & 톨라 칠 4. 예진 & 칸차나 마음이 착잡할때 어떻게 평화를 얻나요? 1. 한국 –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털어놓는다.
3	프로그램	마무리
	주요내용	대표단 소감발표와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대표단 소감 발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년 캄보디아와 국가간 청소년 교류에서 한국 대표단의 대표를 맡은 이지호, 통역 김다휘라고 합니다. 올해의 교류도 지난 몇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데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많은 온라인 미팅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환경에 편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류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게되고, 상대국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뜻깊은 활동이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교류가 끝이나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상대국 대표단과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국의 언어라던지,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와 하루 일과에 대해 배우며 더욱 관계가 돈독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캄보디아 학생들과의 공식적인 교류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는 하나, 라는 저희의 팀명 처럼 앞으로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같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다. 주제에세이

구분	이름 · 역할	주제에세이	
1	이지호 (대표)	주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내용	올해 나에게 참 많은 일들이 생겼다. 이번 학년도에 학교를 세번이나 바꾸며 너무나도 다른 환경 등에 익숙해 지느라 무슨 일들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새로운 일들에 무뎌진 것 같다. 또, 바쁜 와중에도 이번 방학은 4달이라는 유난히 긴 시간이 주어져 살면서 가장 바쁜 나날들을 보내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2022년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이다. 사실 이번 방학동안 총 14개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런 온라인 활동이 점차 익숙해져 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이 교류활동을 시작할때만 해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때라 많은 기대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점점 참여를 하면 할수록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에 내가 더 이 활동에 기대를 하게 되고 더욱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며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에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또, 이번 교류는 캄보디아측 대표단과 함께하며 다양한 캄보디아 학생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캄보디아 학생들과 교류하며 느낀점은 우리가 비록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내는 환경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류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미팅을 잡을 때 어떤 한 친구는 집에 인터넷이 안터져 미팅을 참여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집에서 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 학교 교과서 앞에 그림을 그려 과제로 제출할 때도 있었다. 2022년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를 통해 이런 다양한 환경에 놓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앞으로 우리 인류는 더욱 더 지역 간의 차별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지역들의 노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또, 이 교류활동은 내가 세계시민으로써 성장할수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 미래의 인재가 되어 세계화의 정의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질의라고 불리는 빈곤, 물, 전쟁, 평화 유지, 공해, 에너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있는 멋진 참가자들이 나왔으면 한다. 이 에세이의 주제인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말자” 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나중에 없어져 뒤늦게 후회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은 갑작스러운 변화들 때문에 다양한 관계가 만들어 진 것도 있지만 이 좋은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를 통해, 나중에 살면서 한번 씩 생각나는 그런 활동과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더욱 열심히 활동해 내 미래에 친구들과 자식들에게 “나는 이런 활동을 했었다” 라고 할 수있는 자부심 넘치는 교류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2	이유진 (부대표)	주제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를 통한 나의 발전
		내용	이번에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나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교를 바꾸기 전까지,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마치 나만 제자리에 있고, 무언가 방황을 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또한, 십 대의 끝자락을 향해가는 만큼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기었다. 나의 전공, 직업, 살고 싶은 나라, 가치관 등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 무언가를 시작하자"였다. 그리고 그것의 첫 시작은, 바로 2022년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였다.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활동은 나를 한 층 더 성숙해지게 만들었다. 우리 한국 대표단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한국의 문화 발표 준비, 캄보디아 청소년 대표단과의 토의 활동, 그리고 캄보디아의 문화 발표를 경청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활동은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대표단을 지도해 주시는 퍼실리테이터 선생님이 계시기는 하였지만, 선생님께서는 방향만 제시를 해주실 뿐, 모든 활동은 우리의 손으로 시작해 우리의 손으로 끝마쳤다. 사전 미팅을 주도하는 것, 발표 준비를 하는 것, 어떠한 매체로 발표를 할 것인지, 사후 활동으로는 어떠한 활동을 진행할지 등 우리의 손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스럽게 빚은 이번 활동은 나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특히 내가 한국 측 문화 교류 발표와 캄보디아 대표단과의 미션 발표 등 발표의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 평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나의 능력 하나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를 경험한 것 같다. 발표뿐만 아니라, 부대표로서 이번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그리고 사후활동으로서 이번 활동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만듦으로써 내가 한 층 더 발전하게 된 것 같다. 이렇듯 이번 교류 활동은 나를 전반적으로 한 층 더 성숙하고 나의 스킬들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또한, 나는 캄보디아 측 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과학 기술의 발전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또 대중화시키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다. 캄보디아 측과의 교류 활동 중, 캄보디아 대표단 중 몇 명은 인터넷, 카메라, 마이크, 프린터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일상 속의 과학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것을 모두가 쉽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싶다. 나중에 과학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국가 간 청소년 교류가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등 더욱더 풍부하게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물론 나도 그러한 분야 중의 일원으로서 기여를 하고 싶다. 이번 2022년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는 나를 한 층 더 성숙하고 발전시켜주었다. 또한, 미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중화시키고 싶다는 나의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문화 교류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가지게 되었다는 행운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

3	김신영 (교류활동)	주제	다양하기에 아름다운 지구촌
		내용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어느때보다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다. 소통과 왕래가 쉬워지면서 각국의 사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이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상호 연결성 및 의존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제 세상을 한 마을처럼 생각한다는 뜻을 담아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한 마을같은 형태를 띄게 되더라도 지구는 다채로운 문화로 가득 차있다. 문제는 문화다양성과 세계화가 교차하게 되면서 일어난다. 사람도 야생의 동물과 같이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자신의 "하드웨어(정보 상자)"에 입력되어 있지 않기에 그 새로운 것이 위험요소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처음 접하는 것을 자신의 "하드웨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싶어하며 이 분류를 위해서 성별, 인종, 국적, 나이 등과 같이 빠르게 수집될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한다. 다른 말로 자신이 이미 믿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람을 판단해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편견으로 이어진다.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될 상황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와 존중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편견으로 대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직접 타 문화의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가간 청소년교류만 봐도 그렇다. 교류를 통해 캄보디아 대표단을 캄보디아 사람이나 크메르족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로 보게되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편협한 시선이 잘못 되었음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하드웨어에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면서 시각이 넓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지구촌의 다양성에 놀라고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4	손예진 (서기)	주제	너 자신을 알라
		내용	교류활동을 하면서 물론 다른 나라와 문화적 교류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깨달은 점 또한 많지만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 깨달은 점이 더욱 많아서 자아성찰에 관한 내용을 에세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아성찰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구문이 있다면 바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구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과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내내 망설였던 미래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고 더욱 세밀하게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5	이은섭 (사진촬영)	주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추억
		내용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 처음으로 전교 임원이 되어 보기도 했고, 내 적성을 살린 다양한 일들을 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인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번 활동은 사회 선생님께 추천을 받은 활동이었다. 문화교류라는 활동을 처음 들었을때는 낯설기도 했지만, 외국 친구들과 대화해보고 싶은 내 개인적 소망이 이 활동에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 대표단으로 선발되어 두 달 동안 정말 값진 경험을 했다. 모든 과정이 순탄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문제와 서로 간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표 당일까지 대본을 작성하고 PPT를 만드는 등 급하게 마무리한 감이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발표하는 당일까지도 매우 불안했다. 발표자들이 대본을 읽는 것에 맞춰서 PPT를 넘기는 연습들도 하지 못해서 발표 시에 개인 노트북으로 대본을 보고, 발표용 컴퓨터로는 PPT를 넘기면서 겨우 끝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내가 2달 간의 기억들을 "인생에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추억"이라고 한 이유는 그 힘듦을 덮고도 남을 즐거움과 행복함이었다. 처음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났을때부터 지금까지도 행복하고 즐거웠다.. 나라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게 너무 아쉬웠고, 회의를 하며 언젠가는 꼭 만나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3차 교류로 인해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때는 너무 기뻤다. 캄보디아 대표단을 실제로 만나지 못해서 매우 아쉬웠지만, 화상으로라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는 내 자신을 더욱 보완시켜갔다. 내 머리 속에 은연하게 심어져있던 편견들을 없애고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도 키웠다. 또한 같은 팀원들한테서도 배울 점이 정말 많았다. 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세계 시민을 향해 한 발자국 더 걸어갔다. 이를 활용해 나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여, 그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해주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분들과 2달동안 같이 교류하느라 수고한 같은 팀원분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잘 전달하여 문화교류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힘써주신 통역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	이라온 (자료수집)	주제	더 넓은 세상에 있는 친구!
		내용	나는 친구와 있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었다. 그때 "학교에만 시야를 두지 말자"는 조언을 들었고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어른이 다음날 가는 곳은 회사 밖에 없듯이 학생들은 거의 학교로 간다. 어른과 학생에 다른 점은 어른이 회사 밖에 즐길 거리와 여유를 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건 내가 견딜만한 상황인지 좀 더 잘 알고 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 초등학생이 괴롭힘 받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 못하고 견디듯이 회사 초년생도 버티다가 깨닫곤 하니까. 어른이 다음날 가는 곳은 회사 밖에 없듯이 학생들은 거의 학교로 간다. 어른과 학생에 다른 점은 어른이 회사 밖에 즐길 거리와 여유를 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건 내가 견딜만한 상황인지 좀 더 잘 알고 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 초등학생이 괴롭힘 받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 못하고 견디듯이 회사 초년생도 버티다가 깨닫곤 하니까. 사람이 자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시야에 보이는 건 학교밖에 없다. 학교에서 외로운 게 그들의 인생이 되고, 학교에서 우위에 서는 게 모든 걸 가진 것 같다. 옛날에 학교가 붙어있으면 학교 VS 학교로 패싸움이 나듯, 그 학교가 그들이다. 낮 시간의 반을 차지하는 학교가 끝나면 학생들은 다른 학교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 그들이 학원을 가든, 분식집을 가든 그들의 생활권은 학교 중심의 지역 내이고 옆에 있는 건 학교 친구이다. 그래서 가끔 나는 학교에서 친구가 없으면 난 세상에서 혼자인 사람같이 느낀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친구들이 떠드는 걸 보면서 속으로만 말 많아지는 가장 괴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밖에 친구를 두기로 했다. 우리는 온라인 프로그램 zoom을 통해 만났다. 부산에서 온 사람, 서울에서 온 사람들과 바로 친구가 될 수 없었다. 말을 틀 수도 없었고.. 나는 대화에 낄 타이밍을 못 잡는 사람이다. 내 목소리가 괜찮게 들릴까 하는 생각부터 내가 말한 후에 분위기가 싸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직접 만났다면, 나의 이런 단점을 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주섬주섬 이어지는 대화를 듣다가 내가 중간에 말을 끊을까봐 말을 못했다. 나중에 보니까 온라인 대화는 원래 중간에 끊기고 하는 거더라. 그 다음에 이어지기도 하니까. 그리고 꼭 과제와 연관된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냥 생각나는 말을 했어도 그게 "나" 였을 텐데. 갑자기 키우는 애완동물 있는지 물어본다면 나는 동물을 좋아하는 "나" 인거고, 각 지역 특산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한국지리 좀 아는 "나" 인 것이다. 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특징의 사람들을 만나는 건 즐거웠다. 카톡을 두 달간 주고 받으면서 한 사람에 관해 계속 새롭게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을 바로 옆에 있는 친구처럼 입체적으로 느끼게 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아는 특징의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었음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나와 꼭 맞는 친구가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나는 내 특징 그~대로 고수하지 않고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따라 변화를 줘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예를 들면 소심한 사람이 사교적인 친구를 만나고 좀 더 사교적으로 말해 본다든가, 대화에 유머를 섞어 본다든가..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을 만날수록 배울게 많고 내가 말하는 방식에서, 행동에서, 인식에서 더 발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7	임서진 (총무)	주제	모두가 생각하는 “우정”이라는 개념은 똑같을까?
		내용	이번에 캄보디아 대표단과 우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우정이란 개념을 다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모두가 활동적으로 임하기에는 어려웠지만 모두 자신만에 뜻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이성 친구가 가능할까 라는 주제였고 놀랍게도 한국 대표단과 캄보디아 대표단의 의견이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이 반으로 나뉠때도 있었지만 주로 개인마다 각자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했던 상황이 다르고 그때마다 느꼈던 감정들이 다르다보니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같은 나이대라도 똑같은 사람은 없기에 모두 비슷한 생각과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로 토의를 하든 모두 다 같을 수는 없기에 이 점이 굉장히 특별하게 또 놀랍게 여겨집니다.
8	이주원 (홍보대사)	주제	중요한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참여하자
		내용	이번 교류처럼 다시 오지 않을 기회는 꼭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한 팀원이 되면 져야 되는 책임감 같은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하는 것을 많이 꺼려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참여해서 활동들을 하고 나면 뿌듯함과 내가 이걸 해냈다는 생각에 저절로 기뻐지고 한층 성장해가는 것을 너무 느낍니다. 다른 친구들도 꼭 중요한 기회가 있다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4 개인소감문

구분	이름역할	개인소감문
1	이지호 (대표)	8살이라는 어린나이때부터 해외에서 거주하며 참 많은 것을 경험했다. 좋게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의 관계부터 가벼운 인종차별들까지.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점차 익숙해지다보니 국제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둔해진 것은 사실이다. 내가 이번 2022 국가간 청소년 교류에 지원하게 된 계기도 이와 같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내가 자신있고 익숙한 국제 교류와 관련 된 활동을 찾던 중 본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어 지원해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에 내가 이 프로그램에 합격해 들었던 생각은 &내가 자신있는 분야니 부담없이 잘 해낼 수 있을꺼야& 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욱 더
1	이지호 (대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활동이고 대표까지 맡게 되며 책임감이 더 강해졌다. 이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과 더욱 더 돈독해지고, 상대국과 교류를 할때면 상대국 대표단과 대화하며 추가 미팅을 잡을 때도있었다. 비록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있어 그 것을 해결하려는데 우리 모두가 힘썼지만 결국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하려는 모습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교류활동에 대한 편견이 많이 부끄러웠다.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꼼꼼하게 행동해야 모든 것들을 빼먹지 않고 우리 팀을 잘 이끌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배운 점은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말자이다. 내가 처음에 너무 이 활동에 대해 편하게 생각했던 탓에 놓치는 부분도 많고 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것도 같다. 운 좋게도 좋은 팀원과 담당선생님들을 만나 많이 배우고, 본 프로그램과 국제교류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더 깨달은 것 같다.
2	이유진 (부대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항상 기대되고 설레는 일이다. 새로운 문화, 언어, 음식, 기후 등 나와는 온전히 다른 세상 속의 사람의 세계에 내가 발을 딛는 일이니까 말이다. 끝이 없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세계화는 하루하루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을 온 세상을 배경으로 교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2022년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대표단들과 교류를 한 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캄보디아 대표단들과 교류를 하면서 내가 먼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부서지기도 하였다. 캄보디아 대표단 또한 우리 한국 대표단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비슷한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이렇게 서로의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세계화를 향해가는 요즈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이 점을 미리 연습하고, 배우게 되어 좋았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나의 목표가 생기었다. 요즈음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 미래에 IT와 관련된 분야로 뻗어 나가고 싶어 여러 가지 컴퓨터 언어와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 교류 활동 중 캄보디아 대표단 중 몇 명이 인터넷, 마이크, 카메라, 프린터기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과학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현재의 과학 기술은 완벽하지 않기에, 이 점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렇게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뒤에 모두가 평등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를 대중화시키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었다.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나의 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아서 활동에 더욱더 애착이 간다.
3	김신영 (교류활동)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과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은 나에게 항상 설레는 일이었다. 국제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2022 국가간 청소년 교류’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이 분야에 관심이 없더라도 세계화가 빠르게 일어나며 다른 나라와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관계와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는 나에게 ‘2022년 국가간 청소년교류’는 평생 명심해야 할 교훈을 주었다. 우리는 대개 5초 안에 누군가의 첫인상을 판단한다고 한다. 나라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우리는 미디어, 뉴스, SNS를 통해 접하게 되는 한 나라의 일부분만 보고 ‘아, 저 나라는 저렇구나’라고 판단해버린다.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BTS, 드라마, 화장품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인들은 수학을 잘하고, 대부분 내성적이며, 모두 김치를 먹을 것이라는 편견 또한 이러한 쉽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몇개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다. 사실 캄보디아는 나에게 무척 생소한 나라였다. 사전조사를 하긴 하였어도 어느 순간 보니 나도 모르게 인터넷 매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인 &절 (temple), 불교, 열대기후&

3	김신영 (교류활동)	등으로만 캄보디아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막상 캄보디아 대표단을 만나보니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인구의 90%가 불교신자인 만큼 절이 무척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의미와 용도가 다양하며 예술적 가치도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문화차이로 인해 의견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편견과는 달리 우정에 대해 토의할 때 캄보디아 대표단은 한국과 무척 유사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모든 나라는 그 나라만의 특색과 깊이가 있기에 다름은 존중해야하지만 결국에는 한 지구촌의 일부라는 것을 이번 교류를 통해 배웠다.
4	손예진 (서기)	몇 년 전 동남아시아권으로 다녀온 몇 번의 어학연수 경험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번 국제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된 계기 또한 캄보디아라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교류이니만큼 과거 동남아시아에 체류했었던 내 경험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사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단계까진 이 활동을 가볍게 생각했었고 과거 다른 나라와 문화적 교류를 했던 경험으로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었다. 하지만 막상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팀원들과 모여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막연히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되게 나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반성할 수 있었다.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사는 편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팀원들을 보고 난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었다. 또한 캄보디아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 때 나름 영어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문장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엄청난 현타를 느꼈다. 문화 교류를 통해 다른 부분에서도 느낀 게 많지만 난 이처럼 나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절망에 빠지기보단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다.
5	이은섭 (사진촬영)	문화 교류라는 활동을 처음 들었을 때는 생소하여 엄청 끌리지는 않았지만 인생에서는 다시는 없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하여 지원하였고,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선발되어 국가 간의 문화 교류라는 값진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매우 진지할 것 같고, 실수를 해서 팀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되겠다는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참여하고 보니 오히려 편하고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어 좋았으며,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활동을 통해 값진 경험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은연중에 지니고 있던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들을 많이 없애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마음을 더욱 키울 수 있었으며, 세계 시민으로서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느낌입니다. 사실 이번 활동을 하기 전에도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하며 캄보디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함께 공동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 세계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성하며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배우게 되었고, 제가 활동 기간 동안 사람들을 통해 얻고 배운 것을 언젠가 제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꼭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	이라온 (자료수집)	처음 참여한 학교 밖 교류활동에 설랬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이 특별했고,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신기했습니다. ㅇ₩ㅇ 낯선 캄보디아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의 생활도 우리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문화발표를 통해 여러가지를 알게됐습니다. 캄보디아에 유명한 가수 반다에 대해 말해 줬는데 나중에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아름다운 사원들이 많다는 걸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저 사원들을 보러 캄보디아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사원의 모습이 황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저런 문양과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특이한 형태들은 현대에는 나오지 않고 과거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작품이 그 시대를 상징하듯이 지금의 문화유산은 지금 시대를 상징해야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많이 보이는 저 직육면체 건물들 중 튼튼한 것들은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남을 겁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알고있듯이 저도 세계로 시선을 넓혀야겠습니다. 특히 관련되서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문화 발표 중 &킹덤&, &스위트홈& 드라마 언급할 때 줌화면 너머로 고개 끄덕이는 캄보디아 친구를 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내용을 저 너머의 친구가 똑같이 알고 있고, 그래서 관심사가 통한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 친구도 그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겠지요? 그런 내적인 공통사를 또 다른 친구하고 더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부터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교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나라의 유명 영화나 가수,대표 건축물, 음식 등을 경험해보고 교류때 언급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선 편지로 교류했는데.. 꼭 한줄 적을 겁니다. &너희 나라 000 봤는데 멋있더라!& 라고요.
7	임서진 (총무)	어렸을때부터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이유로 저는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국제적인 일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러다 우연히 이 청소년국제교류 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면접을 보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한명의 일원으로서 이 교류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많았고 잘 해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이라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너무도 좋은 팀원들을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과 소통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외국인을 향한 저의 편견을 없애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부터 정의하진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값진 기회를 얻었고 국제교류가 무엇인지 한 발자국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8	이주원 (홍보대사)	중학교 때 전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에 추천으로 미국 부에나파크에서 교류를 했던 적이었었는데요 전혀 관심 없던 학생이었고 영어도 잘 못하는 학생이어서 더더욱 흥미를 못 느낄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의 학교나 문화생활 또 그 주변 마을 생활까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기하고 배우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배움이 많고 즐거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캄보디아 교류에 신청하게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주므로 진행되어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또 그로 인해서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청소년을 대표해 교류를 한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책임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한층 성장해진 것 같습니다.

9	안성호 (통역)	캄보디아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한국 문화와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가며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문화에 대해서도 깊게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	이보민 (통역)	한국-캄보디아 교류 행사의 통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국가의 청소년들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으로 느끼며 저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해는 지고 갈 길은 먼데 새로움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 또 다시 지금의 마음을 간직하며 새로움을 향해 걸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11	조유경 (통역)	더욱 넓은 세계가 있다는 막연함을 해소하는, 가시적인 경험을 얻었으며,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기울일 줄 아는 태도를 배웠고, 캄보디아 친구들도 국가 다를 뿐 소중한 꿈과 생각을 지닌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의 시각이 더 넓어질 수 있었다.
12	김다휘 (통역)	안녕하세요, 2022 국가간 교류에서 캄보디아 통역으로 참여한 김다휘입니다. 처음 통역으로 선발되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면접 당시 순차통역을 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주제가 주어져 통역이 수월하지만은 않았는데, 이번 교류에서 통역요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감사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교류 1, 2일차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3차라도 함께 만나서 진행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수도명이나 앙코르와트와 같은 유명 유적지를 제외하고는 다소 생소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교류 전 배경지식을 공부하고, 교류 도중 캄보디아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문화, 관습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캄보디아에서의 인사법은 합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합장하는 손 위치의 높이가 인사를 받게 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였습니다. 3일 간 교류에서 통역을 하고, 교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크립트와 발표 자료(PPT) 등을 번역하면서, 예상보다 번역할 자료량이 상당하여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능력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사실 이번 교류에서 저희 Goup B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측의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접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원활히 소통하지 못하는 등 몇 차례 난관에 봉착하기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영 통역을 맡았었는데, 상대국에서 영어를 능통하게 하지 못하기에 여러 차례 통역을 반복하거나,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해 말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조금 답답하거나 당황스러운 순간도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위기를 대처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할 것 없이 모두들 정말 열정적으로 교류에 임해주었지만, 저를 비롯해 같은 그룹 내 통역요원분과 코디, 퍼실리테이터 등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 대표단 학생들 중 특히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함께 했던 Group B 학생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고 함께 해서 즐거웠다는 말을 반드시 남기고 싶습니다. 모두 열심히 활동해 준 결과 모든 일정을 차질없이 소화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면 내년에도 통역으로 활동해 보고싶습니다! 값진 경험 만들어 주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여성가족부에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5 자체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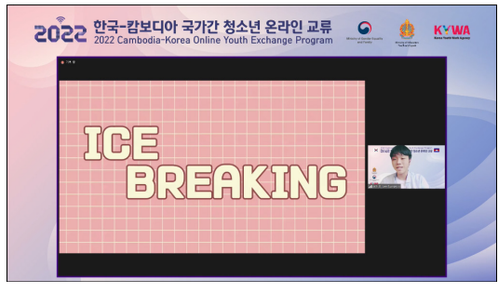
구분	평가
목표대비 달성도	■상 □중 □하
좋았던 점	1. 목표했던 대부분의 일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음. 예를 들어 문화발표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 나누고 싶었음. 따라서 8가지 주제를 분담하여 각 팀원이 조사해온 후, 드라마 클립을 인용하여 간단하고 재밌게 소개함. 2. 9월 30일 마지막 교류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캄보디아 대표단과 연락이 되어 좋았음. 3. 대부분의 대표단 청소년이 매 미팅에 참석해 양질의 자료를 준비해 발표 할 수 있었던 것 같음. 4. 한 팀으로서 모두 책임감을 갖고 맡은 일들을 성실히 마쳤음. 캄보디아 대표단과 소통을 할 수 있었음. 5. 캄보디아 측과 한국 측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한 덕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음. 6. 캄보디아 친구들과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음, 교류시간 외에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친구같은 느낌이 들었음.
아쉬웠던 점	1. 캄보디아 대표단과의 소통이 아쉬웠음. 몇몇은 적극적으로 토의활동과 미션활동에 임해 주었지만, 몇몇은 연락과 참여유도가 어려웠음. 2. 캄보디아 측과의 연락 문제로 인하여 발표 준비가 최종 발표 당일에 끝나서 준비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아쉬웠음 3. 캄보디아 측과 소통을 잘 하고 준비하는데에 있어 이해도가 높았다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음 4. 교류시간 말고 텔레그램으로는 더 잡얘기들 해볼껄 하는 아쉬움이 듬, 진짜 친구처럼 잡다한 얘기들 다 해봤으면 서로 나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교류가 끝난 후에도 연락을 유지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을것 같음.

6 차기 참가자를 위한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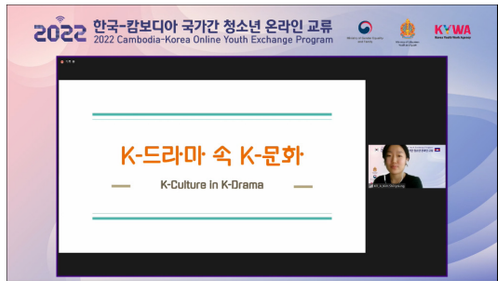
구 분	조언 내용
사전활동	•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결례가 될 수 있기에 교류국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조사하기. • 팀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도 다들 좋은 분이고요. • 빨리 팀원들과 친해지는 게 좋고 다음번에도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사전활동 때 줌으로 최대한 많이 모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더 나은 방향과 빠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팀원들과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분위기가 편해져서 좋았습니다.
교류활동	• 통역을 거쳐야한다는 점 항상 명심하기 • 만약 상대국 대표단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질문을 다수에게 던지지 말고 특정한 사람에게 질문하기

교류활동	• 상대국 대표단의 말을 못 알아 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줌의 챗팅 창에 쳐달라고 하기. • 팀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도 다들 좋은 분이고요. • 아무래도 처음이고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상대국 대표단과 의견을 나누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먼저 이끌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있을 교류를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 교류활동이 평일날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너무 많이 쓰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교류활동 때 써야하니까요! 저는 3일 정도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 과제만 하려고 모인 팀원이 아니라 친구가 되려고 모인 친구로 생각하고 자신을 더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통역	• 기참여자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은 억양에 대한 대비입니다. 억양이 센 경우 청해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대국의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차 문의하는 자세가 준비되면 대처하기에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또한, 예측하지 못한 난관에 융통성있고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넓은 마음가짐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교류 국가에 대한 배경지식 쌓기 • 통역 시 발생하게 되는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본래 의미가 잘 담기게 통역하기 • 청소년들의 발언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통역의 포지션 잘 지키기 • 모든 상황에서 집중하고 긴장감 놓지 않기
기타제안	• 이 활동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중간한 마음으로는 참여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할 자신이 있으며, 남들의 의견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 지원하신다면, 이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주 동안 교류를 해야할 때, 줌으로 약속을 잡기 어렵다면 텔레그램으로 단톡방을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답변들을 잘 해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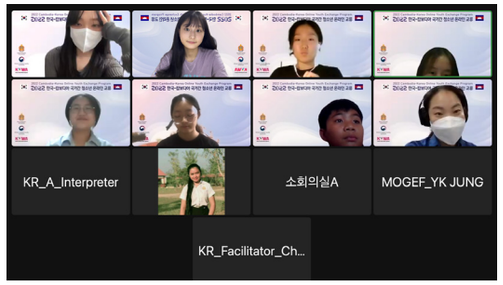
7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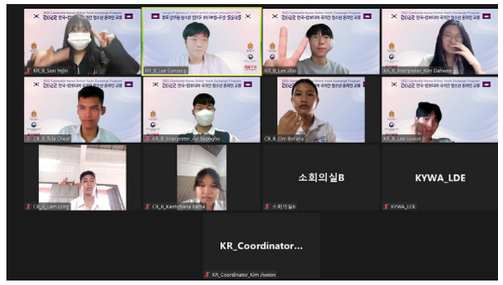
(1일차) 아이스브레이킹



(1일차) 문화소개 발표



(2일차) 그룹 A 토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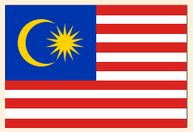
(2일차) 그룹 B 토의활동

(3일차) 단체사진

(3일차) 폐회식

8 기타 활동자료 목록

붙임	구분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유형
1	사전	문화교류 (통합자료)	문화교류발표를 위해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 조사해온 내용을 종합한 자료	Google Docs
2	사전	그룹 A – 우정 Friendship 토의활동 사전조사 (통합자료)	토의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그룹 A 팀원들이 각자 조사해온 내용을 종합한 자료	Google Docs
3	사전	그룹 B – 미래의 직업 Future of Work 토의활동 사전조사 (통합자료)	토의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그룹 B 팀원들이 각자 조사해온 내용을 종합한 자료	Google Docs
4	교류	문화교류발표 – PPT	문화교류 발표를 위한 PPT	PPT
5	교류	문화교류발표 – 대본	문화교류 발표를 위한 대본	Google Docs
6	교류	문화교류발표 – 통역대본	문화교류 발표를 위한 통역 대본	Google Docs
7	교류	아이스브레이킹 – 밸런스게임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한 밸런스게임 발표 PPT	PPT
8	교류	아이스브레이킹 – 진진가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한 진진가 발표 PPT	PPT
9	교류	그룹 A – 미션활동 영상	그룹 A의 미션활동을 정리한 영상	MP4
10	교류	그룹 A – 토의활동	그룹 A의 주제 &우정&에 관해 진행한 토의활동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위한 PPT	PPT
11	교류	그룹 A – 미션활동 발표	그룹 A의 미션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한 발표	Google Docs
12	교류	그룹 B– 공동과제 PPT	그룹 B의 미션활동 발표를 위한 PPT	PPT
13	교류	그룹 B – 토의활동	그룹 B의 주제 &미래의 직업&에 관해 진행한 토의활동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위한 PPT	PPT



말레이시아

결과보고서

교류팀명	교류일정	교류인원
Sponge (스펀지)	2022.8.13.(토), 8.14.(일), 8.27.(토)	20명 (청소년 16명, 통역 4명)

1 기본사항

사업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말레이시아	교류팀명	Sponge (스펀지)
교류기간	2022.08.13.~2022.08.27. (1차) 2022.08.13. (2차) 2022.08.14. (3차) 2022.08.27.	교류인원	20명 (청소년 16명, 통역 4명)
활동목표	1. 서로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 교류 및 이해 2. 말레이시아 언어와 음식 숙지 3. 한국 대표 간의 친목 도모		
활동 계획	사전	1. 회화 표현 10가지 이상 습득하기 2. 한국 대표단 친목 도모 활동 (한 국 대표단 자기소개 프로필 인스타그램 업로드) 3. 국내 말레이시아 음식점 방문 (락사 등 말레이시아 전통음식 체험해보기) 4. 정기적 자유 회의	
	교류	1. 관광지 (+ 거주 지역 소개) –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소도시 위주 구성 2. 국내 음식 소개 3. 최신 유행 문화 (K-POP, OTT 서비스를 활용한 국내 드라마, 영화 관련) 4. 한국 교육 환경 소개	
	사후	1.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 업로드 2. 말레이시아 친구들과의 SNS 교환하기	
활동 결과	사전	– 역할 정하기: 대표, 부대표, 총무, PPT, 홍보, 서기 – 문화 발표 준비: 매주 전체 회의와 팀별 회의를 통한 PPT, 영상, 대본 구성, – 음식, 교육, 문화, 관광지 4개 팀 멤버 구성 – 문화 발표를 위한 4개 팀별 영상 제작 – 인스타그램 개설(아이디: spo._.nge) – 멤버별 카드 뉴스 제작 후 업로드 – 팀별 사전 조사 내용을 카드 뉴스로 제작 후 업로드 – 팀 홈페이지 개설: https://kmsponge2022.creatorlink.net – 홈페이지에 팀별 진행 상황, 자료조사 내용 업로드 – 교류국에 대한 사전 학습활동: 대표단 중 말레이어 전공생을 통해 공유해 준 자료로 기본 인사말 학습, 자료조사를 통한 말레이시아 전통 의복 및 최신 유행 트렌드 파악 – 그룹 토의 주제(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의 직업, 정신건강,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 회복력 강화)에 대한 자료조사 수행.	

활동 결과	교류	– 아이스 브레이킹: 진진가 게임, 어릴 적 사진 맞추기, 한국 음식 및 연예인 조각 사진 맞추기 등을 통해 서로 가볍게 알아가는 시간 가지기 – 문화 교류 발표: 한국의 관광지, 음식, 패션, 교육에 대한 소개 PPT 발표 및 교류국에서 준비한 교류국에 대한 소개 발표 경청 – 토의그룹 활동: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의 직업, 정신건강,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 회복력 강화의 4가지 주제로 사전 자료조사 진행 및 다양한 소주제에 대해 교류국 대표단과 토의 진행 – 공동과제 수행: 각 팀 내에서 교류국에 대해 서로 더 알아갈 수 있는 개성 있는 미션 등을 계획하고 팀별로 실행(교류국의 음식 서로 먹어보기, 교류국의 전통 놀이 배워보기, 교류국에서 유행하는 언어 배워보기, 각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공유하기 등) – 교류국 선물 구입: 한국 대표단 내부 회의를 통해 교류국에 선물할 선물 준비(인센스 스틱, 전통 압화 항아리 캔들) – 보고서 작성: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 프로그램 결과물 정리	
	사후	–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홈페이지 –> 사후활동 –> 국제교류 활동 참여 후기 작성 및 주제 에세이 작성 후 업로드 – 결과보고서 및 평가회의록 제출 – 발표 준비 기간 중 생략된 부분 스펀지팀 홈페이지에 업로드 – 말레이시아 대사관 인터뷰 추진 – 말레이시아 관광진흥청 방문 후 관련 카드 뉴스 제작 – 다문화 관련 문화체험 프로그램 협업 추진 – 한국 – 말레이시아의 활발한 온라인 교류 방안 모색 – 말레이시아 대표팀과의 지속적 연락 및 영상 제작 – 한국 – 말레이시아 퓨전 음식 레시피 구상 및 공유 – 교류 이후 알게 된 말레이시아 문화 관련 카드 뉴스 업로드	
팀원 역할	성 명	역할	내용
	김가은A	교류활동 /타임키퍼	– 음식팀 카드 뉴스 제작 – 문화 발표 음식팀 PPT 내용 구성 및 제작 – 스펀지 대표단의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 및 업로드 – 토의 A팀과 문화 발표 자료조사 및 수집 – 공동과제 한국 일상 브이로그 촬영 및 제작
	김가은B	PPT	– 아이스 브레이킹 ppt 제작 – 문화 발표 관광지 자료 정리 (홈페이지) – 그룹 B 공동과제 자료조사
	김나경	부대표	– 한국 문화 발표 음식팀 회의 주도, 공지 사항 공고, 자료조사, ppt 내용 구성 및 제작, 카드 뉴스 내용 작성 – 사전과제 토의 활동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자료조사) – 공동과제 말레이시아 음식, 놀이 문화체험 영상 준비 및 촬영 –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발표 – 교류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팀원 역할	김나경	부대표	- 인스타 전체 회의 업로드 -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및 업로드
	김나연	교류활동	- 문화팀 자료조사 및 카드 뉴스 제작 - 아이스 브레이킹 발표 대본 작성 - 토의 활동 참고자료 조사 - 그룹 D 개인 영상 챌린지 영상 및 intro 영상 제작
	김민주	PPT	- 한국 문화 발표 자료조사 및 PPT 제작(문화) - 사전과제 토의 활동 참고자료(미래의 직업 자료조사) - 공동과제 말레이시아 음식 체험 영상 준비 및 촬영
	김빛고은	서기	- 스펀지 팀 회의록 작성 - 한국 문화 발표 회의록 작성 및 자료조사 영상, PPT 제작, 대본 공동 작성 (관광지 팀) - 사전과제 토의 활동 공통 자료조사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의 회복력 강화) - 토의그룹 A 한국 팀장으로서 활동 총괄 - 그룹 A 공동과제 개인 영상 준비 및 촬영 (유행어 알아보기 영상)
	김심성	교류활동	- 한국 교육 문화 자료조사 및 PPT 제작 - 한국 교육 문화 발표 영상 마무리 작업 - 사전과제 토의 활동 자료 조사(정신건강) - 그룹 D 서기, 공동과제 발표 PPT 제작, 발표 및 소감 발표
	류달헌	PPT	- 음식팀 피피티 제작 -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피피티 제작 - 말레이시아 회화 자료 제작 및 강의 - 공동과제 말레이시아 패션 영상 제작
	박민혜	총무	- 전체 회의 일정 조정 담당 - 한국 문화 소개 교육팀 자료조사 및 발표 - 사전과제 토의 활동 참고자료 (미래의 직업 자료조사) - 토의그룹C 팀장으로서 회의 주도 및 결과물 정리 - 공동과제 말레이시아 애국가 부르기 영상 촬영 및 편집
	박수빈	촬영	- 관광지팀 카드 뉴스 제작 - 관광지팀 경주 영상 촬영 및 제작, 발표 대본 작성 - 포스트 코로나 토의 관련 자료조사 - 그룹 A 요리 영상 촬영 및 제작 - 그룹 A 소감 발표 담당
	오경진	홍보	- 한국팀 인스타그램 개설 및 관리 - 한국 관광지 카드 뉴스, 영상 제작 - 공동과제 토의 그룹D 팀장으로 활동 총괄

팀원 역할	이수정	촬영	- 음식 카드 뉴스 내용 작성 - 음식 카드 뉴스 인스타그램 업로드 담당 - 문화 발표 음식팀 영상 제작 담당 및 업로드 - 토의그룹C 서기로서 영-한 회의록 작성, 교류 활동 시 토의 세션에서의 의견, 결론, 아이디어 요약하여 구글 클래스룸 업로드 - 사전과제 토의 활동 자료조사(미래의 직업)
	최지선	서기	- 스펀지 팀 회의록 작성 - 한국 문화 발표 자료조사 및 ppt 수정 - 한국 문화 발표 v-log 제작 - 사전과제 토의 활동 자료조사 (정신건강) - 그룹 D 공동과제 개인 영상 제작
	하지희	대표	- 모든 활동 총괄 - 한국 문화 발표 PPT 자료조사 및 발표 대본 원고 작성 및 발표 (문화) - 아이스 브레이킹 발표 대본 원고 작성 및 발표 - 사전과제 토의 활동 참고자료 (디지털 리터러시 자료조사) - 공동과제 말레이시아 음식, 놀이 문화체험 영상 준비 및 촬영 - 한국 청소년 선물 소개 PPT 제작 및 발표 - 교류 활동 및 한복 관련 카드 뉴스 제작 후 인스타그램 업로드
	허예지	홍보	- 한국 교육 문화 에피소드 정리, 카드 뉴스 제작 - 토의그룹 B 디지털 리터러시 최종 발표 PPT 제작 - 교류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 정리
	홍서현	홍보	- 교육팀 카드 뉴스 제작 - 그룹 A 토의 관련 자료 (코로나 시대에 일상 화복을 위한 개인, 기업, 정부의 노력)에 관한 발표 내용 제작 - 그룹 A QnA 영상 제작 - 그룹 A 발표 PPT 제작
	안성호	통역요원	- 아이스 브레이킹 및 문화 발표 PPT 번역 - 그룹D 전담 한영 통역
	이다혜	통역요원	- 한국 측 사회자 전담 통역 - 행사 PPT 번역 - 그룹B 전담 한영 통역
	장윤지	통역요원	- 아이스 브레이킹 대본 번역/통역 - 그룹C 전담 한영 통역
	조세라	통역요원	- 문화 발표 대본 번역/통역 - 그룹 A 전담 한영 통역

2 사전활동 결과

가. 활동 요약표

번호	활동날짜	사전활동 내용	장 소
1	2022.06.19. ~ 08.13.	문화 발표 팀별 개요 보고서 작성 및 회의 진행	온라인
2	2022.06.19. ~ 08.13.	한국 문화 발표 PPT 회의 및 제작	온라인
3	2022.07.11.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및 자기소개 카드 뉴스 업로드	온라인(인스타그램)
4	2022.08.01.~08.13.	문화 발표 팀별 카드 뉴스 제작 및 인스타그램 업로드	온라인(인스타그램)
5	2022.08.03.~08.13.	아이스 브레이킹 관련 회의 진행 및 PPT 제작	온라인
6	2022.08.07.~08.14.	토의그룹별 회의 진행 및 아이디어 공유	온라인
7	2022.08.11.	말레이시아어 기본 회화 PPT 공유	온라인
8	2022.08.15.~ 08.25.	한국 대표단이 준비한 선물소개 PPT 제작	온라인

나. 사전활동 결과보고

나-1. 교육팀 사전활동 결과보고서

사 업 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말레이시아
팀 명	스펀지 (교육팀)	작 성 자	김심성, 박민혜, 홍서현, 허예지
활 동 명	교육 파트 문화 발표 준비	참 석 자	김심성, 박민혜, 홍서현, 허예지
목표 대비 성과	목 표	성 과	
	1. 문화 발표 준비 : 교육 파트 자료 준비 2. 카드 뉴스 제작 : 한국 학교 및 교육 환경 알리기	1. 대학생 방학 생활 V-log 영상 제작 2. 문화 발표 자료 교육 파트 PPT 제작 3. 카드 뉴스 제작 및 인스타 공유	
활동 결과	1. 한국 청소년의 교육과정 소개 [붙임1] - 초등학교: 방과 후 문방구 앞에서 동전을 넣고 뽑기 한 반지와 귀걸이 등을 가지고 놀았던 팀원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초등학교 6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복장 자유 등의 정보 전달 - 중학교: 합창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던 팀원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중학교 3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교복 착용,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실시 등의 정보 전달 - 고등학교: 대학 입시 준비로 졸업사진 촬영 기간에 눈썹 탈모를 겪은 팀원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고등학교 3년 무상교육, 교복 착용, 한국 고등학생의 야간자율학습과 모의고사, 기억에 오래 남을 졸업사진 촬영 문화 등의 정보 전달		

활동 결과	2. 한국 대학생의 방학 생활 소개 [붙임2] - 방학 근로를 하는 팀원의 방학 일과를 영상으로 담아 아침 기상, 교내 근로, 학교 식당 이용, 도서관 공부, 취미생활까지의 한국 대학생의 방학 생활 일과를 소개 3. 카드 뉴스 제작 [붙임3] - 대학수학능력시험 · 합격 엿, 지각생 경찰차 이송 등 인생에서 손에 꼽는 중요한 시험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대학 입시 시험인 수능 소개 · 매년 11월에 보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실시하는 모의고사(전국연합 학력평가) 소개 - 교복 ·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등교할 때 입는 복장인 교복 소개 · 학교별로 교복의 디자인이 다르며, 최근에는 활동성을 고려한 체육복 형태의 교복을 선택하는 학교도 있는 등 각 학교 마다 개성을 담고 있는 교복 소개
자체 평가	1. 자기주도성 팀 회의에서 분배한 각자의 역할을 개인 시간을 활용해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으며, 때로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개성 있는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전체 회의와 팀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고, 각자의 역할을 끝까지 해내는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팀 줌 회의에서 모두 주도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며 결론을 도출했다. 모두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했으며 맡은 업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했다. 팀별 줌 회의를 통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해야할 일, 데드라인 등을 정하며 주체적으로 의견 교환 및 결론 도출을 하였다. 팀원들 모두 팀장님의 진행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했으며, 각자 맡은 업무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하였다. 2. 세계 시민 의식 서로 다른 점을 알아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며 말레이시아에 대해 몰랐던 것을 배우려는 자세로 활동에 임하였다. 문화 교류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를 다시금 알았고 상대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학교생활 등 어떠한 점이 다른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등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교육 문화를 알린다는 책임을 갖고 활동에 임하였다. 특히 문화를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그 나라만의 재미있는 고유 문화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다는 자세로 임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 청소년들의 생활 등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청소년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저희 팀은 그중에서도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저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사실적으로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본 결과 카드 뉴스 제작과 동영상으로 대학생 브이로그 등을 촬영하기로 했다. 위 활동들을 통해 단순 발표가 아닌, 여러 매체들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 사실적으로 문화 교류를 해보고자 하였다. 3. 협력 팀에 할당된 업무를 서로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설정해 팀 전체의 결과물이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되도록 팀원 모두 협동하였다. 무엇보다도 협력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 팀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짧은 만남의 시간을 불구하고 그 이상의 협력을 보여주었다.

자체 평가

추가 합격되어 늦게 합류하였지만, 기존 단원들과 협력을 통해 빨리 활동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정이 빠듯했지만 줌 회의를 통해 활동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한 사람에게 치중되지 않게 업무량을 배분하여 발표를 준비했다.

이미 기존의 합격자 팀원분들께서 틀을 잡아 놓아주셔서 이를 바탕으로 다시 역할 분담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팀원분들과 협력하며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었고, 말레이시아 팀이 다른 국가들보다 가장 빠른 교류 활동을 시작하기에 일정이 조금 바쁘기도 했다. 하지만 팀원분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교류를 위한 단계들을 잘 밟아가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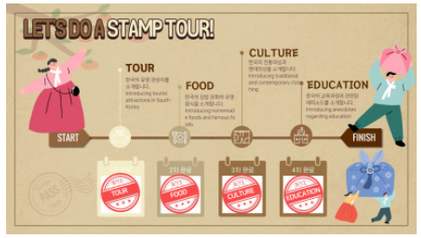
역할 분담

성 명	역 할	내 용
김심성	PPT 제작, 영상 촬영	교육 파트 PPT 제작을 담당하였고, V-log 영상 촬영 및 편집 마무리함.
박민혜	회의록 정리, 발표	회의록을 정리 및 공유를 담당하였고, 발표 담당을 맡아 원고 작성을 함.
허예지	카드 뉴스 제작, 에피소드 편집	한국의 교육과 관련한 카드 뉴스를 제작을 담당하였고, 팀원 에피소드 편집을 담당함.
홍서현	카드 뉴스 제작, 영상편집	한국의 교육과 관련한 카드 뉴스를 제작을 담당하였고, V-log 영상의 전반적인 편집을 담당함.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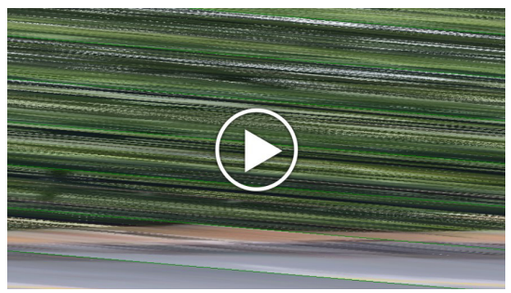
붙임1. PPT 자료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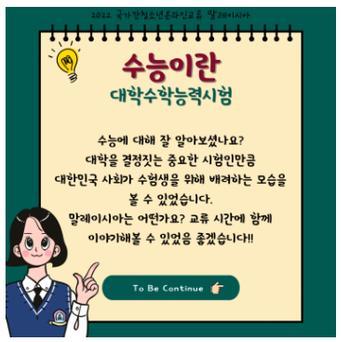


붙임2-1. V-log 영상 제작_개요

붙임2-2. V-log 영상 제작_영상



결과물	붙임3. 카드뉴스



나-2. 문화팀 사전활동 결과보고서

사 업 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말레이시아
팀 명	스펀지 (문화팀)	작 성 자	김민주
활 동 명	사전활동 – 문화 발표	참 석 자	김나연, 김민주, 최지선, 하지희

	목 표	성 과
목표 대비 성과	1. 문화 발표 준비 2. 룩북 영상 제작 3. SNS 및 플랫폼을 활용한 결과물 도출 4. 교류국에 대한 사전 학습 활동	1. 문화 발표를 위한 ppt 제작 2. 영상 제작을 통한 한국 룩북 공유 3. 의복 관련 카드 뉴스 제작 4. 팀 홈페이지에 문화팀 진행 상황 공유

활동 결과

1. 문화 발표 준비
   - 한복(전통 의복 소개)
   - 한복 특징, 변천사, 개량 한복 등 내용 자료조사
   - ppt 1차 제작 후 내용 보완해서 2차 제작
   - 뉴트로 (한국 패션 트렌드 소개)

① 07.03~07.24 한복 관련 자료조사 – 삼국시대, 조선시대, 개화기로 시대별로 나누어 자료조사 진행 후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하였음
② 07.22~07.31 1차 PPT 제작 및 뉴트로 관련 글, 사진 자료조사
③ 08.01~08.05 최종 PPT 제작 (붙임1)

2. 룩북 영상 제작
   - 맑은 날 의상, 공식적인 의상, 편한 캐주얼 의상 등 상황별 룩북 영상 촬영 (붙임2)
   - 영상 인트로 수정, 배경음악 추가

3. 플랫폼을 활용한 결과물 도출
   - 말레이시아 대표단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진행 상황 및 자료조사 내용 공유 (붙임3)
   - 팀 인스타그램에 의복 관련 카드 뉴스 제작 및 업로드 완료 (붙임4)

4. 교류국에 대한 사전 학습활동
   - 대표단 중 말레이어 전공생이 있어 공유해준 자료로 기본 인사말 배움
   - 말레이시아 전통 의복 및 최신 유행 트렌드를 자료조사 통해 파악함

자체 평가

모든 조원이 단 한 번의 불참 없이 회의에 참여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음. 또한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시간 및 자료 제출 기한을 엄수하여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켰음. 자기 주도성 측면에서, 모든 조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사함.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피드백을 나누고, 모든 조원의 협력으로 내용을 보완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냄. 세계 시민 의식의 측면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소개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의 전통 의상도 조사하여 각국의 전통 의상 및 문화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

	성 명	역 할	내 용
역할 분담	하지희	발표자	1. 문화 발표 ppt 편집 2. 문화 발표 내용 기획 3. 문화 발표, 아이스 브레이킹 대본 작성 및 발표 4. 카드 뉴스 제작
	최지선	영상 제작	1. 문화 발표 ppt 편집 2. 문화 발표 시 활용할 영상 촬영 및 제작 3. 문화 발표 내용 자료조사 4. 카드 뉴스 제작
	김나연	ppt 제작	1. 문화 발표 내용 자료조사 및 ppt 1차 제작 2. 홈페이지 업로드 담당 3. 아이스 브레이킹 대본 작성 4. 카드 뉴스 제작
	김민주	ppt 제작	1. 문화 발표 ppt 2차 제작 2. 문화 발표 내용 자료조사 3. 카드 뉴스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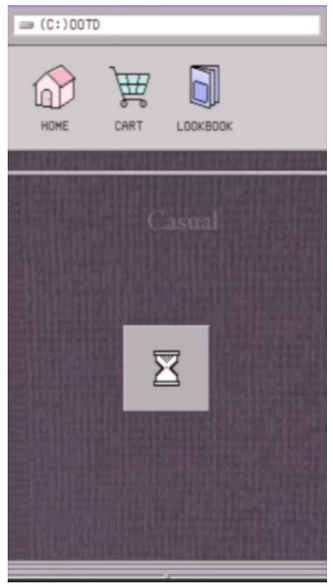
	물 품	지출금액	용 도
지출 내역 (대표단 전체)	항아리 압화 캔들	395,000	말레이시아 대표단 기념품 (20개)
	인센스 스틱	60,000	아이스 브레이킹 상품 (4개)
	홈페이지 용량 업그레이드	9,800	대표단 전체 홈페이지 용량 업그레이드
	총 계	464,800	

결과물

붙임1. 문화 발표 PPT-문화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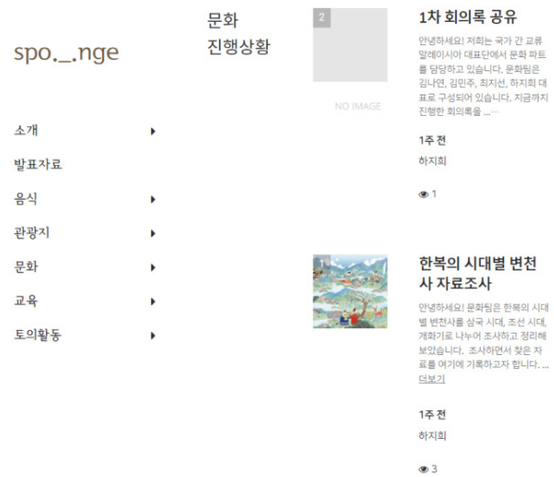
결과물

붙임2. 룩북 영상



결과물

붙임3. 홈페이지 업로드 캡처본



붙임4. 의복 관련 카드 뉴스

나-3. 관광지팀 사전활동 결과보고서

사 업 명	2022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말레이시아
팀 명	스펀지 (관광지팀)	작 성 자	김빛고은
활 동 명	관광지 소개 발표	참 석 자	김가은(B), 김빛고은, 박수빈, 오경진

목표 대비 성과	목 표	성 과
	1. 관광지 소개 카드 뉴스 제작 2. 문화 발표 준비 3. 관광지 소개 자료 홈페이지 업로드	1. 관광지 소개 카드 뉴스 제작 완료 2. 관광지 소개 영상 제작 완료 3. 문화 발표 PPT, 대본 완성 4.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관광지 소개 자료 선정 완료

활동 결과

1. 문화 발표 준비
 - 관광지 소개 지역 및 영상 주제 선정 [경주, 평창, 서울 / 지역 내 오감을 찾아보자]
 - 촬영 계획안 공유 및 영상 관련 사안 결정

[세로로 촬영, 관광지 3곳마다 1분 이내 길이(오감 한 파트 당 15초), 청각 부문 bgm X]
 - 관광지팀 카드 뉴스 관련 사안 결정
 - 카드 뉴스 관련 수정 사안 회의 및 결정
 - 영상 제작 완료 후 PPT 제작
 - 추가 팀원 역할 배정 회의 [카드 뉴스, 홈페이지 담당]
 - 문화 발표 대본 완성

1) 6/26 문화 발표 파트 결정 이후 세부적 영상 요소 관련 아이디어 회의
2) 7/3 프로필 카드 뉴스 사안 결정 이후 관광지팀 회의 지속
3) 7/13 팀별 카드 뉴스 관련 회의, 관광지팀 발표/대본 개요 준비
4) 7/24 팀별 문화 발표 백지 PPT 제작, 관광지팀 카드 뉴스 제작 준비
5) 7/31 문화 발표 전체 발표 순서, PPT 템플릿 결정, 추가 팀원 역할 배정 및 문화 발표 준비 지속
6) 8/3 전체 토의 주제 선정, 문화 발표 컨셉 및 발표 인원 결정
7) 8/7 팀별 사전활동 보고서, 토의 활동 사전과제 제출 준비

자체 평가

팀원 모두 정기적 회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매 회의마다 안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함. 자기 주도적으로 맡은 임무에 책임을 다함은 물론, 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변경에 대해 활발한 피드백을 제공함. 무엇보다,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보다 흥미롭게 알 수 있는 한국 관광지를 조사하려고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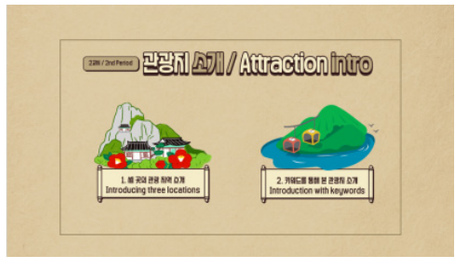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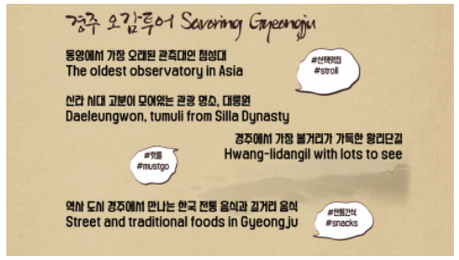
성 명	역 할	내 용
김가은	카드 뉴스 제작 및 홈페이지 업로드, 아이스 브레이킹 PPT 담당	본 문화 발표 이전 필요한 관광지 소개 카드 뉴스 제작과 홈페이지 업로드 담당을 맡음. 전체 아이스 브레이킹 PPT 담당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함.
김빛고은	카드 뉴스 제작 및 문화 발표 영상, PPT 담당	본 문화 발표 이전 필요한 관광지 소개 카드 뉴스 제작 담당을 맡음. 문화 발표 영상과 PPT 담당으로도 활동함.
박수빈	카드 뉴스 제작 및 문화 발표 영상, 온라인 회의 개설 담당	본 문화 발표 이전 필요한 관광지 소개 카드 뉴스 제작과 문화 발표 영상 담당을 맡음. 매번 관광지 회의 날에 팀원들에게 일정 리마인드 시켜주고 회의방을 개설하며 팀원들의 편의를 위해 힘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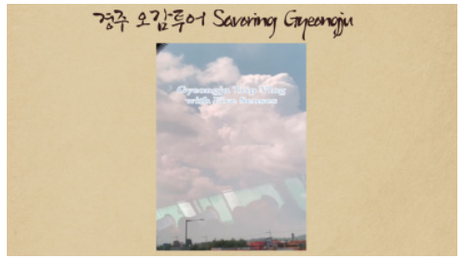
역할 분담	오경진	카드 뉴스 제작 및 문화 발표 영상, 발표 담당	본 문화 발표 이전 필요한 관광지 소개 카드 뉴스 제작 담당을 맡음. 문화 발표 영상과 발표 담당으로도 활발히 활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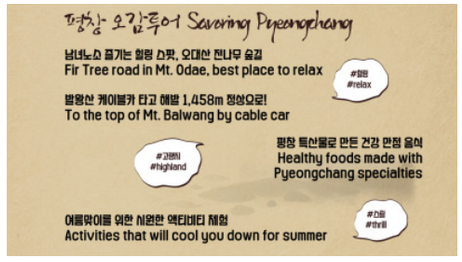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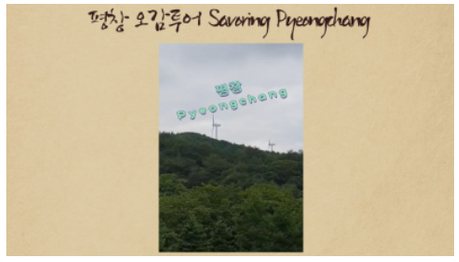
붙임 1. 문화 발표 PPT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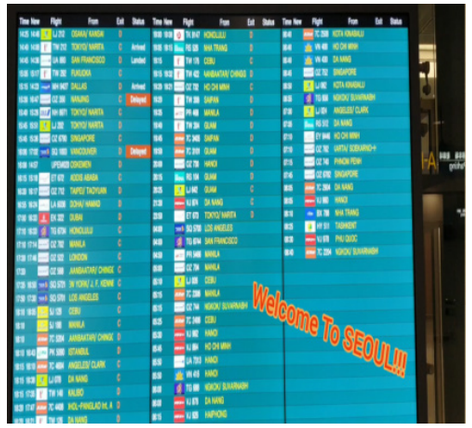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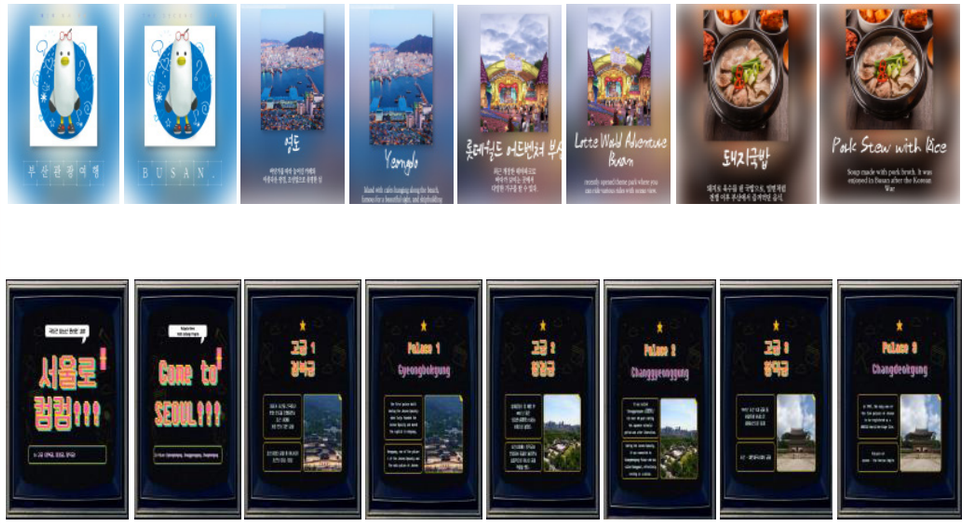
결과물

붙임 2. 문화 발표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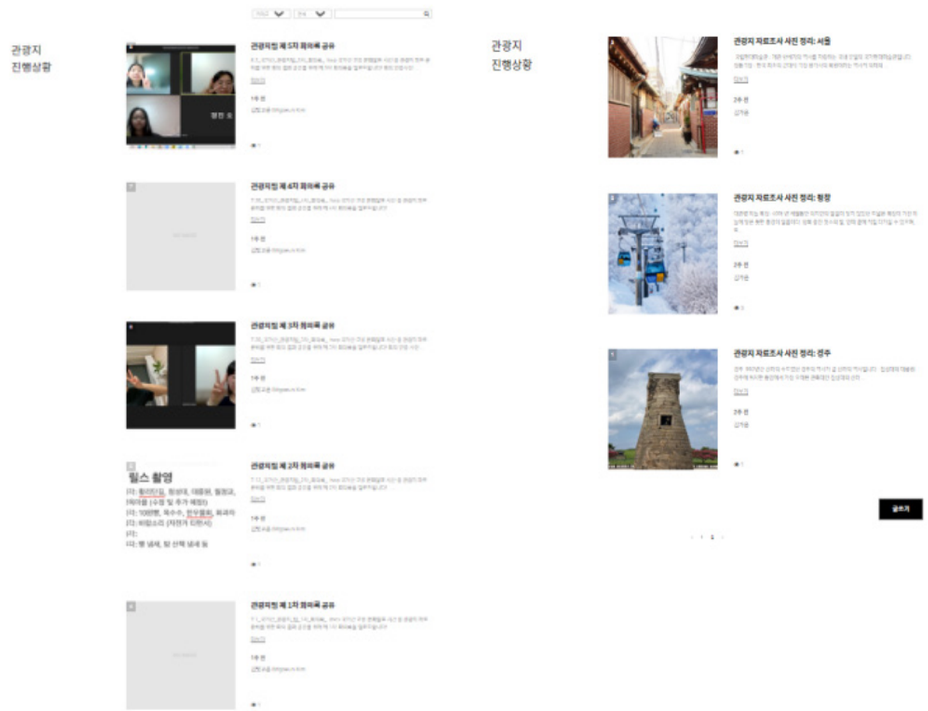


붙임 3. SNS 카드뉴스

결과물



붙임 4. 홈페이지 업로드



나-4. 음식팀 사전활동 결과보고서

사 업 명	2022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말레이시아
팀 명	스펀지 (음식팀)	작 성 자	김가은, 이수정, 류달헌
활 동 명	음식 파트 문화 발표 준비	참 석 자	김가은, 이수정, 김나경, 류달헌
목표 대비 성과	목 표	성 과	
	1. 교류국에 대한 사전 학습활동 2. 문화 발표(음식 내용) 준비 3. 홍보용 자료물 제작	1. 문화 발표 PPT와 영상 제작 2. 카드 뉴스 업로드 3. 홈페이지에 콘텐츠 업로드	

활동 결과

1. 문화 발표 준비
   - 06.19~07.05: 교류국에 대한 사전 조사와 문화 발표 구성 (붙임1)
   - 07.05~07.14: 음식 발표를 위한 자료 수집 (붙임1)
     - 김나경 단원이 유행 음식, 이수정 단원이 가정식, 김가은 단원이 카페를 담당하여 자료수집과 발표내용 구성
     - 류달헌 단원이 말레이시아 기본 회화 관련 자료조사 및 제작 (붙임4)
   - 07.14~08.05: 문화 발표 시각 자료 제작
     - 이수정 단원이 문화 발표 때 흥미를 유발할 영상 제작
     - 류달헌 단원이 아이스 브레이킹과 음식팀의 PPT 제작
     - 김나경, 김가은 단원이 음식팀 PPT 제작

2. 인스타 카드 뉴스 업로드 (붙임3)
   - 7.14~07.31: 카드 뉴스 아이디어 논의와 제작
     - guess what? 이라는 음식팀 만의 퀴즈 코너 개설하여 7회 업로드
     - 김가은 단원이 카드 뉴스 제작
     - 이수정 단원과 김나경 단원이 카드 뉴스와 같이 업로드될 글 내용 작성
   - 07.31~08.10: 카드 뉴스 번역 및 업로드
     - 장윤지 통역요원이 카드 뉴스 번역
     - 김나경, 이수정, 김가은 단원이 번역본 수정
     - 이수정 단원이 인스타그램, 김가은 단원이 홈페이지 업로드

3. 홈페이지 게시물 업로드 (붙임2)
   - 07.27~08.10
     - 김가은 단원이 홈페이지 개설과 관리, 업로드를 담당
     - 이수정, 김나경, 김가은 단원이 문화 발표 관련 사전 조사 내용을 '홈페이지-음식팀-진행 상황' 카테고리에 게시글 업로드.

자체 평가

- 한주도 빠짐없이 매주 회의하며 금주 계획을 세워나가고, 이를 세분화하며 달성해낸 경험을 하였다. 한주마다 큰 계획을 잘게 쪼개고, 각자 할 일을 분명히 한 것이 목표 달성의 핵심임을 느꼈다.
- 특히 음식팀의 강점인 '소통'이 팀워크, 친밀함으로 이어져 회의 분위기가 활기차고 부드러웠기에 더 편하게 수정사항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자체 평가	- 의욕이 강한 팀원들이 뭉친 만큼 제작해야 할 콘텐츠들이 많아졌다. 홈페이지 제작을 음식팀이 담당하게 되는 등 각자의 짐이 무거워졌지만, 그 또한 결속력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었다. 서로 '힘들면 꼭 말하세요'를 입버릇처럼 되뇌며 배려하고 짐을 나누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성장하고 있다.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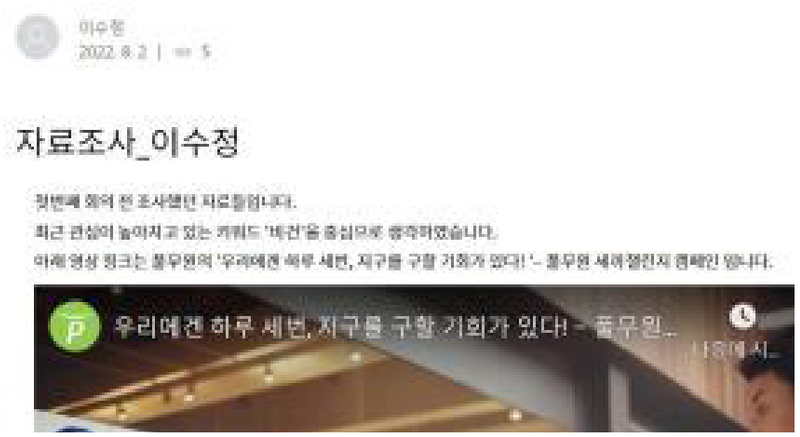
성 명	역 할	내 용
김가은	제작자, 대표단 홈페이지 담당	카드 뉴스 아이디어 제시 및 구상 카드 뉴스 제작 담당 음식팀 PPT 제작 영상 썸네일 제작 홈페이지에 문화 발표, 사전 조사 게시글 작성 및 업로드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 홈페이지 업로드 담당(대표단팀, 음식팀) 문화 발표 자료조사 및 수집 문화 발표 내용 구성 및 작성
이수정	영상 제작, 인스타그램 관리	카드 뉴스 내용 작성 인스타그램 업로드 담당 영상 제작 및 업로드 문화 발표 자료조사 및 수집 문화 발표 내용 구성 및 작성 문화 발표 사전 조사 게시글 업로드
김나경	부대표, 회의 주도, 공지 담당, PPT 제작	문화 발표 음식팀 회의 주도 문화 발표 자료조사 및 수집 문화 발표 내용 구성 및 작성 문화 발표 음식팀 ppt 제작 공지사항 공고 담당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및 업로드 카드뉴스 내용 작성
류달헌	PPT 및 정보제공	아이스 브레이킹 피피티 제작 문화 발표 음식팀 피피티 수정 말레이시아어 기본 회화 자료 제작 및 강의 음식팀 칼럼 작성

지출 내역

물 품	지출금액	용 도
공간대여	70,000	교류활동 당일 참여 공간
공간대여	65,000	교류활동 당일 참여 공간
음식점	62,500	교류프로젝트 제작 건-말레이시아 음식 체험
총 계	197,500	

결과물

붙임1. 사전자료 조사-홈페이지 게시물 업로드



결과물

붙임2. 문화발표 내용 구성-홈페이지 게시물 업로드

결과물

붙임3. 카드 뉴스

(1) 소개

(2)음식 퀴즈

(2-1) 김치

(2-2) 아이스 아메리카노

(2-3) 크로플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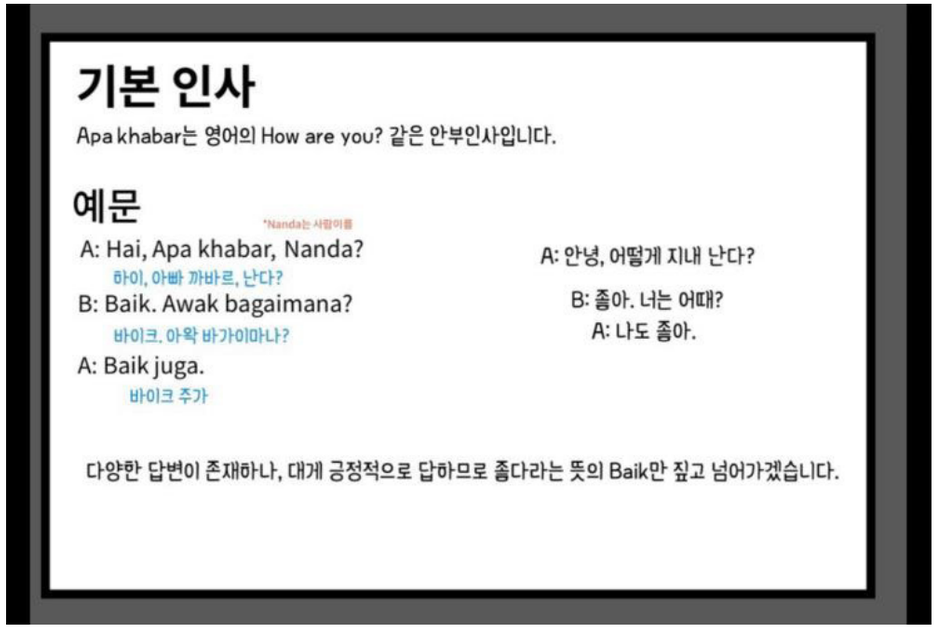
(2-4) 마라탕

(2-5) 미역국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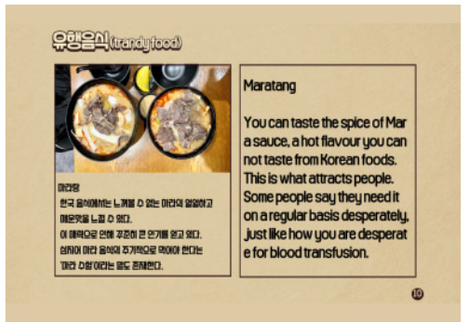
붙임4. 말레이시아 기본 회화 학습

결과물



결과물

붙임5. 문화 발표-음식 ppt



결과물	붙임6. 한국 음식 문화 영상

3 교류활동 결과

가. 활동 요약표

일자	시간	세부내용	비고
1일차 (08.13.)	13:00~14:00	1. 양국 참가자 리허설(화면, 음향 등) 2. 참가자 안내 및 양국 참가자 사전점검	리허설 및 안내
	14:00~14:20	1. 개회 및 인사말 – (한국)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 (말레이시아) 모드 아자리 빈 모하마드, 청소년체육부 국장 2. 전체 일정 안내 3. 단체 기념사진 촬영	개회식
	14:20~15:30	1. 아이스 브레이킹 – (한국->말레이시아) 아이스 브레이킹 – (말레이시아->한국) 아이스 브레이킹-대표단 소개	아이스 브레이킹
1일차 (08.13.)	14:20~15:30	2. 쉬는 시간 3. (말레이시아->한국) 아이스 브레이킹-CHARADES	아이스 브레이킹
	15:30~16:40	1. 문화 발표 – (한국) 문화 발표 – (말레이시아) 문화 발표 2. 쉬는 시간	문화발표
	16:40~17:20	1. 토의그룹별 미팅 (토의그룹 자기소개 / 역할 분담, 계획수립 등) -그룹 A :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의 회복력 강화 -그룹 B : 디지털 리터리시와 디지털 시민성 -그룹 C : 미래의 직업 -그룹 D : 정신건강	그룹활동
	17:20~17:30	1. 1일차 마무리	마무리
2일차 (08.14.)	13:00~14:00	1. 양국 참가자 리허설(화면, 음향 등) 2. 참가자 안내 및 양국 참가자 사전점검	리허설 및 안내
	14:00~14:10	1. 2차 일정 안내	오프닝
	14:10~15:10	1. 그룹별 토의 활동 : 세션1 -그룹 A :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의 회복력 강화 -그룹 B : 디지털 리터리시와 디지털 시민성 -그룹 C : 미래의 직업 -그룹 D : 정신건강 2. 쉬는 시간	토의활동 (세션1)
	15:10~16:10	1. 그룹별 토의 활동 : 세션2 -그룹 A :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의 회복력 강화 -그룹 B : 디지털 리터리시와 디지털 시민성 -그룹 C : 미래의 직업 -그룹 D : 정신건강 2. 쉬는 시간	토의활동 (세션2)
	16:10~17:00	1. 공동과제 안내 2. 그룹별 공동과제 회의 -그룹 A :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의 회복력 강화 -그룹 B : 디지털 리터리시와 디지털 시민성 -그룹 C : 미래의 직업 -그룹 D : 정신건강	그룹미팅
	17:00~17:15	마무리 안내	마무리
3일차 (08.27.)	13:00~14:00	1. 최종 발표 점검 2. 양국 참가자 리허설 (화면, 소리 등)	리허설 및 안내
	14:00~14:10	1. 3차 일정 안내	오프닝

3일차 (08.27.)	14:10~15:20	1. 그룹별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발표 ((그룹 A :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의 회복력 강화) 최종 발표 및 질의응답 / (그룹 B : 디지털 리터리시와 디지털 시민성) 최종 발표 및 질의응답 / (그룹 C : 미래의 직업) 최종 발표 및 질의응답 / (그룹 D : 정신건강) 최종 발표 및 질의응답) 2. 쉬는 시간	최종 발표
	15:20~15:35	1. 교류 활동 소감 발표	프로그램 피드백
	15:35~15:55	1. 인사말 – (한국)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 (말레이시아) 모드 아자리 빈 모하마드, 청소년체육부 국장 2. 선물교환 3. 단체 기념사진	폐회식
	15:55~16:25	1. 평가회의(청소년 및 통역) : 평가회의록 작성 후 제출	평가회의

나. 세부 활동내용

• 1일차 (2022. 8. 13.)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리허설 및 안내
	주요내용	– 양국 청소년 대표단 및 통역 요원 화면 및 음향 체크 – 양국 최종 리허설: 아이스 브레이킹, 문화 발표 ppt 및 영상 사전점검
2	프로그램	개회식
	주요내용	개회 및 인사말 – (한국)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 (말레이시아) 모드 아자리 빈 모하마드, 청소년체육부 국장 전체 일정 안내 단체 기념사진 촬영
3	프로그램	한국 아이스 브레이킹
	주요내용	진진가 (2TRUTH 1FALSE) – 한국 대표단 개인의 사진과 이름, 정보 알아보기 – 한국 대표단 개인과 관련된 3가지 문장에서 거짓 문장 1개를 유추 인물 맞추기 퀴즈 (GUESS WHO) – 사진 속 인물의 눈, 코, 입 또는 확대 사진을 보고 맞추기 SPECIAL QUIZ – 한국 대표단의 옛날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맞추기
4	프로그램	말레이시아 아이스 브레이킹
	주요내용	말레이시아 대표단 프로필 소개 – 사진, 이름, 대학교, 전공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었음 CHARADES(문자 수수께끼) – 설명하는 사람은 단어를 보고 단어를 설명하고 추측하는 사람은 설명을 바탕으로 단어를 추측하여 맞추기
5	프로그램	한국 문화 발표
	주요내용	〈스탬프 투어〉 1. 관광지팀 – 한국의 관광지 소개 (서울, 평창, 경주) 2. 음식팀 – 한국의 음식 소개 (가정식, 카페, 유행 음식) 3. 문화팀 – 한국의 의복 소개 (한복, 뉴트로 트렌드, 상황별 룩북) 4. 교육팀 – 한국의 학교 생활 및 문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생활 v-log)
6	프로그램	말레이시아 문화 발표
	주요내용	1. 말레이시아 관광지 2. 말레이시아 문화 무용과 악기 3. 말레이시아 음식 4.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 5. 말레이시아 무술
7	프로그램	그룹 토의 활동
	주요내용	[1. 그룹 A: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의 회복력 강화] *참석 한국: 김가은, 김빛고은, 박수빈, 홍서현, 조세라 말레이시아: Shuhada, Nik Nur Munirah, Salman, Ainun Fasihah, Janet *역할 대표: Salman 부대표: 김빛고은 서기: 박수빈, Nik Nur Munirah *규칙 정하기 – 연락 가능한 시간대 조율 및 결정을 통해 연락하기 – 토의 중에는 카메라 키기 – 다른 팀원이 발언 중에는 음소거 모드로 하기 – 원활한 통역을 위해, 한 문장씩 이야기하기 [2. 그룹 B: 디지털 리터리시와 디지털 시민성] *참석 한국: 하지희, 김나경, 김가은, 허예지, 이다혜 말레이시아: Faris Daniel, Roshini, Naelah Farafisyah, Nur Hiddayah *역할 대표: Roshini

7	주요내용	부대표: 하지희 서기: 김나경, Naelah Farafisyah *규칙 정하기 - 국가간 교류 중 또는 교류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카카오톡으로 정하기 - 시간 약속 잘 지키며 성실히 참가하기 - 카메라 켜고 참가하기 [3. 그룹 C: 미래의 직업] *참석 한국: 장윤지, 김민주, 류달헌, 이수정, 박민혜 말레이시아: NURAESYAH BINTI AZMANI, DE`RECCOBA DOMINIK TAN, NUR AMIRA BATRISYIA BINTI MOHAMAD RAFI, DENIAL LEE BIN ZAMRI, ONG YUE LIN *역할 대표: 박민혜, ONG YUE LIN 부대표: - 서기: 이수정, NUR AMIRA BATRISYIA BINTI MOHAMAD RAFI *규칙 정하기 - 카메라 항상 켜기 - 손들고 말하기 - 다른 사람 이야기 경청하기 [그룹 D: 정신건강] *참석 한국: 오경진, 김심성, 김나연, 최지선, 안성호 말레이시아: MUHAMMAD UMAR IZUAN BIN MOHD SAFFUAN, IZAH NABILAH BINTI MUAMMAR GADAFI, SANGEETHA RAVI, NAYLI BATRISYIA AN-NASIHA BINTI NOR 'AZLAN *역할 대표: 오경진, MUHAMMAD UMAR IZUAN BIN MOHD SAFFUAN 부대표: - 서기: 김심성, IZAH NABILAH BINTI MUAMMAR GADAFI *규칙 정하기 - 그룹 채팅에 응답하기 - 줌에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손들고 이야기하기 - 최소한으로 채팅하기 - 늦은 시간에 메시지 보내지 않기

• 2일차 (2022. 8. 14.)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그룹 A 토의 활동 및 공동과제 회의
	주요내용	*활동 내용: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의 회복력 강화 토의, 문화 체험 주제 정하기 1. 코로나19 현황 1) 각국의 코로나 상황 공유 2.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의 회복력 강화 1) 각국의 측면에서 본 회복력 강화 방안 - 양국 청소년의 코로나19 이후 변화 및 경험, 의견 공유 [비대면 수업/회의 증가, 온라인 쇼핑 및 OTT 서비스 증가, 의사소통 능력 저하, 사회성 결여, 높은 미디어 의존도 문제, 코로나 블루, 경기 불황, 실업 문제 급증] -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일상 회복 방안 및 정부, 기업, 정신적 측면에서의 방안 공유 [법률의 재정비,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업 운영 계획, 코로나로 인해 얻은 장점 떠올리기, 자기 계발 하기]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지속될 시스템 공유 - 비대면 서비스 지속 - 하이브리드 회의/수업 부분적 지속 - OTT 서비스 및 온라인 교육, 쇼핑 플랫폼의 증가 4. 그룹 프로젝트 미팅 (문화 체험 주제 결정) 1) 친목 도모, 문화 이해도 제고 가능한 영상 주제 토의 -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제작 - 1. 짧은 브이로그 2. Q&A 3. 유행 댄스, 4. 각국의 음식 만들기 등 4가지 주제로 영상 제작 예정
2	프로그램	그룹 B 토의 활동 및 공동과제 회의
	주요내용	*활동 내용: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토의, 문화 체험 주제 정하기 1.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1)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리터러시 발표를 듣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수립 -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 극대화되며 리터러시 역량이 필수 역량으로 자리매김 - 디지털 리터러시란 : 디지털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디지털 시민성, 글로벌 시민의식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필수 2) 디지털 기술, 리터러시 경험 공유 - 공통 : 실시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줌(ZOOM)을 활용 - 한국 : 가짜뉴스에 속아 제품 구매,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 이프랜드) 등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만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함 - 말레이시아 : 친구들과 ZOOM으로 소통 3) 디지털 기술 장점 -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 가능 - 친구들과 쉽게 만나 연락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생김 - ZOOM, VR기술 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술 증대로 새로운 취미가 생김

2	주요내용	4) 디지털 기술 문제점 - 가짜 정보들이 많아 여러 차례 검색하여 찾아야 함 - 전자기기 소지 유무에 따른 디지털 양극화 - 비대면과 대면 수업의 질 차이 -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음 - 해킹, 딥페이크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 증가 5) 해결 방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활용하기 (정부 부처, 기업 공식 홈페이지 등) - 정보 출처 남기기 - 유튜브 키즈 정책 같은 디지털 보안망 체계 구축 - 부모님의 관심 및 정확한 웹사이트 사용을 위한 교육 - 사이버 범죄 관련 단속 및 법률 제정 2. 문화 체험 주제 - 문화 체험 주제 논의 : 다양한 문화 중 음식과 놀이 문화를 공유하기로 함 - 한국 : 말레이시아의 음식, 공기놀이와 유사한 batu seremban 체험 - 말레이시아 : 한국 음식, 딱지놀이 체험
3	프로그램	그룹 C 토의 활동 및 공동과제 회의
	주요내용	*활동 내용: 미래의 직업 토의, 공동과제 주제 정하기 1. 그룹 규칙 정하기 - 카메라 항상 켜기 - 손들고 말하기 - 다른 사람 이야기 경청하기 2. 직업에 대한 토의 1) 각자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입학 이전부터 관심 있었던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 - 미래 직업 전망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 -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어울리는 전공을 선택 2) 양국의 직업 전망 동향 - 양국에서 모두 대체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융합 교육)과 관련된 직업 전망이 좋고 인기가 높음 - 특히 한국에서는 이공계 분야 재학생에게 장학금 혜택 등이 많이 주어짐 - 어떤 직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새로 생겨남 3)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 어느 전공이든 상관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발하려는 배움의 자세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시도하는 자세 - 본인의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의 책을 읽고 관심을 가지는 등 다방면으로 지식을 조금씩 쌓아두는 것 3. 공동과제 토의 1) 미션 정하기 - 주제 : 2인 1팀으로 짝을 정해 음식, 의복, 문화 분야에서 서로의 짝지에게 미션을 주고 각자

3	주요내용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75초 영상으로 촬영 및 편집하기 - 음식팀1 : 수정-Batrisyia - 음식팀2 : 민주-Derec - 의복팀 : Jasmine-달헌 - 문화팀 : Denial-민혜
4	프로그램	그룹 D 토의 활동 및 공동과제 회의
	주요내용	* 활동 내용: 정신건강 (Mental Health) 토의, 공동과제 주제 정하기 1. 정신건강과 관련된 경험 및 국가별 현안 공유 -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 5대 정신과 질환이 2019년 대비 증가함 - 공황장애 환자 수도 20년도 기준 6.7% 증가함 2. 핵심 과제 찾기 - 개인 1) 대화하기: 주제는 어떤 것이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걱정이나 등 바람직, 혼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방법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2) 몸 돌보기: 규칙적인 생활, 자신의 신체적 건강 지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대응을 할 수 있음 3) 휴식 취하기: 일상생활에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도움을 줌 4) 자신만의 스트레스 대처법: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매우 중요함 5) 스트레스 유발 요소 피하기: 부정적인 요소 평가 제거하는 시간 가져야 함 6) 열정 찾기: 자신이 재미있어하는 것을 찾고, 성취감 느끼는 것이 필요함 7)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자: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가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국가 1)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국내에서도 가정폭력 늘어난 상황임 2) 국가적으로 정신건강 모니터링과 고위험군 분포를 확인하여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3) 정신건강 센터 늘리고, 콜센터 늘리며, 센터와 가족 연계하는 방법 생각해야 함 3. 공동과제 관련 회의 진행 1) 제목: 그룹 D 스트레스 대처 방안 관련 일주일 챌린지 2) 주제: 일주일 챌린지 (스트레스 대처 방안 관련) 3) 기간: 8월 15일~21일(7일간) 4) 세부 내용 - 인스타 스토리에 7일 동안 자유롭게 올리기 - 22일에 7일 결과물을 하나의 게시물에 올리기 - 게시물에 활동 감상과 느낀 점 달기 - 해시태그 (#HowIReliefMyStress #MKYEP22) -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짝지어서 같이 해보기 - 다른 청소년이 해본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따라해보기 - 7일 중 5일은 자유롭게 2일은 다른 친구 스트레스 대처 방안 따라해보기 (나연-상기) (지선-나이리) (우마-심성) (경진-이자)

• 3일차 (2022. 8. 27.)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그룹 A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최종 발표
	주요내용	* 전반적 토의 결과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청소년의 회복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토의한 뒤 각국의 공통점 및 해결책과 서로의 토의 방향을 보고 깨닫게 된 점에 대해 발표 진행. 1. 토의 결과 발표 내용 1) 공통점 발견 - 공통점 : 코로나19로 달라진 각국의 삶을 공유 -> 양국 청소년 모두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삶으로 캠퍼스 생활을 즐기지 못함 + 정신적 고통을 겪음 두 나라 모두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임금 삭감 등 여러 경제적인 문제가 발발했음을 확인 2) 결론 도출 - 피해 보상 방법 중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3) 회복력 강화 방안 - 공통: 변화된 삶에 맞게 법률이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문제를 바라볼 때 관점의 변화를 주어 바라보아야 함, 각자 속한 공동체 내의 개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 필요 4) 깨닫게 된 점 및 결론 - 한국 청소년들은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이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음 - 토의를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하여 공통점을 찾음 - 삶을 회복하기 위한 회복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서로의 방법을 공유함 -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적응하려는 자세로 우리의 앞길을 나아가는 것이 중요 2. 공동과제 발표 내용 1) 짧은 브이로그 (김가은A, Salman) 영상 주제: 가은 팀원 – 한국 병원 탐방 / Salman – 말레이시아 대학 스포츠 행사 SUKIPT 브이로그 2) Q&A 영상 (홍서현, Munirah) 영상 주제: 말레이시아 음식, 의복 퀴즈 [나시 케라부, 바주쿠롱] / 각국의 단어, 사투리 알아보기 [사랑해, 감사합니다] 3) 유행어 알아보기 영상 (김빛고은, Ainun) 영상 주제: 각국의 최신 유행어 배우고 가르치기 4) 각국의 음식 만들기 (박수빈, Shuhada) 영상 주제: 수빈 팀원 – 말레이시아 음식 Cekodok pisang 만들기 / Shuhada – 한국 음식 떡볶이, 치킨 만들기

2	프로그램	그룹 B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최종 발표
	주요내용	* 활동 내용 :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토의 결과와 공동과제로 진행한 문화체험에 대해 발표함. 1. 발표 업무 분담 1) 공동과제 영상 제작 : 말레이시아 2) 발표 PPT 제작 : 한국 - 발표 전 주까지 자료 완성, 발표 전날 리허설 진행을 통해 완성도 높임 2. 디지털 리터러시 토의 결과 발표 1)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및 경험 -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비대면 수업, 국제교류활동, 다양한 정보 탐색 등에서 활용됨 - 시공간 제약이 없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만을 찾을 수 있는 장점 존재 2) 디지털 기술의 문제점 - 가짜뉴스, 해킹, 딥페이크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 증가 - 디지털 기기 유무에 따른 정보 양극화 심각 3) 해결방안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증진이 핵심 해결 방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의 정보 활용 - 안전한 디지털 보안망 구축 및 법률 제정 - 부모님의 관심 및 정확한 웹사이트 사용을 위한 교육 확대 3. 공동과제 (문화체험) 활동 발표 1) 음식 체험 영상 - 한국 : 말레이시아 음식점 탐방 (나시르막, 뇨나 락사, 나시고랭, 사테이 등) - 말레이시아 : 비빔밥, 치킨,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직접 먹고 비빔밥 만드는 법 발표 2) 놀이 체험 영상 - 한국 : 우리나라 공기놀이와 흡사한 말레이시아 '바투 세렘반'을 직접 만들고 체험 -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딱지를 직접 접고 게임 진행 3) 자기소개 영상 - 공통 : 각국 언어로 인사하는 영상 촬영
3	프로그램	그룹 C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최종 발표
	주요내용	* 활동 내용: 미래의 직업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의 결과와 공동과제로 2인 1팀 교류프로젝트 구성한 후, 영상 제작 및 최종 발표를 진행함. 1. 토의 결과 발표내용 1) 전공선택 이유 - 미래의 전망을 고려하여 선택 2) 직업 전망 동향 - 양국에서 모두 대체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융합 교육)과 관련된 직업 전망이 좋고 인기가 높음 - 특히 한국에서는 이공계 분야 재학생에게 장학금 혜택 등이 많이 주어짐

3	주요내용	3) 변화하는 직업 - 어떤 직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새로 생겨남 한국에서 인문계열 학과는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분야와 융합되거나 폐지되고 있음 4) 결론 및 깨달은 점 - 어느 전공이든 상관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발하려는 배움의 자세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가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할 것 - 본인의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의 책을 읽고 관심을 가지는 등 다방면으로 지식을 조금씩 쌓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2. 공동과제 발표내용 - 2인 1팀 교류프로젝트 구성 1) Food team1 : 민주, 도미닉 - 영상 주제: 도미닉 – 수박화채 만들기 / 민주 팀원 – 차꿰띠아오 먹어보기 - 영상 구성: 민주 단원이 아버지와 함께 말레이시아 음식점에 가는 장면, 나시르막과 차꿰띠아오를 주문하고 먹는 장면, 음식의 비주얼이 영상에 충분히 담기고 음식의 맛이나 먹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으로 구성된다. 그다음으로 도미닉이 수박화채의 준비물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장면, 준비물을 하나씩 넣으며 수박화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는다. 수박화채가 완성되면 직접 먹어보는 장면, 맛에 대한 감상을 말하는 장면으로 구성된다. 2) Food team2: 수정, 바트리샤 - 영상 주제: 바트리샤 – 파전, 떡볶이 친구와 함께 먹어보기 / 수정: 테타릭, 나시고랭 팀원과 함께 먹어보기 - 영상 구성: 바트리샤가 수정 단원과 본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첨부하여 서로의 미션을 소개하는 장면, 한국 음식점으로 가는 장면, 파전과 떡볶이를 먹는 장면, 떡볶이와 파전의 비주얼을 담고 이들의 맛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구성된다. 그다음으로 수정 단원이 말레이시아 식당인 '아각아각'에 방문하여 노냐 락사와 테-타릭을 주문하고 음식을 비주얼을 담는 장면, 직접 먹는 영상과 자막으로 음식에 대해 설명하고 감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3) Culture(문화팀): 민혜, 다니엘 - 영상 주제: 다니엘 – 일상생활에서 한국의 밈(meme) 2~3개 친구에게 쓰고 반응 살피기 / 민혜 – 번역이 된 애국가 불러보기 - 영상 구성: 다니엘이 친구에게 '머선129', '갓생', '킹받네' '오히려좋아' 라는 한국의 밈을 문장에 넣어 친구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장면, 민혜 단원이 다니엘이 번역해준 애국가를 완창하는 장면으로 구성된다. 4) Fashion(패션팀): 달헌, 자스민 - 영상 주제: 자스민– 한국의 유행 패션 중 포멀한 스타일을 입고 친구들의 반응 살피기 / 달헌 - 말레이시아에서 흔한 패션(상의 축구복, 신발 슬리퍼)으로 외출하기 - 영상 구성: 자스민이 달헌이 전달한 미션을 설명하는 장면, 상의를 한복 스타일로 입고 옷 스타일링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 이 옷을 입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여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장면, 그다음 달헌 단원이 말레이시아에서 요즘 유행하는 옷 스타일이 상의-축구복, 슬리퍼 임을 설명하는 장면, 옷을 직접 입은 장면으로 영상을 구성한다. 3. 영상 제작 1) 파트너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 - 편집 어플 종류와 편집 담당 파트너끼리 상의 후 결정

3	주요내용	- 각 팀당 90초의 시간에서 파트너끼리 시간 분배하기 - 총 편집자 : 박민혜 (한국 대표단) 2) 촬영 가이드 - 가로로 촬영할 것 - 영어, 한국어 순으로 번역하고, 자막 달기 4. 최종 발표 계획 1) 발표 시간 - 토의 활동과 영상을 모두 합쳐 15분 발표 - 초반 1분은 그룹C 소개, 약 2분간 ppt를 통해 토의 주제 '미래의 직업'에 대한 발표, 12분 영상 재생하여 교류프로젝트 발표 2) 발표자 - 발표자는 자스민 (말레이시아 대표)
4	프로그램	그룹 D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최종 발표
	주요내용	* 활동 내용: 정신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의 결과와 공동과제로 스트레스 해소 방안 관련 일주일 챌린지 영상 제작 및 최종 발표를 진행함. 1. 토의 결과 발표 1) 정신건강과 관련된 현안 공유 –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악화 현황 2) 해결방안 – 대화하기, 몸 돌보기, 휴식, 자신만의 대처법 등 2. 스트레스 대처 방안 관련 일주일 챌린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 1) 발표 진행 순서 - Intro – 우마, 나이리, 나연, 경진 - 정신건강이 중요한 이유(30초)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7일 도전의 설명(30초) - 개인별 5일 + 파트너와의 2일 설명(30초) 2) 일주일 챌린지 DAY 1 : 나이리, 나연 DAY 2 : 심성, 상기 DAY 3 : 이자, 지선 DAY 4 : 우마, 경진 DAY 5 : 이자, 심성 DAY 6 : 이자&경진, 나이리&지선 DAY 7 : 우마&심성, 상기&나연 3) 결론 - 우리가 이 도전을 함으로써 얻는 것 · 좋은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 ·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읽는 활동이나 걷는 것, 게임 하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 차이점 : 말레이시아는 주로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한국은 주로 혼자서 스트레스를 해소함

다. 주제에세이

구분	이름 · 역할	주제에세이	
1	하지희 (대표)	주제	디지털 시대의 양면성
		내용	말레이시아 대표단과의 교류 활동을 준비하면서 특히 사전 활동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한국 청소년 대표로서 한국을 소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세상은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변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한 문화를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고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든 문화를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토의 활동을 준비하면서는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일상을 이전과는 180도 변화시킨다는 점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제는 디지털 기기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찾아드립니다"라는 책에서 기술은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을 빼앗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술 도입을 통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는 자유시간조차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과 같은 기기 없이는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이 크게 유행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여가 시간을 잘게 쪼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시간 부스러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시간 부스러기란 비생산적인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잃어버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가 시간 도중에도 사진 혹은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 도중에도 업무 관련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짧을지 몰라도 그 작은 부스러기가 모이면 커지게 됩니다. 여가 시간과 일상의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사람들은 자유 시간이 짧았다고 느끼는 시간 빈곤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디지털 기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서 우리가 얻는 이점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이번 활동도 비대면이었지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관련 범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이라는 가상 세계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연결됩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일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 전에 디지털 기술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2	김나경 (부대표)	주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말레이시아 문화 체험
		내용	말레이시아 대표 청소년과의 국가 간 교류 활동을 통해 말레이시아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문화 중 음식과 놀이 2가지를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라는 문화는 다양한 문화의 영역 중에서도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을 즐겨하는 나에게 있어 가장 흥미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음식 전문점을 찾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부산에서는 말레이시아 음식점을 찾을 수 없어 서울에 올라가서야 말레이시아 음식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것처럼 음식점의 메뉴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보았으며 뇨냐 락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뇨냐 락사는 닭, 해산물, 코코넛, 새우등 다양한 재료를 넣고 끓인 국수였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탄탄면, 라멘과 매우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맛일까 굉장히 기대하며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첫 느낌은 신기하였습니다. 마치 매운탕과 같이 시원하고 매운맛이 나면서 코코넛의 부드러운 맛과 마라탕의 향신료 맛도 느껴졌으며 면은 짬뽕과 같이 굵은 면이었습니다. 친근한 여러 나라의 음식의 맛들이 어우러진 뇨냐 락사를 가장 맛있게 먹었으며 다음에도 생각날 것 같고 다시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물 볶음밥 느낌인 나시 고랭 크탐, 양꼬치와 장조림과 비슷한 소고기와 고소한 땅콩 소스를 같이 먹는 사태 다깅, 진한 밀크티의 맛이 인상적인 테 타릭, 장미와 라임이 어우러진 탄산음료 시러프리마우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음식문화는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강하거나 새로운 맛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여러 나라의 음식의 문화와 맛이 어우러진 맛이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맛과 매력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 음식의 매력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음식을 접해보고 말레이시아 음식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의 놀이입니다. 한국의 공기놀이라고 하면 다들 어렸을 때 자주 또는 한 번씩은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도 이와 정말 유사한 전통 공기놀이, 바투 세렘반이 있습니다. 작은 천 주머니 안에 씨앗, 모래, 돌 등을 넣어 꿰매 만들며 주로 5개의 공기알로 진행하는 놀이입니다. 순서 및 규칙도 매우 비슷합니다. 재료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직접 만들어보고 놀이를 체험해보았습니다. 한국의 공기놀이와 매우 흡사하여 신기하였습니다. 달라진 공기의 모양과 크기가 생각보다 커서 손에 다 담을 수 없어 어색하기도 하였지만, 양손을 사용하여 재밌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놀이 문화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청소년 대표단의 추천으로 새로운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전통 놀이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체험도 해보고 싶습니다.

2	김나경 (부대표)	내용	말레이시아 문화체험을 하며 다양한 나라의 문화는 다 다르고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음식을 먹어보고 전통 놀이를 직접 해보니 많은 부분이 한국의 문화와 비슷해서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말레이시아의 문화처럼 나도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김가은(A) (청소년)	주제	코로나와 우리의 일상
		내용	저는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토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9년 말에 첫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시간이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주변의 많은 것이 사라지고 또 변화했습니다.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직접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대신 줌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을 통해 오랫동안 교육받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청소년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코로나 발병 이후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해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하니 앞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 회복에 집중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토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본 주제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우리 청소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의논해볼 수 있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	김가은(B) (청소년)	주제	현대 사회의 다양성
		내용	대부분의 국민이 비슷한 문화를 나누고 있는 한국과 달리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섞여 있는 말레이시아의 참가자들과 교류하며 대한민국 밖의 다문화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아 더욱 특별한 활동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의상을 입으며 다른 이름을 가진 참가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갑게 행동하는 것을 옆에서 보며 우리나라 또한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국제결혼이나 이민, 일자리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거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밑에서 자란 청소년도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만날 일이 늘어나겠지만, 포용적인 자세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김나연 (청소년)	주제	코로나19 시대의 국제 교류
		내용	코로나19가 지속되며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점차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 중국 교류 활동을 통해 현지에 방문하고, 타국의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시야를 넓히곤 했었던 기억이 종종 떠오르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국가 간 온라인 국제 교류라는 활동을 발견하게 했고 최종 합격하여 이 프로그램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사실에

5	김나연 (청소년)	내용	걱정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활동해보니 비대면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장점도 많았습니다. 시간의 제한 없이 연락할 수 있었고, sns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공동과제를 수행하며 1가지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실제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6	김민주 (청소년)	주제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의 자세에서 배우다
		내용	첫날 문화 발표 시간에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의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직접 음악에 맞추어 전통 무용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다들 진지한 자세로 임하면서도 무척이나 즐거워 보였다.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류 행사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것, 잘해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감과 피로를 느낀 나와 달리, 웃음꽃을 피우는 말레이시아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자신감과 여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7	김빛고은 (서기)	주제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한 기회
		내용	저는 어떤 것을 처음 접할 때, 조금은 두려워하거나 약간은 편협한 시각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다문화의 공존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고 존중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경험 없이 자연스럽게 이에 흡수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를 흡수, 습득해가며 살아온 말레이시아 청소년들과의 만남으로 이러한 부분에 어떤 태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나라에는 다양한 문화가 곳곳에 자리 잡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이 될 젊은 세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화합에 조금 더 쉽고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깊은 이해와 접근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 및 학생들이 이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진다면 다문화 공존와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음 단계를 자연스러운 인식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김심성 (청소년)	주제	교류 활동을 통해 되돌아보는 '나'
		내용	교류 활동 전 사전역량평가를 진행하며 질문을 보고 고민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스스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보리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일 차 활동까지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일 차와 공동과제 수행에 있어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이면서 다른 국가의 친구들... 학과 유학생 친구들과의 약간의 교류가 있었지만, 교류 활동은 너무나 새롭고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낯선 환경에도 적응이 빠른 편이다. 그러나 이 상황을 낯설게 느끼는 '나'를 발견했을 때, 문화와 언어를 잘 모르는 다른 국가의 사람들로부터 큰 벽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고민은 짧게 그리고 부딪혀 보는 성격이라 그 벽에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공동과제를 수행하며, 말레이시아 친구와 소통하면서 한 가지 크게 다가온 생각이 있다면, '별 다를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다를 뿐 똑같은 사람, 대학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3일 차 교류가 끝나고 사후 역량평가를 진행했을 때, 질문에 대해 짧게 고민하고 당연하게 느끼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열심히 참여한 보람이 있는 만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류 활동을 통한 상대 국가와의 관계성은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겪는 모든 인간관계의 연장선이고, 조금 더 폭이 넓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레 겁부터 먹고 망설이는 것보다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성장하는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류달헌 (청소년)	주제	다른 문화를 만난다는 것
		내용	세계는 이제 초연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북아에 위치해 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한반도라는 땅을 지키면서, 우리는 다른 민족에 다소 배타적인 민족적 가치관을 확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순혈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오히려 우수하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들을 민족우월주의자라고 칭하겠습니다.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공생하는 모습이 멋진 지구촌 시민이니까. 라는 말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옳고 절대적인 진리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 사회에서 무역 제재는 한 나라를 궁지로 몰아세울만큼, 어쩌면 총성보다 더 무서운 파급력을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 G20중 수출 의존도 3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1위는 네덜란드, 2위는 독일이고, 자체 시장인 EU 안에서 활발한 무역이 이뤄지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심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는 외풍에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9	류달헌 (청소년)	내용	동남아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CJ를 비롯한 국내 여러 기업도 동남아로 진출을 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동남아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베트콩, 이주노동자, 가난한 나라, 마사지 등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라고 하면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동남아는 우리나라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럼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욕하는 나라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강제 징용 판결 문제로 일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걸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서양인들의 차별에는 피해자인척하면서 동남아인들을 비하하는 한국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코리아 보이콧'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우월주의자들에게 역설적이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타파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고민해봐야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필자는 이런 인식을 개선할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를 만난다는 것.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 그들을 이해하려 하고 유대감을 쌓아간다면 우리도 조금씩 선진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10	박민혜 (총무)	주제	같은 시간을 지나는 모두 다른 사람들
		내용	나와 같이 팀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한 말레이시아 팀원을 바라보던 눈과 똑같은 눈길로 우리나라에서 마주치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프로그램 중에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불쾌함을 느낀 상황은 없었을까 되돌아도 보게 됩니다. 늘 하던 생각이지만 국적의 의미와 국경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딘가에서는 온라인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활동을 하고, 어딘가에서는 해가 뜰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잔치를 열고, 어딘가에서는 언제 폭탄이 떨어질까 종일 걱정하고, 어딘가에서는 수영을 하고, 어딘가에서는 하루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 아이가 강을 건너고, 이 모든 일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지 않더라도 하루종일 아프거나 괴롭거나 겁먹거나 위험 속에 놓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습니다.
11	박수빈 (영상)	주제	우린 모두 친구
		내용	이 교류를 시작하기 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말레이시아 대표단, 그리고 같은 한국 팀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가 모이니 나의 예상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보낼 수

11	박수빈 (영상)	내용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함께 아이디어도 짜며 다른 나라에 살지만, 또래로서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보낸 시간이 바로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12	오경진 (홍보)	주제	다민족 국가의 모습
		내용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이기보다 한민족 국가에 더 가까워서 사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들이 말레이시아로 건너와서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 종교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것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현재는 말레이시아 사람이라고 해도 과거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민족 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극복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갈까 하는 궁금증이 컸습니다. 국가간 온라인 교류를 마무리한 뒤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러한 갈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와 노력 역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민족에 상관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교류를 마친 뒤, 활동을 시작하기 전과 달리 다양한 민족에 따른 갈등보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 생기는 문화와 종교에 대해 더욱 흥미가 갔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 종교에 대해 더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이 되었으며 종교가 다르고 그 종교의 규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를 때 서로가 그 종교에 대해 얼마나 이해해주어야 하는지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가 공존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말레이시아의 문화가 신기했고 흥미로우며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3	이수정 (청소년)	주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내용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할 당시 새로운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면접 절차 또한 큰 고비였고 매우 긴장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팀이 꾸려진 후 매주 1~2회씩은 화상회의가 있었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서로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어떠한 의견도 주의 깊게 들어주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문화발표와 사전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13	이수정 (청소년)	내용	교류 활동 당일 말레이시아 친구들도 누구보다 이 프로그램에 진심이었으며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떻게 회의록을 적으면 좋을지, 구성은 어떻게 해볼지를 손짓, 발짓을 이용해서라도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교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감정을 나누는 일은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거나 활발한 성격이 아닌 '진실된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4	최지선 (서기)	주제	진정한 교류란?
		내용	교류란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국제 교류 활동은 교류의 정의를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문화의 트렌드를 위주로 발표하며 우리의 사상을 보여주려 했고,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자국의 문화와 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문화를 공유만 한다면 과연 그게 진정한 교류일까? '서로 통함'이라는 의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3일간의 활동 모두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번 국제 교류 활동이 뜻깊고 가슴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15	허예지 (청소년)	주제	글로벌 시티즌십에 한 걸음 더 다가가다.
		내용	말로만 많이 듣고 말했던 '글로벌 시티즌십'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이기에 심도 있는 교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터넷 연결, 비대면의 한계를 많이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의 한계를 대표단의 [글로벌 시티즌 마인드]로 상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진심으로 서로의 문화를 궁금해했고,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대표단들은 블루스크린 앞에 모여서 전통 옷을 입고 전통 무용을 선사해주었습니다. 비대면이었지만 직접 본 것과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론 활동과 문화교류 활동 또한 서로의 환경을 존중하고 자국만의 고유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대화가 가능했고, 짧은 기간 비대면 활동이었지만 다들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의 한계에 대해 비관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대면이라서, 언어가 부족해서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않고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나의 글로벌 시티즌십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6	홍서현 (청소년)	주제	각국 청소년들의 열정과 애국
		내용	첫 문화 발표 시간에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이 화려하고 예쁜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직접 음악에 맞추어 전통 무용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팀 청소년들의 화려한 춤사위에 놀랐던 것도 맞지만,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모든 말레이시아 팀 청소년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배우 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하고

16	홍서현 (청소년)	내용	싶어서, 따로 열심히 연습하고 모두가 즐기며 참여했다는 것이 그들의 밝은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자신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함께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단 역시 그들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참여하였으나, 솔직히 말레이시아 대표단만큼 진심으로 즐긴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말레이시아 대표단 친구들을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의 태도를 본받아 다음에 위 교류 활동 기회가 또 생긴다면 꼭 다시 참여해,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즐겨보고 싶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양국의 청소년 대표단들 덕분에 애국심과 여유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 개인소감문

구분	이름 · 역할	개인소감문
1	하지희 (대표)	원래부터 국제 교류에 관심이 많아 지원하였고, 다행히 합격하였습니다. 합격한 이후 자신감이 생겼고, 이번 활동에 진심을 다하여 참여하고 싶어 대표도 지원하여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서툰 점도 많았고, 10명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었고, 부족한 점은 의견을 내어 서로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국제 교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발표를 준비하면서 눈빛이 열정에 가득 차 반짝거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직접 만나서 하지만 못하였지만 두 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열심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한 분량을 마지막에는 줄일 정도였습니다. 대표로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협력하는 방법, 또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방법까지 여러 방면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글을 빌려 두 달 동안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준 한국 대표단 팀원들,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퍼실리테이터님, 코디네이터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길었던 준비 기간과 비교하여 교류 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짧아서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교류 활동 중에는 한국 대표단과의 준비에서도, 말레이시아 대표단과의 준비에서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느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단도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고,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가는 상황에서 더 애틋해진 것 같습니다. 활동이 끝난 이후 친해진 말레이시아 대표들과는 꼭 오랫동안 연락하기로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선 친구가 생긴 것이 저에게는 참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직접 만나서 했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이고, 더 인상 깊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었던 것이 비대면으로 바뀐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두 달 동안 준비하고 대면으로 만나 발표를 했다면 더 벅찼을 것 같습니다. 꼭 다음에는 직접 만나서 같이 활동하고 싶습니다.

2	김나경 (부대표)	다양한 문화,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많은 경험을 즐겨하고자 하는 저는 해외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고 봉사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알아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며 이 꿈 점차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어느 날, 학과 교수님의 공지 알림을 확인하고 저는 그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새롭게 알게 되고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저는 청소년 국가대표라는 자부심과 함께 본 프로그램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이 있었던 말레이시아에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류 활동 전 말레이시아와 관련된 영상 등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영상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운 만큼 교류 활동의 기대도 컸다. 말레이시아 청소년 대표단을 만나기 전 한국 청소년 대표와 함께 한국 문화발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도 많은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과 전체 회의와 팀별 회의가 여러 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표들을 보고 참여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과 한국 문화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를 끝내고 말레이시아 청소년 대표단이 준비한 말레이시아 문화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대표단이 준비한 직접 준비한 다양한 춤을 직접 추는 영상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비대면을 통해 만났지만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모두 한국 대표단을 환영해주었으며 서로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토의를 진행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진행된 온라인 대학 수업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대표단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고 서로의 의견에 웃으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과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대표단이 말레이시아의 전통 놀이 바투 세렘반과 한국의 공기놀이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영상을 보여줬을 때 정말 비슷해서 신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놀이인 공기를 알 정도의 말레이시아 대표단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고 느꼈으며 저도 말레이시아 대표단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더 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직접 말레이시아 대표단을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과 목소리 끊김이 있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것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통역해주시는 통역요원분들 덕분에 언어에 대해 불편함이 없었으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영어에 대하여 더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란 정말 다양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교류 활동과 문화 체험을 통해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며 신기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말레이시아의 문화처럼 저도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해외에 가서 여러 나라의 청소년 대표단과 만나 국가 간 교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3	김가은(A) (청소년)	이번 말레이시아와의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본격적인 교류 활동 전의 준비과정부터 교류 당일에 있던 발표와 토의 활동 그리고 공동과제까지 과정 하나하나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 발표와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협업해가는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배울 점을 찾아가며 한 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토의 활동에서 각국의 여러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다양각색한 의견들을 들어보며 제 의식과 생각이 확장되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팀원들과 성장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청소년과의 교류로 한층 더 깊게 발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김가은(B) (청소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된 후, 자택에서 활동을 하며 다소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집중을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란 대표단과 소통하며 차이점을 극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말레이시아 참가자들이 한국인인 나보다 케이팝을 더 잘 알고 좋아했으며 오징어 게임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국 드라마도 꾸준히 챙겨본다고 하는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접하기 쉬워졌다는 것이 크게 와닿았으며, 한국이 그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의 엔터테인먼트를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기뻤습니다.
5	김나연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팀원들과 밤낮없이 조사하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며 애국심 또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타키나발루 등 관광지로 유명한 말레이시아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교류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어떤 인종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를 들으며 타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한국에 가자고 말한 것처럼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고 실제로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는 날을 꿈꿔봅니다.
6	김민주 (청소년)	이번 활동을 통해 국가 간 교류가 가지는 깊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한국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고, 그래서 언어교환, 펜팔 등 국제 교류 경험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 교류들이 주로 1:1의 사적인 대화와 흥미 위주였다면, 이번 국가 간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사전 활동부터 교류, 사후 활동까지 하나하나 공식적인 절차가 있고, 그 안에서 상대국 청소년은 물론 한국 청소년들과의 협업이 교류 내내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양국의 청소년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고가 수반됩니다. 즉 이 활동은 단순히 재미있는 경험이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팀 프로젝트였습니다. 많은 고생과 준비를 한 만큼 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배운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7	김빛고은 (서기)	아직까지 많은 협동 프로젝트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는데. 이번 국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1일차 교류를 준비하며, 한국 대표단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조합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등의 활동이 대표, 부대표님들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졌으며 또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내면으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2일차 교류 준비를 추가적으로 준비하면서, 준비과정이 조금 급박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빠른 진행을 고수하던 제 자신이 다른 팀원들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비대면 진행을 고려하며 팀원들에게 조금 더 의사 표현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대표단과 함께한 3일차 교류 준비 기간 동안에는, 넉넉하다고 생각했지만, 체감상 짧은 준비시간으로 말레이시아 대표단과 소통을 할 때마다 진행 상황을 생각하면 초조해졌습니다. 즐거운 교류를 위해 참가한 내 목표가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찰나,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우리 팀원, 그리고 상대 팀원들을 보며 제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고 더욱 든든한 팀원이 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즐기면서 활동에 임하게 되니, 저의 마음 역시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 기간 동안, 저 내면에는 약간의 굴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와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고 잘 해내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스펀지 팀원들에게 활동에 임하는 태도와 즐겁게 하나하나 수행해나가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또 직접 교류를 하며 '항상 존중을 기반으로 잘 활동해 나가자.'

7	김빛고은 (서기)	라는 저만의 신념,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게 된 시간을 얻게 되어 너무 만족스럽고 즐거웠습니다.
8	김심성 (청소년)	정말 우연찮게 얻게 된 면접의 기회와 연이은 합격을 통해 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 전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4학년 막 학기를 남기고 바쁜 와중이어서 끝까지 활동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에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내 외 팀 프로젝트에 참여 경험이 있더라도 10명 이상이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적은 편이어서 이 활동은 저에게는 협력과 의사소통의 면에서 많은 배움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소통에 있어 미숙한 점과 장점이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활동이 진행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활동 전에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한국 대표단만이라도 직접 대면으로 만나 활동을 했다면 더 풍성한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	류달헌 (청소년)	아직도 지원 마감 마지막날까지 지원서를 이리저리 수정하며 써내려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면접 보는 날 몸이 아파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인해 합격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없이 열어본 합격자 공고가 더 기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대표'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느껴졌지만, 지원서에 간절함이 들어가 온 기회라 생각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만큼 충실히 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공어를 학습하면서 현지인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서 언어만을 중시하면 싱거운 '번역'이 되지만, 상대 국가의 문화를 공부해가며 상대를 위한 말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컨텐츠 제작, 발표를 준비하며 나도 몰랐던 우리나라의 모습, 사귀게 된 외국인 친구들 모두 소중한 결실로 남게 되어 기쁩니다.
10	박수빈 (영상)	한국을 대표해 한국을 소개하고 말레이시아 대표단과 교류하며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알아갈 수 있었던 약 2개월은 나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처음이라 초반에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팀 대표님과 부대표님 그리고 열정적인 팀원분들 덕분에 방향을 잡고 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지 팀에서 활동하면서 처음 영상과 카드 뉴스를 제작했었는데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활동 당일 한국과 말레이시아 대표단께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뿌듯했습니다.
11	박민혜 (총무)	서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과 공동의 과제를 계획하고 완성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넘어가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통역을 거쳐야만 서로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사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말이 다르거나 매일 먹는 점심 메뉴는 달라도 개는 개끼리 비슷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비슷하듯이 사람은 사람끼리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나와 조금씩 다르면서 그래도 가만히 보면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내 세상을 점점 넓히고 싶습니다.
12	오경진 (홍보)	말레이시아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에 선발이 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놀랍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학교 활동을 하다가 결과를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도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벌써 시간이 지나 파견 일정이 끝나고 결과보고서를 쓰고 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고 지난날들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아직 사후활동이 차차 남아있으니 끝까지 파이팅해서 좋은

12	오경진 (홍보)	결과 만들어내도록 제 스스로부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온라인 교류 활동, 그 시간 동안 말레이시아 속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나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동남아를 생각하면 약간의 개발도상국 이미지가 강했던 면이 있었는데 막상 말레이시아 분들과 활동을 이어나가 보니 너무나도 발전이 잘 되었고 생활 수준도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저희를 생각해주시고 챙겨주신 말레이시아 청소년분들의 정을 느끼면서 어느 나라, 동네든 사람들 간의 따뜻한 교류만 있다면 어느 공간에서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간 시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리포터, 서포터즈, 기자단, 봉사단 등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정말 많이 참여해왔던 저이지만 이번 활동이 가장 저에게 임팩트를 남겨 앞으로의 저의 진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나가야 될지를 정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해외 대학생들을 선발해 1년 동안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다르마시스와' 에 지원을 해보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23살이라 미숙한 점도 많고 더 채워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제 자신을 발전시켜 더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국가 간 온라인 교류에서의 시간들을 저는 활동 종료 이후에도 계속 떠올리며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저의 꿈을 더욱 키워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는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3	이수정 (청소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23년을 살아왔고 이러한 경험은 이번이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고 수용적인 성향에 덜 활동적인 나를 특이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괜히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출퇴근을 하고 학원에 다니는 일정으로 남에게 피해가 갈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운 만큼 최선을 다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본 성향, 성격과 다를지라도 눈을 질끈 감고 손을 들어 의견을 말하거나, 소감 발표자에 자원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며 '한계에 나를 가두지 않아야 겠다'는 느낌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나도 발표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과 무난히 소통할 수 있었으며 팀원과 친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해버릇하지 않았던 것들이라 어색하고 서툴 뿐,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이 아쉬웠지만 아쉬운 느낌보다는 새롭고 벅찬 느낌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다음 대면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더욱 나의 한계를 깨고 적극적인 성격을 종종 연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14	최지선 (서기)	서기로서 회의에 참석하며, 어떻게 하면 짧고 간결하게 대표단 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항상 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처음 서기의 역할을 담당했던 나로서는 어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의 교류에 원활함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임했던 결과, 모든 회의록을 수월하게 작성하며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단 분들과 교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두려웠던 점은, 소통의 방식과 온라인 교류의 한계였습니다. 매체로 교류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역사분들과 퍼실리테이터 선생님, 원활한 실시간 소통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덕에 이런 두려움을 깰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의 힘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15	허예지 (청소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티즌십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부족하고, 나중에 합류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 팀 이름인 스펀지

15	허예지 (청소년)	처럼 잘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절하게 활동 방향이나 업무 분담에 대해 알려준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나중에 유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기획하게 된다면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여 나 또한 잘 설명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대면의 한계를 벗어나 말레이시아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이 직접 준비한 공연 때문이었습니다. 크로마키 배경과 전통 옷으로 현장감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더욱 말레이시아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또한 문화체험을 하며 우리나라 유행어를 따라 하고, 우리나라 음식점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며 친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타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나와 크게 상관없는 문화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유행하는 옷 스타일, 취미를 공유하면서 비슷한 문화를 지니고 있단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나라라기보단 다른 환경에서 거주 중인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라 청소년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 것이 이번 활동에서 얻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나와 다를 것이라고 결론짓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문화 수용성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16	홍서현 (청소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 활동을 진행하며 말레이시아 청소년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 교육 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다 보니 나 역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사도 다시 한번 조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잠시 잊고 있던 것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한복이 아름다운 나라, 한국. 다양한 전통음식들을 가진 나라, 한국. 재미있는 전통 놀이들이 많은 나라, 한국. 배우기 쉽고, 여러 과학적 원리가 담긴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 한국. 아주 뜻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 한국.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동안은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 교류를 통해서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으며, 내가 이렇게 깊은 역사가 남긴 나라인 한국의 국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소개하며 너무나도 밝은 미소를 지은 말레이시아 대표단들을 보면서, 나 역시 그들처럼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는 청소년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하였고, 실제로 지난 3주 동안 그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가 대한민국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며, 위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깊은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17	안성호 (통역)	말레이시아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통역요원으로서 회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웠지만 원활한 의사소통과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기참여자로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통역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연하게 설정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	이다혜 (통역)	대학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며 말레이시아 출신 친구들과 함께 소속되어 팀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에 아웃 리치를 함께 나가는 그러한 모임이었는데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류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사실 2020년 참여했던 브루나이 교류가 흥미로웠고 국제 교류와 공공 외교에 대한 관심에서 지원

18	이다혜 (통역)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기 전에는 말레이시아가 팜유 문제로 국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이어서 치킨을 아주 선호한다는 것 외로는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 청소년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서로의 문화에 흥미로운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올해 11월 인니에서 개최되는 G20의 주된 의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논의한 그룹2 토의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의 G20 중점우선 이슈는 국제보건시스템 (Global Health Architecture), 디지털변환(Digital Transformation),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인데 국제교류의 장이 단순한 논의를 넘어 Y20와 같이 어떠한 청소년 시각에서의 voice를 낼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 청소년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 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류의 장이 다양한 국가의 더 많은 친구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9	장윤지 (통역)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가 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되었던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는 과정에 몸담을 수 있어 더욱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었을지언정, 각자의 개인 시간에 쏟는 참가자들의 열정을 옆에서 관찰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청소년 참가자들의 활동을 서포트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한 측면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 자신 또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참가자들이 활동 과정에서 소통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통역으로서의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	조세라 (통역)	국가 간 온라인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통역 요원으로 참가한 것이 세 번째였는데, 이번 말레이시아 교류 프로그램이 제일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참가자들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참가하고, 시간을 쪼개어 매번 회의를 가지는 것을 보고 뿌듯하고 저도 더 열심히 통역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단도 함께 모여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고 말레이시아 측의 열의와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류 과정에서 두 국가가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고, 통역사로서 저의 개인적인 문화적 및 언어적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

5 자체평가

구분	평가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김가은A)
좋았던 점	멀리 있는 말레이시아 청소년들과 온라인 상으로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다른 청소년들과 활동하면서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	온라인의 장점이자 단점인 원거리 소통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쉬웠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장비 차이로 지장이 생긴다거나 점검하는데 시간이 걸려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김나경)
좋았던 점	한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공과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청소년 대표들과 온라인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멀면서 가까운 말레이시아의 문화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가진 말레이시아에 더 관심이 생겼으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더 관심이 생겼으며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쉬웠던 점	대면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직접 과정들은 볼 수 없었지만 많은 도움을 주신 통역요원, 운영진을 만나 뵙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한국 국가대표와 대면으로 자주 만나볼 수 있었다면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가대표와는 서툰 영어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과 문화, 사소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열심히 물어보고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서툰 영어만큼이나 통역요원님들에게 회화와 관련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운영진을 뵐 수 있었다면 전체적인 흐름 및 진행 파악, 그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빠르게 물어보며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대면인 만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연결, 음향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들의 사전활동인 문화 발표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준비를 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청소년들과 다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와 시간이 따로 없어 아쉬웠습니다. 또 많은 국가대표와 서로 교류하며 공동과제 활동을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하지희)
좋았던 점	한국을 대표하여 다른 국가에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언어를 알게 되어 짧게나마 자기소개를 말레이어로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쉬웠던 점	코로나로 인해 한국 대표단이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한계점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꼭 대면으로 만나서 진행을 하고 싶고, 직접 말레이시아에 방문하여 몸소 느껴보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김심성)
좋았던 점	코로나 시기라는 한계로 인해 직접적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국가 간 교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인 성장에 있어 성취감을 느껴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아쉬웠던 점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한국 대표단끼리 직접 만나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이 크게 아쉬웠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최지선)
좋았던 점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으로서 말레이시아 국가와 교류를 하게 되었던 점에 크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더욱 넓은 시야를 얻을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	코로나19 시기에 교류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소통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박민혜)
좋았던 점	말레이시아 및 한국 대표단과 소통한 시간은 모두 좋았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이라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어 탄소발자국도 더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	온라인이라 좋은 점이 많았지만 직접 만나서 활동하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대표단과 소통하는 시간에 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교류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시간을 훨씬 많이 쓴 것 같아 가능하다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사전활동으로 개인 목표 등을 설정했는데, 정작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과관리는 미흡하여 사전활동이 더욱 의미 있도록 개선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허예지)
좋았던 점	말레이시아 현지 청소년이 직접 친절하게 자국 문화를 소개해주어서 더욱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타국 청소년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를 돌아보며 고유한 한국만의 '미'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토의 외에 함께 활동하며 스몰 토킹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	늦게 합류하여 사전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사전 활동에 대한 참여가 낮아 아쉬웠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이수정)
좋았던 점	매주 1~2회의 많은 회의가 있었는데 매 회의 때마다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더라도 자세한 회의록을 통해 모두가 팀을 끌고 가는 느낌이 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친구들도 교류 활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교류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깊게 느꼈습니다.
	비대면인 만큼 최대한 생동감 있는 활동을 위해 바깥에서 팀별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범위가 매우 좁아 크게 아쉽습니다. 버스/지하철은 교통비가 아예 지원되지 않았고 팀별 활동의 경우 기차나 비행기 비용

아쉬웠던 점	조차도 지원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기한이 타이트하고 그 양이 방대하여 너무 형식적인 보고서에 집중하는 느낌이 큽니다. 더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박수빈)
좋았던 점	예전 활동을 참고할 수 있었던 점과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말레이시아 대표단과 친해질 수 있었고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뜻깊었습니다.
아쉬웠던 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으로 예정되었던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아쉬웠던 것 같고 이에 따라 활동 당일날 소통 오류가 많았었던 것 같아 그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김나연)
좋았던 점	한국을 대표해서 온라인으로나마 말레이시아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교류국의 문화를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공동과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점입니다. 기존 한국 청소년들과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행사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아쉬웠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김빛고은)
좋았던 점	많은 팀원들이 한국을 알리며 말레이시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류라는 목적을 통해 모였고, 또 모두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서로의 동기부여가 되어준 것 같아 좋았습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더욱 큰 친밀감을 얻게 되었고, 이번 교류를 기점으로 타문화를 대할 때의 가장 이상적인 태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나만의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아 많은 면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웠던 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좋은 부분 역시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활동의 단점인 활발한 의사소통이 불가한 점이 이번 활동에 존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단과 달리, 코로나19에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해가 됐지만, 온라인상으로만 교류가 계속해서 이뤄진 점이 아쉬웠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김민주)
좋았던 점	무거운 분위기의 행사가 아니라 다 함께 즐기면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단과 팀을 이뤄 함께 토론하고 공동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에서도 배울 수 없는, 말레이시아 가지는 분위기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대표단, 말레이시아 대표단과 직접 만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오경진)
좋았던 점	현 코로나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라는 머나먼 동남아시아 국가를 온라인으로 더 가깝게 만나고 현지 분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웠던 점	아무래도 온라인 활동이다 보니 공동과제 활동 시 말레이시아 측과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6 차기 참가자를 위한 조언

구 분	조언 내용
사전활동	사전활동의 경우,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개인적 측면의 경우에는, 첫째, 자신의 마인드셋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교류국 청소년과 직접적인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부분으로 스스로 자신이 타 국가에 대해 어떠한 편견 또는 사고방식을 지니는지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얻어가고 싶은지 뚜렷한 목표설정이 중요합니다. 활동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미리 교류국의 문화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활동하면서, 교류국의 문화와 관련하여 찾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못할 경우가 많아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미리 준비해 두면 교류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줌 회의가 정말 많았는데, 물론 개인 일정으로 인해 모든 회의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가능한 시간대에는 최대한 회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평한 역할분배입니다. 모두가 국가 간 교류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큼, 각 팀원 별로 일정 역할을 맡게 되는데, 해당 역할들을 정할 때 역할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팀원분들과 조장분들 모두 역할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맡게된 역할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활동	첫째, 소통이 중요합니다. 팀 활동이나 발표 준비 등 어려움이 생기면 되도록 빨리 대표 또는 퍼실리테이터 선생님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공유가 안 되면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 회의 또는 활동 도중 자신의 역할 수행이 어렵거나 불가할 때 팀원들에게 알리거나 또는 대표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의 부재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마무리 짓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팀 내 회의에 되도록 참여하고, 한마디씩이라도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보며 미리미리 숙지하여야 합니다. 회의에 참여하더라도 끝까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흐름으로 이 활동이 진행되는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어떠한 주제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다시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개인적인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팀플레이로 진행이 되기에 어떠한 파트에서 제출 및 완성이 늦어지면 팀 전체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완성도 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는 개인 역량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류활동	넷째, 열정적인 자세입니다. 교류 활동에서는 상대측 청소년들로부터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00을 얻어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 별다른 애정을 갖지 않고 단지 스펙 쌓기용으로 참여하여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얻어갈 수 있는지는 온전히 자신의 열정과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큰 열정을 갖고 참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역	통역 경험이 아예 없는 통역 참가자라면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서 통역 관련 영상을 미리 찾아보고 혼자서 소리 내서 하는 시역을 연습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 교류 국가의 영어 발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 영어 영상을 몇 개 시청하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역 장비 (마이크, 이어폰) 등을 구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통역 진행을 위해 상대 국가의 억양을 어느 정도 숙지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활용하거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홈페이지 상에 기재된 상대국 기참여자들의 영상이나 한국 대표단의 후기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단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안감은 크지 않게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조언합니다. 대본과 다르게 즉석에서 새로운 부분의 통역이 요해질 때도 많기 때문에 토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단어들을 미리 잘 숙지해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더욱 충실한 내용전달을 위해서 한 문단 문단별로 나누어 통역하는 편이 양측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제언	이 프로그램은 잘만 참여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저희는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많이 아쉬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할 때에는 대면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대면으로 진행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보다 얻을 것이 훨씬 많으실테니 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활동사진

아이스브레이킹(총 6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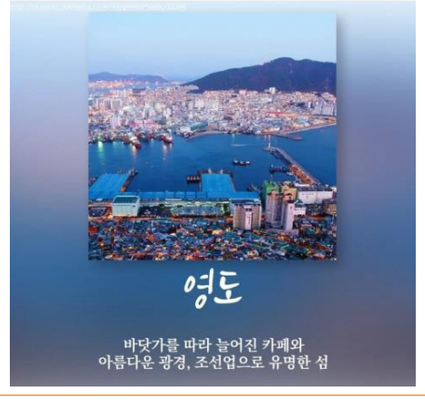
문화소개 발표 (총 48장)

자기소개 카드 뉴스 한국어·영어
sns 및 홈페이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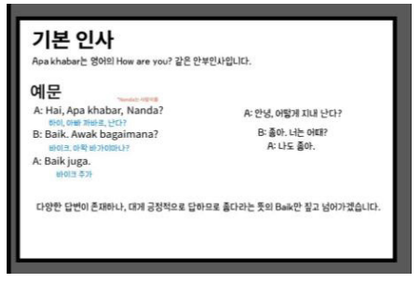
팀별 카드 뉴스 한국어·영어 SNS 및 홈페이지 공유
(문화 총 12장)

팀별 카드 뉴스 한국어·영어 SNS 및 홈페이지 공유
(교육, 총 28장)

팀별 카드 뉴스 한국어·영어 SNS 및
홈페이지 공유 (음식, 총 1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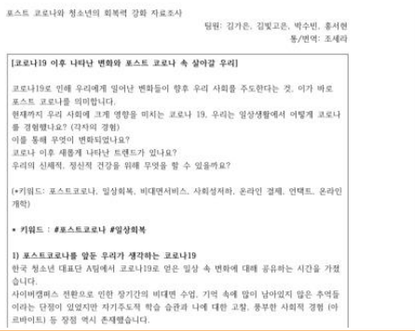
팀별 카드 뉴스 한국어·영어 SNS 공유(관광지, 총20장)



말레이시아 기본 회화 교육 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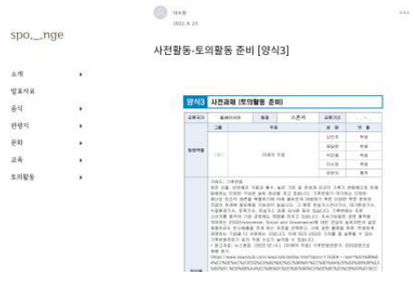
선물소개 PPT(총 8장)

문화 발표 자체 리허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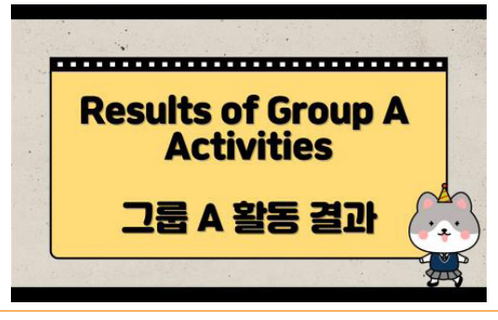
토의 A조 자료조사 (홈페이지 업로드)

토의 B조 자료조사 (홈페이지 업로드)



토의 C조 자료조사 (홈페이지 업로드)

토의 D조 자료조사 (홈페이지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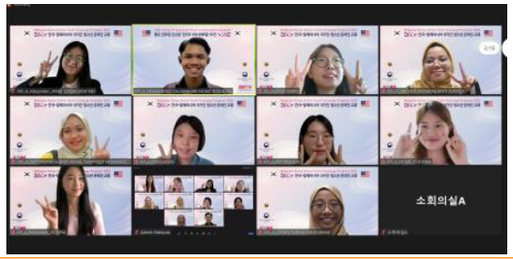


토의 A조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PPT(총 9장)

토의 B조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PPT (총 1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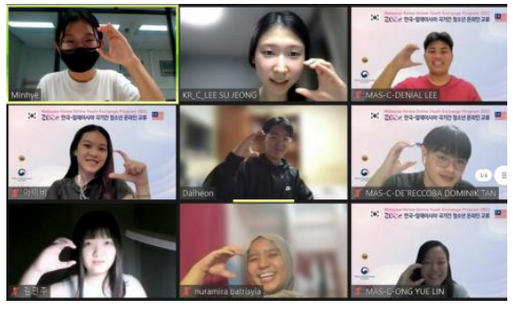
토의 C조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ppt (총 9장)

토의 D조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PPT (총 11장)



A조 토의 및 공동과제 회의 사진

B조 토의 및 공동과제 회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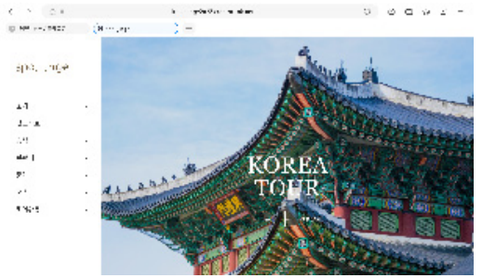


C조 토의 및 공동과제 회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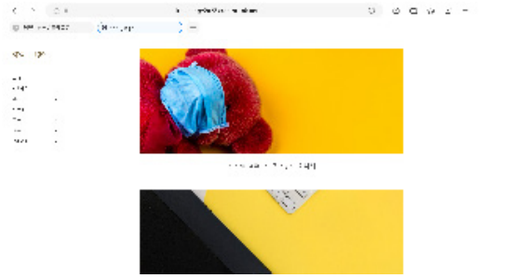
D조 토의 및 공동과제 회의 사진

한국 대표단 홈페이지 개설

홈페이지 발표 자료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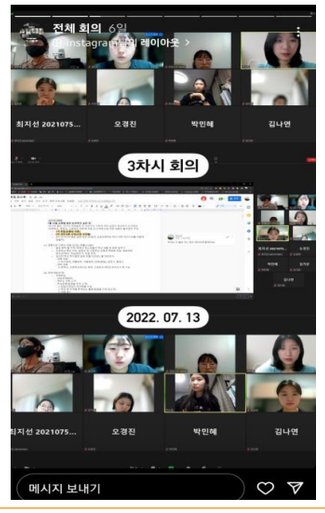
문화 발표 4팀의 페이지 개설 및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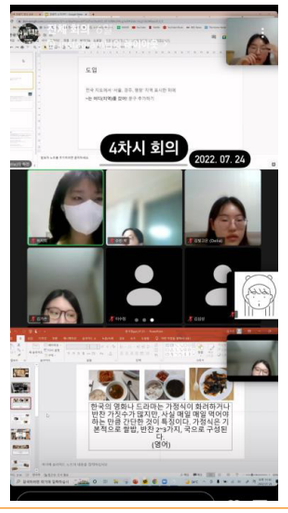
토의 주제별 총 4개의 페이지 개설 및 업로드

회의 일자 및 상황 SNS 공유 (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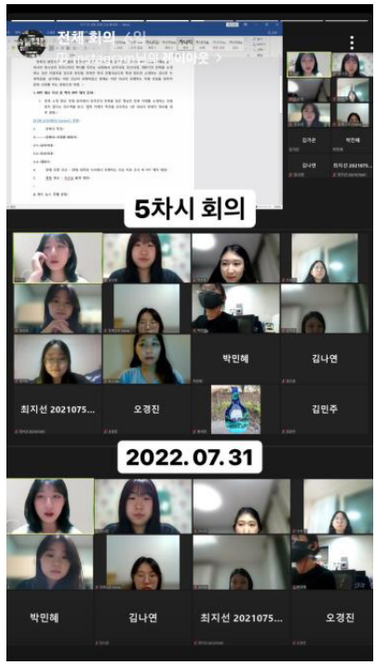
회의 일자 및 상황 SNS 공유 (2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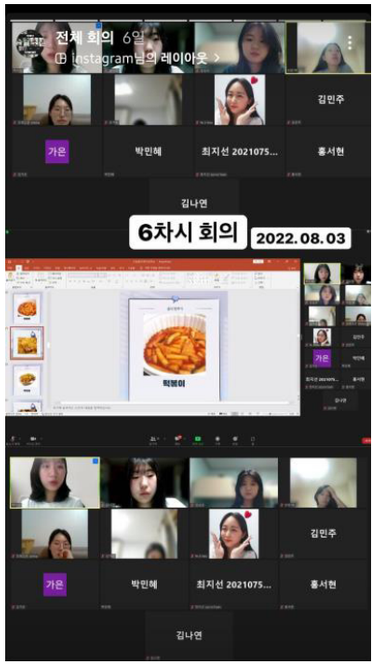
회의 일자 및 상황 SNS 공유 (3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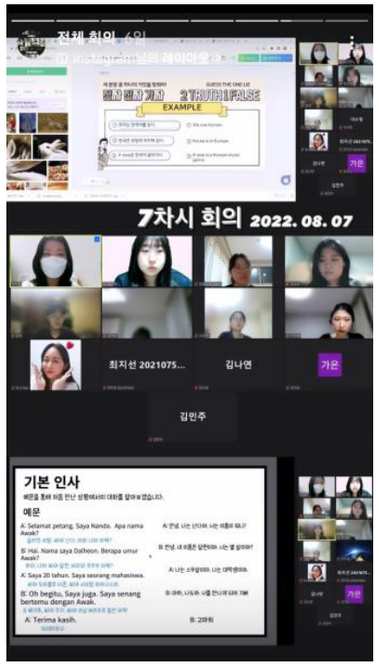
회의 일자 및 상황 SNS 공유 (4차시)



회의 일자 및 상황 SNS 공유 (5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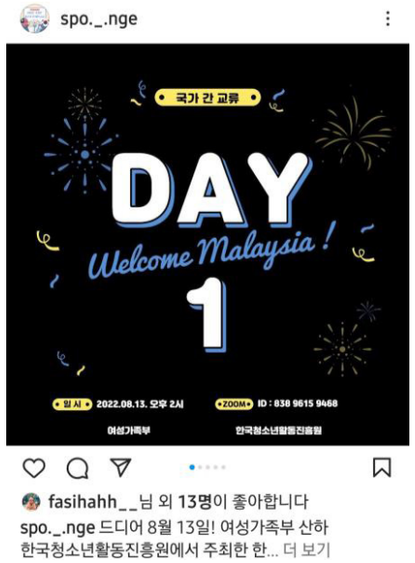


회의 일자 및 상황 SNS 공유 (6차시)



회의 일자 및 상황 SNS 공유 (7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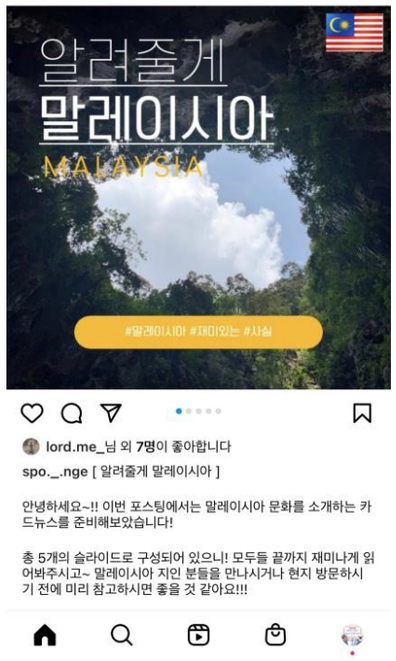
AR필터를 활용한 자기소개



교류 활동 결과 공유 (1일차)

교류 활동 결과 공유 (2일차)

교류 활동 결과 공유 (3일차)



말레이시아 문화 SNS 공유

8 기타 활동자료 목록

붙임	구 분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유형
1	사전활동	자기소개 카드 뉴스	단원들의 소개를 담은 카드 뉴스를 각각 영어와 한국어로 제작해 SNS 업로드	사진
2	사전활동	팀별 카드 뉴스 (문화)	한국의 유행 중인 문화나 패션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업로드	사진
3	사전활동	팀별 카드 뉴스 (교육)	수능 같은 한국 교육 문화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업로드	사진
4	사전활동	팀별 카드 뉴스 (음식)	한국의 유행 중인 음식이나 전통음식의 내용인 퀴즈 카드 뉴스를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업로드	사진
5	사전활동	팀별 카드 뉴스 (관광지)	한국에서 가볼만 한 관광지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소개해서 업로드	사진
6	사전활동	말레이시아 기본 회화 ppt	말레이시아 기본회화를 알려주는 ppt 자료	사진
7	사전활동	zoom 회의 진행	전체 회의를 줌으로 진행한 과정을 기록한 사진	HWP
8	사전활동	AR 필터를 활용한 자기소개	단원들이 공식 AR필터를 활용하여 특색있는 자기소개를 함	사진
9	교류활동	아이스 브레이킹 ppt	멤버들의 진실 2개 거짓 1개 중 거짓을 찾아내는 진진가 게임과 인물, 동물, 랜드마크 맞추기 게임	PPT
10	교류활동	아이스 브레이킹 대본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 대본	문서
11	교류활동	문화 발표 ppt	한국의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문화발표 ppt	PPT
12	교류활동	문화 발표 대본	문화 발표 진행 대본	문서
13	교류활동	문화 발표 영상	관광지, 음식, 문화, 교육팀에서 각자 제작한 문화발표 영상 – 6개	MP4
14	교류활동	선물소개 ppt	말레이시아 대표단에게 전달한 선물 소개	ppt
15	교류활동	선물소개 대본	선물소개 발표 진행 대본	문서
16	교류활동	A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PPT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 회복력	PPT
17	교류활동	B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PPT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PPT
18	교류활동	C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PPT	미래의 직업	PPT
19	교류활동	D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PPT	정신건강	PPT
20	교류활동	A 공동과제 영상	A조의 공동과제 영상	MP4
21	교류활동	B 공동과제 영상	B조의 공동과제 영상	MP4
22	교류활동	C 공동과제 영상	C조의 공동과제 영상	MP4
23	교류활동	D 공동과제 영상	D조의 공동과제 영상	MP4
24	교류활동	A 최종 발표 대본	A조의 최종 발표 대본	문서
25	교류활동	B 최종 발표 대본	B조의 최종 발표 대본	문서
26	교류활동	C 최종 발표 대본	C조의 최종 발표 대본	문서

27	교류활동	D 최종 발표 대본	D조의 최종 발표 대본	문서
28	사후활동	교류 활동 결과 공유 (SNS)	교류 활동의 결과를 팀 인스타그램에 공유	사진/링크
29	사후활동	말레이시아 문화 카드뉴스 공유 (SNS)	교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말레이시아 문화를 팀 인스타그램에 공유	사진
30	전체	한국 대표단 제작 홈페이지	사전 활동부터 사후활동까지 그동안의 준비과정과 비하인드를 팀 홈페이지에 공유 https://kmsponge2022.creatorlink.net/	링크
31	전체	한국 대표단 제작 팀 인스타그램	사전 활동부터 사후활동까지 제작된 카드 뉴스 및 전체 진행 상황, 사후 활동 결과물을 팀 인스타그램에 공유 @spo._.nge	링크

싱가포르

결과보고서

교류팀명	교류일정	교류인원
싱어롱	2022.8.27.(토), 8.28.(일), 9.2.(금)	22명 (청소년 14명, 통역 8명)

1 기본사항

사업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싱가포르	교류팀명	싱어롱
교류기간	2022.08.27.~09.02.	교류인원	22명 (청소년 14명, 통역 8명)
활동목표	1. 싱가포르 청소년과의 인적 네트워크 확장 및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글로벌 역량의 강화 2. 양국 관련된 국제 이슈를 토의함으로써 국제적 감수성의 함양, 국제 분야로의 시각 확장 3. 그룹 활동을 통해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을 기르고 기록을 통해서 이를 활발히 교류하며,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상대국의 특색과 다름을 존중하여 전 기간 원활히 활동을 진행		
활동 계획	사전	국내 팀원들 간 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연락처 공유를 미리 하도록 한다, 실제 교류활동에서 쓰일 게임 등을 사전 조사하도록 한다, 싱가포르라는 국가에 대한 사전 조사로 배경지식을 다져두도록 한다, 실제 교류활동에서 사용될 PPT, 영상, 자료를 교류활동, 촬영, 자료조사 담당 팀원들 중점으로 준비한다.	
	교류	싱가포르 청소년들이 알만한 K-아이돌 이상형 콘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한다, 교류활동, 촬영 담당 팀원을 중점으로 PPT, Vlog 형태의 영상에 착안해 한국 청소년의 하루 일과를 PPT화하여 자국 문화 소개(MZ 세대 – 유행 디저트, '인생네컷' 트렌드. 등) 세션을 진행한다, 〈미스터 선샤인〉과 같은 일부 자료를 활용하여 자국 역사 및 역사 의식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문화를 소개하도록 한다. 이때 한국의 전통을 논하는 기본적인 정보와 현재 한국 MZ 세대의 생활(의식주, 기타 활동 부분)을 비교,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싱가포르 청소년들과의 토의에 있어서는 법(가짜뉴스 법적 처벌, 마스크 규제 국가 간 처벌의 다름 정도, 싱가포르의 엄벌주의), 청소년(디지털 소외 계층,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 청소년의 미디어 활동), 환경 분야(물부족, 식량난)로 토의 주제를 생각한 바 있다. 싱가포르 측과의 협의를 통해 채택된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때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사후	교류 활동 후 퀴즈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 구글폼을 활용 및 추첨을 통한 상품 제공으로 사후 제작 콘텐츠 관심도를 높인다. 교류활동 이후 팀원들 간 활동 자체 피드백을 진행한다.	
활동 결과	사전	싱가포르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위해 사전에 싱가포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영화, 영상물, 기사, 칼럼 등 여러 매체를 스스로 찾아보며 싱가포르의 문화, 사회 전반의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또한 아이스브레이킹, 문화발표 세션으로 준비한 카훗 퀴즈 및 영상은 싱가포르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좋았다.	

활동 결과	교류	계획한 바와 같다. 교류활동, 촬영 담당 팀원을 중점으로 PPT, Vlog 형태의 영상에 착안해 한국 청소년의 하루 일과를 PPT화하여 자국 문화 소개(MZ 세대 – 유행 디저트, '인생네컷' 트렌드. 등) 세션을 진행하였다. 〈미스터 선샤인〉과 같은 일부 자료를 활용하여 자국 역사 및 역사 의식에 대해 소개하였고 한국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문화를 설명했다. 싱가포르 청소년들과의 토의에 있어서 '식량 안보'라는 대주제 하에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질병 유행', '기후 변화', '전쟁과 같은 갈등 상황', '불안정한 경제'라는 하위 원인 4개로 토의 그룹을 나누어 토론을 진행, 액션 플랜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후	계획한 바와 같이 교류 활동 후 퀴즈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의 SNS에 게시하였다. 구글폼을 활용 및 추첨을 통한 상품 제공으로 사후 제작 콘텐츠 관심도를 높였다.

팀원 역할	성 명	역할	내용
	강민정	자료 조사	사전 활동 시 싱가포르 관련 자료 조사
	박예본	교류 담당	본 교류활동 시의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서한별	총무	활동에 소모되는 지출 내역 회계 관리
	성승은	자료 조사	사전 활동 시 싱가포르 관련 자료 조사
	안하순	촬영	문화발표 Vlog 촬영 및 편집 담당
	엄수빈	서기	사전, 본 교류활동, 사후활동 보고서 작성 및 회의 기록
	이지혜	자료 조사	사전 활동 시 싱가포르 관련 자료 조사
	이현종	교류 담당	본 교류활동 시의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정민주	교류 담당	본 교류활동 시의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정서연	부대표	회의 주재 및 활동 총괄 보조
	조준희	교류 담당	본 교류활동 시의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추서진	대표	회의 주재 및 활동 총괄
	허고은	교류 담당	본 교류활동 시의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황현하	교류 담당	본 교류활동 시의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2 사전활동 결과

가. 활동 요약표

번호	활동날짜	사전활동 내용	장 소
1	2022.08.10.~08.20.	아이스브레이킹 세션 준비	온라인
2	2022.08.10.~08.20.	싱가포르 영화, 영상물, 기사 스크랩	온라인
3	2022.08.17.~08.20.	문화발표 Vlog 촬영 회의	온라인
4	2022.08.14.	문화발표용 제작 Vlog 촬영	안양역 일대
5	2022.08.14.~08.19.	영상 수정 및 편집	온라인
6	2022.08.19.~08.20.	영상 최종 편집 및 팀원 피드백	온라인

나. 사전활동 결과보고

사 업 명	2022 국가간 청소년 교류	교류국가	싱가포르
팀 명	싱어롱	작 성 자	엄수빈
활 동 명	교류 사전활동	참 석 자	대표단 전원
목표 대비 성과	목 표	성 과	
	1. 아이스브레이킹 세션 준비 2. 문화발표 준비 3. 교류국에 대한 사전 학습 활동	1. 카훗 플랫폼을 활용한 퀴즈 준비 완료 2. 대한민국 청소년의 일상을 담은 vlog 제작 3. 구한말~현대 변천 소개 PPT 제작 4. 싱가포르 관련 영화, 영상물, 기사 스크랩	
활동 결과	1. 아이스브레이킹 세션 준비 – 본 교류 활동 참가자, 한국 대표 연예인,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19문항의 아이스브레이킹용 퀴즈 준비. 카훗(Kahoot!)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할 예정임. (붙임1) – 최고 정답자에게 한국적 이미지가 각인된 상품(텀블러, 우산) 증정 예정 – 참가상으로 러기지 태그, 달고나 그립톡 증정 예정 2. 문화발표 준비 – 한국 청소년의 일상을 담은 vlog (3분 11초) (붙임2) ① (08/14~08/17) 촬영 회의 및 계획 구상, 일정 조율. 촬영 내용 합의 중 문화발표 시 활용할 드라마 장면들을 염두에 두고 현대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는 것에 방점을 둠 ② (08/14) 안양역에서 촬영 진행. 청소년의 일상을 담아내고자 이동 수단(버스, 지하철), 식당, 쇼핑몰(옷, 코스메틱), 카페, 포토 부스를 방문함. ③ 선정된 문화교류 세션 중 사용 드라마 장면과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식문화, 놀이 문화, 의복문화가 잘 보이도록 수정, 편집 진행 ④ (8/19) 최종 편집 완료 ⑤ (8/20) 팀원에 공개 후 피드백 수용 – 구한말~MZ세대의 모습 변천 소개 (PPT) (붙임3) ① 한국적 면모가 잘 드러나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응답하라 1988〉 등 소위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 캡쳐 및 vlog 영상 일부 캡쳐 → 구한말, 1990년대, 현재 순서로 한국의 일반적인 주거, 음식, 문화의 변천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 3. 싱가포르 관련 영화, 영상물, 기사 스크랩 – (영화) :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그레이트 월드〉 영화 감상 후 인상 깊었던 세 장면을 골라 이유를 공유하며 소감을 나눔 (붙임4) – (영상물) :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싱가포르의 일상 문화와 여행 시 주의점, 싱가포르의 다문화 사회적 성격을 담은 영상물을 감상 후 소감을 나눔, 참가자 개인의 경험과 관련지어 추천글을 남김 (붙임5) – (칼럼) : 싱가포르 사회상이 담긴 칼럼을 정독하고 인상 깊었던 구절을 골라 의견을 남겨봄. (붙임6) – (기사) :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연예 카테고리로 나누어 최신 싱가포르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현재 싱가포르의 동향을 이해함. (붙임7)	
자체 평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정리, 수행하여 진행한 팀워크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싱가포르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위해 사전에 싱가포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영화, 영상물, 기사, 칼럼 등 여러 매체를 스스로 찾아보며 싱가포르의 문화, 사회 전반의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청소년과 공유할 한국 MZ세대의 일상을 영상물로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팀원 내부적 호응도 높았는데, 활동의 계획, 진행 모두 청소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나아가 사전활동 중 역할별로 분화된 팀 내부에서, 그리고 대표단 전체가 서로가 수행한 활동들을 인지하고 산출된 결과물 상호 공유, 확인하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자체 피드백 또한 함께 진행하여 진정한 협력의 과정을 체감할 수 있었다.		
역할 분담	성 명	역 할	내 용
	추서진	대표	아이스브레이킹 세션 카훗 퀴즈 준비, 싱가포르 관련 정치 기사 스크랩
	정서연	부대표	싱가포르 관련 연예 기사 스크랩
	엄수빈	서기	싱가포르 관련 국내 및 외신의 사회 분야 기사 스크랩
	조민주	서기	싱가포르 관련 IT과학 기사 스크랩
	서한별	총무	사전활동 지출 내역 관리, 싱가포르 관련 문화/생활 기사 스크랩
	안하순	촬영	문화교류 세션용 한국 청소년 vlog 제작, 싱가포르 관련 영상물 리뷰
	조준희	교류	문화교류 PPT 디자인 및 제작, 영화 〈그레이트 월드〉 리뷰
	이현종	교류	문화교류 PPT 삽입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캡쳐, 칼럼 〈다채로운 매력의 나라 – 싱가포르〉 리뷰
	황현하	교류	문화교류 세션용 한국 청소년 vlog 제작, 싱가포르 관련 영상물 리뷰
	허고은	교류	문화교류 PPT 삽입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캡쳐, 넷플릭스 시리즈 〈싱가포르 소셜〉 리뷰
	정민주	교류	문화교류 세션용 한국 청소년 vlog 제작, 싱가포르 관련 영상물 리뷰

역할 분담	강민정	자료 조사	문화교류 PPT 삽입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캡쳐, 넷플릭스 시리즈 〈싱가포르 소셜〉 리뷰
	성승은	자료 조사	문화교류 PPT 삽입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캡쳐, 칼럼 〈다채로운 매력의 나라 – 싱가포르〉 리뷰
	이지혜	자료 조사	문화교류 PPT 디자인 및 제작,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리뷰
	박예본	자료 조사	아이스브레이킹 세션 카훗 퀴즈 준비, 영화 〈그레이트 월드〉 리뷰

	물 품	지출금액	용 도
지출 내역	한국 전통 음식	32,000	한국 문화 공유 목적 브이로그 촬영 소품
	인생 네컷 사진	7,000	한국 문화 공유 목적 브이로그 촬영 소품
	달고나 등 디저트	14,300	한국 문화 공유 목적 브이로그 촬영 소품

결과물

붙임1. 아이스브레이킹 세션 퀴즈(Kahoot!)
붙임2. 한국 청소년의 일상 vlog(영상 캡쳐본)
붙임3. 구한말~MZ세대 변천 소개 PPT(일부 캡쳐)
붙임4. 싱가포르 관련 영화 감상 및 의견 공유 기록
붙임5. 싱가포르 관련 영상물 감상 및 의견 공유 기록
붙임6. 싱가포르 관련 칼럼 정독 및 의견 공유 기록
붙임6. 싱가포르 관련 기사 스크랩 기록

3 교류활동 결과

가. 일정표

일 자	시간	세부내용	비 고
1일차 (08.27.)	12:00~12:19	개회사 및 축사	
	12:19~12:48	한국 청소년들 주최의 아이스브레이킹 (카훗 퀴즈 진행)	
	12:48~13:50	점심시간 (60분)	
	13:50~14:10	싱가포르 청소년들 주최의 아이스브레이킹 (물품 소개 진행)	
	14:10~14:20	휴식시간 (10분)	
	14:20~15:40	주제 소개 및 강연 1, 2	
	15:40~16:10	토의 그룹별 미팅	
2일차 (08.28.)	12:00~12:20	2차 일정 안내 및 싱가포르, 한국 이해 카훗 퀴즈 진행	
	12:20~13:10	문화 발표 (한국 20분, 싱가포르 20분)	
	13:11~14:11	점심시간 (60분)	
	14:11~14:56	토의활동 (세션1, 35분) 및 휴식시간 (10분)	
	14:56~15:36	토의활동 (세션2, 30분) 및 휴식시간 (10분)	
	15:36~16:40	그룹미팅 (공동과제 안내 및 회의)	
3일차 (09.02)	18:00~18:05	3차 일정 소개	
	18:05~19:15	토의결과 및 공동과제 발표	
	19:15~19:25	교류활동 소감발표	
	19:25~19:45	폐회, 인사말 및 단체 기념사진	

나. 세부 활동내용

• 1일차 (2022. 8. 27.)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 (한국 청소년 주최)
	주요내용	양국 청소년 간 어색한 분위기를 상쇄할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하였다. 황현하, 조준희 청소년을 중심으로 준비된 PPT를 활용하여 '한국팀 팀원 정보 맞추기', 'K-아이돌 및 배우 나이 맞추기', '한국 관련 정보 맞추기' 퀴즈 게임을 진행하였다. PPT 속 QR코드를 이용해 싱가포르 청소년들로 하여금 카훗(Kahoot!) 플랫폼에 접속하도록 하였고, 총 19개의 퀴즈를 풀이하도록 하여 최종 고득점자 4인(1등 – 한국적 이미지가 생겨진 우산, 2~4등 – 텀블러 / 수상자 외로도 참가 싱가포르 청소년들에게 참가상도 존재함)의 싱가포르 청소년들에게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게임 종료 후 한국 청소년들이 싱가포르 청소년들에게 문항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 한국의 대표단들 해설하며 문화적 이해를 도왔다.
2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 (싱가포르 청소년 주최)
	주요내용	점심 식사 후 양국 청소년들이 조금 더 활기차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성, 진행된 싱가포르 청소년 주최의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이었다. PPT에 게시된 물건 주제에 따라 한국 청소년들이 20초간 화면에 게시된 주제와 관련된 주위 물건을 찾아, 물건 소개 및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며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창시절을 잘 보여주는 물건', '어린 시절을 나타내는 물건', '별 모양이 있는 물건', '취미를 나타내는 물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이 있는 물건 (한국 국기인 태극기를 암시하는 색 활용)'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청소년들이 물건을 소개하면 통역을 통해 내용을 공유 받은 싱가포르 청소년들이 간단한 코멘트를 덧붙이고, 자신 또한 주제 관련으로 택한 물건을 이야기하며 본격적인 교류 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3	프로그램	전체강연 1 (식량 불안정의 격차 해소)
	주요내용	The Food Bank Singapore(TFBS) 소속의 James Chow 운영/기금마련부 매니저님의 〈식량 불안정의 격차 해소〉 강연으로 푸드 뱅크 기관과 식량 보안에 관한 싱가포르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음식의 다양성과 호화로움으로 유명한 나라이지만, 기아 문제가 뚜렷하며 음식물 배출량 또한 엄청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기도 하였다. TFBS는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식량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이다. 누구든지 푸드 뱅크에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 받은 음식은 음식 관련 커뮤니티에 연계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분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는 식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강연을 통해서 양국 청소년들은 양질의 강연과 인포그래픽을 통한 시각적 접근을 통해, 그리고 24시간 사용 가능한 뱅크 카드와 자판기 등의 실제 사례를 전해들으며 식량 문제 해소를 위한 디지털적인 접근이 가능하였고, 싱가포르 푸드 뱅크의 운영 방식과 동향, 식량 안보 문제의 심각성 등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4	프로그램	전체강연 2 (미래의 식품을 디자인하다)
	주요내용	싱가포르의 식품회사 쇼크(SHIOCK) 소속의 시카 말호트라 비서실장님의 〈미래의 식품을 디자인하다〉 강연으로 미래 식량에 관한 산업계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2050년에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상황, 육류 및 갑각류와 같은 해산물 시장 규모는 막대하리라 본다. 하지만 남획과 환경오염 등으로 이것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줄기세포 전문가, 엔지니어, 과학자들로 구성된 SHIOCK는 배양된 해산물과 육류를 판매하고 있고, 싱가포르에는 배양된 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특허 출현 중에 있는 세포 배양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에 소개하곤 한다. 해당 강연으로 양국의 청소년들은 미래 식량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실제 기업의 사례를 통해 미래 식품 디자인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5	프로그램	토의 그룹별 미팅
	주요내용	처음으로 토의 주제별 그룹으로 나누어 한국, 싱가포르 청소년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별로 소회의실에 모인 양국 청소년들은 우선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팀별 리더, 부리더, 양국 서기의 역할 분담을 진행하였고, 팀별 소통 창구의 수립(ex 이메일 주소, 인스타그램 계정 교환 및 WhatsApp을 활용한 단체 소통방 개설), 활동 시의 규칙을 수립하였다.

• 2일차 (2022. 8. 28.)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문화 발표
	주요내용	싱가포르와 한국에 대한 간단한 카훗(Kahoot!) 퀴즈 진행 후, 양국 청소년들이 각자의 나라에 관한 문화 정보를 간단히 소개하는 문화 발표 세션이 진행되었다. 한국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일상(삽겹살을 포함한 한식 식사, 화장품 로드샵 쇼핑, 네컷 셀프 사진 촬영, 달고나와 팥빙수와 같은 디저트, 발달된 지하철 환승 시스템)을 담은 V-log 영상으로 싱가포르 청소년들의 흥미를 돋우었다. 이후 〈미스터 선샤인〉, 〈응답하라 1994〉 등의 소위 '응답하라' 시리즈와 같은 K-드라마 장면 및 사전 소개한 브이로그 영상 속의 보여주면서 의식주 문화 및 청소년들의 모습이 구한말, 1990년대, 2000년

1	주요내용	대를 거쳐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시각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다. 가령 구한말, 일제강점기에는 유카타와 같은 일본식 의상, 한복, 서구식 양복이 혼재했으나 1990년대의 X세대들은 청바지, 셔츠 등의 옷을 즐겨 입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각자의 개성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는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싱가포르 청소년들의 경우 '싱글리쉬'를 주제로 PPT 발표를 진행하였다. 간단한 싱글리쉬의 의미와 단어 사례, Wayang(행동을 과장하는 것), Kiwi(군화를 반짝이도록 닦는 것), Kopitiam(전통 카페)와 같은 특이한 단어들을 한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의미를 추측하도록 하는 퀴즈도 진행하며 한국 청소년들의 싱글리쉬에 대한 흥미, 이해도를 높였다.
2	프로그램	그룹 토의 – 팀별 액션 플래닝
	주요내용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질병 유행', '기후 변화', '전쟁과 같은 갈등 상황', '불안정한 경제'의 토의 주제별 소그룹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팀별 액션 플래닝 시간을 가졌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청소년들이 통역을 거쳐 함께 의논하며 각 토의 주제 관련의 문제 상황 인식 및 목표 설정,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평가 및 매트릭스 차트를 활용한 시각화 작업을 거쳤고 액션 플랜의 근거, 진행 활동의 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에까지 토의를 거듭하여, 제시된 네 가지의 국제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였다.
3	프로그램	팀별 미션 (공동 과제 논의)
	주요내용	액션 플랜 수립 이후 마지막 토의 시간에는 소그룹(토의 팀)별로 미션 수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일치기 여행 일정표 짜기', '음식 공유하기', '과거 사진 재현하기'(취미에 관한) 공통점 찾기'의 네 미션 중에서 각 팀별로 원하는 미션을 정하여 실행 계획을 논의하였고, 토의 내용과 함께 수행된 미션은 마지막 회차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정하였다.

• 3일차 (2022. 9. 2.)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토의결과 및 공동과제 발표
	주요내용	Group A 토의결과) '팬데믹 이후의 식량안보' 전염병으로 인해 생활용품 및 식량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모두에게 식량을 보장하고자 식량 공급 다양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제안된 조치로는 배달서비스, 냉장고에 음식 재료를 보관하고 공유하는 것을 장려했다. 또한, 적은 시간과 자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SNS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기부 캠페인을 구성했다. 공동과제) 프로젝트명 '팬데믹 뚫고 달려가기' 팀명 'Z세대 vs 팬데믹'으로 정하였다. 공동과제로 서로의 취미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선택하였다. 운동이라는 공통적 취미를 알게 되었고 이어달리기 조깅 챌린지를 통해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비대면 활동이었지만 함께 함으로써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 및 각국의 장소를 보여줄 수 있었기에 더 의미 있었고 유대감도 커질 수 있었다.

1	주요내용	Group B 토의결과) '예쁜 못난이 프로젝트(기후변화)' 못난이 푸드를 소비하는 아름다운 환경보호 활동을 의미한다. 한국의 식재료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음식물 쓰레길 줄이기로 정했다. 정부의 농업기술 스타트업 지원, 채식주의, 도시농업, SNS 못난이 푸드 소비 캠페인 진행 등을 아이디어로 내세웠다. 그 중 가장 실현 가능한 SNS 못난이 푸드 소비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람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어글리 푸드에 대한 카드뉴스 제작 후 인스타그램 업로드 및 어글리 푸드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액션플랜을 구체화하였다. 공동과제) '한국 당일치기 여행 계획' 점심식사는 다양한 편의점 레시피를 즐기기로 정했고 서대문 형무소에 방문하여 한국사를 통해 한국을 알아가고자 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경복궁과 덕수궁을 한복 입고 관람하는 계획을 세웠다. 저녁으로는 명동에서 유명한 '명동 돈까스'를 먹은 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난타 공연 관람과 한강 야시장에 방문해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를 즐기며 마지막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다. 여행을 통해 싱가포르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발표했다. Group C 토의결과) 식량위기 중 갈등상황에 대해 토의했다. 전쟁과 같은 상황과 경제적 취약성이 여성과 아동들에게 식량 위기를 겪게한다. 그러나 싱가포르에는 이들을 위한 공공기관이 없음을 인지했고 문제와 관련된 싱가포르 NGO를 소개하며 사전 관리가 어렵고 경제적 지원이 부족함을 확인했다. 토론을 통해 한국의 여성가족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한국의 정책 및 성과를 반영하며 한,싱 연합 단체(KRSG women)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또한, 한국의 국민신문고처럼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가장 최상의 아이디어는 경제적 지원을 이야기했다. 공동과제) '한국 여행 계획' Group C 한국인들이 방문한 곳의 사진을 이용하여 여행 계획을 세웠다. 석촌호수 및 롯데월드, 송리단길과 롯데월드몰 까지 이야기했다. 또한, 경복궁과 그 근처에 있는 북촌한옥 마을에서 한옥 스테이하는 것을 추천했다. 서울의 아름다운 밤을 볼 수 있는 낙산 공원과 안동하회마을은 다양한 전통 건축물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 여행 계획'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폭포가 있는 '주얼 창이 고항'과 '센토사성'에서 케이블카와 실로소 비치를 즐기는 것을 이야기했다. 라운드 아일랜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양한 볼거리 감상을 추천했다. Group D 토의결과) 한-싱 불안정한 경제 원인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기후 변화로 꼽았다. 불안정한 경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국의 무역을 활발히 하기 위해 관세를 철폐하고 식량 안보에 대한 장기적 양국 협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경제 불안정의 원인인 부족한 에너지에 대해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통과제) '공통점 찾기(취미)' 한국 대표단은 배드민턴 활동, 춤을 연습하고 공연을 나가기도 하며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테니스 치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 대표단은 소프트볼 운동과 친구, 가족들과 영화 보기, 새로운 음악을 찾아가고 메시지 알아가기를 취미로 가지고 있다. 서로의 취미를 알아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며 음악이라는 요소와 연관된 취미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프로그램	가상 선물 교환
	주요내용	싱가포르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선물들을 한국 청소년들에게 전달하였다. - 음식) Salted egg potato chips 소금에 절인 계란 감자 칩(싱가폴 자체 브랜드), 소금에 절인 계란게, 하이난 치킨 라이스와 블랙 페퍼크랩 그리고 락사의 현지 맛, 흰 토끼 사탕 - 자석) 싱가폴 국가 마스코트인 Merlion 자석 - 그 외) 싱가폴의 진미가 담긴 노트, 머라이언이 새겨진 엽서 큐브 긴 교류 활동을 마무리하며 싱가포르의 문화가 담긴 가상의 선물을 전달받은 한국 청소년들은 뜻깊은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 주제에세이

구분	이름 · 역할	주제에세이	
1	추서진 (대표)	주제	위기 극복
		내용	학과 특성상 팀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이 해 봤고, 이런 대외활동에 성취감과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활동도 큰 걱정 없이 임했다. 물론 국제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영어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걸리긴 했지만, 통역 분들도 계시고 인원도 많으니 나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여겼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여 처음에는 부대표로 활동했다. 하지만 인원이 많은 것이 오히려 구성원들의 활동 의지를 떨어트린 것인지, 에너지가 나와 다른 팀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적극적인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에 말투 하나하나, 공지 글 하나도 조심스럽게 올렸다. 물론 함께 열심히 해주는 적극적인 팀원들도 많았기에 너무 고마웠지만, 여러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았다. 일단 대표직을 맡은 청소년이 갑자기 활동 중도 포기를 했고, 그 전후로 몇 명이 더 나갔다. 나와 같은 토의그룹이었던 한 명은 무단이탈로, 사전활동 과제 제출 며칠 전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역할분배, 일정, 서류제출, 추가참여자들을 위한 설명, 연락, 마감일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활동은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을 우선시하고 운영상 개입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첫 회의 때 미리 역할에 따라 소그룹을 나눠 놓았기 때문에 과제의 분배가 뚜렷했다는 점이었다. 내야 하는 서류와,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의 수행 주체를 나누어 소그룹별로 회의를 했고, 독려를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나부터 과하지 않게 보여주어야 할 것 같았다. 다행이 이런 모습이 팀원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였고, 서툴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팀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도 생각했다.

1	추서진 (대표)	내용	교류활동에서는 역시 언어의 장벽이 느껴졌다는 점이 컸다. 모든 말을 통역을 거쳐서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대화가 원활히 된다는 느낌이 부족했다. 그래도 열심히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듣고 정리하니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들을 고도화시켜서 발표를 할 수 있었다. 모두 온라인, 다른 언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간 것이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했다.
2	정서연 (부대표)	주제	새로운 경험이 낳은 변화
		내용	이번 국가간 청소년 교류 활동을 하면서 토의 주제는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를 조사하고 토론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못난이 푸드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식재료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이는 극심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팀원들과 못난이 푸드에 대해서 조사 후 해결 방안으로 못난이 푸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SNS 계정을 만들어 홍보하고 못난이 푸드를 직접 구매해 요리하는 등 간접적, 직접적으로 못난이 푸드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기후 변화가 정말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고 작은 행동 하나도 바꿔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다.
3	엄수빈 (서기)	주제	교집합과 공집합
		내용	MZ세대,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청소년, 각국을 소개하게 된 위치, 어느 정도의 외향성과 소통 능력 및 적극성이 반영되어 선발된 상황. 각국의 국경으로부터 꽤 먼 거리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교집합적으로 서로 공통적이었던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2박 3일간 뜻깊은 시간이었다. 두 국가의 청소년들이 '만남'을 가진 것은 고작 2박 3일의 시간이었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교류 활동 참여에 의사를 밝히고, 모여든 청소년들끼리 의견을 나누며 교류 활동을 하나 둘 준비해온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으리라. 그러한 점에서 충분히 뜨거운 여름날의 과육처럼 싱그럽고 알찬 시간이었다. 반면 서로 '다름'을 뼈저리게 느꼈던, 피해갈 수 없는 우리들 서로 간의 공집합적 특성을 새삼 느낄 수 있던 기회였다. 시간과 데드라인, 원칙 준수의 성향이 강했던 것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었다면 형식 자체보다 논의의 내용,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애를 썼던 측이 싱가포르 청소년들의 묘한 특성이었음을 느꼈다. 미묘한 차이, 하지만 그를 둘러싼 엄청난 역사적, 시간적,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다름이 바탕이 되었으리라. 하지만 그러하면 어떠한가, 결국 다름은 다채로움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적어내려 본다.

4	서한별 (총무)	주제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화
		내용	싱가포르 학생들과 한국대표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문화 간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하게 되었다. 통역가분들과 각자 학생들이 상대국가의 언어를 이용하여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 인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배려와 노력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프로젝트를 무사히 완수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노력과 서로간의 배려가 있다면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 같다
5	안하순 (촬영)	주제	협력으로 존재하는 세계
		내용	사실 교류를 시작하기 전 나는 소통이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다. 특히, 그룹토의는 쉽지만은 않은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토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 들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식량안보 관련 강연을 듣고, 토의를 진행하면서 세계의 식량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사는 곳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토의가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각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으로 자리에 임한만큼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고, 목표를 함께 정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6	조준희 (교류)	주제	함께하면 결코 약하지 않은 '너와 나, 우리'
		내용	이번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에서 '식량안보'라는 대주제 아래 '기후변화'에 대해 싱가포르 청소년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 받으며 싱가포르와 양국 모두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수입국에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시 식량 공급 불안정 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팀원들과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였기에 개인이 할 수 있을 만한 노력을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팀원 모두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았고, 단계별로 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예상보다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기획부터 활동 수행 및 발표까지 옆에서 팀원들이 같이 하였기에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번 교류활동 외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도 충분히 강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결코 약하지 않은 '우리'가 있습니다.

7	이현종 (교류)	주제	타국의 학생들을 만나며
		내용	나는 우연히 선배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평소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고 글로벌적 역량을 기르고 싶었던 나는 이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기회이리라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일에 비해 시작일은 다소 늦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시작일이 다가오고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열심히 임했다. 싱가포르 학생들을 만나 토론을 하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각 국의 다른 문화차이들을 안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힘들지 몰라도 글로벌적 역량을 기르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만일 다음번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면 그때는 직접 싱가포르로 가서 이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8	황현하 (교류)	주제	몸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내용	해외 소재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국가 간 교류활동을 통해 나와 다른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는 건 전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대학교 친구들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이번 교류활동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면서 대학교 조별 활동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싱가포르 청소년 대표단들과 토의 활동을 진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다. 또한, 대학교에서처럼 점수를 위한 조별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니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더욱 컸다. 청소년 대표단들도 서로의 문화에 대한 건 전부 알 수 없으므로 실수할 부분도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데다가 통역을 거쳐 말을 전달해야 하니 화자의 의도가 완벽하게 전해지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느낀 게 있다. 바로 '몸의 거리는 멀어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운 걸 잊지 말자!'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서로의 할 말만 하는 토의 시간이 아니라 공감하며 그 의견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단 이번 활동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라고 느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성립되고, 각자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9	허고은 (교류)	주제	폭넓은 시야에 대하여 배우게 되다.
		내용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국가간 교류 활동을 해보기 전에는 생각보다 폭 좁은 시야에서 살아 왔습니다. 토론을 하더라도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보단, 제 입장에서 상대를 조금 더 압박하여 답변할 수 없게 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해왔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간 교류활동에서는 토론보다는 토의를 중심으로 했고, 아무래도 통역의 시간이 필요로 하기에

9	허고은 (교류)	내용	제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보단, 들어주는 역할에 중시했던 거 같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며 저는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제 토의 및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더 넓은 시야를 배우게 된 거 같아 의미 있는 활동이 된 거 같습니다.
10	정민주 (교류)	주제	효율적인 팀워크
		내용	처음에 교류를 시작한 27일 토의 그룹 내에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 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활동이 끝나고 소통하기 위해 왓츠앱을 단체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다행이 저의 토의 그룹 팀원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주었고 안심하며 다음 날 교류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시간이 많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통역 분들의 시간까지 고려를 했기에 주제에 대한 대화를 깊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걱정을 하며 서기로서 해야 하는 문서 작성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작업들은 상당한 양이였고 다른 싱가포르 참가자들과 한국 참가자 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이 제 리드 하에 피피티가 완성이 됐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제가 팀워크에 대한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팀으로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들을 믿고 도움을 요청해야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미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팀워크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한층 성장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1	강민정 (자료조사)	주제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만은 가까이
		내용	2022 국가간 청소년 교류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싱가포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년들끼리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거의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더 컸다.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교류를 할 수 있을지, 모두가 같이 협력해야 하는 과제들을 잘 완수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하지만 걱정과 불안이 무색하게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고,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2	성승은 (자료조사)	주제	'팀'이란 무엇일까.
		내용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부딪혀보니 소통이 잘 되었고, 문화를 공유하며 아이디어들의 폭죽이 터졌다. 각자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국적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13	이지혜 (자료조사)	주제	different in same ways
		내용	싱가포르 대표단들과 우리나라 대표단들의 생각이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을 보며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똑같다는 말이 생각났다. 최종 발표 때 달리는 영상을 찍어 발표한 조가 있었는데 영상 속에서는 한국 대표단, 싱가포르 대표단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이 익숙한 장소에서 달리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들리는 언어들, 주변 풍경 같은 것들은 모두 달랐지만, 하나는 같았다. 모두가 편한 복장으로 친구들과 재밌게 웃으며 달리고 있었다는 것. 다른 언어, 문화, 지역에 살고 있지만 같은 20대에 대학을 다니는 또래라는 것을 보며, 다르지만 똑같은 우리들이 앞으로 마주할 미래에서는 우리가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지구촌의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교류하며 배척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4	박예본 (자료조사)	주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위해
		내용	나는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통해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외국과 외국인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다문화 축제에 매년 참여하거나 여러 언어를 배우는 등 새로운 것을 접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해왔다. 또 대학생이 되어 대외활동을 찾아볼 때 검색 페이지에서 항상 첫 번째로 누르는 카테고리는 '해외봉사/탐방'이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있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게되는 경험은 매우 값지며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번 국가 간 청소년 교류를 발견했을 때도 고민없이 지원했다. 이 활동은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청소년인 내가 주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했으며 우리는 본 교류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활동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 청소년 대표단들의 적극성, 꼼꼼함 등 그들의 철두철미한 일처리에서 알찬 무언가, 흔히 말하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느꼈다. 그 '짬바'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노련미인데 그들의 짬바는 늘 새로운 것을 쫓으며, 익숙해진 환경에서는 벗어나고 싶어한 내가 그동안 놓쳐온 것들을 돌아보게 했다. 이를 테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며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피티를 만들며 쌓였을 짬바로 이번 활동에서 시간이 촉박한 순간, 순식간에 깔끔한 시각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IT가 각광받는 시대에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접해온 세대이지만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또래에 비하면 나는 조금 심각한 컴맹이라는 점이 떠올랐다. 또 한국 청소년 대표단 중 몇몇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새로운 것에 치중하며 언어 공부도 다른 사람들 다 흔히 하는 영어는 하기 싫어할 때 그들은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히 영어실력을 갈고 닦았을 것을 생각해보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읽은 한 원서의 어떤 내용 하나가 생각난다. 한 청년이

14	박예본 (자료조사)	내용	새로운 도시로 가서 그곳에 사는 노인에게 이 도시는 어떤 곳이냐는 물음에 노인은 도리어 청년의 고향은 어떤 곳인지 묻는다. 그 청년은 자신의 고향은 매우 좋지 않아서 얼른 떠나버리고 싶다고 말하자 노인은 이 도시도 청년의 고향과 다를바 없는 곳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다른 도시로 떠났다. 그런데 또 다른 청년이 와서 이 도시가 어떠한지 물었을 때 노인은 그 청년에게도 고향에 대해 질문했고 두 번째 청년은 자신의 고향은 매우 아름다우며 활기가 넘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이 도시도 청년의 고향처럼 좋은 곳이라고 말해주었다. 이 모습을 보고있던 한 사람이 노인에게 왜 두 청년에게 다르게 말하냐고 물으니 같은 도시이더라도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운에 따라 도시를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것이었다. 아마 다른 일에 대해서도 전자의 청년은 불평하고 후자의 청년은 긍정적일 것이다. 긍정적인 청년이 새로운 도시에서 잘 살 수 있듯이 나 역시도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현재에 충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우게 되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해 짬을 쌓아 둔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환경에서 바이브를 뽐내며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4 개인소감문

구분	이름 · 역할	개인소감문
1	추서진 (대표)	일단 여러 싱가포르의 문화 요소들을 알아가며 재미를 느꼈다. 독특한 싱가포르만의 언어인 싱글리시, 이모티콘, 식당 문화 등 한국과 다른 모습이 많음이 느껴지며, 더욱 개방된 인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과 한국 외 나라를 거의 가본 적 없는 사람으로서 익숙함이라는 편안함에 속아 고정관념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도 외국에 직접 나가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고 느꼈다. 그리고 공동의 주제인 식량안보에 대해 조사하면서 싱가포르와 한국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자급률이 낮아 수입 식료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급망 인프라 확보는 필수적이었다. 또 싱가포르에는 Statuary board라는 공식 기관 운영 형식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관료적이고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우리나라 기관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한국의 여성가족부처럼 여성, 성평등, 아동, 가족과 관련한 일들을 주로 하는 기관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싱가포르 식량안보 중 갈등상황으로 인한 여성 및 아동의 식량 접근성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제안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에서 부족한 점을 우리나라에서 보완사항을 찾아 적용시키고,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요소를 통해 발전시키는 형식을 취해 발표를 준비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은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석하는 앞부분, 싱가포르는 제시된 해결책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고 체계화시키는 뒷부분으로 내용을 나누어 과제를 수행했다. 발표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고, 우리 토의조가 좋은 평가를 받아 기뻤다.

1	추서진 (대표)	싱가포르 청소년들은 대체로 쾌활하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할 일을 확실히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문화만의 새로운 통찰력을 통해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도, 다양한 사람과 넓은 관점을 나누는 것만큼 생산적인 활동이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고, 또 잘 아는 현지인이다. 하지만 더 넓은 세상에는 훨씬 더 큰 문화와 지식, 지혜가 기다리고 있다. 각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수용하며 스스로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이다.
2	정서연 (부대표)	싱가포르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세계 이슈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각국의 입장이 되어 여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 B팀에서 대표 역할을 맡으며 팀 내 분위기를 이끌었고 부족한 영어 실력은 팀원들과 함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알지 못했고 심각성 또한 자세히 알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토의 조사하며 다양한 정보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싱가포르의 상황까지 동시에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싱가포르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서 좋았고 SNS로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고 싶다.
3	엄수빈 (서기)	각국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인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뜻깊었으나, 반대로 그러했기 때문에 잡음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수의 인원과 비대면 상황에서 전개되는 활동으로 서로에 대한 라포(신뢰감과 친밀도)가 약화, 책임감이 분산되면서 본래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끌어야 했던 대표 청소년의 사직과 그 외 여러 대표 청소년들의 이탈, 갑작스런 연락두절과 소위 '무임승차',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난 싱가포르 청소년들과의 의사소통적 문제(언어가 아닌 사고 과정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나는 본래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인지 발달과 사회성이 함양되는 10대 시절에 이수한 교육과정과 정책적 면모를 따져보면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평균적인 학력 수준과 국민성의 특징에 대한 관계에 관심이 많다. 이번 교류 활동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 한국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싱가포르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밝으며, 틀과 마감기한, 과업 완수에 관한 집착보다 유동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면모가 엿보였다. 미묘한 차이, 그리고 나의 관심사에 대한 통찰(insight)의 소스가 될 것들을 개인적으로 얻어갈 수 있어, 의미 있었다.
4	서한별 (총무)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와 교류에도 특히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데 이번기회에 이러한 호기심을 많이 충족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특히 싱가포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 알아감으로서 한국 외 타문화, 인종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던 기회였고, 이를 통해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학생이고 열정정인 모습들에 많이 감명 받았던 것 같다. 특히 그룹프로젝트에서 우리 팀의 경우 각자 지역에 대한 설명과 영상을 담았는데 이를 통해 실제로 국가를 다를지라도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또한 그들의 생활문화를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5	안하순 (촬영)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는 영어를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기에 걱정이 앞섰고 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각자 맡은 역할이 주어지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문제없이 교류를 마칠 수 있었다. 덕분에 책임감을 더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 활동은 싱가포르와 함께 교류하는 활동이지만 싱가포르 청소년 뿐 아니라 한국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 뜻깊었고, 그 시간동안 한국 청소년들로부터 느낀 점이 많았다.

5	안하순 (촬영)	제대로 된 대외활동에 처음 참여하면서 다른 대외활동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로부터 적극적인 모습, 성실히 활동에 임하는 태도 등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프로그램의 아이스브레이킹과 문화교류 시간은 싱가포르의 문화를 재미있게 배우기에 좋았던 것 같다. 게임이나 퀴즈를 통해 진행하다보니 참여율도 높고 활동 분위기도 좋게 흘러가서 후의 교류활동이 원활할 수 있었다.
6	조준희 (교류)	교류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사후활동을 앞두고 있는 지금, 처음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을 때 설레고 기대에 부풀던 그 마음이 생각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싱가포르의 청소년들을 만나 양국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세 차례의 교류활동과 그 외 SNS 그룹 채팅을 통해 교류 상대국 청소년들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 발표하기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우려가 많았지만 퍼실리테이터,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지도와 팀원들과의 상호격려를 통해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주도성과 팀 협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토의 조와 액션플랜을 계획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팀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나서서 활동 참여를 주도했고 모든 팀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최종발표를 위해 노력했던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했고, 함께였기에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기후변화 등 국제적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거시적 감각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활동 이전에는 한국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았는데 한국/싱가포르 청소년들과 깊이 있게 토의를 진행하면서 양국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실행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상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한 후 이를 직접 실행하면서 그동안 여러 문제들을 직시하면서도 해결할 힘이 없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 기간 동안 작은 개인의 참여와 노력이 커다랗게만 보이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7	이현종 (교류)	팀원들과 협업을 하며 공동체적 활동 능력이 한층 더 좋아진 것 같다. 또한 상대국에 대한 몰랐던 부분들, 조금의 언어들을 배우면서 상대국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식량 문제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최근의 이슈였던 국제 안보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 있었다.
8	황현하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제 오랜 희망 사항 중 하나였던 '같은 주제를 다른 나라의 청소년과 토의하기'를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희는 식량문제를 기후변화와 연관을 지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 문제를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여러 명의 청소년이 함께 우리가 개인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정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온라인 교류였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소통하고 액션플랜을 실행한 건 모두 인터넷이 발달한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통이 마냥 원활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액션플랜 계획까지는 마쳤지만, 실행하는 것에 관한 토의를 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여 인스타그램 그룹 채팅을 이용해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답장을 늦게 하는 청소년들도

8	황현하 (교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저의 솔직한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을 키운 것 같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어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여 조심스럽게 연락했고, 마지막 발표에는 성공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가장 인상적인 것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둘째 날 진행한 문화교류 활동을 고를 것입니다. 싱가포르 대표단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싱글리쉬'라는 것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싱글리쉬'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발음하는 '콩글리쉬'와 비슷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에 제 부족한 지식이 부끄러웠으며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싱가포르 대표단 측에서 언젠가는 싱글리쉬로 대화를 해보자고 말했는데 나중에 꼭 그래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소통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9	허고은 (교류)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국가간 교류 활동을 해보기 전에는 생각보다 폭 좁은 시야에서 살아왔습니다. 토론을 하더라도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보단, 제 입장에서 상대를 조금 더 압박하여 답변할 수 없게 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해왔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간 교류활동에서는 토론보다는 토의를 중심으로 했고, 아무래도 통역의 시간이 필요로 하기에, 제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보단, 들어주는 역할에 중시했던 거 같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며 저는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제 토의 및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더 넓은 시야를 배우게 된 거 같아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 된 거 같습니다.
10	정민주 (교류)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에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새로운 국가인 싱가포르에 대해 날아가게 됐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후에 문화 교류와 문화 외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에 이러한 기회가 소중했고 저에게 좋은 추억 그리고 성장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이었지만 싱가포르 대표단의 문화 교류 시간과 토의 시간은 제게 싱가포르는 어떠한 국가인지 그리고 식량 안보에 대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발표를 마무리 하고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11	강민정 (자료조사)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특히 싱가포르에 지원하게 된 것은 내가 역사와 언어를 전공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싱가포르의 역사와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해 배우며 싱가포르라는 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의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다. 사전활동과 3일간의 온라인 교류를 통해 논문과 사료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상대국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다. 문화교류 시간에는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언어인 '싱글리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룹 과제를 하면서 싱가포르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곳, 자주 가는 장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새로운 경험을 쌓고, 한 국가에 대한 많은 지식과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12	성승은 (자료조사)	낯선 사람들과 함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싱가포르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을 통해 국경을 뛰어넘는 공감과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한정적인 삶의 방식을 배우고 활용하게 되지만, 새로운 문화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며 세계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3	이지혜 (자료조사)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여러 기회들을 박탈당한 채 살았다. 혼자 이런 저런 개발을 해보려 노력했지만 나 혼자서 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국가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내 일상을 벗어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또래들과 여기저기 부딪히고 토론하며 우리가 직면한 식량안보라는 주제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들을 나누고 대책을 생각해보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과 그 구현력에 대해 배웠다. 싱가포르 친구들과 교류 하면서 다양한 생각들과 그 나라의 국가체계, 사회적 분위기, 독특한 언어 방식을 배워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 것과 더불어, 나 자신의 발전성을 넓혀 나의 가능성, 즉 나의 세계 자체를 넓힐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14	박예본 (자료조사)	국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신청할 당시 여러 국가들 중 내가 싱가포르를 선택했던 것은 나의 전공인 중국어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라는 국가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중국계라는 것과 그들의 공용어에 중국어가 포함된다는 점을 통해 싱가포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아시아에 속해있으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권 국가들과는 달리 싱가포르와는 청년 간 문화교류 면에서의 접점은 크게 없다고 느꼈었다. 그런데 이렇게 싱가포르와의 교류를 제공하는 이번 기회를 발견했고 다행히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다. 국제협력 등 범국가적 관계를 다루는 분야에 관심을 두고 진로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에 이런 직접적인 교류와 관련된 대외활동은 나에게 특히 중요한 경력사항이 될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한 나의 열정을 스토리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주 관심사였던 중국어와 관련된 점에서는 싱가포르 대표단 중 중국어 발음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몇 분 보여서 반가웠다. 그런데 문화발표에서 들은 바로는 자신은 중국계 싱가포르인이지만 중국어보다 영어로 일상 대화하는게 더 편하며 주변 친구들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또 싱글리쉬를 배웠는데 중국어가 영어, 말레이어 등과 섞여 버리니 아는 단어가 나와도 무슨 말인지 몰라봤었다. 그런데 팀 토의활동 중 대부분 영어였긴 했지만 종종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영어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언어도 익숙한 정도가 평균적으로 어떠한지 묻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는 없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활동 내용 중에서는 식량 안보를 대주제로 삼아 우리 팀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세대들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은 특히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지고 있는 요즘에는 한 국가의 문제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계속 언급하게 되었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와 한국처럼 식자재 공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수입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 이상기온 등의 문제는 결국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한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 대표단과 함께 토의함으로 전세계 공통의 문제를 같이 고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컸다.
15	박주현 (통역)	2022년 한국-싱가포르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의 통역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함께 소통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통역 요원으로 활동해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주었고, 통역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어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을 직접 해보면서 실전 경험도 쌓을 수 있었고, 양국의 청소년들이 즐겁게 교류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15	박주현 (통역)	통역사분은 자신이 맡은 통역 부분을 더불어 전체 세션에 함께 듣고 배우면서 이 기회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통역해야 하는 주제가 프로그램 안의 강연이나 발표와 관련 있으니 그때에도 집중해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역사로서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시고 이로써 나라간 의미 있고 즐거운 대화가 오가도록 힘써주시면 됩니다. 통역 담당 청소년들은 교류활동 전 일정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토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역을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한-영과 영-한 중 확실히 전자 통역이 다소 까다로운 감이 있으나, 담당 청소년들의 사전조사와 아이스브레이킹, 문화 발표 자료를 미리 번역해두면 수월하게 통역 가능합니다. '청소년 교류'가 목적인만큼 전문 통역사처럼 딱딱하고 너무 차분한 말투보다는 적당히 해당 청소년의 어조를 살린 통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이수현 (통역)	대표단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통역요원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항상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통역이라고 영어 공부나 영어 실력에만 집중하지 않고 나도 싱가포르 측과 한국 측, 모두 이해를 해야 흐름에 맞는 통역을 할 수 있기에 싱가포르에 관해 사전 배경조사를 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즐거웠고 새로웠다. 양국 청소년의 유의미한 대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국적은 다르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모여 여러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며 공통된 목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것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5 자체평가

구 분	평 가
목표대비 달성도	□상 ■중 □하
좋았던 점	1.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향상 상대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국가와 관련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점이 상대국 그리고 세계 타 청소년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문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알릴 수 있었고, 상대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2. 또래 청소년들과의 협업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싱가포르 친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심오한 토론도 하며 싱가포르의 상황과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입장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WhatsApp 등)을 활용해 서로의 과제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고 과제물을 올리며 비대면이지만 함께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애당초 또래의 외국의 청소년들을 만난 경험이 처음이었던 참가 청소년도 있어, 또래의 시선으로 듣는 싱가포르의 시사가 직접적으로 느껴져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웠다는 평 또한 있었다. 싱가포르 청소년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함과 동시에 국제적 문제인 '식량안보'라는 주제답게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각국의 다양한 팀원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싱가포르 학생들과 팀 프로젝트를 서로 협력하여 각자의 문화를 엿보고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던 것이 인상 깊었다.

좋았던 점	요즘 들어서는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많이 풀리긴 했지만 최근 몇 년 간은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작았는데 이렇게 다시 넓은 범위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뜻깊었다. 또 특히 좋았던 것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교류는 문화교류 정도에서 그치기 쉬운데. 토의활동까지 하면서 다른 국가 청소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사전 활동을 준비하면서 한국 청소년 대표단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인스타그램으로 싱가포르 청소년들과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점이 기뻤다. 3. 국제적 역량의 함양 평소 큰 관심이 없었던 식량안보 등의 국제적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봄으로써 국제적 감각과 거시적 시각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국가간 청소년 교류라는 국제 경험을 쌓으면서 현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또한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4. 시사 상식의 성장 토론 준비를 하며 다양한 논문과 기사를 읽어봄으로써 평소 생각해보던 주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며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주제 강연과 그룹 토의를 통해 식량안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더불어 다른 팀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며 다양한 싱가포르 정치, 문화 등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5. 리더십 점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큰 실수나 문제없이 진행하면서, 생겼던 각종 문제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거나 양보하고, 함께 논의하고 절충하고, 때로는 임기응변 능력도 발휘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돌아볼 수 있었다. 6. 자가 피드백 (통역) 한국과 싱가포르 청소년들 사이에서 통역을 진행하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통역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스스로의 언어능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깨달으며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임기응변 능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다.
아쉬웠던 점	1. 시간의 부족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짧아 청소년 친구들과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없었다. 앞으로 다양한 sns 통로를 통해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 정기적인 교류활동 이외에도 싱가포르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러할 시간들이 많지 않아 친해질 기회가 부족했던 게 아쉬웠다. 한국 청소년들과도 오프라인 등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더 재밌고 친해질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 팀원들끼리 활동 전 오프라인 모임을 꼭 가지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되어 아쉽다. 활동을 하기 전에 싱가포르 친구들과의 소통 교류가 없어서 아쉬웠고,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있었지만 팀 활동 시 정말 토의할 시간밖에 없어 서로의 개인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것들을 물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쉽다. 토의활동 때도 제대로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한 다음 여러 해결책을 놓고 평가하여 하나를 골라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짧은 교류시간과 언어 전달상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깊이 들어가기는 힘들었다는 것 또한 아쉬운 점이다. 2. 시공간적 제한 온라인으로 진행된 활동인 만큼 교류활동이지만 한국/싱가포르 팀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해보고 싶다.

아쉬웠던 점	시간과 환경 상 어려움 때문에 원했던 모든 것을 다 할 순 없었다. 예를 들어 사전활동 때 영상물 뿐 아니라 에세이나 책도 읽으면서 문화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영상물이 가장 접근성도 좋고 부담이 없었기에 그 외의 것들을 사전활동 산출물로까지 이어갈 수 없어 아쉬웠다. 온라인 회의와 채팅으로만 소통하다 보니 대화의 질과 양에 둘 다 부족함을 느꼈고, 그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 3. 업무 과부하 팀에서 서기를 맡게 된 청소년의 경우, 그룹 토의 시간에 토의 내용들을 정리하느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용들을 정리하며 나의 생각 또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4. 2차 추가 모집 경우의 중간 참여 2차 모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처음부터 원하는 역할을 못 맡은 것을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었다. 흔치 않은 기회로 다가오기에, 원하는 역할을 하면 더 좋았을 듯 하다. 5. 기타 - 사전 활동 준비 초반에 다른 대외활동과 같이 하다 보니 신경이 분산되어 활동 전반적으로 처음 면접볼 때만큼의 열정을 쏟아 붓지는 못한 것 같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보니 매 활동마다 나도 모르게 '중간만 가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다. 선택과 집중을 잘 실천하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아쉽다. - 프로그램의 지원일과 시작일 사이의 텀이 너무 길었다. - 통역 자료 마감 기한이 촉박한 점이 아쉬웠다. -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중간에 일정에 변동이 생기는 참여자들이 꽤 있었고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겨 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하는 만큼 역할 수행이 더욱 잘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 같다.

6 차기 참가자를 위한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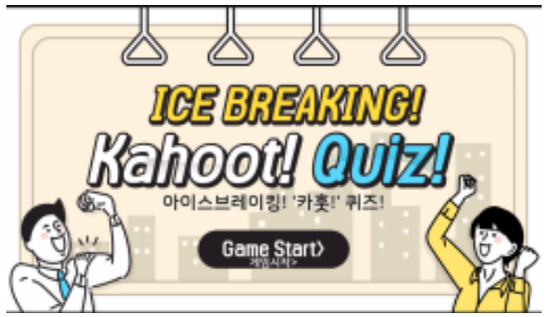
구 분	조언 내용
사전활동	1.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다. 준비한 것에 비해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전활동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촉박했다. 아이스브레이킹과 문화 발표 준비, 상대국에 대한 자료조사, 사전활동 보고서 작성 등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계획을 짜고 해야 할 일들을 팀원들끼리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2. 더 다양한 준비를 해두어야 먼저 우리 국가 청소년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모르는 상태로 임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다양한 준비와 아주 조그마한 디테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작은 것도 팀원들과 나누며 이야기 할 것을 당부드린다. 3.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감기한을 잘 지키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다. 또 공지사항이 있을 때마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물어보고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4. 각 팀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여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여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리하고 공지함으로써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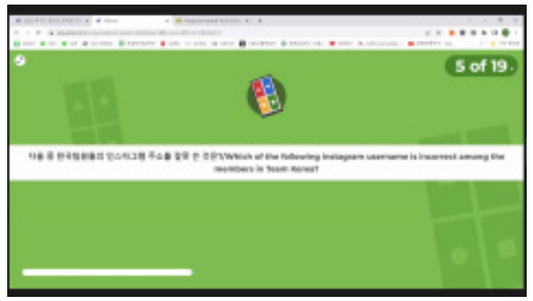
사전활동	5. 교류하는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토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만들고 여러 자료를 조사 한 후에 교류 활동에 참여하면 원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신의 팀이 할당 받는 주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조사를 해두느냐에 따라 토의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애당초 교류 상대국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상대국의 역사와 문화, 현재의 관련 이슈 등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처럼 앞으로 교류하게 될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해 알고 있다면 팀원들을 더욱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교류 활동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6.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말고 코디네이터분들께 도움을 청한다면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된다. 7. 자료 조사를 기본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교류하는 상대국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더 쉬울 거 같습니다. 8. 추가 합격자로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되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활동은 무엇인지, 내가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그 외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다. 계속 정보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따라가려면 의욕이 쉽사리 꺾일 수도 있으니 기존 참가자들이 잘 챙겨주고 필요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9. 대주제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팀 주제가 대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자료 조사하고, 조사 후에는 잘 정리해서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두는 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 10.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제교류였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물품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나 문화교류 시간에 상대국이 모든 대표단들의 참여를 독려할 때가 있다. 이때 서로의 나라에 대한 물품들을 컴퓨터 근처에 미리 두면 좋다. 올해에는 싱가포르 대표단 측에서 아이스브레이킹 때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포함된 물건을 카메라 앞에 가져오세요'라는 문제를 준비해, 센스 있는 싱가포르 대표단들은 모두 핸드폰을 꺼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카메라에 보여주었다. 이렇듯 서로의 나라를 생각하며 활동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사전활동 기간 동안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어야 상대국에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활동이었기에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이어폰 등이 필요하며, 원활한 교류활동을 위해 조용한 환경에서 참여하는 것이 다른 참가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중요하다. 13.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팅방을 통해 공지하거나 통보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놓치는 인원이 많을 수 있으니, 줌 등 직접 목소리나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회의를 자주 하는 것이 좋다. 14. 인원이 많으면 본인 역할에 대해 잘 모르거나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 팀원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나 부대표를 맡았을 경우 사전활동 기획 단계에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서 소외되는 팀원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아이디어 제공자가 누구인지 미리 알아 놓으면,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때 자세한 진행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추후 고마움을 표할 수도 있어 좋다. 16. 정해진 날까지 과제와 문화교류 준비 등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연락을 통해 각자 해야 할 일을 미리 분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류활동	1. 팀원 간의 아이스브레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상대국 청소년과 번역의 시간이 있기에 잠시의 텀이 있을 수 있다. 그때 먼저 어색해 하지 않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면 상대국 청소년들도 역시 반가워하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활동	더불어 교류활동 시 통역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언어에 대한 장벽 없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므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에 한국의 문화를 재미있게 알릴 수 있고 참가자들의 개인 프로필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친해지기 위해서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에 다양 한 것을 도전해보기를 추천한다. 2. 팀원 중 어느 한 쪽만 일을 하지 않도록 대표를 정함으로써, 대표가 정확한 일의 분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3. 상대국 청소년들과 협동해서 진행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소통 또한 중요했다. 따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소통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4. 교류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통역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둬야 하며, 그 시간 내에 그룹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토의함과 동시에 액션 플랜(Action-plan)을 작성해나가야 하기에 사전에 활동들을 미리 조사하거나 의견을 생각해오고 회의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다. 토의주제에 대해 미리 다각도로 조사해가는 것이 필요하며, 양국의 상황과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설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겠다. 5. 대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 대표단 간의 연락과 답변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늦지 않게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고 기간 내에 활동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이번 우리나라 대표단은 문화교류 활동으로 시대 순으로 의복 문화, 식문화, 놀이 문화를 비교하여 발표하였다. 반면 싱가포르 대표단은 '싱글리쉬'라는 것을 소개해주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려준 것도 싱가포르 대표단에게는 흥미 있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나는 '싱글리쉬'가 굉장히 새로웠다. 우리나라도 다음에는 한 문화에만 집중하여 깊이 있게 교류활동으로 알려주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7. 이번 프로그램에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으로 '한국 참가자 정보 맞추기,' '한국 아이돌 및 배우 나이 맞추기,' '한국 관련 정보 맞추기' 등 퀴즈를 교류 상대국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 중심으로 준비하였으며, 퀴즈 상품 또한 한국 관련 물품으로 구비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잘 알릴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차기 참가자분들도 상대국 참가자가 관심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의미 있을 것 같다. 8. 펜과 노트가 필요하다. 강의 세션도 있고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하니 바로바로 적을 도구가 필요하다. 9. 상대 국가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선물은 우리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 혹은 간식 등을 보내면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더 실질적인 문화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통역	1. 각자 역할 배분에 있어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통역이 겹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 자신이 정확히 어떤 국가의, 발표의 어떤 부분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2. 회의 전체의 전반적인 어역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3. 꼭 상대의 모든 말을 통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캐치하고 청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알아듣기 쉽게 통역하는 것도 중요하다. 4. 통역하는 국가의 영어 발음을 미리 많이 들어놓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5. 대표단들이 논의할 내용에 대해 (ppt 자료 등) 미리 숙지하고 가면 통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더불어 사전에 관련 내용 자료를 미리 찾아보고 배경지식을 넓히면 통역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문장이더라도 상황마다, 문화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확실한 통역을 위해서, 흐름을 읽고 통역하는 국가에 대한 기본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6. 교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이크에 잡음이나 들어가는지, 무엇보다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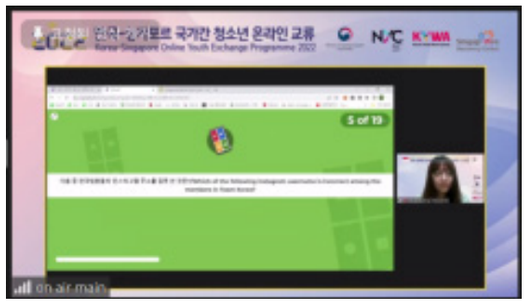
통역	7. 대표단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하며 대화의 내용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자신이 한-영 통역이고 영-한 통역이 아니더라도, 상대국의 대화 내용에도 집중해야만 한다. 8. 자신만의 노트 테이킹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원활하고 매끄럽게 통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제언	1. 활동에 앞서 배경으로 설정할 사진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화상회의를 켜는 곳의 배경색이 균일하지 않으면 자칫 너무 어둡게 나오거나, 흐릿하게 나올 수 있으니 특히 발표를 맡은 경우 미리 카메라 및 화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2. 그룹 토의는 시간이 꽤나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 문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다. 3. 하고 싶은 추 가적인 활동으로는 아무래도 (이번이 온라인이어서 더욱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교류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느낌이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차기 참가자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교류활동을 만들어서 자매결연처럼 연계하여 장기적, 정기적으로 교류활동을 하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청소년성취포상제처럼 어떤 목표를 잡는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번처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매주 혹은 매달 미션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팀을 운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7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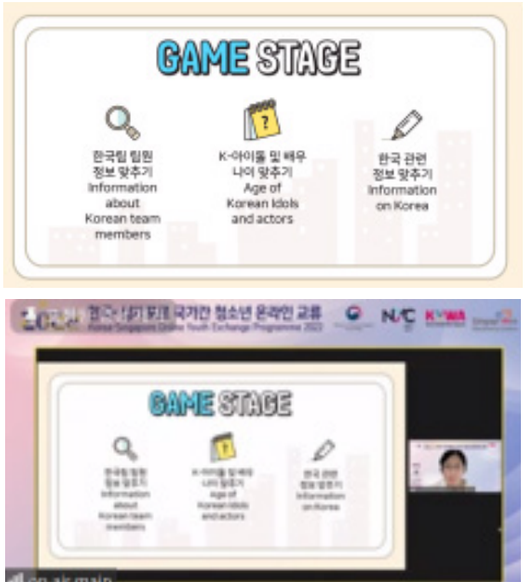




(1일차) 아이스브레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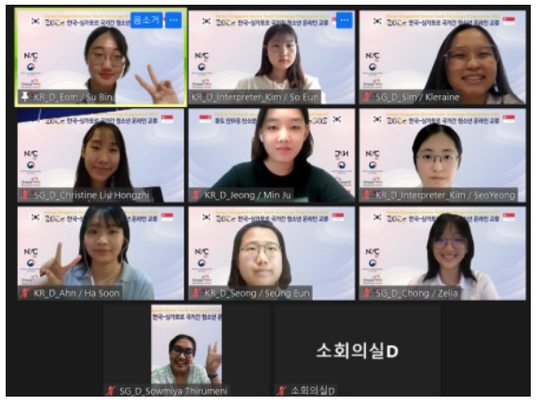
(1일차) 아이스브레이킹



(1일차) 아이스브레이킹

(1일차) 아이스브레이킹

(1일차)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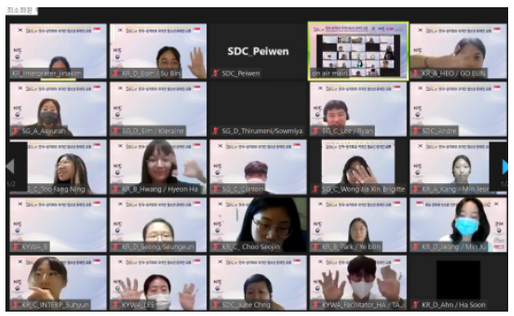


(1일차) 토의 그룹별 미팅

(2일차) 문화 발표

(2일차) 문화 발표

(2일차) 팀별 액션 플래닝



(2일차) 마무리

(3일차) 토의 결과 및 공동과제 발표

(3일차) 폐회식

몽 골

결과보고서

교류팀명	교류일정	교류인원
센네즈(Сайн найз)	2022.7.21.(목), 7.22.(금), 8.5.(금)	9명 (청소년 7명, 통역 2명)

1 기본사항

사업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몽골	교류팀명	센네즈(Сайн найз)
교류기간	2022.07.21 ~ 2022.08.05	교류인원	9명 (청소년 7명, 통역 2명)
활동목표	1. 교류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와 몽골에 대한 이해 높이기 2.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우고 교류 후 활동 소감을 작성하며 전검하기 3. 단기적인 활동이 아닌, 국제교류가 끝난 이후에도 몽골 청소년과 장기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활동 계획	사전	1. 몽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사 가. 몽골 문화거리, 민속촌 등을 방문하여 몽골의 전통문화에 대해 조사 나. 인터넷과 책을 통하여 몽골의 정치, 환경, 기후, 문화, 언어 등을 조사 다. 몽골어로 기본적인 인사말 등을 확인 라. 한국과 몽골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 2.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발표를 준비하기 위한 조사 가. 분야에 대한 역할분담을 하여 효과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일상생활 가) 학교생활(고등학교 생활) (1)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의 다른 학교생활을 보여주며 학교와 관련된 교육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또한, 급식, 교과목, 교복, 학교생활 일정, 기숙사, 방과후, 사교육 등 분야를 세분화하여 브이로그 등을 통해 기록한다. 나) 졸업 후의 생활 (1) 4년제, 2년제 대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를 가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국내대학을 다니거나 해외대학을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있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준비한다. 다) 여가시간 (1)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포츠(야구, 축구 등)을 소개한다. (2) 여가시간에 보통 무엇을 즐겨 하는지 소개하면서 놀이공원, 노래방, 카페, 피시방 등을 즐겨 찾는다고 소개한다. (3) 콘서트, 케이팝, 팬문화 등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한다. (4) 지역마다 다른 축제를 조사하고, 실제로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자료를 수집한다. 2) 한국의 문화유산, 관광지 조사 가) 제주도 올랫길-몽골 울란바토르 올랫길 나) 부산의 바다-몽골의 호수 3. 궁금한 점을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작성하여 출후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활동 계획	교류	1.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주제인 케이팝을 문화교류 내용으로 준비를 하여, 최근 케이팝 춤의 후렴 부분을 실시간으로 짧게 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추후에는 몽골 청소년과 함께 출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도 업로드한다. 2. 외국에 상대적으로 생소한 단소, 소고 등의 전통악기를 활용하여 대중성이 높은 〈아기상어〉를 연주한다. 3. 인스타그램 등 공통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주기적으로 교류 내용을 업데이트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교류의 내용을 공유함과 동시에, 교류가 끝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지 원활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4. 문화다양성을 포용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며,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사후	1.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교류했던 내용을 카드뉴스 등으로 정리해서 올린다 2. 지속적으로 상대국 청소년과 SNS로 교류하여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교류를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궁금한 점은 몽골 청소년에게 질문한다 4. 활동소감을 작성하며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잘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추후에 국제교류를 진행한다면 어떠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공유한다.

팀원 역할	사전	역할	내용
	김민서	팀장	아이스브레이킹과 문화발표 계획 수립 참여하고 교류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여 참가자들과 공유함. 문화발표를 담당함
	임세현	부대표, 서기	서기 겸 부대표로서 회의 시 오간 내용들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도우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함. 또한, 팀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도움.
	김나연	부대표, 촬영	사전준비, 교류활동, 사후활동의 모든 과정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에 담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심현민	서기	서기로서 사전준비를 하면서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가독성이 높은 양식으로 정리함. 문화발표 때 진행할 한양도성을 조사하고,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도 팀원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함.
	김지성	자료조사	아이스브레이킹과 문화발표를 잘 준비했으며, 광주 무등산 등산로에 대해 조사를 하여 발표자료를 제작함.
	김태현	홍보	사전활동 준비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추가적으로 케이팝 지식을 활용하여 몽골 청소년과 진행할 케이팝 퀴즈를 제작함.
	황유주	총무	총무로서 교류 활동 당시 사용해야할 비용을 정리함(통역 2명, 청소년 7명, 총 45만원).또한, 제주 올레길 7번코스를 다녀와서 상대국에게 알려줄 발표자료를 제작함

2 사전활동 결과

가. 활동 요약

번호	활동날짜	사전활동 내용	장 소
1	-7/21	몽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사 진행, 한국에 대한 조사 진행	온라인 (개별)
2	7/17	사전모임	온라인 (줌)
3	7/20~7/22	교류활동 준비	온라인 (공동문서 제작)

나. 사전활동 결과보고

사 업 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몽골
팀 명	센네즈(Сайн найз)	작 성 자	심현민
활 동 명	한국-몽골 국제교류 사전활동	참 석 자	대표단 전원
목표 대비 성과	목 표	성 과	
	1. 몽골에 대한 조사 진행 2. 문화교류 준비 및 한국 알아가기 3. 질문 작성	1. 몽골에 대한 조사 진행 및 공유 2. "한국의 길"에 대한 조사 진행 3. "미래의 직업"과 "우정"에 대한 조사 진행 4. 아기상어 율동 준비	
활동 결과	1. 몽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사 - 몽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블로그 등을 확인하고, 찾은 링크를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함. (붙임 5) 2. 아이스브레이킹 준비 아이스브레이킹 계획 확정: 사전교육 모임 당시에 수합했던 아이디어 중 하나를 결정하고 실제로 진행했을 때 제일 흥미로운 것이 무엇일지 결정함. 케이팝 퀴즈 준비: - 몽골 청소년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초반에 케이팝 세 곡을 재생하고 곡 제목을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김태현 학생을 주도로 케이팝 퀴즈 피피티를 준비함. (붙임 1) 진진가 준비: - 흥미로운 자기소개를 하기 위하여 청소년별로 자신에 대한 사실 두 개와 거짓 한 개를 준비하여 발표 자료를 제작함. (붙임 2) 아기상어 율동 준비: - 몽골 청소년에게 인지도가 있을 노래를 정한 후(아기상어), 유튜브로 구체적 율동을 결정함.(7/17) - 개별적 율동 숙지(7/17~7/20) - 7월 21일에 함께 모여 최종 점검을 할 예정임. - 아기상어 율동:https://youtu.be/F2ORcoBoEe4 3. 문화발표 준비 - 문화발표 내용 확정(7월 17일 사전모임) - 문화발표(한국의 길)에 대한 자료조사 진행: - 문화발표 피피티 자료 및 대본 제작(붙임 3): 구글 슬라이드로, 각 청소년의 지역에 있는 둘레길을 중심으로 다 함께 제작한 후, 담당자가 수합하여 정리함. 4. 국제교류 주제인 미래의 직업과 우정에 대해 조사 - 미래의 직업팀(김민서, 심현민, 임세현, 황유주): 구글 공유문서를 만들어 미래에 사라질 직업, 미래 유망 직업,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 그리고 직업이 변화하며 생길 사회적 변화와 문제에 대해 조사함. (붙임 4) - 우정팀(김나연, 김지성, 김태현): "우정"을 대주제로 하여 주관적인 경험을 함께 공유하며 베프에 대한 정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정해봄. 5, 한국-몽골 청소년 교류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 원활한 활동과 활동의 기록을 위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였음. 아이디에는 Korea-Mongol Youth Exchange의 약자와 서울에서 울란바토르까지의 거리가 2000km라는 의미를 담았음. - 아이디:@kmye2000km	
자체 평가	교류 사전 준비를 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었다. 비정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모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더 나아가 이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팀의 협력이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두 힘을 합쳐 문화교류(한국의 길)와 아이스브레이킹(진진가) 자료를 만드는 등 준비하며 협력하였던 것이 모두가 끝까지 노력해줘서 이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몽골에 대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미래의 직업과 우정에 대한 교류를 준비하면서 상호 간의 사회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고, 두 국가 모두 공통된 가치를 공유함을 재확인하며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많이 준비한 만큼, 본 교류가 기대된다.		

역할 분담	성 명	역 할	내 용
	김민서	팀장	아이스브레이킹과 문화발표 계획 수립 참여하고 교류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여 참가자들과 공유함. 문화발표를 담당함
	임세현	부대표, 서기	서기 겸 부대표로서 회의 시 오간 내용들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도우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함. 또한, 팀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도움.
	김나연	부대표, 촬영	사전준비, 교류활동, 사후활동의 모든 과정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에 담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심현민	서기	서기로서 사전준비를 하면서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가독성이 높은 양식으로 정리함. 문화발표 때 진행할 한양도성을 조사하고,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도 팀원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함.
	김지성	자료조사	아이스브레킹과 문화발표를 잘 준비했으며, 광주 무등산 등산로에 대해 조사를 하여 발표자료를 제작함.
	김태현	홍보	사전활동 준비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추가적으로 케이팝 지식을 활용하여 몽골 청소년과 진행할 케이팝 퀴즈를 제작함.

역할 분담	황유주	총무	총무로서 교류 활동 당시 사용해야할 비용을 정리함(통역 2명, 청소년 7명, 총 45만원). 또한, 제주 올레길 7번코스를 다녀와서 상대국에게 알려줄 발표자료를 제작함

지출 내역	물 품	지출금액	용 도
	-	-	-
	총 계	-	-

결과물	
	(붙임 1): 아이스브레이킹 "케이팝 퀴즈" 발표자료 (PPT)
	(붙임 2): 아이스브레이킹 "진진가" 발표자료 (PPT)
	(붙임 3): "한국의 길" 문화발표 발표자료 (PPT)
	(붙임 4): 미래의 직업팀(A팀) 사전조사 내용
	(붙임 5): 몽골 자료조사 링크

3 교류활동 결과

가. 일정표

일자	시간	세부내용	비고
1일차	11:00	참가자 도착 및 아기상어 춤 영상 준비	
	12:00	점심식사	
	13:00	리허설 및 아이스브레이킹, 문화발표 예행연습	
	14:00	개회식	
	14:30	아이스브레이킹	
	15:30	문화발표	
	16:50	그룹활동	
2일차	11:00	참가자 도착 및 주제 토의 준비 마무리	
	12:00	점심식사	
	13:00	리허설 및 음향 체크	
	14:00	오프닝	
	14:10	토의활동 세션 1	
	15:00	토의활동 세션 2	
	16:20	공동과제 토의	
	17:20	마무리	
3일차	13:00	양국 최종발표 점검, 리허설	
	14:00	오프닝	
	14:30	최종발표	
	15:30	소감발표	
	16:00	폐회식 (인사말, 선물교환, 기념사진 촬영 등)	
	16:30	평가회의	

나. 세부 활동내용

• 1일차 (2022. 6. 30.)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
	주요내용	진진가(진짜 2개와 가짜 1개 중 가짜 1개를 맞추는 게임)을 통하여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소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고, 몽골 청소년이 무엇이 가짜인지 적극적으로 맞춰주는 덕분에 흥미로운 활동이 되었다. 한류가 유행하는 지금, 몽골 청소년도 케이팝에 흥미가 많을 것 같아 3곡에 대하여 케이팝 퀴즈를 진행하였다. 몽골 청소년이 퀴즈를 잘 맞춰주어 놀랐다.
2	프로그램	문화교류
	주요내용	사전에 촬영한 〈아기상어〉 율동 영상을 재생한 후, 아기상어를 몽골 청소년과 함께 추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몽골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율동을 따라하는 활동에 참가해서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문화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한국의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길들을 소개하였다.

• 2일차 (2022. 7. 1.)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토의활동
	주요내용	그룹별 직업에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 몽골 청소년과 토의활동을 두 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공동과제
	주요내용	한국과 몽골 청소년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가 무엇인지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추린 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과제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고 역할분담을 진행하였다.

• 3일차 (2022. 7. 15.)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공동과제 발표
	주요내용	그룹별 공동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2	프로그램	선물교환
	주요내용	각국에서 준비한 선물을 소개하였다.
3	프로그램	소감발표
	주요내용	각국 대표 청소년이 교류에 참여한 소감을 발표하였다.

다. 주제에세이

구분	이름 · 역할	주제에세이	
1	김민서 (대표)	주제	세 번의 몽골행과 나의 직업
		내용	3회차로 이루어진 국제교류를 나는 세 번의 몽골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하고 싶다. 문화교류 시간에서는 몽골의 전통 의상과 놀이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토의 활동 시간에서는 미래의 직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공동 과제를 준비하고, 각 국 청소년들의 일상 브이로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각 국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국적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의 일상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 그 중 나에게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은 토의 활동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미래의 직업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연하게도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나와 같은 꿈을 지닌 청소년을 한국팀에서도, 몽골팀에서도 만날 수 있어 너무나 반가웠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가 힘쓰고자 하는 구체적인 분야는 달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지구춘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 나아갈테니까 말이다. 더불어 몽골에서는 심리학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고, 그 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관련 컨텐츠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몽골에서도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하니 보다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질문이 하나 생겨 몽골측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유튜버와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지에 대해 물었다. 우리나라는 요즘 유튜버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몽골도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해서 물은 질문이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몽골은 추억을 남기기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대답은 색다르게 느껴졌다.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도 찾고, 다른 부분도 알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다. 특히나 미래의 직업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진로 선택을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에게 타국의 청소년들과 장래 희망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미래 직업 세계역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단순히 정보 전달만을 한 것이 아닌 '내가 좋은하는 것을 해야할까?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할까'와 같은 고민을 국적을 떠나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다.
2	심현민 (서기)	주제	문화 다양성, 소통, 그리고 나의 꿈
		내용	몽골과 국제교류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몽골의 문화에 대해, 한국의 길에 대해, 몽골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문화적 다양성이 큰 사회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몽골이 저에게는 몽골에 대해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교류를 시작하기 전에, 막연하게 몽골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비슷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류를 하면서, 특히 미래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제가 했던 생각을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 청소년의 직업에 대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쫓아, 자신이 열정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몽골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저는 세계 속에는 다양한 생각과 문화가 있음을 비로소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책으로 배울 때와는 다르게, 실제로 소통을 하며 문화를, 배우며 보다 깊게, 입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청소년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이번 교류를 통해, 저의 꿈인 인권운동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고 다양한 사람을 실제로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권운동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해야지만 최적의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책과 공부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을 해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교류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미래에는 더 많은 교류를 하여 더 시야를 넓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황유주 (총무)	주제	나의 꿈을 향한 목표설정
		내용	교류 활동을 시작하기 전, 두 개의 주제, 미래의 직업과 우정이 나왔을 때,

3	황유주 (총무)	내용	나는 고민 없이 바로 미래의 직업을 골랐다. 아직 미래의 무슨 직업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듣고 싶었다. 교류 활동을 할 때는 이 미래의 직업이라는 주제를 고르기 잘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서로의 취미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어떻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고, 미래의 직업 또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는 다짐이 정말 멋있었다. 이것과 동시에, 몽골분들은 자신의 많은 것을 도전해보면서 자신의 취미 영역 역시 넓히고 있었다. 어떤 분은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고 어떤 분은 사회를 돕는 것이 좋아서 봉사도 여러 번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알아내고 고치려고 노력 중이신 분도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씩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것을 들으니 나 역시 목표를 세워 하나하나 달성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교류 활동은 다른 나라 분들과 서로 좋은 친분을 쌓는 계기도 되었지만 내가 나에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4 개인소감문

구분	이름 · 역할	개인소감문
1	김민서 (대표)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서 나는 몽골의 수많은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에게 몽골이란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유목 생활을 하며, 게르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일거라는 어림짐작을 하고 있었다. 몽골 청소년 참가자들이 준비한 영상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설을 갖춘 백화점, 편의시설, 광장을 접할 수 있어서 신기하였다. 또한, 이번 국제교류가 나에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가고 참여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몽골 청소년들을 만나기 전에 주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토의를 하고, 역할분담을 하면서 같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 한국 청소년들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몽골 국제교류 역시 서로의 문화, 생활, 언어, 역사와 같은 넓은 범위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지구촌의 청소년으로서 각자의 일상과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기때문이다.
2	임세현 (부대표, 서기)	사실 '몽골'이라는 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처럼, 지리적으로는 가까우나 그 사정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서로가 교차한 적이 몇 번 있기는 하나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상대국의 생활상이나 상황까지 잘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막연하기만 했던 서로의 사회와 생활, 가치관 등을 알아보며 공통된 가치를 공유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사회에 배울 점이 많으며 이런 점들을 일반 대중에게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도 서로를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며 이런 교류가 미래에도 이어져 이런 거리감들이 더욱 좁혀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교류는 여기에서 막을 내리겠지만, 인연이 이어져 앞으로도 이번에 만난 두 팀의 친구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며, 더 나아가서 양국 청소년의 원활한 교류와 희망찬 미래를 작게나마 소망합니다.

3	심현민 (서기)	이번 청소년 국가간 교류활동을 통하여 몽골의 모습을 더 깊게 알 수 있었다. 평소 몽골은 나에게 친숙하지만은 않은 국가였다. 내가 봤던 몽골의 모습은 주로 미디어와 교과서를 통해 접한 전통적 몽골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류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 자신에게 가치가 있고 흥미가 있는 진로를 추구한다는 몽골 청소년의 말을 들으며 몽골이라는 나라는 나에게 조금 더 입체적인 나라가 되었다. 아이스브레이킹, 문화교류, 공동과제 등 진행한 모든 활동이 흥미로웠지만, 특히 앞서도 언급한 교류활동이 좋았던 것 같다. 몽골 청소년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국제교류에 참가하면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청소년을 만날 수 있었고, 소통을 하며 친구관계를 맺고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교류가 끝난 지금도 몽골 친구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친분을 유지하고 싶다. 또한, 다음에 국제교류를 또 할 기회가 생기면 참가를 하고 싶다.
4	황유주 (총무)	이번 국가 간 교류 활동은 몽골에 대해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된 시간인 것 같다. 나에게 몽골은 학교 시간에만 짧게 배웠던 나라였고,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던 나라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몽골의 전통 의식주와 지금 몽골이 어떤지, 몽골의 특징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교류 활동 당시에 몽골 참가자분들이 몽골 전통의상을 입고 있어서 더욱더 몽골에 대한 나라를 알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2차 교류를 하고 나서, 3차 교류까지 중간에 2주 정도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같이 메시지도 주고받고 영상도 보내줬는데 몽골 분들이 정말 섬세하고 친절하셔서 그것 또한 정말 감사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교류하니 기분이 좋았다. 이 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분들과도 친분이 생긴 것이 아주 뿌듯했고,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자주 연락도 하는 것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5	최지원 (통역)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2년 한국-몽골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에서 통역이라는 큰 역할을 맡겨주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분들과 함께해주신 대표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올려드립니다. 이번 행사에서 통역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학과장님의 추천을 받아 통역 요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무척 가슴이 뛰고, 설렜습니다. 이번 통역은 저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드넓은 초원을 가진 나라 몽골의 언어를 배우면서 처음 시도해 본 통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몽골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터라, 부족한 언어 실력으로 행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 되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저의 주된 업무는 1일 차 교류 시 아이스브레이킹과 문화발표 내용을 통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회자 통역을 맡으셨던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제가 사회자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자 통역을 위한 25페이지의 번역물을 번역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성실히 도왔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사회자 통역 외에도 대표단 그룹별 토의 시 동시통역도 있었습니다. 대표단의 토의 그룹은 A팀과 B팀, 총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B팀의 통역을 맡았습니다. 토의 진행 동안 지금까지 배운 몽골어를 생생하게 듣고, 사용해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동시통역 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몽골 측 통역 선생님께서 함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더욱 잘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최지원 (통역)	토의 진행 시 알게 된 몽골 B팀 대표분들 및 통역 선생님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1일 차 행사가 마무리되어 귀가하였을 때는 2일 차 번역과 통역을 위해 몽골 측 통역 선생님과 SNS로 대화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몽골측 통역 선생님께서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하실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1일 차와 2일 차 교류가 진행되는 동안 몽골 대표단과 관계자분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저희 한국 대표단 분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셨고, 영상물에 대한 자료를 미리 보내주셨기 때문에 원활한 번역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3일 차 최종 교류 날에는 좋은 영상 결과물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3일 차 행사를 위해서는 약 2주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1, 2일 차의 실수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하루에 하나씩 업무를 나누어 번역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최종 결과물을 위해 먼저 한국 대표단원 분들이 찍어 주신 영상에 대한 번역을 완료해야 했고, 영상 발표를 진행해주시는 대표님의 대본을 번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차에 진행되는 사회자 통역과 최종 소감문에 대한 번역도 완료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역 요원은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숙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자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능력만으로 통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번역물을 미리 준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저희 B팀 대표님들은 바쁜 개인 일정과 업무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업무를 하셔야 하는지 제가 직접 배정하여 알려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분들의 영상물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는 몽골분들의 검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토했던 텍스트도 한 번 더 확인하고, 함께 통역을 맡고 있는 A팀 통역 선생님 및 아는 몽골 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려 번역물을 확인 받았습니다. B팀 한국 대표단과 몽골 대표단이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통역을 맡은 제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양국의 대표단에게 연락을 취했고, 마감 날짜를 정해 결과물을 취합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몽골 대표단이 공동과제 수행을 위해 줌회의를 진행할 때에도 날짜를 잡아 회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몽골 측에 직접 연락하여 최종 영상물을 받아 퍼실리테이터 선생님께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교류 기간 동안 저의 업무는 통역이었지만, 이 행사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리더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3일 차 교류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그 기쁨도 잠시 번역을 해야 하는 자료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큰 행사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아 행사가 진행되는 당일에도 번역물을 공지 받았습니다. 이 순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끝까지 붙잡아 번역물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A조 통역 선생님께서 끝내지 못한 번역물을 직접 돕기도 하며, 함께 발맞춰 나아갔습니다. 통역 준비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실제 통역 시 말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완벽하고, 뛰어나게 소화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볼 때면 슬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대표단원분들, 함께 통역을

5	최지원 (통역)	맡아주신 A팀 통역 선생님, 퍼실리테이터 선생님, 코디네이터 선생님, 그리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행사이며, 이 행사를 주관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Ganbat Munkhtsetseg (통역)	이런 국가간의 큰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처음엔 두려웠지만, 퍼실리에이터님이나 코디 선생님, 청소년 참가자들과 나머지 모든 스탭 분들의 열정을 느끼며 최근에 슬럼프가 온 것 같아 심란했던 나 자신에게 열심히 살아갈 동기 부여가 되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상대국이 저의 모국이라 잘만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 이번 교류를 통해서 나 자신도 몰랐던 몽골의 아름다움을, 몽골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5 자체평가

구분	평가
목표대비 달성도	□상 ■중 □하
좋았던 점	- 몽골의 문화와 생활환경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몽골 참가자분들께서문화 교류 시간에 몽골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몽골 문화를 잘 배울 수있었던 것 같다. 또한 서로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교류 또한 완만히 잘 흘러갔던 것 같다.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 무역을활발하게 이끌고 싶다는 분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몽골에서도 무역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이런 대화를 통해 나라의 상황이나 발전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 서로 다른 나이, 지역, 학교의 청소년들이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한 데 모여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나 함께 협업하여 하나의 공동의 결과물을 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 즐거웠다. - (통역)맡은 일을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첫 통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사회자 통역을 진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대본을 번역하기 위해 상당히 짧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완벽하게 완성하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내어 자발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할 일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날짜별로 해내야 할 일들을 정해 자료를 번역했습니다.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모르는 대표단 분께 해야 할 일을 공지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지인 몽골분께 직접 연락하여 완성한 번역물을 최종적으로 검수 받았습니다. 저는 통역의 업무를 맡았지만, B팀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몽골 대표단이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연결해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상황을 파악하며, 마감 날짜를 정해 결과물을 취합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도 많은 양의 번역물들을 전달받았지만, 강한 정신력과 책임감으로 통역, 번역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자세로 3일 차 교류까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팀에서 번역 작업을 끝내지 못한 것도 도맡아 해내며 '협동'의 자세로 본 교류에 임했습니다.
아쉬웠던 점	- 직업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라든지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자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몽골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모습도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았는데 모든 의견을 수합하다보니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적도 있어 아쉬웠다.

6 차기 참가자를 위한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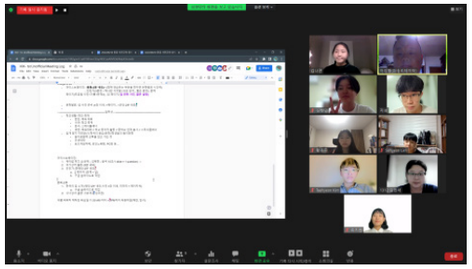
구 분	조언 내용
사전활동	• 팀 티셔츠 맞추는 것을 추천. 실제로 활동비용이 조금 남기도하고 팀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하기 전에 팀복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음 • 자신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교류하고 싶은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음. 질문도 여러가지 준비하면 좋음 • 통역 선생님께 미리미리 준비한 자료랑 대본을 보내드리면 더 편하게 준비가 될 것같음. • 상대국의 언어를 짧게 알아놔도 좋을 것 같음.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나 내일 만나요를 상대국의 말로 해주면 엄청 고마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으므로 온라인 활동 지원방에 올라온 서류들 모두 다운 받아 한 데 모아두고, 제출 기한은 일정표에 표시해서 시간 기한을 지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교류활동	• 교류 주제만이 아니라 자신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도 괜찮음. 오히려 중간중간에 어색한 시간도 없어지고 서로 재밌게 교류 할 수 있음 • 선물을 다양성있게 고르기 • 양국의 발표를 듣는 시간이 많으므로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면 적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 온라인 교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으니 참가자들의 말에 호응 열심히 하기
통역	사회자 대본을 전달받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행사 진행 시 필요한 모든 통역을 맡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번역하고 통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서 일을 찾아 나서야합니다. 1일 차, 2일 차, 3일 차에는 각각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스스로 살펴서 자신이 미리 번역해 볼 것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행사 진행 시 맡았던 업무의 '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업무를 처리하시기가 더욱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1. 1일 차 교류 진행 전 사회자 대본 번역 완료 (약 20페이지) 2. 1일 차 교류 진행 시 대본 번역을 토대로 한 통역 3. 1일 차 교류 시 그룹별 회의 진행 동시통역 4. 2일 차 그룹별 미팅 진행 동시통역 5. 2일 차 그룹별 미팅 시 수립된 규칙과 팀원 소개 발표 번역, 통역 6. 2일 차 토의 진행 시 동시통역 7. 2일 차 토의 시 진행되는 한국팀 발표 자료 번역, 통역 (통역 요원이 소속된 팀 대표단원들과 교류가 시작하기 1~2주 전부터 사전 논의 필요) 8. 3일 차 결과물을 위한 한국 대표단 세 분의 영상 자료 번역 9. 몽골 측 진행 상황 직접 연락하여 파악 10. 몽골 측 대표단과 함께 할 공동과제를 위해 줌 회의 진행

통역	11. 몽골 측 대표단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완성된 영상 자료를 받아 퍼실리테이터 선생님께 전달 12. 3일 차 최종영상을 소개하기 위한 발표 대본 번역 13. 3일 차 최종영상 소개 시 발표 통역 14. 3일 차 대표단 소감문 번역, 통역 15. 3일 차 교류 시 송출할 번역 ppt 제작(대표단 발표 번역, 소감문을 바탕으로) 16. 3일 차 사회자 대본 번역 17. 3일 차 사회자 대본 번역을 토대로 한 통역 18. 그 외의 임기응변 능력 요구됨 *만약 1일 차에 사회자 통역이 아닌, 아이스브레이킹이나 문화발표 통역을 맡았으면, 이때 진행되는 ppt에 대한 번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스브레이킹, 문화발표 진행 대본을 받아 미리 번역하여 행사 당일 통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3일 차 선물 교환 대본 번역을 맡았으면 선물 교환 ppt를 번역하고, 관련 내용을 통역해야 합니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해내십시오.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 일을 수행해 내신다면 분명 당신은 성장할 것입니다. "통역을 제대로 못하고 일을 망치면 어떡하나 생각할 시간에 참가자들과 잡담도 나누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걸"이라는 생각이 교류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선생님들의 조언대로 활동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 활동사진

(1일차) 단체사진

(1일차) 문화소개 발표 준비-아기상어



7/17 사전모임

(2일차) 단체사진

(1일차) A조 단체사진

(1일차) B조 단체사진

(1일차) 문화발표-아기상어

브루나이

결과보고서

교류팀명	교류일정	교류인원
열정브루	2022.9.15.(목), 9.16.(금), 9.30.(금)	10명 (청소년 8명, 통역 2명)

1 기본사항

사업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브루나이	교류팀명	열정브루
교류기간	2022.9.15.~9.30	교류인원	10명 (청소년 8명, 통역 2명)
활동 목표	1. 브루나이에 대한 문화를 비롯한 역사와 사회까지 알아보며 브루나이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 언어 공유 - 브루나이와 우리나라의 차이점과 공통점 - 브루나이 또래 문화 2. 한국에 대한 정보 전달 3. 세계적인 이슈 등에 대한 토의를 통해 발전하는 세계를 보는 눈		
활동 계획	사전	브루나이에 대한 자료조사(알아야 할 유의사항), 브루나이 친구들에게 알려줄 한국의 문화 자료조사	
	교류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한 친목 형성, 문화 공유(하루 일과 공유, 관심사 공유, 서로의 또래 문화, 언어 공유)	
	사후	소감 발표, 피드백, 공통점과 차이점 알아보며 브루나이 문화에 대한 이해 키우기	
활동 결과	사전	아이스브레이킹과 문화교류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은 교류활동 담당이신 이수지, 박시은님과 태정윤, 그리고 민서현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화발표 프레젠테이션은 각자 브루나이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각자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습니다.	
	교류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브루나이 친구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졌으며 문화발표를 하며 각자의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각자의 주제로 토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한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같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결과를 만드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각 팀끼리 교류활동을 진행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각자 일기를 공유하거나 줌으로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갖는 등 각 나라의 문화 뿐만 아니라 저희 또래의 브루나이 친구들의 문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서로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로가 이루어 낸 값진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통해 브루나이 친구들과 저희가 얼마나 친해졌는지 또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발표였습니다. 발표를 하는 중에 인사를 서로의 언어로 하며 언어 또한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과 한 후에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가 격려를 보냈는데, 그 경험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사후	활동이 모두 끝난 이후,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돌려주는 과정이 매우 훈훈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며 브루나이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만들었습니다.	

	성 명	역할	내용
팀원 역할	태정윤	대표	팀을 이끌고 팀원들을 관리하며 대표로서의 완벽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박시훈	부대표	교류활동과 토의활동에서 자신의 열정과 성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곽우진	서기	팀원들의 의견을 조합해 주어진 과제들을 제출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서현	촬영 담당	촬영 이외에도 여러 역할들을 해주시며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안정민	홍보 담당	모든 활동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 하며 의사소통에 힘을 썼습니다.
	안솔민	총무	총무 역할 외에도 다른 역할들을 해주셨으며 특히 아이스브레이킹 상품과 기념품에서 훌륭한 결과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수지	교류활동 담당	교류활동에 힘을 쓰시며 문화발표와 아이스브레이킹 때 좋은 결과를 내시며 활약을 하셨습니다.
	박시은	교류활동 담당	교류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며 문화발표와 아이스브레이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힘을 쓰셨습니다.

2 사전활동 결과

가. 활동 요약표

번호	활동날짜	사전활동 내용	장 소
1	2022.9.9.~9.10	아이스브레이킹 정보 공유, 문화발표 아이디어 공유	온라인(카톡)
2	2022.9.10.	아이스브레이킹 게임 준비	온라인(카톡)
3	2022.9.11.~9.12	아이스브레이킹과 문화발표 ppt와 대본 준비	온라인(구글 문서와 구글 프레젠테이션)
4	2022.9.13	아이스브레이킹 상품과 기념품 준비	온라인(카톡)

나. 사전활동 결과보고

사 업 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브루나이
팀 명	열정브루	작 성 자	곽우진
활 동 명	문화발표와 아이스브레이킹	참 석 자	대표단 전원
목표 대비 성과	목 표	성 과	
	1. 문화발표 준비 2. 아이스 브레이킹 준비 3. 상품 준비	1. 아이스 브레이킹 상품 증정 2. 서로의 문화 공유	
활동 결과	1. 문화발표 준비 각자 한국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문화 ppt로 작성하기 1) 한국의 명절- 민서현 2) 서울의 관광 명소- 곽우진 3) 전통적 미신- 안정민 4) K- 배달음식- 안솔민 5) Kpop 그룹- 박시훈 6) 한국 학생들의 일상- 이수지 7) 인생네컷- 박시은 8) mbti, 즐겨 먹는 음식- 태정윤 2. 아이스 브레이킹 준비 1) kahoot 2) 진진가 3) 한국 브루나이 상식 퀴즈 4) 인물 맞추기 3. 아이스 브레이킹 상품 준비 1) 전통의상 입체퍼즐 2) 전통 노리개 3) 개량한복		
자체 평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발표도 좋았고 브루나이 참가자 분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역할 분담	성 명	역 할	내 용
	태정윤	청소년대표	팀원 관리와 문화 ppt 일부 작성, 아이스브레이킹
	박시훈	부대표	문화 ppt 일부 작성
	박시은	문화팀장	아이스브레이킹 ppt 작성 및 문화 ppt 일부 작성, 아이스브레이킹 발표
	이수지	문화팀장	아이스브레이킹 ppt 작성 및 문화 ppt 일부 작성, 아이스브레이킹 발표
	민서현	촬영담당	아이스브레이킹 ppt 작성 및 문화 ppt 일부 작성, 아이스브레이킹 발표
	안솔민	총무	아이스브레이킹 상품 의견 집합, 가격 정리, 기념품 결정, 문화 ppt 일부 작성
	곽우진	서기	문화 ppt 일부 작성, 아이스 브레이킹 문서 작성, 문화발표 문서 작성, 사전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그 외의 문서들

지출내역	물 품	지출금액	용 도
	책갈피(11개)	38,700	기념품
	키링(11개)	55,800	기념품
	부채(11개)	30,500	기념품
	개량한복(3개)	72,000	1-3등 상품
	종이입체 퍼즐(3개)	36,420	4-6등 상품
	노리개(5개)	9,800	7-10등 상품
	총 계	331,420	

결과물	file:///C:/Users/wooji/Downloads/%EB%B8%8C%EB%A3%A8%EB%82%98%EC%9D%B4%EC%A1%B0%20%EB%AC%B8%ED%99%94%20%EB%B0%9C%ED%91%9C.pdf https://drive.google.com/file/d/1qsOyJktt0vJB_ACU-CixwFmw8jNWVJ2X/view?usp=sharing

3 교류활동 결과

가. 일정표

일 자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일차 (9.15)	15.00-15.20	개회식	
	15.20-16.30	양국 아이스 브레이킹	
	16.30-17.40	양국 문화발표	
	17.40-18.20	그룹활동	
	18.20-18.30	마무리	
2일차 (9.16)	14.00-14.10	오프닝	
	14.10-15.10	토의활동1	
	15.10-16.10	토의활동2	

2일차 (9.16)	16.10-17.00	공동과제	
	17.00-17.15	마무리	
3일차 (9.30)	14.00-14.10	오프닝	
	14.10-15.10	최종발표	
	15.10-15.50	폐회식	

나. 세부 활동내용

• 1일차 (2022. 9 15.)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
	주요내용	카훗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과 ppt를 통해 아이스브레이킹을 진행햇습니다. 우선 카훗으로 각 팀원에 관한 진진가 게임을 하고 한국과 브루나이에 관한 상식 퀴즈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물 맞추기 게임을 했습니다.
2	프로그램	문화교류
	주요내용	민서현님이 한국의 명절, 곽우진님은 서울의 명소들, 안정민님은 한국의 미신들, 솔민님은 한국의 배달음식 문화, 박시훈님은 kpop, 이수지님은 한국 학생들의 일상, 박시은님은 인생네컷, 마지막으로 태정윤님은 현재 한국의 유행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였습니다.

• 2일차 (2022. 9. 16.)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토의활동(세션1)
	주요내용	주제의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나라의 상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주제에 대한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2	프로그램	토의활동(세션2)
	주요내용	서로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이후 해결책을 생각하고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3	프로그램	교류과제 정하기
	주요내용	이후 준비해야 하는 교류과제를 무엇을 할지 정했습니다. 교류활동들로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거나 학교 생활, 주변 사진 등을 찍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 3일차 (2022. 9. 30.)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토의활동 발표
	주요내용	토의활동에서 토의했던 내용들과 그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 향후 저희가 할 수 있는 해결책들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2	프로그램	교류과제 발표
	주요내용	각자 2주 동안 무슨 미션들을 수행했으며 미션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발표했습니다.
3	프로그램	선물 교환
	주요내용	브루나이 친구들은 저희에게 주로 브루나이 전통 도구들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용성과 전통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부채와 같은 선물들을 보내 주었습니다.

다. 주제에세이

구분	이름 · 역할	주제에세이	
1	태정윤 (대표)	주제	디지털 혁신
		내용	모든 혁신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디지털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해주었다. 예를 들면, 배달 서비스, 문화 서비스(영화 예매), 키오스크, 소셜 미디어 및 사용자 생성 컨텐츠 등 많은 이점들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 유출, 핸드폰 중독, 가족간의 대화 부족 및 관계 소홀 등 문제점도 많다.
2	이수지 (교류활동)	주제	비대면을 통한 접촉적 만남
		내용	브루나이 친구들과 줌으로 처음 그룹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있었다. 처음에 리더를 선택할 때, 왠만해서는 브루나이의 분들 중 한 분이 함으로써 소통을 더욱 많이 하고 싶었다. 책임감이 강한 리더 덕분에 b그룹은 수월하게 만남을 이어갔다. 사람이 소수가 아니다보니, 개인적 시간 조율이 어려웠으나 만남을 이어간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아쉽게 마지막날 참석하지 못했지만 남은 교류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다.
3	안정민 (홍보)	주제	다른 것에 대하여
		내용	다른것은 문제점이 되는것이 없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든 똑같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3	안정민 (홍보)	내용	가끔 모든 사람이 성격이 같다면 다툼이 없을것같단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별로 세상을 사는 재미가 없을것같다고 생각하게됩니다 단색으로 칠해진 도화지보다 여러색으로 물들여진 도화지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니까요. 서로의 색이 하나로 섞이는것보단 다른 색으로써 서로 어울리는게 더욱 즐거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색을 들어내며 그 조화의 앞장설것입니다.
4	박시은 (교류활동)	주제	한 마음, 한 뜻
		내용	문화교류담당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어 교류 첫날에 있을 아이스 브레이킹과 문화 발표 준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학교 생활을 하며 교류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잘 준비 할 수 있었다. 기숙사 열람실에서 새벽까지 남아 ppt를 만들고 대본을 작성하며 발표 준비를 했다. 2일차 교류가 끝나고 3일차에 있을 발표를 브루나이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다. 브루나이 친구들도 새벽까지 잠을 줄여가며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4-5시간이나 가야하는 먼 나라에 살고 있다.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다르다. 하지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위해 함께 준비하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어딜 가서도 쉽게 하지 못 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5	민서현 (사진)	주제	"우리는 말하며 친구가 되었다"
		내용	그룹에서 부리더를 맡으며 브루나이의 리더와 함께 문자를 시작했다. 어떤 식으로 그룹 활동을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시작으로 세부적이 계획을 구상했다. 그 후 2일 후를 첫 미팅 날로 정하고 우린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로 공부 겸 여행을 떠난다는 Yanna는 자신의 사소한 이야기와 지난 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해 주었다. 나 또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여행지와 최근에 다녀왔던 영월과 철원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함께 이야기를 하며 친해지던 중 첫 회의가 시작되었다. 많은 인원이 한번에 약속을 잡기 힘들었기에 첫 회의는 Yanna와 Arifah, 나 이렇게 3명이서 마무리했다. 이 세명은 그 후 있었던 4번의 회의에서 거의 부동의 멤버가 되었다. 많은 인원이 다양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 세명은 깊이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우린 서로의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하며 정말 "친구"가 되었다. 줌을 통해 매일 영어로 대화를 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레 영어 농담에도 웃고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대화에 심취한 3명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대화를 했다. 최근에 읽고 있던 책, 요즘 하고 있는 악기 연주, 가장 좋아하는 영화 등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 살고 있는 곳이 멀다하여,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하여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5	민서현 (사진)	내용	우리 3명은 지구에 있지 않았어도 친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잘 맞았다. 너무 편했다. 훗날 우린 각자의 나라에 방문하여 서로의 가이드가 되어주기로 했다. 언젠가 오랜 시간이 흘러 어린 3명의 소녀가 했던 약속은 실제가 되어 우연히 얻은 인연을 이어가는 행운이 생기길 바란다.
6	곽우진 (서기)	주제	바다를 건넌 우정
		내용	처음 활동에 신청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토의 활동이었습니다. 토의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 친구들과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토의를 하며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진행하며 브루나이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인 기억을 뽑으라면 브루나이 친구들과 줌을 통해 교류활동을 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브루나이 친구들과의 우정이 이 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4 개인소감문

구분	이름 · 역할	개인소감문
1	태정윤 (대표)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이번에 국제교류에 지원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나라이다.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는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문화말고는 자세하게 알려진 문화들이 없었다. 또한, 교류를 진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 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배달문화나 문화시설(영화, 카페, 식당)이 잘 되어있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교류를 하면서 브루나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배달문화도 매우 발달되어있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방식도 한국과 다른 점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도 모르게 박혀 있었던 편입견들을 깰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그리고, 서로 문화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인상깊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류였기 때문에 3차활동이 모두 끝날 때까지 서로 어색하고 교류활동이 끝나는 동시에 연락이 두절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예상과 달리, 3차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보니 계속 만나던 친구처럼 편안해졌다. 국제교류 네트워크는 학업으로 바쁜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준 기관이다. 한국에서만 자라고 한국 친구들만 사귀었던 친구들의 시야를 세계적으로 넓히고 팀 활동으로 책임감, 이해심, 배려심 모두 배우고 키울 수 있었던 고마운 경험이다.
2	이수지 (교류활동)	브루나이 친구들과 줌으로 처음 그룹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있었다. 처음에 리더를 선택할 때, 왠만해서는 브루나이의 분들 중 한 분이 함으로써 소통을 더욱 많이 하고 싶었다. 책임감이 강한 리더 덕분에 b그룹은 수월하게 만남을 이어갔다. 사람이 소수가 아니다보니, 개인적 시간 조율이 어려웠으나 만남을 이어간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아쉽게 마지막날 참석하지 못했지만 남은 교류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다.

3	안정민 (홍보)	국제교류를 하면서 무의식중에 있던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놀람과 동시에 편견등을 차근차근 지우려고 해보니 곧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모든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화가 다른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문화의 대해 알아가는것도 있었고 그것도 물론 즐거웠지만 문화를 알아가는것에서부터 더욱 나아가서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간 사람의 시선과 생각등에 대해 알고 더 넓은 시선을 갖게되는 계기가 된것같습니다.
4	박시은 (교류활동)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브루나이라는 국가를 이번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브루나이라는 국가를 얘기하면 처음 듣는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진행할 퀴즈 게임을 위해 브루나이에 대해 찾아봤을 때도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브루나이 친구들에게 인터넷이나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보들,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5	민서현 (촬영)	리더십과 서두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룹 활동을 하며 한국 측 리더와 그룹의 부리더를 맡아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영어로 소통해야하는 어려움과 리더로서 멤버들의 활동을 잘 이끌어야했기에 매순간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했습니다. 가끔 서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설득했고,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각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야했기에 마음이 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여러 약속을 잡고 이행하지 못하는 등 실수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각국 리더가 함께 상의하며 서두르지 말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저희 팀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잘 정리된 최종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류를 통해 팀원을 잘 이끄는 것 뿐 만아니라 잘 듣는 리더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다른 교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서도 깨달을 바를 적용한다면 더욱 원활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2주 정도의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졌을 때 줌을 통해 소통한 것입니다. 서로가 속한 동아리나 외부 활동에 대해 말하던 중 Arifah가 칼림바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저 또한 가지고 있던 칼림바를 꺼내 연주했습니다. 제 실력은 부족 했지만, 그 모습을 귀엽게 여겨 준 브루나이 친구들에게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서로의 나라에 놀러가게 된다면 꼭 듀엣을 해보자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칼림바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미팅이 끝났지만, Yanna, Arifah와 함께 따로 만나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가장 좋아하는 전통 음식, 각국의 주거 문화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 활동들을 수행하며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었기에 가장 의미가 있었습니다.
6	곽우진 (서기)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귄 인상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친구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토의도 하고 줌으로 게임을 하기도 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팀으로 활동하며 팀워크와 책임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5 자체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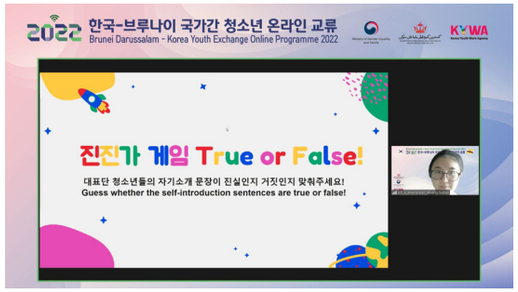
구분	평가
목표대비 달성도	■상 □중 □하
좋았던 점	참여원들끼리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동하면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아이스 브레이킹과 문화발표를 준비하고 브루나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친구들이 활발하게 우리가 준비한 활동을 해줌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교류에 참석하는 인원이 항상 다수여서 좋았다. 또한 딱딱하게 주어진 과제만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일상을 물음으로써 친근함을 느꼈다.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무언가의 대해 생각할때의 시선의 폭이 훨씬 넓어진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브루나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마련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참가 전 제가 세웠던 가장 큰 목표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재밌는 미션들 없이 토의만 하는 활동이었다면 친구 보다는 살짝 딱딱한 관계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미션들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영어로 대화하고 줌으로 게임을 한다는 쉽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에만 국한 된 친구들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살고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다른 나이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서로의 문화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내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통념이 다르게 생각될 수 있다는 점에 신기했습니다. 폭 넓은 경험과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	1,2차 활동을 상대국과 할 때도 학교와 시험 준비 기간이 겹쳐 준비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3차는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을 볼 때쯤 이루어져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그 전에 비해 활동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특정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맡아서 일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생긴 오해들로 인해 갈등이 생길 뻔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준비하는 활동들이 아닌 만큼, 책임감, 이해심, 배려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준비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온라인이니까 대충하려는 책임감이 부족한 참여원들도 몇몇 보여서 속상했습니다. 비대면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 코로나의 여파로 대면 교류활동을 못한 것이 큰 여한이다.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것이 아쉬웠습니다 사전 준비부터 교류 활동까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브루나이 국가를 방문하거나 브루나이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해서라도 직접 만났으면 훨씬 재밌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교류 기간은 2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sns를 통해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너무 바빴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시험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함께 회의를 해야하니 청소년들이 다수 약속에 불참하거나 문자를 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같은 팀으로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6 차기 참가자를 위한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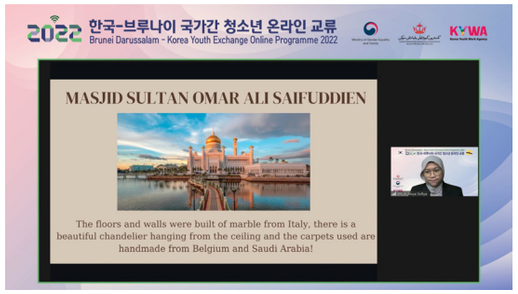
구 분	조언 내용
사전활동	자신감과 적극성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팀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와이파이 연결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도 온라인에서 대규모 회의를 하면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될 경우을 대비해서 와이파이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번 사전 활동 때 역할 정함에 있어 오래걸리는 것을 보고, 저는 국제 활동 담당 친구를 2명으로 늘리고, 제가 다른 참여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직책을 맡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자기 생각을 분명하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교류활동	서로의 시간 조정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배려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이 서로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제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제로 서로 토의를 할 때 서로의 나라에서 어떤 점이 잘 발달 되었고 어떤 부분은 아직 도움이 필요하거나 발달이 필요한지 등 교류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상대국 나라의 참여원들을 알 수 있다면 주제 토의시간은 상대국을 알 수 있는 것 같아 두 활동 모두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주의해야하는 문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역분이 없이 문자를 하거나 바로 영어로 말해야 할때가 필요했어요. 조금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교류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교류를 하며 브루나이 친구들이 제 리액션이 마음에 든다고 자주 말해 주었어요. 리액션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답니다!
통역	국제 교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해봐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제언	이번 교류를 하며 어떤 참여자 분께서 제게 말했어요. “2주 동안 시간이 주어졌을 때 활동 참여를 잘 못 할 것 같아서 1,2차 교류때 열심히 한거다.” 저는 이해 할 수 없었어요. 끝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많은 것을 얻어가야할 이 프로그램에서 끝까지 임 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이미 알았는데도 신청한 태도가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훗날 참여하실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이 무엇을 얻어가야 할지 내가 왜 끝까지 참여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7 활동사진

(1일차) 단체 기념사진



(1일차) 아이스브레이킹



(1일차) 문화발표

(2일차) 토의활동

(2일차) 토의활동

(3일차) 폐회식 선물교환

8 기타 활동자료 목록

붙임	구 분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유형
1	1일차	아이스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ppt
2	1일차	문화 발표	문화 발표	ppt
3	사전활동	기념품과 상품 목록	기념품과 상품 목록	jpg
4	1일차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대본	hwp
5	1일차	문화 발표	문화발표 대본	hwp
6	3일차	토의활동	토의활동a조	ppt
7	3일차	토의활동	토의활동b조	ppt
8	3일차	교류활동	교류활동a조	ppt
9	3일차	교류활동	교류활동b조	ppt

사우디아라비아

결과보고서

교류팀명	교류일정	교류인원
얄라(يلا)	2022.9.22.(목), 9.23.(금), 10.7.(금)	9명 (청소년 7명, 통역 2명)

1 기본사항

사업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사우디아라비아	교류팀명	얄라 (يلا)
교류기간	2022.9.22~10.7	교류인원	9명 (청소년 7명, 통역 2명)
활동 목표	1. 교류 기간 중 각 국가간 문화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험 수립 2. 교류 활동 중 토론과 사후활동을 통한 각 국가에 대한 선입견/편견을 개선 3. 각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소개하는 교류 활동으로 국가간 교류 활성화		
활동 계획	사전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각국에서 구글 폼을 활용하여 서로의 국가에 대한 선입견 조사, 한국 관련 키트(음식, 문화 선물, 책자 등) 제작, 각국 문화 관련 카드 뉴스 제작	
	교류	한국의 과거·현재 문화 알리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문화 융합, 각국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리는 시간 갖기	
	사후	사우디 대표단에게 할랄푸드 선물로 배송하기, 사전활동에서 조사했던 선입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재조사하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담아 영상 제작하기	
활동 결과	사전	구글 폼을 통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얄라 팀 소개 및 팀원 소개 관련 카드뉴스 제작 및 업로드	
	교류	한국-사우디아라비아의 과거·현재·미래 발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인식과 대안 발표, 코로나/디지털 혁신 관련 양국 공동 발표	
	사후	사우디 대표단에게 선물 발송, 사전 활동에서 조사한 인식 결과과 활용 가능한 대안 관련 카드뉴스 제작, 사우디 대표단에게 영어 편지 보내기	
팀원 역할	성 명	역할	내용
	김해빈	대표	전체 회의 총괄 및 설문조사 자료조사
	제영미	부대표	카드뉴스 팀 총괄 및 교류 활동 자료 제작
	배성경	서기	활동 계획·보고서 정리 및 제출, 팀 회의록 작성
	이지원	디자인	카드뉴스 제작 및 업로드
	유지원	총무, 서기	지출 내역서 정리, 교류 활동 중 문서 정리
	전성진	자료조사, 홍보	카드뉴스 자료 조사, 교류 활동 자료 제작
	서희원	자료조사, 홍보	카드뉴스 자료 조사, 교류 활동 자료 제작
	송민영	통역	사회자 통역 및 Group A 전담 통역
	양서연	통역	발표자료 번역 및 Group B 전담 통역

2 사전활동 결과

가. 활동 요약표

번호	활동날짜	사전활동 내용	장 소
1	2022.09.08.~09.13.	카드뉴스 제작	온라인(인스타그램)
2	2022.09.13.~09.20.	사우디아라비아 인식 조사	온라인(에브리타임)
3	2022.09.06.~09.19.	문화발표 및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 제작	온라인

나. 사전활동 결과보고

사 업 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사우디아라비아
팀 명	얄라	작 성 자	김해빈, 배성경
활 동 명	과거, 현재, 미래를 찾아	참 석 자	대표단 전원
목표 대비 성과	목 표	성 과	
	1.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각국에서 구글 폼을 활용하여 서로의 국가에 대한 선입견 조사하기 2. 한국 관련 키트(음식, 문화 선물, 책자 등) 제작하기 3. 각국 문화 관련 카드 뉴스 제작	1. 구글 폼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완료 2. 전통 옷, 전통 부채 등 선물 준비	
활동 결과	1. 문화발표 준비 - '한국 속의 사우디' 발표를 위한 설문조사 준비 - 우리나라사람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 작성		

활동 결과	① 08.10.(설문조사팀 1차 회의) 설문조사 계획 수립, 문항 및 필수 내용 점검 ② 08.20. 설문조사 폼 가안 작성 ③ 09.13.(설문조사팀 2차 회의) 설문조사 폼 최종본 작성 및 배포 (붙임1) 2.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청소년 지인 및 학교를 중심으로 설문지 배포 : '에브리타임' 활용 (붙임2) - 9/13-9/17 설문조사 실시, 총 108명 참여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붙임3) 3. 설문조사 발표물 제작 및 기프티콘 추첨, 발송 - 문화발표B '한국속의 사우디' 발표물 제작 (붙임4) - 설문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프티콘 추첨 및 발송 (붙임5),(붙임6)
자체 평가	① 자기주도성 : 설문조사 제작 ~ 설문조사 결과물 제작 및 발표까지 주도적으로 진행. 특히 알아보고 싶은 인식과 긍정/부정적인 요소 확인을 위한 질문의 구성에서 자기주도성이 돋보임. ② 세계시민의식 : 양국의 인식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문화, 종교 등을 조사하여 확인함. ③ 협력 : 설문조사지 작성, 설문조사 배포 등 거의 전과정에서 팀원 모두가 함께 참여함.

역할 분담

성 명	역 할	내 용
김해빈	청소년대표	교류국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 가안 작성
서희원	디자인	카드뉴스 제작을 위한 초안 디자인 및 기획 참여
송민영	통역	사회자 스크립트, 행사 ppt, 카드뉴스 등을 번역
배성경	서기, 자료조사	매 회의마다 회의록 작성, 교류 활동 발표 자료조사, 교류 활동 아이스 브레이킹 기획 및 PPT 제작, 사전 설문조사 콘티 작성, 설문조사 추첨 진행, 설문조사 및 아이스 브레이킹 상품 구매
양서연	통역	국가 간 교류에 있어 한국과 사우디 양 팀의 원활한 소통 및 교류를 위하여 통역 및 번역 업무를 담당
유지원	홍보, 총무	설문조사 준비 및 문화발표 ppt 제작과 발표대본 작성, 지출내역 관리, 설문조사 내용을 문화발표B 발표 자료로 제작 및 활용
이지원	교류 활동	카드뉴스 양식/카드뉴스 콘티*번역본 양식 제작, 카드뉴스 제작 및 텍스트파일 변환, 카드뉴스팀 비정기 회의 주재 및 기록,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국기기록원 나라기록관과의 소통, 문화비교 아이디어 제안, 설문지 표지 제작, 정기회의 활동사진 업로드
제영미	부대표	SNS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 및 업로드, 카드뉴스 제작 전 콘티 작성을 통해 카드뉴스 제작 시 가이드라인 제시, 교류국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 총 검수 및 최종본 작성
전성진	자료조사	

지출 내역

물 품	지출금액	용 도
전통한복 카드	24,000	아이스브레이킹 선물 증정 (1명)
전통 부채	18,000	아이스브레이킹 선물 증정 (1명)
아이스 아메리카노	45,000	설문조사 추첨 이후 선물 증정 (10명)
총 계	87,000	

결과물	붙임1.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tTQT59Aqj3Ufsd658 붙임2. 설문조사 배포 붙임3. 설문조사 결과 : 문화발표 B '한국 속의 사우디' 붙임4. 지출내역 영수증 붙임5. 기프티콘 추첨 과정 붙임6.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청구 관련서류 (이미지, pdf) 붙임7. 카드뉴스 프로그램 소개 (국문, 번역본) 붙임8. 카드뉴스 팀원 소개 (국문, 번역본) 붙임9. 회의 진행 과정(사진), 번역 가이드라인 붙임10. 팀원 조사 내용 (구글폼 캡쳐, 한글 파일)

3 교류활동 결과

가. 일정표

일 자	시간	세부내용	비 고
1일차 (9.22.)	16:00	개회식	
	16:20 – 17:20	아이스 브레이킹	
	18:30 – 19:40	문화발표	
	19:40 – 20:20	그룹활동(자기소개, 역할 분담, 계획 수립)	
	20:30	마무리	
2일차 (09.23.)	16:30	오프닝	
	16:40 – 18:30	토의 활동	
	19:20 – 20:00	그룹 미팅	
	20:00	마무리	
3일차 (10.07.)	16:00	오프닝	
	16:10 – 17:00	최종 발표	
	17:00	폐회식	
	17:30 – 18:00	평가 회의	

나. 세부 활동내용

• 1일차 (2022. 6. 30.)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
	주요내용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각각 준비한 게임을 진행함. 한국은 한국의 음식을 함께 소개할 수 있는 빙고 게임과 동아시아의 다른 문화와 한국 문화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퀴즈를 진행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양국의 주택에 대한 퀴즈를 냈으며, 파트너를 정해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대표팀에게 아랍어로 이름을 써주는 활동을 진행했음.
2	프로그램	문화교류
	주요내용	한국 대표단은 한국 청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인식을 가지는지 설문조사하여 통계자료와 함께 인식 개선 방법을 제시함. 또한, '과거, 현재, 미래'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영화, 공연, 에너지 등 다방면으로 이어져 온 사우디와 한국의 교류를 소개함.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국가 상징, 정치, 경제, 역사적 명소 등을 정리하여 소개함.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제시하며 한국팀이 알기 어려웠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함. 상대국에 대해 다소 낯설다는 인상을 받던 한국 대표단에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알려주어 큰 호응을 받았음.
3	프로그램	그룹 활동
	주요내용	A, B조가 각각 처음으로 모이는 시간을 가졌음. 미리 준비한 자기 소개를 통해 상대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 서로에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등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음. 또한 다음날 예정된 토의 활동에 대해 의논함.

• 2일차 (2022. 7. 1.)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토의 활동
	주요내용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과 청소년의 디지털 혁신 역량 향상 방안 모색(팀A)',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의 탄력적 회복(팀B)'을 주제로 소회의실에 모여 토의를 진행함. 팀A에서는 사전 조사를 통해 준비한 발표를 진행했음. 한국 대표팀의 경우 일상 생활(ex.카카오톡)과 대학생의 삶(ex.공유프로젝트툴)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사례를 주로 발표했음. 사우디 대표팀은 경직된 사내 구조가 디지털 혁신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와 같이 기업에 관련된 발표를 했음. 사우디팀은 한국의 카톡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한국은 사우디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며 의견을 나눔. 팀B의 경우, 한국 측 대표팀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상 속 변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가 한국 청소년의 학습 및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해 발표함. 특히 사우디 대표팀은 한국 측 대표팀의 발표에 대해 매우 많은 질문을 제시하며, 한국의 변화된 일상에 큰 관심을 표현함. 서로의 경험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함께 공유하는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2	프로그램	그룹 미팅
	주요내용	조별로 모여, 토의 내용을 발전시켜 하나의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한편 서로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함. 팀A의 경우, 전 시간 진행한 토의와 관련한 질의응답으로 그룹 미팅을 시작했음. 한국팀은 사우디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추가 질문을 했음. 사우디팀은 한국의 카카오톡 서비스에 대해서 사우디에는 없는 플랫폼 유형이며, 메신저를 넘어서 생일 축하 선물을 바로 전송하거나 미용실 등을 예약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을 전했음. 팀B는 사우디 측 대표팀이 코로나19가 야기한 사우디의 일상 속 변화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왕국에서 어떤 해결책을 펼쳤는지에 대해 발표함. 이를 통해, 사우디 청소년들의 경제관념 변화와 투자 문화 확산은 물론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음. 온라인 예약, 보건부와의 핫라인을 통한 재택 치료 등,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여러 노력을 특히 자세하게 전달함.
3	프로그램	그룹별 공통 과제 수행
	주요내용	그룹 미팅에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각 그룹에서 정한 공통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팀A의 그룹 공통 과제 의논을 통해서 팀명은 아랍어로 '같이'로 정했음. 정해진 공통 과제는 '교환 일기 작성', '초상화 그리기', 'sns미션' 등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며 미션 완수를 위해 함께 노력함. 팀B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키워드에 맞추어, '과거 사우디와 한국이 교류했던 흔적, 현재 양국의 문화가 활발히 교류 중인 현장, 앞으로의 밝은 전망이 엿보이는 장소'를 찾아가 V-log를 촬영하는 것을 공통 과제로 정함. SNS 아이디 교환을 통해 인스타그램 DM을 수시로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 역시 가짐.

• 3일차 (2022. 7. 15.)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그룹별 최종 발표
1	주요내용	토의 활동의 내용 및 성과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을 팀 전체와 나누고, 공통 과제의 수행 내용을 함께 공유함. 팀A에서는 디지털 혁신에서 사우디와 한국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함. 한국과 사우디 모두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과 공공 플랫폼 개발 등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또, 교환일기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알 수 있었고, 초상화 그리기를 통해 친목을 다질 수 있었음. 팀B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일상의 변화와 청소년들이 겪은 문제가 양국 모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띤다는 것을 발견함. 이를 토대로, 취미 활동 공유를 통한 단절의 회복 등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음. 또한 공통 과제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촬영한 V-log를 공유하며, 서로의 국가에서 엿볼 수 있는 자국의 모습을 즐겁게 감상함.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양국의 문화 교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확인함.
2	프로그램	평가 회의
	주요내용	그간 진행된 모든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 참가자 모집기간, 홍보방안, 온라인 프로그램 내용, 교류 성과 등 여러 항목에 대해 각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 중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평가 회의록으로 정리함.

다. 주제에세이

구분	이름 · 역할	주제에세이	
1	김해빈 (대표)	주제	사우디, 종교에 가려진 매력
		내용	여행이나 유학 등을 고려할때,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동을 고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특히 무슬림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평생 동안 사우디를 방문해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 그 어디쯤 또는 이슬람을 믿는 나라 정도로 기억하고 길거리에서 히잡을 볼 때 연상짓는 잠깐의 이미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문화권의 3대 성지를 가진 중심이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문화가 어울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종교라는 틀에 갇히어 보지 못하는 이면에 음식, 역사, 기후 등 한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우리와 완전히 다른 기후와 문화를 가졌지만 같은 아시아라는 특징때문에 비슷한 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글씨를 오른쪽부터 쓰는 문화나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 등 멀고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는 만큼 원래의 것을 보존하고 다른 것과 융합시키려는 태도가 강한 나라. 어쩌면 이미 익숙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얻어갈 것이 많은 나라.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보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
2	배성경 (서기)	주제	종교와 철학, 사우디아라비아의 근간
		내용	철학, 그중에서도 종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국기에 새겨진 '샤하다'로 인해 우리에겐 익숙한 조기가 사우디에서는 행해지지 않는 것이나, 모스크에서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예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국가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국교'가 존재하지 않고 유교, 불교, 도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가 문화와 일상 속에 적절히 융합되어 존재하는 한국인으로서는 무척 낯선 풍경이다. 하나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공유하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라는 명제 자체가 한국에서는 아예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가장 큰 인상을 가지는 요소는 바로 종교다. '신의 이름' 아래 민족이, 집단이 결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무척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족성,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단연 '이슬람교'다. 종교적 의미를 갖는 무늬가 관공서의 내부부터 일상 공간까지를 장식하고, 그들의 의식주를 이루는 요소 역시 '이슬람교도로서의 삶'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종교가 한 개인은 물론 국가가 목표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2	배성경 (서기)	내용	한국은 어떤 하나의 종교가 사람들의 사상을 뚜렷이 지배하지 않는 국가다. 지금의 한국을 하나로 묶는 사상, 방향, 목표는 무엇인가? 다양한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점차 증폭되는 동시에 20세기 이후 한국을 내내 지배해왔던 성장주의의 신화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 속, 종교를 통해 국민이 단일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그것을 단결과 발전의 실마리로 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보다 관심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이지원 (카드뉴스)	주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와 교역
		내용	사우디 아라비아는 2020년 기준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2%를 차지하며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산업 구조는 석유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 유가 인상에.. 재정"와 같이 유가와 재정의 관계를 다루는 기사를 통해 뒷받침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국가의 경제와 국제 유가 간 연동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최근, 코로나 19 이후 국제 유가는 2020년 4월 4주경 배럴 당 17.59 (Dubai), 21.61 (Brent), 17.62 (Oman) (단위:$)를 기록하며 낮은 가격이 이어졌다. 이러한 코로나19와 맞물린 저유가 장기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가, 2021년 유가 회복과 함께 진정세에 들었다. 원유에 의존적인 사우디와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원에 의존적이기 보다 몇 개의 거대 기업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혁신의 사우디팀 발표에 의하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및 진흥 정책이 잘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한국 정부 및 관련 부처가 활용하면 새로운 기업 육성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원유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사우디가 채택한 방법은 경제 다각화 플랜이다. 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는 2016년 'SAUDI VISION 2030(사우디 비전 2030)'를 발표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미래의 석유자원 고갈을 대비해 '건강과 교육, 인프라 시설 및 관광'과 같은 산업을 통한 경제 다각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사우디 아라비아는 경제 다각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우선 국가의 산업이 순항할 때도 위기를 위해 미리 대비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은 중장기적 국가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국가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청사진을 제시할 때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통해 한국이 개선할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우디는 2022년 1~8월 기준 우리나라의 7번째 교역 대상국이다. 한국이 사우디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역시 광물성 연료(원유)이며, 그 외의 품목은 대부분 소량으로 수입된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근접한 국가이며 홍해를 끼고 있다. 이런 지리적 특징에서 지금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제 무역의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한국은 사우디의 아시아-아메리카 시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사우디는

3	이지원 (카드뉴스)	내용	한국의 아프리카-중동 그리고 유럽 시장의 디딤돌이 된다면 두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원유에 대한 국가 경제의 의존도가 높고,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 상반된 분야에 의존성이 높은 두 국가가 협력한다면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원유 외의 다른 분야의 수출, 수입을 늘리고 기술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한국의 유전자연구소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협약을 맺는 등의 기업 간의 성과가 꾸준히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 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직 대한민국의 사우디 인식을 그리 좋지 않다. 앞으로의 원활한 파트너십을 위해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해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 및 교역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한국과 UAE에서 진행한 농업협력 프로젝트에서 건조지역용 벼 '아세미'가 한국과 대비해 40% 증가한 수확량을 거두며 성공했다. 아직 벼의 가치가 개발과 담수처리비용에 못 미치며 상용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건조지역에서 벼 재배를 성공하고 국가 간 농업 기술 협력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UAE는 국경을 맞댄 국가로 기후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 부분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농업 협력과 다른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참고	[1]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2&pNttSn=197327 김태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 , "2021-2022년 상반기 한-사우디 교역 동향 경제·무역",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10.07. [2] https://www.petronet.co.kr/main2.jsp (국제석유정보) [3]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Sn=403&pNttSn=192855 전승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 , " 2021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산업 정보 국별 주요산업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1.06. [4] http://m.emerics.org/issueDetail.es?brdctsNo=323849&mid=a10200000000&systemcode=05 "[이슈트렌드] 사우디아라비아, 유가 인상에 힘입어 8년 만에 재정 흑자 기록",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1.12.24 [6] https://srb.mofa.go.kr/ae-ko/brd/m_11123/view.do?seq=130711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아랍에미리트, "한-UAE 간 농업 협력 동향 (사막 벼 재배 사업)", 2020.04.30

4	유지원 (홍보, 총무)	주제	사우디아라비아, 편견과 사실
		내용	사우디아라비아를 떠올리면 왜인지 부정적인 단어들이 연상된다. 치안, 히잡, 무슬림 국가에 대한 편견 등. 이런 이유로 그 나라의 사람에게까지 편견을 갖게 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는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문화부터 모든 것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 수업에서부터 주변 식당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정보를 예상보다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직접 소통을 해보니 웃으며 대화하고 화면으로 엄지나 손가락 하트를 날려주는 등 한국의 문화와 다름이 없었다. 또한 채팅으로 소통을 할 때도 서로 이모티콘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등 매우 편하게 소통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의 문화의 관심이 많아 질문과 답변을 하는 대화가 오히려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문화로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르기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보자. 그것은 생각한 것과 훨씬 다르고,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이 역시 깨보는 것은 어떤가.
5	제영미 (부대표)	주제	교류의 의미
		내용	아랍어를 전공하면서 한 번쯤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친구와 교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 중에 했었다. 생각보다 이 기회는 나에게 빠르게 찾아왔고, 이 기회를 헛되지 않게 보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사전활동과 교류활동을 준비하며 팀원들과 많은 시간들을 쏟았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K-culture에 익숙할 사우디 팀과는 다르게 우리는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적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았다. 그 결과로 하는 활동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며 잘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3일간의 온라인 교류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사전활동과 교류활동을 준비하며 생긴 의문과 두려움은 잊은 듯한 느낌이었다. 이 3일간의 교류는 나에게 호기심을 전해주고 여러 자극과 말로 이루어 낼 수 없는 감정들을 얻게 해주는 가장 의미 있던 첫 교류 활동이었다. 사우디 팀의 아이스브레이킹인 이름 써 주기부터 교류활동인 공동과제를 위해 했던 1:1 연락까지 직접 사우디 친구와 쌍방향으로 교류하며 교류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진정한 교류에 대한 이치를 깨달았다. 아랍어를 전공했지만 아랍지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거의 전무했기에 사우디 팀과 교류하는 것과 소통하는 것에 조금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채워가는 교류 활동들을 보며 교류의 뿌듯함과 그 이상의 경험까지 얻을 수 있었다. 사우디 팀과 한 이 경험은 사람을 잇는 진정한 교류의 의미를 떠올리며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경험이자 내게 첫 교류활동으로써 진정한 교류의 의미와 오래도록 되새김질할 수 있을 활동이라 생각 든다.

6	전성진 (자료조사, 홍보)	주제	다양해지며 달라진 시각
		내용	이전에 나는 이슬람 문화와 언어에 대해 생소했고 안좋은 소식들을 접한것이 많았다.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 이슬람 문화에 대해 정보가 많지 않았고 낯설었다. 또, 다른나라, 문화와의 교류가 처음인것은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교류활동에 문화발표, 토의활동, 공동과제들을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또, 같이 공유하고 활동하면서 그들과 우리의 생각을 읽고 배우고 공유할수 있었으며 사우디 청소년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 느껴보니 전혀 낯설지 않았다. 내가 그동안 겉모습, 인식으로만 판단을 했었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마음과 생각이 바뀐 내가 있었다. 이번 시작에는 이런 인식을 가졌던 내가 이슬람 문화에 도전하고 출발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직접 경험하려하고 느껴봐야 알수있다. 이번 시작을 통해 직접 다른나라 사람들과 공감하고 교류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7	서희원 (디자인)	주제	사우디아라비아와 학교 밖으로 나가보기
		내용	나에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궁금한 국가였다. 또한 내 생활을 보면 대부분 익숙한 생활 반경 안에서 지내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굳이 물어보고 다니지 않고 있는대로 지내는 성격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학교에서 다양한 종교에 대해 배우며 이슬람교를 발표하고 계속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활동을 하며 학교 밖으러 나가 처음으로 도전해보고 싶었다. 실제로 만나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였다. 조사했던 내용과 달리 엄청나게 다양한 종교적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들을 듣고, 만나보며 많은 생각을 고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학교 밖으로 나간다는 것,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주제에 탐구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극복할 수 있고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의 편견을 깨고, 다시한번 내가 발전하고 배우고 학습할수 있던 학교 밖의 작은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지만, 이 활동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밖으로 또 다른 여행을 떠날 것이다.

4 개인소감문

구분	이름 · 역할	개인소감문
1	김해빈 (대표)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시차도 차이가 있는 편이고, 언어도 아예 생소한 영역이다보니 교류 활동 과정에서 많은 대화가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번역기도 구글 번역기 하나로만 사용해야하고, 문화나 나라 특성 방면에서도 내가 아는 부분이 없는 것도 걱정에 한 몫했었다. 정말 다행히 상대편 통역과 우리쪽 통역분이 잘 소통하도록 도와주셨고, 사우디 측에서 모든 메일과 메세지를 한국말로 바꾸어서 보내주셔서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사우디를 모르는 만큼 사우디에서도 한국이 낯선 나라일텐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것은 그만큼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기에 더 고맙게 느꼈던것 같다. 아랍지역학을 전공하면서,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던 부분이 눈 앞에서 나타나고, 직접 써볼일이 있을까 했던 언어들을 직접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언젠가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이번 경험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용기를 줄 것 같다고 생각한다.
2	배성경 (서기)	'사우디아라비아', 어쩌면 이번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살면서 별 관심 가지지 않았을, 단순한 가십거리로만 소비했을 국가다. TV 속 뉴스 몇 줄, 교과서 속 사진 몇 장이 내가 알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부였다. 그만큼 내게 낯선 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번 기회로 더욱 친밀해진 기분이다. 사우디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디지털 역량이 살아 숨 쉬는 국가였음을 새삼 느꼈으며, 잘 알지 못했던 아랍어와도 한층 친근해진 기분이라 무척 뿌듯하다. 또한, 이번 활동은 내가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 문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결과물을 정리하는 등의 활동에 대해 막연히 '어렵진 않다' 정도의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 대표단 서기와 통합 B팀 서기를 맡으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성과가 여섯 차례에 거친 회의록, 각종 제출자료로 남아 더욱 보람 있다.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다. 거의 모든 의사소통 과정이 '한국 측 → 한국 측 통역 요원 → 사우디 측 통역 요원 → 사우디 측'으로 진행되다 보니 너무 대화 속도가 느렸고, '사우디 측→사우디 측 통역 요원→한국 측' 식으로 사우디 측의 한국어 통역을 우리가 직접 이해해야 할 때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청소년'과 '청년' 같은 사소한 단어 차이가 소통 맥락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고,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진행이 느려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소통이 이뤄졌을 때마다 정말 기뻤다. 2일 차 진행 중 줌 채팅에 사우디 대표단 분이 보내신 'onldo fighting haha'라는 채팅이 올라왔을 때나, 개인 SNS 계정을 공유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때, 시차나 문화 차이를 넘어선 인간과 인간 사이 우정을 느꼈다. 통역자가 있을 때의 자세 역시 배운 것 중 하나다. 말을 적절한 길이의 문장으로 끊어 말하는 법이나 통역자와의 대화 간격을 조절하는 법은 물론, 서로의 언어를 모르는 것과 별개로 상대가 발언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는 것도 좋은 예의라고 느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그에 연결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내용과 성과를, 한국과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 전체에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시금 교류할 기회가 생겼을 때 더욱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가질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한다.

3	이지원 (디자인)	이전의 통역 의전에서 아랍 및 이슬람 국가 VIP들을 뵌 경험은 나에게는 많은 의문을 남겼다. 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무슬림들을 보며 종교와 생활 양식 또 아랍어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활동 전부터 팀원들과 매 주 회의를 진행하며 팀 활동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디자인과 카드 뉴스 제작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카드 뉴스에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사용하는 숫자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동아라비아 숫자(아랍 문자)를 사용한다. 자연과학사 수업에서 그리스 과학이 아랍에서 번역되는 것과 유럽으로 역수입되었다는 내용을 배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더 신기했던 것 같다. 교류 활동 전에 사우디 팀원들이 한국 팀원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에 약간 걱정을 했다. 그러나, 내가 걱정했던 부분은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왔다. 사우디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디지털 혁신 부분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줬다. 사우디 팀의 Hesham이 경직되고 변화에 저항하는 기업 구조가 디지털 혁신에 방해요소로 작용한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 팀은 장애인, 노인과 같이 디지털 혁신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더 집중을 한터라 이런 발표가 신선했다. 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우리 나라의 국민비서 '구삐'나 '정부24'처럼 정부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을 했었다. 한국은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직접 진찰'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며 사회적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기에 이런 사우디와 같은 의료 서비스가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듯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며 정말 즐겁고 행복한 교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즐거움과 별개로 어려움도 많이 존재했다. 이번 활동이 통역 요원들을 두고 한국팀은 한국어로, 사우디팀은 아랍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활동 구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을 했다. 만약 이 활동이 영어로 진행되었다면 팀에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팀원은 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통역이 모든 팀원의 활동 참여를 이끌어낸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대화 사이의 텀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발표 시간이 1/2이 되었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 상대팀이 말하는 시간이 약간은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우리 팀은 한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 팀 통역 한 명이니,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진행하자는 결론을 내고 사우디팀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PPT자료도 꼼꼼히 준비했다. 또, 사우디 팀 발표를 경청했다. 마지막으로 사후 교류 활동은 SNS 연락처를 교환한 사우디 팀원들과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11월 말부터 아랍어 강좌를 들을 예정이고, 지금 문자를 공부하고 있어서 통역으로 일한 모디와 두하에게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두하가 특히 아랍어 공부에 많은 응원을 보내줬는데, 한국어와 아랍어가 각자의 나라에서 배우기 어려운 특수 외국어지만 한-사우디 교류가 확대될 수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두하와는 아랍어-한국어 언어 교환을 하기로 했다. 사마와 사라는 내가 하고 있는 한복과 관련된 홍보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내줬다. 사라는 내가 입었던 한복 쾌자가 이슬람의 Jalabiya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야기해줬다. 전통 복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한국에서는 개량한복과 관련해 원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과 대중화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통복식이 널널한 형태이고 그런 논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국은 남성의 복장이던 철릭과 쾌자를 변형한 여성용 원피스가 대중화되며

3	이지원 (디자인)	전통 의상에 한해 성 구분이 흐려지고 있는 것에 반해, 사우디는 그런 변화는 없다고 한다. 사우디와 주변국 사이에는 한국-중국(한복), 베트남-중국(아오자이)과 같은 전통 복식을 둘러싼 왜곡, 갈등이 없고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문화라고 한다. 3일 간의 교류 활동과 사전, 사후 활동 중에서 무엇보다도 능동적인 참여와 도전, 꼼꼼한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20세기 사진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열람 청구를 보냈고, 담당 팀원에 사정이 생겨서 생전 처음으로 카드뉴스를 만들며 고생하기도 했다. 또, 교류 활동 첫 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한복을 입고, 사우디 측이 준비한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우디 아라비아를 배우고, 그들과 교류하며 내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다. 어문 전공자로서 무역, 국제 통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활동을 위해 조사를 하면서 KOTRA (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 무역관과 프로그램을 알 수 있었고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에게는 이번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이 매우 유익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다음 해에도 다시 활동하고 싶다.
4	전성진 (자료조사, 홍보)	처음에 교류 시작 전 상대방 나라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도 했고 편견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다. 이 편견을 깨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상대국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결과로 나에게 가장 크게 와 닿은 것은 이슬람문화에 대해 생각하던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더 다가가고 싶은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과제로 이슬람 기도원, 문화, 음식등을 직접 느낌으로써 사우디 청소년들의 말과 행동에 더욱 집중되고 공감하게 되어졌던 것 같다. 공동과제는 처음엔 어떻게 보면 필요하여 가게 된 것들이지만 나한테는 또 다르게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 직접 배워보는 발돋움이 되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내가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과 문화에 대해 쉽게 공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 뿐만 아니라 이번 얄라팀은 이번 교류활동을 통해 많은 시간을 쏟았으며 많은걸 배우고 느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교류가 비대면으로 되어 아쉬웠다면 아쉽고 짧다면 짧은 3일에도 많은 노력을 쏟아준것에 감사하다.
5	유지원 (홍보, 총무)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를 하며 저의 장단점이나 프로그램 취지를 이해하는 등 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사전활동을 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개인적 자료 수집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었으며 조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제 제시나 의견 발표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졌다. 사전활동과 교류활동 모두 알찬 시간이었다. 특히 조원들과 아랍, 이슬람 등의 문화를 체험하며 영상을 찍고 이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한 것이 인상깊었다. 직접 보고 체험해보는 활동이라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살펴보고 질문할 수 있어 좋았다. 활동 초반에는 조금 어색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점점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아 활동 과제 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3번의 교류활동을 하며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걱정했으나 생각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 모두 밝고 긍정적인 팀원들을 만나 웃으며 서로의 국가에 대해 알아가고 토론하는 것이 즐거웠다. 또한 통역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서로 경청하며 화면을 보고 웃고 잘했다며 칭찬하고 채팅창으로도 많은 리액션을 나누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어 좋았다. 다음 교류 프로그램은 대면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이 활동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상대국 대표단에게 개인적인 소통을 시도하며 자신감을 기르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이 역시 교류활동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팀 분위기와 일처리를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잘 해내고 싶다.

6	제영미 (부대표)	아랍어를 전공하고 있지만 전공 교수님을 제외하고 현지인을 만났던 적은 없었기에 아랍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다. 언어와의 장벽도 있지만 문화 간의 차이도 걱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교류활동을 함과 동시에 무너졌다. 줌을 통해 그룹으로 나누어 소통한 것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교류활동 중 공동과제를 위해 1:1로 소통했던 것이 짧지만 가장 강렬했던 경험이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통역 요원분들이 함께 있어 쉽게 소통이 가능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각자의 언어가 아닌 제3의 언어로 소통했던 게 새롭기도 하고 색달랐다. 공동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차분하지만 그와 동시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활동에 임하는 것도 느껴졌다. 내가 전공하는 아랍어가 아무 의미없이 배우던 언어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매체와 소통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렵게 느껴지던 아랍어가 조금은 친숙하고 나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아직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 기초 단계지만, 통역을 듣거나 사우디 팀이 말하는 중간에 아는 단어가 하나씩 들리게 되면 순간순간 희열을 느끼게 되었다. 언젠간 통역 없이 온전히 나 혼자 현지인들이 말하는 아랍어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 활동이 나에게는 동력이 된 것이 분명하고 이 활동이 나에게는 더 공부하고자 하는 자극을 주었기에 내가 아랍어 실력이나 아랍지역의 문화적 지식을 쌓는 데에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었다. 또한, 갑작스럽게 다음 날 사용해야하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 팀원과 함께 늦은 새벽까지 자료를 제작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 팀원과 빠르게 대처하여 다음 활동에 지체되지 않게 최대한 신속히 제작함과 동시에 양과 질 또한 챙기며 짧은 시간내에 제작한 것 치고는 꽤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정신이 없어 만들기에 급급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나에게는 어려웠던 상황 대처 능력과 동시에 성장을 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교류활동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주는 동시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던 활동이었다.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얻게 되어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한국과 사우디 팀 모두에게 좋은 시간으로 남았으면 하는 활동이다.
7	송민영 (통번역)	백설공주, 인어공주 등 서양 공주를 좋아한 친구들과 달리 나는 학생 때부터 중동의 공주 '쟈스민'을 좋아했었다. 쟈스민을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배경인 '아랍 문화 및 아랍 국가'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고, 아랍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싶어 전공을 아랍어로 선택하게 되었다. 아랍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발음과 문법의 매력에 빠졌고, 우연한 기회로 알제리 및 카타르 대사관 행사에 참여했을 때 아랍인과 아랍어로 대화를 나누며 행사를 안내했을 때의 희열은 내 삶의 동력이 되었다. 이후,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문화와 아랍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번역사가 되고 싶어졌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꾸준히 노력했다. 아랍어 공부도 계속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번역도 했다. 그러나, 통역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코로나로 인해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있어도 통역은 번역보다 순발력이 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로 대학원생, 혹은 전문 통번역사 혹은 교수님이 하셨다. 그러던 와중에 행운처럼 찾아온 이번 '한국&사우디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는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주었다. 통역 준비 및 번역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은 것이다. 처음 통역을 하다 보니 실수를 많이 하고 말을 아예 못 할까 봐 걱정과 긴장을 엄청나게 했었다. 이를 극복하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국팀에게 부탁해 교류 당일에 사용할 자료를 사전에 최대한 많이 받았다. 받은 자료를 미리 번역해 놓았고, 예상 답변도 미리 아랍어로 준비했다. 덕분에 실전에서 당황하는 일은 많이 줄었고, 실수를 덜하자 자신감을 얻어 마지막 날에는 거의 긴장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었다.

7	송민영 (통번역)	또한, 이번에 사전 자료 및 대본을 번역하면서 한국어 표현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아랍어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 고민했다. 아랍인이 내 글을 봤을 때 문장이 부자연스럽고, 번역 투처럼 느껴지지는 않을지를 생각하며 문장을 계속 수정하고 검수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글을 완성했을 때와 사우디팀이 내 문장을 읽고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되었다고 말해줬을 때의 성취감이란 '아, 이래서 내가 통번역사를 하고 싶어 했구나, 아, 이래서 내가 이 언어를 계속 배우려고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이번 교류활동을 하면서 새벽에 급하게 번역을 해야 했을 때, 한국말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아랍어로 통역했을 때 등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한국 청소년팀과 청소년활동진흥원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에 보람차게 활동을 끝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이야기 꼭 전하고 싶다. 앞으로 통번역을 할 때마다 무수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번 활동을 기억하며 발판으로 삼아 묵묵히 극복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8	서희원 (디자인, 홍보)	벌써 활동이 끝나 마무리를 한다는게 실감이 안나는 요즘입니다. 이과생이기도 했고, 사실 진로가 큰 연관이 없어서 내가 이런 활동 지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붙은 이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류 주제도 디지털 역량에 대해 배우며 전공과 오히려 가까운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들과 교류하고, 문화 발표를 직접 기획하고 발표하는 기회는 너무나도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였습니다. 작년 종교에 대한 교양을 수강하며 다양한 종교에 배우며 이슬람교에 대해 발표하며 이슬람교에 더 큰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료조사로 만났던 이슬람보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제가 모르는 종교부분에 대하여 많이 알아보고, 오히려 사우디의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며 하나의 국가에 대해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소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류하고 새로운 의견에 대해 배우며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늘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친구들과 친구가 되어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연락하고 친구가 되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 활동을 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최고의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점, 너무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자 가치였습니다. 현재 저와 같이 고민하는 이과생이 있다면 용기 내셔서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9	양서연 (통번역)	이번 국가간 온라인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 및 교류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단순히 언어로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언어로 마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다. 단순히 언어간의 교류에서 미치지 아니하고 마음과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기회를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랍지역학을 전공하며 이론 상으로 배운 것을 실질적으로 육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21세기 국제화 시대가 아닌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며 우리가 갖춰야할 자세를 몸소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이 국가간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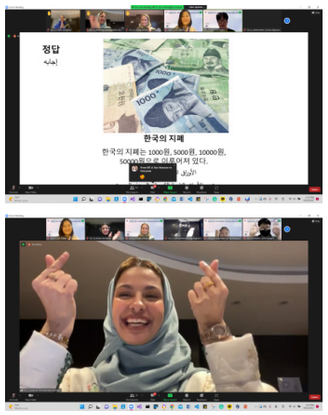
5 자체평가

구분	평가
목표대비 달성도	■상 □중 □하
좋았던 점	코로나로 인해 교류 할 기회가 적었는데도,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대표단 팀원들과도 재밌는 교류활동을 했던 부분과 특히, 공동과제로 서로의 음식, 문화, 언어등들을 체험한 것들을 편집된 영상을 보며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보고 느낄수 있다는 점에 좋았으면서도 신기했던 경험이었다.
아쉬웠던 점	사우디 대표단과 친목을 쌓기에는 시간이 짧다고 느껴졌다. 물론 소그룹 토의 시간에 편하게 대화할 공간은 있었지만, 과제에 관련된 이야기 외에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었다. 프로젝트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이었기에, 더욱더 친구가 될 수 있는 활동과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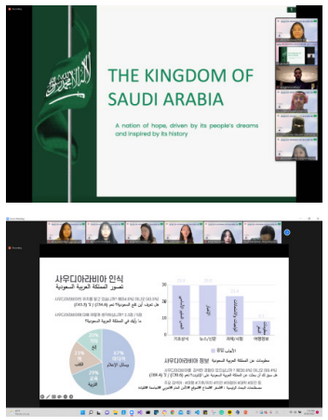
6 차기 참가자를 위한 조언

구분	조언 내용
사전활동	• 상대국 청소년을 존중,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 • 미리 교류국 청소년과 하고 싶은 활동 생각할 것 • 미리 교류국의 간단한 문화, 언어 등을 알아보며 관심 가질 것 • 열린 마음으로 주제에 대해 듣고 말할 것
교류활동	• 활동 주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것, • 카메라를 끄지 않고 참여 할 것 •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고 말다툼하지 않을 것 • 서류와 회의 시간은 잘 맞출 것 • 서로의 문화 존중 할 것 • 조직이 잘 어우러지도록 협력하고 협조 할 것 • 통역을 거치기에 발표시간을 여유둘 것
통역	• 팀원과 소통 꾸준히 하기 • 사전에 받을 수 있는 통역 자료는 최대한 미리 받아서 번역하기 • 토의 활동에 필요할 어려운 용어는 미리 정리해서 통역 때 활용하기 • 번역 시 소요되는 시간(기간) 팀원 및 진흥원 선생님께 미리 전달하기 • 발표자의 말에 집중 및 경청하기 • 상대국을 존중하는 표현 사용하기

7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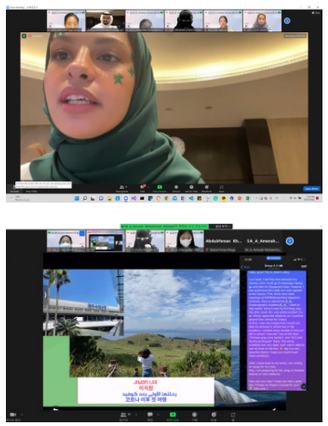


(1일차) 아이스 브레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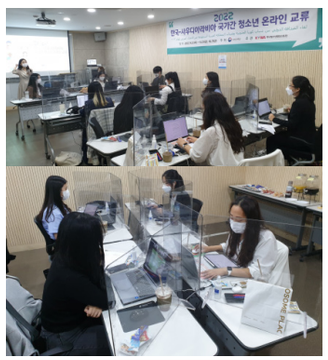
(1일차) 문화소개 발표

(2일차) 그룹별 토의



(2일차) 그룹 공통 과제

(3일차) 최종발표



(3일차) 평가회의

8 기타 활동자료 목록

붙임	구 분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유형
1	사전활동	카드 뉴스	팀 소개/팀원소개	zip
2	사전활동	설문조사	사우디아라비아 인식 조사	구글 설문지
3	교류활동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ppt
4	교류활동	문화 발표	한국-사우디아라비아의 과거-현재-미래	ppt
5	교류활동	문화 발표	한국 속의 사우디	ppt
6	교류활동	활동 사진	활동 사진	사진
7	교류활동	공동 발표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의 탄력적 회복	ppt
8	교류활동	공동 발표	디지털 혁신	ppt
9	교류활동	공동 과제	Group A 공동과제	ppt
10	교류활동	공동 과제	Group B 공동과제	영상

인도네시아

결과보고서

교류팀명	교류일정	교류인원
에낙(ENAK)	2022.6.30.(목), 7.1.(금), 7.15.(금)	19명 (청소년 11명, 통역 8명)

1 기본사항

사업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인도네시아	교류팀명	에낙(ENAK)
교류기간	2022.06.30~2022.07.15	교류인원	19명 (청소년 11명, 영어통역 8명)
활동 목표	1. 서로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이해함. 2.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교류를 체험함.		
활동 계획	사전	원활한 교류활동을 위해 각국의 문화를 조사하고 팀원들간의 역할을 분배하였으며 활동비 예산 수립, 선물 조사 등을 준비함.	
	교류	사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양국간 청소년 문화에 대해 비교하고 문화적 개방성을 높이고자 함.	
	사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고자 함.	
활동 결과	사전	1. 문화발표에 필요한 한국의 문화를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만듦. 2. 인도네시아 측에 보낼 선물을 준비하고, 이를 포함한 예산안을 작성함. 3. 아이스 브레이킹 발표 자료를 준비함.	
	교류	사전 활동에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교류활동을 진행함.	
	사후	사전 활동 때 인도네시아 주 SNS인 왓츠앱 계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음.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줌 등을 통해 각자 양국의 청소년들이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팀원 역할	성 명	역할	내용
	이종석	대표	전체 일정 및 활동 계획 관리
	이수민	부대표	전체 일정 조율 및 활동 총괄
	채예영	촬영	국가 간 교류 활동 과정 촬영 및 영상 편집
	김채린	홍보	활동 홍보용 자료 제작 및 SNS 계정 운영
	우서현	총무	활동 예산 집행 및 사용 내역 정리
	이민성		
	강민주	서기	활동에 관한 기록물 정리
	홍현기		
	최유리	자료 조사	교류 활동에 필요한 자료 조사
	서민영	교류 활동	문화 교류 준비
	양희민		
	김지은	통역	영어 → 한국어 (인도네시아 청소년) 통·번역
	정세연		
	안소은		
	이수현		
	박하정		한국어 → 영어 (한국 청소년) 통·번역
	박병준		
	박민정		
	전다희		

2 사전활동 결과

가. 활동 요약표

번호	활동날짜	사전활동 내용	장 소
1	6/21	아이스브레이킹/문화발표 주제, 상품 논의	비대면 회의(Zoom)
2	6/24	활동 홍보용 SNS 계정 개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3	6/27	문화 발표/아이스브레이킹 자료 완성	비대면 회의(Zoom)
	* 위의 3차 회의 외에도 역할분배, 팀에 따라 각각 추가적인 회의를 가졌음.		

나. 사전활동 결과보고

사 업 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인도네시아
팀 명	에낙(ENAK)	작 성 자	홍현기, 강민주
활 동 명		참 석 자	한국 대표단 전원
목표 대비 성과	목 표	성 과	
	1.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준비 2. 활동 홍보를 위한 SNS 계정 개설 3. 문화발표 준비 4. Whatsapp 계정 개설	1. 아이스 브레이킹 PPT 제작 완료 2.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각각 계정 개설 완료 3. 문화발표 PPT 제작 완료 4. Whatsapp 계정 개설 완료	

활동 결과	1.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한국 대표단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누군지 맞추기 1-1. 각자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자신의 대한 설명 작성 후 제출(~6/22) 1-2. 게임 진행용 PPT 1차 완성(~6/23) 1-3. 수정 및 최종본 완성(~6/27)(붙임 1) 2. 활동 홍보를 위한 SNS 계정 개설 2-1. 페이스북 페이지 '2022 청소년 인도네시아 교류활동' 개설(6/24)(붙임2) 2-2.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6/24)(붙임2) 3. 문화발표 준비 3-1. 문화발표 주제 및 내용 선정(6/24) 3-2. 문화발표 자료 완성 (6/27)(붙임 3) 4. 인도네시아 청소년과 소통 대비 Whatsapp 계정 개설 : 개설 완료(6/27)(붙임4)
자체 평가	사전 교류활동(문화발표, 아이스 브레이킹 등)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상대국에 비해 문화 발표 부분이 부족함을 느꼈음. 활동 과정에서 보완하기에는 힘든 부분이었기에 아쉬움이 남았음.

역할 분담

성 명	역 할	내 용
서민영	교류활동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용 자료 정리 및 PPT 제작
강민주	서기	발표용 자료조사 및 회의록 정리
최유리	자료조사	의식 문화 자료조사 및 한국어 PPT 제작
채예영	촬영	청소년 생활문화 PPT 및 카드뉴스 제작, 원격회의 내용 녹화
양희민	교류활동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용 PPT 제작
이민성	총무	아이스브레이킹 사전제작, 선물 기획 및 계획 작성
홍현기	서기	자료 취합, 보고서 작성
이종석	대표	전체적인 아이디어 제시 및 의견 조율, 상품 결제 담당
이수민	부대표	의식문화 조사 및 의식문화 ppt제작, 상품 결제 담당
김채린	촬영	'청소년 생활문화 조사 및 ppt제작, SNS 계정 개설'
우서현	총무	'청년창업과 창조산업 자료 조사'

지출 내역

물 품	지출금액	용 도
나전칠기 자석	22,500	아이스브레이킹 상품
일월오봉도 볼펜+ 카카오프렌즈 전통 열쇠고리 세트 민화포스트카드	378,600	상대국과 교환 물품
한국 과자	67,860	
총 계	468,960	

결과물	(붙임1)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용 PPT (붙임2) 활동 홍보용 SNS 계정의 페이지 (붙임3) 문화 발표용 PPT (붙임4) Whatsapp 계정 프로필

3 교류활동 결과

가. 일정표

일 자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일차 (6.30.)	14:30	개회식	일정 지연으로 토의 그룹 미팅 간소화
	14:50	아이스브레이킹	
	15:40	인도네시아 측 문화발표	
	16:40	강연 1	
	18:00	강연 2	
2일차 (7.1.)	11:00	집합	인니 측 요청으로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
	15:30	한국 측 문화 발표	
	16:20	토의 활동	
	18:20	버디 그룹 활동	
3일차 (7.15.)	11:00	집합	
	13:30	토의 그룹 결과 발표	
	15:30	버디 그룹 결과 발표	
	17:00	폐회식	

나. 세부 활동내용

• 1일차 (2022. 6. 30.)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
	주요내용	1.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웹게임 Gartic.io를 활용하여 출제자가 제시어를 보고 그림을 그리면 다른 대표단 청소년들이 이를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2. 한국 대표단은 한국 대표단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고 인도네시아 대표단 청소년들이 그 사진의 해당 청소년이 누구인지를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측 문화발표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측에서 지역별 고유문화, 주요 관광지,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인도네시아의 언어(Bahasa Indonesia)를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대표단들이 직접 인도네시아 전통 무용을 춘 영상을 소개하였다.
3	프로그램	강연
	주요내용	1. 인도네시아 – 한국 양자 관계와 양자 공간에서의 청소년 활동 강연자 1 : 산토 다르모수마르토,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국장(Santo Darmosumarto, Director of East As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i) 강연자 2 : 헨리 파할라 피닐리, 외교부 동아시아국장 한국외교관(Mr. Henry Pahala Pinilih, Diplomat For Korean Affairs, DIrectorate of East As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I) 모더레이터 : 인드라 드위 프라세요, AIKUNA 회장 및 Y20 공동의장(Mr. Indra Dwi Prasetyo, chief of AIKUNA and Co-Chair Y20 Indonesia) 2. 이문화 학습 강연자 : 비나 안타르부드아야(BIna Antarbudaya, NGO)

• 2일차 (2022. 7. 1.)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한국 측 문화발표
	주요내용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사회 흐름을 소개하는 발표와 한글(언어발표)과 한국어를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그룹별 토의활동
	주요내용	사전에 분류된 토의그룹별로 소회의실을 생성하여 각 그룹에 할당된 주제에 맞춰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룹별로 구성원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 할당된 토의 주제에 대한 양국 청소년의 의견을 나누었다.
3	프로그램	버디 그룹 활동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한국간 청소년들이 활동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버디 그룹 활동을 진행하였다. 2~3인으로 구성된 소그룹 내에서 3일차 전 2주의 기간동안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시간, 아이스브레이킹 등의 시간을 가졌다.

• 3일차 (2022. 7. 15.)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토의그룹 결과 발표
	주요내용	2일차 활동 후 2주 동안 준비한 토의그룹의 토의 결과를 각 조가 15분 내외의 분량으로 발표하였다.
2	프로그램	버디그룹 결과 발표
	주요내용	2일차 활동 후 2주 동안 각 버디그룹이 진행한 미션 결과, 소감 등을 각 조가 5분 내외의 분량으로 발표하였다.

다. 주제에세이

구분	이름 · 역할	주제에세이	
1	이종석 (대표)	주제	반성
		내용	활동을 한지 몇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아쉽고 많은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이런저런 활동이 겹쳐 조금 더 활동에 신경쓰지 못한 점, 조금 더 시간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여유롭게 활동을 마치지 못한 점, 부족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까 등등 많은 부분이 불안하고 후회도 된다. 하지만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 있듯 이렇게 스스로 불안하고 후회했기에 배운 점도 많았지만 언제까지 그 말에 안주하고 배우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기에 지원한 활동에서 더 부족함을 느끼고 배우기만 하기보다는 반성하고 다음번에는 그것을 보완해나가며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것이 나 스스로 세운 목표이자 나 스스로 생각하는 반성의 진짜 가치이다. 만약 언젠가 대표단들을 만나게된다면,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2	배성경 (서기)	주제	문화의 다양성을 넘어
		내용	이번 국가 간 교류에서 두 나라가 정말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날과 추석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고 조상님께

2	배성경 (서기)	내용	인사를 드리는 문화, 교육문화, 쌀을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많은 음식이 짜고 간이 되어 있어 밥과 먹기 좋다는 것 등 버디버디 프로그램과 문화발표 시간을 통해 서로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있어도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문화적 다양성을 인도네시아 당사자들의 입으로 직접 듣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직접 설명하며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더 알아보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3	홍현기 (서기)	주제	성급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내용	이번 활동에서 참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각 사안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무언가를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분명히 개인별, 혹은 문화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난 그 사실을 가끔 망각하고 내 위주로 해결하려다가 일정이나 내용 구성 등의 부분에서 몇 가지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었다. 또, 이런 난관들 때문에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 또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거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러한 실수를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사람마다 각자 처한 환경과 가진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개인적으로 이 점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되리라 생각한다.
4	최유리 (자료조사)	주제	더 큰 세상을 향해
		내용	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문화와 그로인해 나타나는 생활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토론 시간에는 서로의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소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의 배려 덕분에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며 이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가 되었다. 언젠가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5	김채린 (홍보)	주제	상대국과 교류를 하려면 상대국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
		내용	나는 이번 교류활동에 문화발표를 맡았었다. 나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잘 이해하도록 피피티를 잘 준비하여 발표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국인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예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문화발표를 맡은 인도네시아 친구는 인사를 한국말로 시작하여 문화발표를 진행하는 모습에 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과 교류를 한다고해서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는 그 모습에 감동과 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모르더라도 인사말 정도는 나도 알고 발표 때 사용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배움을 통해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상대국 인사말 정도는 알고 교류활동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이해심

5	김채린 (홍보)	내용	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교류를 할 때는 상대국에 대한 예의는 이해심을 갖는 것과 배타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서민영 (교류활동)	주제	나만의 리더십 스타일 발견
		내용	이번 국가 간 교류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 할 때,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배우게 되었다. 특히, 토의그룹 준비를 하며 인도네시아 리더 친구의 리더십을 보게 되었다. 그 친구는 리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진행을 원활히 도왔지만, 다소 자기주장이 센 편이었다. 반면, 내 스타일은 자기주장보다는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스타일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리더십의 모습이 존재함을 느꼈으며, 나에게 더 맞는 스타일의 리더십을 발견하여 뜻깊은 시간이었다.
7	이민성 (총무)	주제	미래의 직업
		내용	이번 국가 간 교류활동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생계 수단으로서의 직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새로운 기술들의 활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고, 그중에서 우리는 AI의 발전에 의한 직업들의 변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두 국가 청소년이 동일한 이유로 인한 미래 직업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고 더 나아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양국 모두의 발전을 이끌지 이야기하는 모습은 의미 있었다.
8	채예영 (촬영)	주제	소통
		내용	이번 인도네시아 교류 활동은 한국 청소년과는 대면, 인도네시아 청소년과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줌 수업이 익숙한 시대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수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걱정과는 달리 손 흔들기로 순서를 정하고 마스크에 가려진 미소와 표정으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다. 모두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웃음을 지으며 비언어적 표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 귀여워 웃음을 참지 못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적극적으로 채팅을 활용한 것도 도움이 되었다. '한국 대표단들은 입이 보이는 마스크를 착용해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어 좋았다.' 라는 인도네시아 친구의 채팅이 기억에 남는다. 2주 간의 버디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만나 미션을 수행해야 했는데 언어의 장벽이 무색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소중한 추억들을 남길 수 있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소통에 어느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배웠다.
9	이수민 (부대표)	주제	활동을 통해 배운 점들
		내용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디까지 의견을 수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 부대표로서 팀을 전체적으로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다. 좋은 의견이라도 무작정 수용하기보단 다른 팀원들 의견을 들어보거나, 다양한

9	이수민 (부대표)	내용	의견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표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배웠다. 교류활동 중 인도네시아 강의 시간에 양국의 외교관계와 문화에 대해 배웠다. 인도네시아와 1973년 수교를 시작으로 양국의 교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 발전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고,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또 다른 강의에선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문화의 겉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다른 문화를 함부로 판단하곤 했다. 그래서 멋대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역사책을 읽거나 논문 및 기사를 찾아볼 것이다. 또한 현지인들과 교류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 관습, 문화, 언어에 대해 더 알고 싶다.
10	우서현 (총무)	주제	청년창업
		내용	2022년 한·인도네시아 국가간 교류활동의 A조는 양 국가간의 청년창업의 실태에 관한 현황과 상호협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 창업의 세계적 트렌드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청년 창업 현황과 정책 사례 소개를 각각 준비하고 공유하며, 각 국가가 상대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적 사례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양 국가 간의 정책적 보완점이나 문제점은 달랐지만, 청년창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11	양희민 (교류활동)	주제	우리의 지구
		내용	우리의 지구는 어떤 형태를 띄고 있을까 ? 지구라는 형태의 보존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할지 알아보아야한다. 지속가능한발전 Sdgs를 주목하여보자.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와 환경을 구축해야한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교류를 하는 것도 우리의 지구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나 더 형성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구를 보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교류가 필요하다.

4 개인소감문

구분	이름 · 역할	개인소감문
1	이종석 (대표)	국가간 온라인 청소년 교류에 참여한 이종석입니다. 제가 이 활동에 지원한 이유는 먼저 제 스스로 무언가를 직접 이뤄보고 달성해보고 싶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그 첫 단추를 위해 국가간 온라인 청소년 교류 활동에 참여했고 그 첫발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경험이지만 대표라는 활동도 해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늘 수동적으로만 살아온 저로서는 상상도 못해볼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하여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 뿐만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이 자랑스러움과 뿌듯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단들을 만난 것 또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들을 위해 직접 다같이 한국 노래도 부르고 인도네시아 춤과 전통 무술, 비트박스 등을 해주는 모습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계속되는 리액션 덕분에 즐겁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깊었던 활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번째는 토의활동과 버디그룹이었습니다. 토의활동을 하며 좀 더 깊고 학문적인 얘기도 하게되었는데 인도네시아 대표단들의 깊은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견문을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다른 문화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직접 겪어 보며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경험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버디그룹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적인 얘기도 정말 많이 해보고 서로의 취미도 공유할 수 있었던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버디그룹 프로그램 덕분에 다같이 게임도 해보고 취미 얘기도 하며 더 친해졌고 아직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대표단분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대표 소감문이었습니다. 마지막날 대표 소감문을 준비하며 그동안의 준비과정들을 모두 훑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억들이 스쳐지나갔고 모든 기억들이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특히 열심히 노력해준 한국 대표단의 노력들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소감문을 발표할때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지만 한국 대표단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해본 활동에서 이렇게 좋은 경험과 인연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해보겠지만 이 활동에 대한 추억들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고 지금도 종종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가지 절대 아쉽지 않은 것은 이 교류활동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큼은 결코 아쉽지 않습니다.
2	홍현기 (서기)	일단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간 교류에 참여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새로웠다. 물론 토의 활동과 사전 활동은 준비기간이 짧아서 약간 고전한 부분도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같은 상대국이라 하여도 각자 다른 가치와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을 깨닫고, 앞으로 성급하게 겉만 보거나 혹은 내가 가진 지식만을 가지고 특정 인물이나 사안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3	최유리 (자료조사)	안녕하세요. 2022 한국-인도네시아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에 참여한 최유리라고 합니다. 빠르게 지나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국가 간 교류를 마치며 소감을 적어보겠습니다. 처음 사전교류 활동을 하며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에 대한 기대감과 반대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특히, 영어를 잘하지 못해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활동이었기에 내가 하는 행동이 곧 우리나라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팀원들과 친구들을 만나 걱정이 무색하게 즐겁게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이 막힐 때에는 통역분들께 부탁을 하기도 했으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재미있게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실제로 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했었던 활동은 버디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직접 연락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상대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직접적으로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옆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디 활동 2주간 매일 매일 서로의 안부로 하루를 시작하고 미션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취향에 대해 알아가며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류의 셋째날 다른 팀들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공유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각자의 그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으며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각 그룹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 이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나의 버디 친구들과 꾸준한 연락을 통해 언젠가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함께 해야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저의 꿈과 목표에 더욱 자극을 받아 열심히 나아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시고 운영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열심히 참여해준 한국, 인도네시아 친구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4	김채린 (홍보)	저는 이번 한국. 인도네시아 청소년 국가간 온라인 교류에 참여한 김채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류에 참여한 이유는 중학교 3학년때 인도네시아 봉사활동을 갔다왔었는데 그때 부터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가게 되면서 이번 활동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인도네시아 친구들과도 좋은관계를 맺을 수 있어 뜻깊고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온라인 게임을 처음 접하고 또 그 친구들과 같이 하니 재미있었습니다. 문화발표 시간때 인도네시아 친구가 한국말로 인사해주어 정말 인상깊었고 그 부분에 대해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상대국과 교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대국의 인삿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문화발표 시간은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발표는 제가 직접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는 시간이 되어 뿌듯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룹별 토의로서 우리 B팀은 '불평등과 포용'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되면서 배울점도 많아 뜻깊은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버디그룹을 통해 인도네시아 2명의 친구들과 더 친해질 기회가 있어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조별 과제를 하며 각자의 성향을 알아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어

4	김채린 (홍보)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이랑 다를게 있을것 같고, 생활하는 것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교류를 통해 내 생각이 아니란것을 깨달았습니다. 버디활동을 위해 3번의 줌 회의 만남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이게 내어주어 많은 의견들이 모여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선 나와 같이 버디그룹에 참여해준 인도네시아 2명의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제시해준 여러가지 의견들 덕분에 저도 배워가는게 많아 졌다고 생각하여 이번 버디그룹 활동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그룹으로 활동 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하려면 국제 교류 활동과 같은 것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번 인도네시아 국제교류 활동은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활동을 토대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 걸 기대합니다.
5	서민영 (교류활동)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하며 감동 받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문화발표 시간에 보여준 공연들은 너무나 멋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노래를 불러주는 그 모습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고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활발한 교류가 더욱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의활동을 하며 열정적이고, 환경문제 개선에 의지가 가득한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을 보며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그 외에도 교류활동을 통해 만난 나의 버디 친구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의 소통을 더욱 뜻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교류시간은 너무나 소중했으며,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담당자분들, 코디네이터분들, 함께 참여한 한국 대표단 청소년들과 통역분들, 인도네시아 청소년들과 청소년체육부 담당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6	이민성 (총무)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단순히 상대국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청소년 친구들이 문화발표 시간에 보여준 공연과 인도네시아를 소개하는 부분은 막연했던 인도네시아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게 하고 청소년들끼리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함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회의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최종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협력하고 함께 고민하던 순간들은 인도네시아 청소년들과 앞으로의 교류가 기대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대표단과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함께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버디 친구와의 미션 활동은 제 스스로를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어울리고 교류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역할을 소화함으로써 자신감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외국에 나가기도 그리고 외국인 친구와 어울리는 경험도 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인도네시아 대표단 친구들과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아 좋았습니다.
7	채예영 (촬영)	인도네시아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여러 번 접했고 국제교류에 임하는 태도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토의 주제인 '청년 창업과 창조산업'에 대해서 준비하며 나도 모르게 한국이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청년 창업이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청년들은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있는지 들으며 어떤 점을 배워야 할 지, 청소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반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전반적인 활동에서 인도네시아 친구들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 하는 것에 거리낌없는 모습을 보여주어 많이 배웠고 토의활동과 버디활동에서는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양국 참여자 모두와 대화하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고 서로 좋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다.

8	이수민 (부대표)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인도네시아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에 참여하게 된 이수민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사전활동을 하면서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배려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룹별로 활동하는 시간엔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류활동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버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교류를 하면서 그런 걱정은 접어두고 미션활동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떤 미션을 먼저 할지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션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친구와 대화도 하면서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노래와 가수는 누구인지, 인도네시아의 계절과 한국의 계절은 무엇이 다른지, 한국 웹툰 추천 및 인도네시아 만화에 대한 이야기 등등을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모티콘 모습을 따라하고 사진찍는 미션을 할 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참고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이모티콘을 각각 선택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가 저렇게 찍을 수 있을지 상상이 안 간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ppt에 인도네시아 음식을 번역해서 한국어로 쓸 때 인도네시아 친구의 발음을 참고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서로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교류활동 발표하기 전날엔 같이 대본을 보면서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교류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서로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문화에 더 흥미가 생겼고, 간단한 인도네시아어 문장을 몇 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같이 팀을 이뤄서 함께 열심히 활동해 준 지안한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에도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9	우서현 (총무)	이번 2022 국가간 청소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친구들의 의,식,주 문화뿐만 아니라 무슬림 문화에 대한 것도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저의 버디 프로그램 친구들이 잘 보여주어서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와 문화에 가까워 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런 지적인, 문화적인 것들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우리의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값진 것 같습니다. 비록, 문화, 언어, 사회적 시스템 등 많은 것이 서로 달랐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논의하는열정적인 모습은 서로 같았으며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기에 너무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참가자를 배려하여 설계된 것이 너무 느껴져 오롯이 인니측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0	강민주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 인도네시아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에 참여한 강민주입니다. 국제교류 활동 참여 후 제가 느낀 점, 배운 점을 정리하고 또 이후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단순히 제가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국가의 청소년들은 어떠한 문화양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당사자인 그들의 입에서 듣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고 합격한 후 활동을 준비하며 각국의 문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같은 연령대에 속해있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공통점을 갖고

10	강민주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공부하는 데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익숙하게 누리고 즐기고 있던 것들이었기에 우리나라 문화의 장점에 대해 딱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아 느낌이 새로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 인도네시아 대표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대표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작년 대표단 사업에 참여했던 청소년 분께서도 인도네시아 팀의 문화발표 준비가 매우 철저해 우리나라도 조금 꼼꼼히 준비했으면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번년도 한국 대표단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내년에 이 활동을 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사전 준비 기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팀원들간의 의견 교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만큼 아쉬웠습니다. 가장 즐겁고 만족했던 시간은 토의 시간과 버디버디 시간이었습니다. 각국의 공통점, 유사점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토의시간 제가 속해있는 B조는 '불평등 포용'에 관해 각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것에 대해 왜 토의를 해야 하는지, 각국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 등에 토의했습니다. 불평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체감할 수 있어 평소 학교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생각하던 주제였기에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들도 우리나라만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였고 그에 따른 교육, 의료,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연결되어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대표단 모두 이견이 없다는 점도 인상깊었습니다. 평소 저는 이러한 불평등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생각했는데 토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버디버디 프로그램 또한 2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미션을 수행하며 각국의 문화와 청소년들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아주 쉬운 단어들이긴 하지만 간단한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매일 줌으로 회의하며 실제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과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대표단 활동을 마치며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저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한국,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을 만나며 공부, 활동에 대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또한 타문화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기간에 비해 얻은 것도 많은, 정말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 인도네시아와 한국 청소년 대표단에게 모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점, 배운 점을 정리하고 또 이후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단순히 제가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국가의 청소년들은 어떠한 문화양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당사자인 그들의 입에서 듣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고 합격한 후 활동을 준비하며 각국의 문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같은 연령대에 속해있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공부하는 데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익숙하게 누리고 즐기고 있던 것들이었기에 우리나라 문화의 장점에 대해 딱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아 느낌이 새로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 인도네시아 대표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대표단

10	강민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작년 대표단 사업에 참여했던 청소년 분께서도 인도네시아 팀의 문화발표 준비가 매우 철저해 우리나라도 조금 꼼꼼히 준비했으면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번년도 한국 대표단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내년에 이 활동을 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사전 준비 기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팀원들간의 의견 교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만큼 아쉬웠습니다. 가장 즐겁고 만족했던 시간은 토의 시간과 버디버디 시간이었습니다. 각국의 공통점, 유사점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토의시간 제가 속해있는 B조는 '불평등 포용'에 관해 각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것에 대해 왜 토의를 해야 하는지, 각국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 등에 토의했습니다. 불평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체감할 수 있어 평소 학교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생각하던 주제였기에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들도 우리나라만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였고 그에 따른 교육, 의료,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연결되어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대표단 모두 이견이 없다는 점도 인상깊었습니다. 평소 저는 이러한 불평등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생각했는데 토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버디버디 프로그램 또한 2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미션을 수행하며 각국의 문화와 청소년들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아주 쉬운 단어들이긴 하지만 간단한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매일 줌으로 회의하며 실제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과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대표단 활동을 마치며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저는 예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한국,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을 만나며 공부, 활동에 대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또한 타문화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기간에 비해 얻은 것도 많은, 정말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 인도네시아와 한국 청소년 대표단에게 모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11	양희민 (교류활동)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인도네시아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에 참여한 양희민입니다. 국제 교류 활동 참여 후 느낀 점과 발전할 점을 정리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인도네시아를 전공함으로써 배운 것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글로만 배운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싶었습니다. 저는 사전활동을 준비하면서 아이스브레이킹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을 진행하는데 한국 청소년들도 서로 친하지 않는데 아이스브레이킹을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과 함께 참여형을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충분하였다면 조금 더 재밌고 원활한 아이스브레이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 간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시간이 좀 더 길었다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버디그룹시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 2명과 한국인 친구로 이루어져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 오로지 한시간을 이루어나가면서 영어의 소통과 인도네시아어를 이용했는데 부족한 점을 너무나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채팅으로 의견을 주고나가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얻은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습니다.

12	박하정 (통역)	인도네시아와 청소년 교류 통역요원으로 활동하며,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을 처음으로 경험한 통역 업무가 한영 및 영한 통번역이었지만, 모국어가 인도네이사어인 친구들을 상대하며 인도네시아어의 억양과 뉘양스 등 언어에서 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화의 일부인 언어를 관찰하며 통역요원으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대표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도네시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고, 함께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보람찼습니다. 특히 상대국 문화 소개 부분에서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 소개 영상을 보며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관광산업을 재활성화 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보조하는 팀의 발표 준비에 참여하며 현재 인도네시아에 관한 청년창업 현황을 비롯하여 이 곳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탱하는 비즈니스들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관한 관심이 큰 제게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들과 만나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3	이수현 (통역)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네시아 통역을 맡게 되어서 영광이었다. 직접적인 교류가 힘든 시기인 만큼 가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에 그룹별 토의시간에 통역하면서 통역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문화와 특성을 알아야지만 본래의 뜻을 잘 살려 전달이 가능한 점을 깨달았다. 같은 문장이여도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사후에 대본을 미리 받지 못하는 토의활동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청소년 참가자분들이 자신이 하고싶은 말을 길게 한 후에 한꺼번에 통역하는 활동을 통해 나만의 노트테이킹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모든 문장을 받아적을 수 없으니 핵심 단어, 자신이 통역하는데 가장 필요한 몇몇 단어들과 줄임말, 그리고 표시어 같은 걸 정해두니 편했고 훨씬 수월했다. 다음번 통역은 직접 가서 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올해도 여전히 보람차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14	김지은 (통역)	통역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던 차에, 3일에 걸친 행사의 통역을 맡게 되어기뻤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 노트테이킹 역량과 실전 경험을 더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그리고 통역 경험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통역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15	전다희 (통역)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통역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관해 아는 것도 많이 없었고 통역 경험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교류 활동을 통해 내가 직접 통역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연설자들의 발표를 듣고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를 잘 알 수 있었다. 통역을 할 때에도 '미래의 직업'이라는 개인적으로 관심있던 주제를 통역할 수 있어서 더 흥미로웠다. 그 외에도 한국 문화 발표 통역을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의 문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통역의 영향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16	박병준 (통역)	통-번역 요원 중 한명으로써 다양한 주제와 문화,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의 소통을 돕는다는 일은 매우 새롭지만, 가치있는 일이었습니다. 준비과정이 평소 경험하던 활동들과 달리 자발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했고 참여 중에도 다른 통역 요원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통역 요원으로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이자 자산인 것 같습니다. 만약 차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가능하면 온라인이 아닌 직접, 육성을 듣고 옮기면서 청소년 활동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17	정세연 (통역)	통역요원으로서 운 좋게 참여하게 된 2022 인도네시아-한국 국가 간 온라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여러 방면에서 저를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우선, 다양한 상황과 주제를 겪음으로서 통역을 하는데 필수적인 통역관련 배경지식 공부법부터 시작해서 실제 통역을 할 때 요구되는 임기응변과 빠른 판단 능력, 화자가 하는 말의 핵심을 짚는 능력까지, 통역 요원으로서의 능력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프로그램 전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역 요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필요한 포용적인 태도 그리고 평소 무의식중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등, 본 프로그램이 국제시민으로 거듭나고 싶은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때로는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는, 섬과 이슬람교 신도들이 많은 나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에, 막연하게 보수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점차 진행될수록, 인도네시아의 음식과 춤, 음악부터 지리, 인구, 경제 발전 가능성 등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도 국민의 정서 측면에서도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통역요원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관심과 친밀도가 생기고, 한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 자신도 발전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을 돕는다는 면에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담당자 분들, 퍼실리테이터 분, 코디네이터 분, 교류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8	안소은 (통역)	총 3일 간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 대표단 분들의 소통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또래의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근감이 생겼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지만 동시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통역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교류에 있어서 작은 다리가 될 수 있어서 뿌듯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가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고 이번 교류를 체험한 모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국제 교류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에 있어서 참여한 모두가 고생하셨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5 자체평가

구 분	평 가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좋았던 점	소통 부분 - 한국 대표단의 청소년들 대부분이 열심히 참여해주었음. - 의견 충돌이 있을법한 상황에서도 토의를 통해 해결하였음. - 특정 몇 명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인원이 성실하게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음. 문화, 교류 부분 - 인도네시아에 대한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좋았음. -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음. - 각국의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음. - 한국 문화 발표를 준비하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음.
아쉬웠던 점	- 사전 활동 기간 시간적 제약이 너무 명확하였음. - 실제로 만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음. - 대면 활동이 아니라는 점이 영향을 끼친 부분인지는 몰라도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음.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생각함. - 인도네시아 대표단에 비해 문화 발표 부분이 너무 미흡하였음. - 서로 피드백 할 시간이 부족하였음. - 역할 분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초반 어려움을 겪었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활동인만큼 각 활동에 맞는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6 차기 참가자를 위한 조언

구 분	조언 내용
사전활동	사전 활동 시간이 생각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할 분담도 각각의 역할에 몇 명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또 너무 소수의 인원만이 부담을 갖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 이후 한국 대표단 팀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면 더욱 원활한 사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활동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 외에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임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참여는 이후 결과에서 빛을 바라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모두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 급하게 회의를 잡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조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몇 번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신다면 이러한 일은 막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계획을 세우실 땐 꼭 피드백 시간을 고려하시고 항상 마감일보다 며칠 더 빠른 페이크 데드라인을 만들어 촉박하게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들간의 배려입니다. 일정을 세우고 의견을 나눌 때 상대도 각자의 일정, 의견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과정과 좋은 관계, 알찬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류활동	교류활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에 비해 한국 대표단의 경우 문화발표에서도 교류활동에서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활동에 임했다고 생각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국의 대표단이 발표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경청하고 활동에 참여해야 각자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참여와 호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 따로 필기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교류활동을 정리하며 사후 보고서나 소감을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교류활동을 할 경우 리허설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리허설 이외에도 교류활동을 맡은 팀원들과 함께 리허설을 해 보는 것이 긴장을 낮추고 또 완성도를 높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계획에 이 리허설 시간도 고려하시거나 혹은 해당 발표 당일 자유 시간이 넉넉하니 그 시간동안 피피티나 발표 대본 등을 점검하는 등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중간중간 일정과 목표에 맞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팀원들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듯합니다. 그래야 놓치는 부분이 없고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의 시간에는 각자의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전 활동에서 팀별 혹은 개인적으로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토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통역	- 대본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 측에서 대본에 없는 말 등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끊어 읽을 수 있으니 침착함과 순발력을 갖추면 좋습니다. 또 다른 나라 국가이니 필요시 대본 또는 강연에서 언급되는 상대 언어의 이름 등의 발음은 사전에 꼭 찾아놓으세요. - 통역이 진행될 언어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맡은 상대국 대표단의 언어를 파악하고 특유 억양, 발음, 및 뉘양스를 스터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행자 혹은 발표자 통역을 맡았을 시 해당 연사님의 클립을 보며 연설 스타일, 호흡 방식 등을 검토하며 통역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다양한 종류의 통역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호흡부터 긴 호흡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문으로 주기적으로 통역 연습을 하며 노트 테이킹 등 자신만의 통역 스킬을 갖추려 노력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따로 사전에 대본이 없는 발표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노트테이킹 방식이 있다면 수월하게 통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상대국 나라를 알아야만 통역이 가능한 내용도 있으니 상대국가에 대해 파악해두는게 좋습니다. - 발표 자료를 통역할 때에는 미리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을지 연설자와 맞춰 표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룹 토의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는 써놓고 통역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대본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 측에서 대본에 없는 말 등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끊어 읽을 수 있으니 침착함과 순발력을 갖추면 좋습니다. 또 다른 나라 국가이니 필요시 대본 또는 강연에서 언급되는 상대 언어의 이름 등의 발음은 사전에 꼭 찾아놓으세요. - 사전활동부터 교류활동, 사후활동까지 전과정에 걸쳐 준비하거나 작성하는 서류가 많으니, 코디네이터 분이 공지하는 내용 꼼꼼히 메모하시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 통역하기에 앞서서, 본인 그룹의 토의 주제에 관해서 배경지식 잘 쌓고 참여하신 것을 추천드리고, 통역하면서 당이 떨어지거나, 목이 건조해주실 수 있으니 이 부분 대비해서 본인에게 맞는 간식이나 물을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저 참여할 때에는, 회의장에 간식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번역/통역하는데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 문맥상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같은 조에 계신 통역사 분이나 조원들에게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본

결과보고서

교류팀명	교류일정	교류인원
友	2022.11.12.(토), 11.13.(일), 11.26.(토)	15명 (청소년 12명, 통역 3명)

1 기본사항

사업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일본	교류팀명	友
교류기간	1차 교류: 2022.11.12 2차 교류: 2022.11.13 3차 교류: 2022.11.26	교류인원	15명 (청소년 12명, 통역 3명)
활동 목표	1. 교류 활동을 하는 양국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교류 2. 기본적인 일본어 숙지하기 3.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며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없애기.		
활동 계획	사전	1. 문화발표 준비하기 -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 가르쳐주기 - 한국 대학생의 대학 생활을 담은 영상 제작하기 - 한국에서 유행하는 일본 음식 소개하기 2. SNS 계정 만들기 3. 한국 팀원들과 서로 친해지기 -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 - 서로 SNS 계정 공유 - 시간이 가능한 팀원들끼리 오프라인 약속잡기	
	교류	-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알아보기 - 상대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없애기 - 상대국 청소년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기	
	사후	1. 청소년으로서의 성장 - 활동목표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 척도를 '상, 중, 하'로 평가 - 양국 청소년들과의 관계, 상대국 언어 실력 향상도 등으로 평가사항 구성 - 평가와 함께 평가 이유도 같이 조사해 카드뉴스 제작 후 SNS 게시 → 이번 활동이 참가 청소년들의 목표 달성도를 확인해 활동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성장을 이루었음을 공유할 예정 2. 교류 활동 이야기를 공유하고 홍보 - 토의 그룹별 결과 공유 ① 토의 결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일주일간 진행 : 각 토의 그룹의 결론인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의 실효성 조사 예정 : 주제별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 조사 대상자들의 추가 의견도 받을 예정	
활동 계획	사후	② 설문 조사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 후 SNS 게시 → 토의 그룹 내용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대표단 청소년들의 의지를 보여줄 예정 - 상대국 청소년과의 친목 활동 소감 ① 홈 그룹 활동 후기 : 각 홈 그룹별 활동 소감을 1~2줄로 작성 ② 비공식 네트워킹 참여 후기 :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활동 참여 소감 1~2줄로 작성 → 다음 내용을 정리해 카드뉴스 제작 예정. 상대국 청소년과 얼만큼 친해지게 되었는지를 공유해 '국가간청소년온라인공유' 활동도 홍보할 예정	
활동 결과	사전	1. 문화발표 준비 - 한국어와 한글 소개 및 한국의 유행어 발표 준비(한국어와 한글 차이점, 한글의 역사, 종류별 유행어 소개 등등) - 기획팀 및 제작팀으로 나눠 역할분담 ① ~10.12 자료조사 진행 ② 10.13~10.27 발표 PPT 제작 ③ 11.11 최종 점검 및 마무리 예정 2. SNS에 카드뉴스 업로드 -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korea_japan2022)을 생성 후 매주 다른 주제의 카드뉴스를 업로드① 팀원 소개 카드뉴스② K-POP 소개 카드뉴스③ 한국에서 유명한 J-POP 소개 카드뉴스④ 한국에서 유명한 일본 음식 소개 카드뉴스 3. 단체 학생증 제작 완료 - 대표단 활동 홍보를 위한 학생증 제작 - 앞면: 사진, 이름, 생년월일, 팀명 삽입 - 뒷면: 활동목표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의 QR코드 삽입 - 앞면 정보는 영어로 작성해 상대국 청소년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상대국과 우리나라 국기에 공통으로 있는 빨간 계열의 색을 메인으로 사용함. 4. 주제별 토의 사전준비 1) 디지털 - 디지털의 발달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 인식 - '디지털 치매', 'AI의 저작권 논란' 등의 디지털 관련 문제점 조사 - 디지털 발달의 이점 세부조사 2) 고령화 - 고령층 대상 마케팅의 필요성 및 현 상황을 인식 - 고령층 대상 마케팅 사례 및 필요성 관련 세부내용 조사 3) 저출산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 저출산 관련 세부내용 조사 - 저출산의 원인 및 해결방안, 대책 논의	

활동 결과	사전	5. 통역분들과 자기소개 연습 - 상대국의 언어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기 위한 연습 - 통역분들께 문장 및 발음 등을 피드백 받으며 자기소개 준비 진행 6. 상대국 청소년을 위한 선물 준비 - 전통 느낌의 볼펜과 책갈피 세트 - 과자 꾸러미 - 네이버 라인 프렌즈의 노트 및 2023 탁상형 달력
	교류	1. 상대국 언어로 자기소개 - 3분 이내 최소 3문장 이상으로 자기소개 진행 - 각자의 이름과 별명, 나이 그리고 취미 등을 소개 2. 아이스 브레이킹: 3대 사건 소개하기 - 각각의 홈 그룹으로 나뉘어 발표 진행 - 지금까지 인생의 큰 사건들을 소개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 -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주고 받음. 3. 디스커션 발표 (1) 고령화 고령화 ① 〈사전질문을 바탕으로 도출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모색〉 - 양국의 공통적인 문제점과 차이점을 조사 1) 공통점: 노인 빈곤 그리고 디지털 사용의 어려움 2) 차이점: 노인에 대한 인식 -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사례를 바탕으로 모색 1) 노인 빈곤 : 봉사활동 참여 및 액티브 시니어 상품 구매 2) 디지털 사용의 어려움 : 스마트폰 교실 주최 3) 노인 혐오 : 노인 혐오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세대의 다양함을 인정하기 고령화 ② 〈고령화의 노인 빈곤 문제와 해결방안〉 - 일본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성 파악 - 일본과 한국의 노인친화 기업 조사 1) 한국의 CJ대한통운 : 실버택배사업 - 시니어 직원의 이점 - 한국의 경로당과 일본의 꿈의 호수 시설 비교 및 보안점 제시 - 노인 직업 제안 1) 방언 선생님 2) 노인 상담사 (2) 저출산 저출산 ① 〈저출산 원인과 해결방안〉 - 저출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활동 결과	교류	2) 사회인구학적 원인 3) 수도 과밀화 4) 성 불평등 -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저출산 (양육비용, 교육비, 미래를 준비하는데 드는 돈 등) : 여성의 교육 수준 증가와 커리어 욕구 상승 : 도시 과밀화 (서울과 도쿄 모두 과밀화되어 집값 상승) : 젠더 갈등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 기피현상 2) 차이점 일본 : 가족중심주의 => 여성의 경우 경제적 원인 해소된다면 출산 희망 한국 : 개인중심주의 => 여성의 경우 커리어 중시로 경제적 원인 해소되어도 출산 거부 - 우리가 찾은 과제 :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남녀 가치관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 - 남녀 가치관 차이 구체적 예시 : 남성보다 여성이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다. => 남성의 경우 '나'의 경제적 상황이 저출산의 원인이지만, 여성의 경우 경제적 상황에 더해 배우자의 양육참여문제가 있다. - 결론 1)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사회에서 아이와 엄마를 모두 배려 (EX. 임산부석 비워두기) : 남녀 서로 간의 일반화와 편견을 없애기 :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사회에 바라는 점 : 노키즈존 지양 :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한 교육 강화 :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사회적 시선 변화 저출산 ② 〈양국의 저출산 원인 및 결과 그리고 해결방안〉 - 양국 저출산의 원인 1) 일본 : 인구감소, 핵가족세대의 증가, 교육비 증가 2) 한국 : 도시의 과밀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한정된 자원, 물가상승 등 - 양국 저출산의 현황 및 결과 1) 일본 :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국가 경제 규모 축소, 인구 과밀화

활동 결과	교류	2) 한국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문제 – 저출산 해결책 1) 일본 : 일하기 좋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다양성 받아들이기 2) 한국 : 연공서열제 폐지,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 형성, 근로시간 개선, 지방 인프라 확충, 적극적인 이민정책실시 및 다양성 존중 (3) 디지털 디지털 ① 〈"가짜뉴스"와 "비방중상"의 문제점〉 – 사례 조사 – 문제점과 과제점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 정보의 출처 확인 2) 정보의 진실 여부 의심 디지털 ② 〈소외된 약자(고령화, 어린이)를 만들지 않는 디지털화〉 – 키오스크 약자 배려 정책적 : 시스템 UI의 개편, 온오프라인 강의 진행 개인적 : 앞사람 재촉하지 않기, 먼저 도와주기,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용법 알려주기 –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취미 찾기, 핸드폰 사용시간 지정하기, 대화할 땐 상대에게 집중하기. –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저하 1)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류에 익숙해진 만큼, 직접 대화 기회를 만들기. 2) 온라인에 의한 효율화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3) 일상에서 올바른 말을 쓸 수 있도록 유념하기. – 결론: 디지털화에 소외된 계층 없이 서로 배려하며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밝고 건강한 사회. "스마트폰에 지배되지 않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을 살자!" 4. 홈 그룹 미션 (1) 홈 그룹A (이선호, 심규민, 소타, 미란) – A에이オー ! – 그룹의 이름 정하기 – 비밀 레시피를 공유해 상대국가 친구들이 도전하기 – 상대국가의 유행어 사용하기 – MBTI 진단결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보기 – 자기방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물건 소개하기 – 상대국의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중 한 가지를 보고 zoom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기 – 상대국의 요리를 만들어 사진과 감상을 라인으로 공유하기 – 라인 단체방에서 각자의 일상을 교환일기로 공유하기 – 각자의 일상 v-log 공유하기

활동 결과	교류	(2) 홈 그룹B (이지원, 송이림, 토쿠타 미사키, 시마다 리츠키) – 멋쟁이 토마토　オシャトマト – 그룹의 이름 정하기 – 상대국 국가, 자신의 국가 과자를 소개하며 먹기, 먹으면서 수다 떨기 –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공유하기 – 라인 단체방에서 마치 교환일기처럼 일상을 공유하기 – 상대국 멤버의 초상화 그려보기 – 상대국의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중 하나를 각자 보고, 감상을 ZOOM에서 공유하기 –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소개하기 – 랜선여행 – 보틀 플립챌린지를 전원 연속으로 성공시키는 영상을 찍어 제출하기 (3) 홈 그룹C (김윤상, 원선영, 타마키 유코, 카타기리 유리카) – U – 그룹의 이름 정하기 – 인스타 계정 공유하기 – MBTI 진단 결과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해보기 –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공유하기 – 스트레스 해소 방법 소개하기 – 각 멤버가 자국 노래 중 추천곡을 소개하고, ZOOM에서 같이 듣고 감상 공유하기 –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나 동네의 음식에 대해 소개하기 – 같은 시간에 하늘 사진찍기 – 자국 혹은 살고 있는 동네의 축제나 종교적 기념일의 경험 공유하기 – 상대국 멤버의 초상화 그려보기 – 상대국의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중 하나를 각자 보고, 감상을 ZOOM에서 공유하기 – 자국을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여행 계획을 짜보고 공유하기 (4) 홈 그룹D (추지호, 문예은, 사이토 미사키, 미사와 마이미) – 사과좋아 りんご好き – 그룹의 이름 정하기 – 상대국 과자 사먹기 – 같은 시간에 하늘 사진 찍기 –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 공유하기 – 자신이 사는 나라나 동네의 음식에 대해 소개하기 (5) 홈 그룹E (이재우, 강예나, 이치노세 마이, 스즈키 우네) – 감성사전 感性事典 – 그룹의 이름 정하기 – 녹색의 옷을 입고 사진 찍어 공유하기 –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공유하기 – 자기 방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사진 찍어 보여주기 – 취미 활동을 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공유하기 – 각 멤버가 자국 노래 중 추천곡을 소개하고, ZOOM에서 같이 듣고 감상을 공유하기 – 상대국의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중 하나를 각자 보고, 감상을 ZOOM에서 공유하기 – 같은 시간에 하늘 사진 찍기

활동 결과	교류	- 자신이 사는 나라나 동네 음식 소개하기 - 상대국 멤버의 초상화 그려보기 (6) 홈 그룹F (이소망, 어소정, 나카니시 준, 이게다 호노카) - 너의 나라는 '君の国は - 그룹의 이름 정하기 - 모두에게 짧은 편지 쓰기 - MBTI 진단결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보기 - 상대국의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중 하나를 각자 보고, 감상을 ZOOM에서 공유하기 - 자국을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여행계획 짜보고 공유하기 - 라인 단체방에서 각자의 일상을 교환일기로 공유하기 5. 선물 소개 발표 (1) 볼펜 & 책갈피 세트 - 한국 전통 느낌의 볼펜과 책갈피 세트를 통해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팀의 문화발표에서 전통 관련 내용을 많이 소개했었기에 선물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발표를 오래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 (2) 과자 종합 세트 - 현재 한국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과자들로 구성된 꾸러미이다. 한국의 과자를 일본 청소년들도 맛있게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3) 라인 프렌즈 노트 & 2023 달력 - 일본에서는 메신저 서비스로 '카카오톡' 보다 '라인'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카카오톡'의 '카카오프렌즈'를 좋아하는 한국처럼 일본도 '라인'을 자주 사용하는 만큼 '라인 프렌즈'를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라인 프렌즈' 상품을 준비했다. - 그리고 선물한 볼펜을 잘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트를 준비했고, 내년 달력을 선물해 내년에도 한국과의 교류를 기억해달라는 마음을 담았다.
	사후	- 추후 진행 예정

팀원 역할	성 명	역할	내용
	강예나	대표	팀 활동 주도 및 보고서 정리
	문예은	부대표	팀장 보조 및 문화교류 담당
	원선영	서기	보고서 작성
	이선호	총무	지출 내역 정리 및 예산 관리
	심규민	문화발표	한국 문화발표 주도
	어소정		
	추지호		
	이지원		
	송이림	촬영	교류 활동 촬영 진행
	김윤상	기획·홍보	문화발표 내용 자료조사 및 발표 피드백 진행 한국 대표단 SNS 계정 관리
	이소망		
	이재우		
	최예린	통역	한국 청소년과 일본 청소년 간의 소통을 위한 통역 활동, 주최 측 진행 통역 담당
	이하은		
	이수정		

2 사전활동 결과

가. 활동 요약표

번호	활동날짜	사전활동 내용	장 소
1	2022.10.11.~11.3.	단체 학생증 제작	온라인
2	2022.10.01.~11.11.	문화 발표 준비	온라인
3	2022.10.11.~10.31.	SNS 계정 생성 및 운영	온라인(인스타그램)
4	2022.10.27.~11.9.	자기소개 및 3대 뉴스 PPT 제작	온라인
5	2022.10.28.~11.7.	토의활동 사전준비	온라인

나. 사전활동 결과보고

사 업 명	2022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교류국가	일본
팀 명	友	작 성 자	강예나, 원선영
활 동 명	문화발표 준비 및 SNS 계정 운영	참 석 자	대표단 전원
목표 대비 성과	목 표	성 과	
	1. 문화발표 준비 2. SNS 계정 운영 3. 단체 학생증 제작 4. 기본적인 일본어 숙지	1. 문화발표 준비 2. SNS에 카드뉴스 업로드 3. 단체 학생증 제작 완료 4. 주제별 토의 사전준비 5. 통역분들과 자기소개 연습	

활동 결과	1. 문화발표 준비 - 한국어와 한글 소개 및 한국의 유행어 발표 준비 (붙임1) (한국어와 한글 차이점, 한글의 역사, 종류별 유행어 소개 등등) - 기획팀 및 제작팀으로 나눠 역할분담 ① ~10.12 자료조사 진행 ② 10.13~10.27 발표 PPT 제작 ③ 11.11 최종 점검 및 마무리 예정 2. SNS에 카드뉴스 업로드 -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korea_japan2022)을 생성 후 매주 다른 주제의 카드뉴스를 업로드 (붙임2) ① 팀원 소개 카드뉴스 ② K-POP 소개 카드뉴스 ③ 한국에서 유명한 J-POP 소개 카드뉴스 ④ 한국에서 유명한 일본 음식 소개 카드뉴스 3. 단체 학생증 제작 완료 - 대표단 활동 홍보를 위한 학생증 제작 (붙임3) - 앞면: 사진, 이름, 생년월일, 팀명 삽입 - 뒷면: 활동목표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의 QR코드 삽입 - 앞면 정보는 영어로 작성해 상대국 청소년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상대국과 우리나라 국기에 공통으로 있는 빨간 계열의 색을 메인으로 사용함. 4. 주제별 토의 사전준비 1) 디지털 - 디지털의 발달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 인식 - '디지털 치매', 'AI의 저작권 논란' 등의 디지털 관련 문제점 조사 - 디지털 발달의 이점 세부조사 2) 고령화 - 고령층 대상 마케팅의 필요성 및 현 상황을 인식 - 고령층 대상 마케팅 사례 및 필요성 관련 세부내용 조사 3) 저출산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 저출산 관련 세부내용 조사 - 저출산의 원인 및 해결방안, 대책 논의 5. 통역분들과 자기소개 연습 - 상대국의 언어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기 위한 연습 - 통역분들께 문장 및 발음 등을 피드백 받으며 자기소개 준비 진행
자체 평가	- 문화발표 준비 중 기획했던 대학 생활 v-log 영상을 제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라면 더 미리 준비를 시작하거나 영상 제작 관련 공부를 함께 진행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 - 문화발표와 카드뉴스 제작을 위해 여러 자료조사를 진행하며, 한국과 상대국의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하지만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국 청소년들을 위해 제작을 진행했던 것도 있는데 사전에 이를 상대국 청소년에게 보여줄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아쉬웠다. - 문화발표 및 카드뉴스 제작 활동에 너무 몰두하느라 정작 상대국을 이해하는데 쓰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사전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팀원들과 상대국에 대한 관심사, 고정관념 등의 얘기를 나누며 활동을 통해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을 정리할 시간을 마련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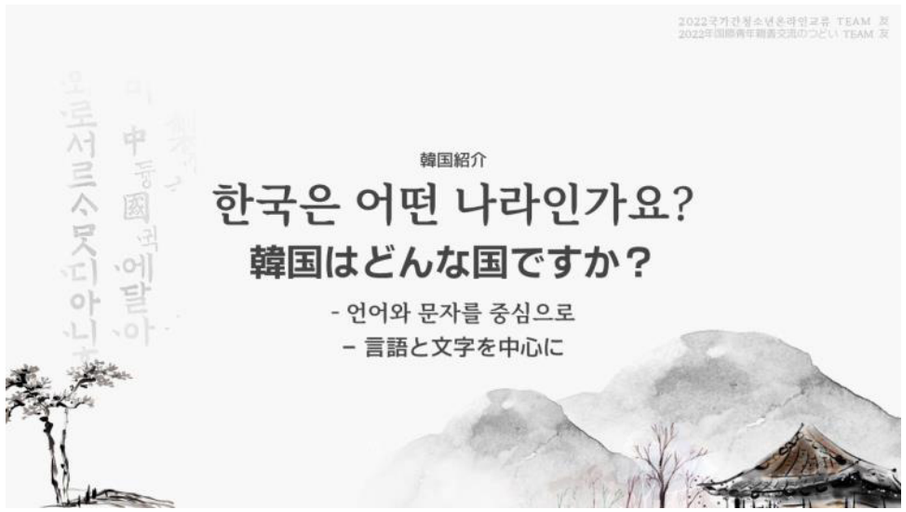
	성 명	역 할	내 용
역할 분담	강예나	청소년대표	- 단체 학생증 디자인 및 주문제작 - 한국에서 유명한 J-POP 소개 카드뉴스 제작 - 문화발표 PPT와 팀원 소개 카드뉴스 내용 정리 - 사전활동결과보고서 작성 - 토의 주제(고령화)에 대한 세부내용 조사 및 정리
	문예은	부대표	- PPT 공동제작 - 문화발표 발표 담당 - 토의 주제(디지털)에 대한 세부내용 조사
	김윤상	기획팀	- 문화발표 자료조사 -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 음식' 카드뉴스 자료조사 - 토의 주제(디지털)에 대한 세부내용 조사
	송이림	제작팀	- PPT 레이아웃 제작 - PPT 공동제작 - 'K-POP 소개' 카드뉴스 제작 - 토의 주제(디지털)에 대한 세부내용 조사 및 정리
	심규민	제작팀	- 한국대표팀 소개 카드뉴스 제작 - PPT 공동제작 - 문화발표 발표 담당 - 토의 주제(디지털)에 대한 세부내용 조사
	어소정	기획팀	- 문화발표 대본작성 -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 음식'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 문화발표 발표 담당 - 토의 주제(저출산)에 대한 세부내용 조사
	원선영	기획팀, 서기	- 문화발표 자료조사 - '한국에서 유명한 J-POP' 조사 - 사전과제(토의 활동 준비) 보고서 최종안 작성 - 토의 주제(저출산)에 대한 세부내용 조사
	이선호	기획팀, 총무	- 문화발표 자료조사 - '한국에서 유명한 J-POP' 조사 - 활동 예산 관리 및 기록 - 토의 주제(저출산)에 대한 세부내용 조사 및 정리
	이소망	기획 및 홍보팀	- 문화발표 PPT와 팀원 소개 카드뉴스 내용 정리 - SNS 계정 관리 - 토의 주제(저출산)에 대한 세부내용 조사
	이재우	기획팀	- 문화발표 자료조사 - 'K-POP 소개' 카드뉴스 자료조사 - 토의 주제(고령화)에 대한 세부내용 조사

역할 분담	이지원	제작팀	- PPT 공동제작 - PPT 수정 및 정리 - 문화발표 발표 담당 - 토의주제(고령화) 관련 시사점 제시 및 세부내용 조사
	추지호	기획 및 홍보팀	- 'K-POP 소개' 카드뉴스 자료조사 - 문화발표 대본작성 - SNS 계정 관리 - 문화발표 발표 담당 - 토의 주제(고령화)에 대한 세부내용 조사

	물 품	지출금액	용 도
지출 내역	단체 학생증	42,600	대표단 활동 홍보용
	총 계	42,600	

결과물

붙임1. 문화발표 준비 (PPT)



붙임2. 인스타그램 계정 및 카드뉴스

결과물

붙임2. 인스타그램 계정 및 카드뉴스

붙임3. 단체 학생증 디자인

3 교류활동 결과

가. 활동 요약표

일자	시간	세부내용	비고
1일차 (11.12.)	13:00 – 13:20	개회식 ·개회, 참가자 소개 ·양국 청소년 대표 인사 (양국 각 1명씩, 순차통역) ·전체 일정 안내 ·단체 기념사진 촬영	진행 : 한국
	13:20 – 13:30	도입 오프닝 (3차 교류 일저우소개, 마음가짐 등)	
	13:30 – 14:00	아이스 브레이킹 ·전체 자기소개 (양국 청소년, 상대국 언어로 3문장) ·쉬는 시간 ·인생 전환점 공유 (홈 그룹별) ·쉬는 시간	진행 : 한국
	14:00 – 14:10		
	14:10 – 15:00		
	15:00 – 15:10		
	15:10 – 16:05	토의 활동 ·1차 그룹별 토의 (토의 그룹별, 6개팀) ·쉬는 시간	진행: 일본
	16:05 – 16:15		
	16:15 – 16:45	문화 교류 ·한국의 문화소개(한국 청소년 발표)	
	16:45 – 17:00	마무리 ·활동정리 및 마무리	
2일차 (11.13.)	13:00 – 13:10	도입 ·오프닝 (2차 교류 일정 소개 등) ·체크인 (그룹별)	진행 : 한국
	13:10 – 13:30		
	13:30 – 14:10	토의 활동 ·2차 그룹별 토의 (토의 그룹별, 6개팀) ·쉬는 시간 ·3차 그룹별 토의 (토의 그룹별, 6개팀) ·쉬는 시간	
	14:10 – 14:20		
	14:20 – 15:00		
	15:00 – 15:10		
	15:10 – 15:40	문화 교류 ·일본의 문화소개 (일본 청소년 발표) ·쉬는 시간	진행 : 일본
	15:40 – 15:50		
	15:50 – 16:45	워크숍 미션 수행계획 수립 (홈 그룹별)	
	16:45 – 17:00	마무리 활동정리 및 마무리 (양국 청소년)	
3일차 (11.26)	13:00 – 13:05	도입 ·오프닝 (3차 교류 일정 소개 등) 체크인 (홈 그룹별, 기분 공유 등)	진행 : 한국
	13:05 – 13:15		
	13:15 – 14:45	최종발표 ·토의활동 결과발표 (6개 그룹) –그룹별 발표 및 Q&A ·토의활동 발표 총평 ·쉬는 시간	
	14:45 – 15:00		
	15:00 – 15:10		
	15:10 – 15:55	최종발표 ·미션활동 결과 발표(6개 그룹) –그룹별 발표 (영상, PPT) –투표 및 1등 그룹 소감 발표 ·쉬는 시간	
	15:55 – 16:05		
	16:05 – 16:50	폐회식 ·참가자 소감발표(되돌아보기 시간) ·폐회 ·양국 편지 낭독(상대국에 보내는 편지) ·공식 및 참가자 선물 교환 ·단체 기념사진 촬영 등	
	16:50 – 17:00		진행 : 일본

나. 세부 활동내용

• 1일차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전체 자기소개 (양국 청소년)
	주요내용	처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로, 참가 청소년 전원이 양국의 언어로 3문장으로 자기소개를 했다. 짧은 문장이지만 통역 없이 처음 양국 청소년들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2	프로그램	인생곡선 공유
	주요내용	인생 3대 곡선 이야기는 홈 그룹별로 나눠서 진행했다.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주요한 변환점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도 점차 사라져갔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서 다양한 인생 곡선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의 문화 차이나 환경의 차이 등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이나 궁금한 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3	프로그램	1차 그룹별 토의활동
	주요내용	‘디지털’, ‘저출산’, ‘고령화’ 이 3가지 중 자신이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 사전과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토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4	프로그램	한국 문화교류
	주요내용	한국 측 문화교류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개와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문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행어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는 퀴즈 시간도 가져 일본 청소년들도 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생각 등을 라인 단체방에 이야기하면서 진행해 발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고 일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 2일차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체크인
	주요내용	홈 그룹별로 모여서 ‘어제에 대한 감상’, ‘오늘의 기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	프로그램	2차, 3차 그룹별 토의
	주요내용	어제에 이어서 ‘디지털’, ‘저출산’, ‘고령화’ 주제로 6팀으로 나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주제에 대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냈다. 도출해 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3	프로그램	일본 측 문화소개
	주요내용	일본 측에서 준비한 문화소개에 대한 발표를 듣는 시간이었다. 참가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일본의 도시들을 소개해주었고 지역 특상품이나 가볼 만한 곳을 알 수 있었다. 발표를 들으면서 라인으로 질문이나, 감상 등을 남기면서 들어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4	프로그램	미션 수행 계획 수립
	주요내용	홈 그룹별로 나눠서 주어진 미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필수 미션인 그룹명 정하기와 오리지널 미션 정하기에 대해 의논했다. 팀명이 정해지니 함께 미션을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팀워크가 생긴 것 같았다.

• 3일차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체크인
	주요내용	홈 그룹별로 모여 ‘지난 2주간의 소감’과 ‘오늘의 각오’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같이 활동했던 소감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2	프로그램	토의 활동 결과발표
	주요내용	6개 조가 2주 동안 토의했던 내용을 발표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도 다른 결론이 나와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각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많이 고민한 것이 발표에서 잘 나타났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도 가져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3	프로그램	미션활동 결과발표
	주요내용	홈 그룹별로 2주간 수행한 미션을 발표했다. 각 팀별로 수행한 미션 사진을 담은 PPT나 영상자료를 준비해왔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 서로 많이 친해진 것이 느껴졌고 우리가 수행하지 못한 미션을 다른 팀이 수행한 것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라인 단체방을 이용해 감상평을 남기면서 들어 다른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발표 시간을 보냈다.

다. 주제에세이

구분	이름 · 역할	주제에세이	
1	강예나 (대표)	주제	배움의 연속
		내용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이번 활동에서 한국 대표단의 리더를 맡은 나는 완벽한 리더가 아니었다. 나를 제외한 11명의 인원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역량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리더라도 열심히 참여해준 팀원들과 사전활동을 진행하며 일어나 많은 상황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내가 이제 완벽한 리더인지를 묻는다면 그렇다고 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활동 진행 전과 비교했을 때는 큰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2022 국가간청소년온라인교류’를 통해 내가 배운 것인 리더의 역할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선, 도전 정신을 배웠다. 사전활동 기간에 팀 굿즈를 제작하며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없었던 일러스트를 다뤄본 것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일본어를 들으며 상대국의 청소년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것 등 이번 활동이 아니었다면 못 겪을 경험을 접하면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다르더라도 서로 문제없이 친해질 수 있음을 배웠다.

2	문예은 (부대표)	주제	도전, 한층 성장한 나
		내용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가 편했던 나는 팀원들과 함께 맞춰가야 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국가 간 교류라니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참을 수 없었다.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일본이란 국가였지만, 문화교류, 국제 친구 이 두 가지만 보고 결정하게 되었다. 중간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나의 한계와 나의 몸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어떠한 경험이던지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직접 몸소 느끼며 다시 한번 그 신념을 되새길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함과 동시에 학교를 다니면서 개인적인 스케줄을 해나가면서 바쁘게 살았다. 평소와 달랐던 점은 교류활동 국가를 일본으로 선택해서인지 일상에서도 일본어라든지, 일본 관련 이슈라든지, 일본과 관련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관심사가 넓어진 경험을 하게 되어 신기했다. 사람은 역시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어디에 관심과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 경험하고 도전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경험이 언젠가는 무언가의 발판이 될지도 모른다. 발판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만족한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잘하고 못하는지 알아갈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또 참여해보고 싶다.
3	원선영 (서기)	주제	뜻깊은 2주의 시간
		내용	처음에는 2주간의 교류 활동으로 나에게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나의 2주는 나에게 매우 큰 시간이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역시 언어의 차이였다. 일본어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으나 토의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야 할 때는 언어의 벽이 느껴졌다. 원하는 문장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일본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고 언젠가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완벽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멋진 날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에 대한 마음의 변화였다. 새로운 음료수를 사 마시는 것조차 나에겐 도전이었는데 무려 국가 간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라니! 나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학교 생활과 병행해 활동을 하다 보니 바쁜 생활이 이어졌으나 후회는 없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즐거움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오는 힘듦을 이겨내는 법을 배울 수

3	원선영 (서기)	내용	있었던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 친구를 얻었다는 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주였다. 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새로 얻은 이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
4	이선호 (총무)	주제	국적을 넘어 하나 된 우리
		내용	교류 활동에 참가자로 선발되고 나서, 외국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다. 허나 팀원들과 함께 사전과제 등을 준비하며 상대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 교류 활동이 진행되고 만났던 상대국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열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등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일 양국이 처한 공통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대책을 모색하기도 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국적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이번 교류활동을 통해 국적은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5	심규민 (문화발표)	주제	무모한 어린아이
		내용	현대인이라면 당연할 것이다. 어쩌면 옳은 방향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계산하고 대한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빛나는 보석을 찾기는 어렵다. 그들은 순수한 만큼이나 상처를 입고 숨어버리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의 소수도 존재한다. 거대한 일렁이는 파도로 본인과의 싸움을 헤쳐나가 새로운 영역에 다다른 사람들. 그들이 상처를 입지않는 것은 아니다. 상처를 입음에도, 어쩌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있음에도 또다시 부딪히는 것이다. 아픔이 계속되면 무뎌질 것을 알고있기에. 안타까운 사실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생존을 위한 최적의 비법을 그들은 이미 알아챈 것이라 생각한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도전하는 무모한 어린아이일 뿐이겠지만.
6	송이림 (촬영)	주제	비대면 사회적 교류
		내용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예로부터 생존을 위해 무리를 지어 다녔고 그 과정에서 단합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소통이 주된 것이었다면, 이번 교류 활동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으로,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의 주제로 토의를 하거나, 2주라는 기간 동안 공통된 미션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소속된 안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대화나 관계에 있어서 언어는 물론, 비언어적인 부분도 빠질 수 없다. 대화에서 자세, 반응 등은 유대감을 생성하는 데 중요하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필자가 교류 활동에 있어서 신경 쓴 부분은, 작은 줌 화면의 안에서

6	송이림 (촬영)	내용	최대한 큰 동작과 의미를 알기 쉬운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은 방에서 혼자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나쁘지 않게 돌아왔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홈그룹의 사람들도 3, 4살 위의 연장자인 필자를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 비대면의 사회적 교류 자체를 처음 해본 것 치고 꽤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이는 물론 서로 노력하여 이뤄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구슬을 꿴 것이다. 상대를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대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스스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천천히 다가가면 된다. 비대면에서도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 환경이 바뀐 것뿐이다. 사람이란 사회적 동물은 충분히 유대감을 만들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본다.
7	이지원 (문화발표)	주제	일본의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변화된 사회에 대해 알다.
		내용	평소 관심있던 한일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일본의 대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 너무 유익했다. 일본의 현 고령화 상황, 빈곤현황 등은 알고 있었지만, 일본의 노인 친화 기업, 노인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 특히 노인시설인 '꿈의 호수'에 대해 들었을 때, 한국도 노인분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꿈의 호수의 시스템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정도로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서 매우 놀랐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 이슈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중한 친구들이 생겼고 일본어로도 대화하면서 나의 일본어 실력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팀대표를 맡으면서 리더쉽도 키울 수 있던 것 같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8	이재우 (기획·홍보)	주제	다르지만 같게
		내용	난 아무리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라도 각 국가만의 토착적인 문화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 대척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은 다르면서 또 같은 동아시아의 이웃사촌임을 느꼈다. 특히 언어와 음식 면에서 말이다. 우리는 일본어를 생각하면 한글의 영향을 많이 안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kpop의 열풍이 보는 요즘 일본에서는 먹방, 오빠처럼 한국 고유의 단어들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오뎅, 스시 같이 실생활에서 일본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교류를 통해 양국의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음식에서도 마찬가지다. 양국에서 자주 먹는 김치나베, 야키니쿠는 한일의 오랜 교류가 만들어낸 퓨전 음식으로 이 둘은 현재도 양국의 국민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은 때로는 다르지만 또 같게 동아시아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	이소망 (기획·홍보)	주제	잊을 수 없는 2주
		내용	교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홈 그룹이다.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해서 그런지 유독 빨리 친해진 느낌이었다. 일본측 학생이었던 준상과 호노카상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고 모두 함께 수줍어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귀여웠다. 어쩌다보니 내가 리더를 맡게 되었는데 하필 미션을 수행해야하는 2주간 갑자기 일이 몰려서 많은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그래도 매일매일 교환일기를 작성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다보니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로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도 재밌었다. 이번 겨울방학에 일본 여행을 가고싶었는데 어디가 유명한지 물어보기도 했고 한국의 명소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3일차 마지막 체크인을 했을 때는 오래만난 친구와 마지막인 것처럼 서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 인연이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 또 내년에 참여할 수 있다면 대면으로 참여해보고 싶다.
10	김윤상 (기획·홍보)	주제	전보다 변한 것
		내용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점 중 가장 큰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인연들인 것 같다.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노력해온 한국 참여 친구들, 본 활동을 하며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준 일본인 친구들까지 좋은 경험만 주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일본인 친구들은 예상보다 더 착하고 쓰는 언어만 다르지 예상보다 더 우리랑 다를 게 없는 청소년 친구들이었다. 외국인이면 무조건 다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없애주었다. 활동을 진행하며 일본어 실력도 조금이지만 더 가다듬게 되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넓히게 된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1	어소정 (문화발표)	주제	手を染める
		내용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활동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많이 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있을 국제 프로그램과 같은 교류 활동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일본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며, 활동에 대하는 태도도 배우고, 다음에 있을 팀 활동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바라보는 인식 또한 배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 手を染める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12	추지호 (문화발표)	주제	확인하고 나아간다
		내용	평소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일본의 문화나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나는 국가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알게 된 후 꼭 참여해보고 싶었다. 참여하고 합격한 후 실제 교류날이 다가왔을 때,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를 시작했을 때, 일본어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들을 잘 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더 나은 언어적인 실력을 늘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4 개인소감문

구분	이름 · 역할	개인소감문
1	강예나 (대표)	활동을 진행한 2주는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졌다. 그만큼 상대국의 청소년과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즐거웠다. 특히나 교류 활동 중 토의 활동은 2주라는 시간 동안 팀원들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 서로 의견을 맞춰가며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상황도 알 수 있어서 좋았으며, 같은 주제로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또한, 홈 그룹 미션을 진행하면서 양국 청소년 모두 상대국 언어 실력이 미숙하더라도 서로 소통을 위해 힘쓰는 모습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를 활용하며 소통을 진행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교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과연 상대국의 청소년들과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며 친해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교류 활동을 하고 나니 괜한 걱정을 했음을 느꼈고, 언어가 많이 다르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친해지는 것에는 무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이번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나에게 인상 깊은 기억을 많이 남겨주고, 내 생각을 바꿔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2	문예은 (부대표)	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일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나에게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엄청 친근한 나라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상대국 청소년들도 분명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고 나도 일본이란 나라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다. 그리고 문화교류의 기회를 얻은 나는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공식적인 교류 활동은 3일이고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다.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친구들과 친해지기에는 역시 무리였다. 하지만 우리는 공식적인 교류 이외에도 비공식 교류와 홈 그룹별로 공동 미션을 수행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도 아직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후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이지만 대면 만남처럼 친해질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온라인 만남은 절대 대면 만남과 똑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온라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만남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으며 서로의 나라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만나기를 약속하였다. 토의 활동 시간에는 평소에 생각은 했지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들로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사회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말해볼 수 있었던 활동이어서 좋았었다. 비공식 활동에서는 말 그대로 비공식 활동이기에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게임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이 시간에는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 양국 언어를 할 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지만,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다 보니 일본어를 거의 못했던 나로서는 더 빨리 가까워지기에는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교류활동을 하면서 일본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것은 이 친구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이 학교나 직장을 다니고, 꿈과 고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특히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다. 또 힘들었던 점은 공식적인 교류활동 이외에도 사전활동과 사후활동과 같은 기간들이
2	문예은 (부대표)	시험 기간이나 개인적인 스케줄에 많이 겹쳐서 팀원들과 시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다. 그래도 프로그램 특성상 서로 맞춰가며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소통 능력과 자기관리, 협력, 시민의식 등 여러 면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다.
3	송이림 (촬영)	친구의 권유에, '외국인 베프 만들기'라는 문구를 보고 혹해서 지원하게 된 사람으로, 놀랍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한 편이다. 친구를 만드는 데에 있어 무거운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서로 배려하며 즐겁게 소통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서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에 대해 토의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같은 주제임에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사고의 폭이 조금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쉽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 방식이 제일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코로나 19가 잠식되고 다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비대면이었어도 그렇게 즐거웠는데, 실제로 만난다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4	이선호 (총무)	활동이 시작되고 나서 색다른 체험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 특히 대부분의 상황에서 팀플레이가 필요한데, 업무를 조화롭게 분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수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만큼 어디에선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팀원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상대국이었던 일본에 대해 평소 대학교 전공을 통해 접하던 나였기 때문에 다소 익숙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또래 나이대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본과 일본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접하니 책으로 보던 세상과는 또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 것 같았다. 일본인들이라고 하면 다소 조용하고 돌려 말하는 인상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없애고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던 기회가 된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한층 더 성장하여 세계시민으로써 한걸음 더 내딛은 느낌이 든다.
5	심규민 (문화발표)	상대방의 행동을 재지않고 먼저 밝고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본인의 삶에 집중하여 인생을 즐겁게 영위하고 교류 프로그램의 중요성, 가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처음에는 낯가렸지만, 중반부터는 초반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활동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성향에 따라서 앞에서 나서서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친구도 있는 반면 온전히 따라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주던 친구를 보며 저것 또한 교류를 이어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실감했고 본인의 일상을 감추기보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공유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힐링을 하고 그 자세를 닮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 친구들이 대부분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인 면모를 보고 그것은 단순히 저의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이미지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만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있다는 공동체의 의미를 더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생생하고 즐거웠던 교류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선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	원선영 (서기)	막연히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해 참가하게 된 국가 간 교류 프로그램이었으나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그동안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한 것 같다고 느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했고 남들의 의견에

6	원선영 (서기)	동조하기만 했으나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조별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도 배웠다. 해보지 않고 지레 겁먹기만 했던 내가 도적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언어가 다른 친구들과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은 2주뿐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의 나를 기대한다. 소중한 인연도 얻을 수 있었고 나 또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7	이지원 (문화발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누구보다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함께 토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배운 것 같다. 온라인상이기도 하고 국가가 달라서 처음에는 많이 친해지지 못할 줄 알았는데 비공식 교류와 다양한 미션들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친구들을 사귄 것 같아 너무 좋았다. 한국에서의 자료조사로는 한계가 있던 일본의 사회 문제 및 현황을 알 수 있어 너무 유익했고 외국인과 토론 시에 갖춰야 할 자세도 배운 것 같다. 가장 좋았던 점은 내 스스로 일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일본어 실력이 조금이나마 성장되었음을 느낀 것이다. 공식교류, 비공식 교류, 회의 여러 번에 걸쳐 소통을 하려다보니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배웠고 일본어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소극적인 태도가 자신감으로 바뀐 것 같아 뿌듯했다.
8	어소정 (문화발표)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의 문화와 상황,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토의 활동을 통해 상대국(일본)의 사회적 상황과 이해관계, 책으로만은 알기 힘든 상황 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일본의 상황이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을 대하는 태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팀 활동이기에 분담과 협력이 필요했는데 팀원들과의 조화를 만드는 과정과 팀 활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9	추지호 (문화발표)	이번 교류에 참가하며 비슷한 또래의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 매우 좋았다. 나아가 만나게 된 친구들과 고령화라는 주제로 심각성과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일 등 심도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또 같이 준비하는 한국 친구들도 많은 부분 도와주고 일처리를 한 것 같아 정말 대단하고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10	이재우 (기획·홍보)	이번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대회는 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0대의 나는 모든 것에 소극적이고 친구에게 다가갈 수줍어 했던 내향형의 소극적인 인간이었지만 20대가 된 지금의 나는 이러한 과거가 싫어 어떻게든 외향형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해를 보냈고 이번 온라인 교류는 1년 동안의 노력들이 성과를 본 날이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일본인 친구들과 2주간 웃고 떠들고 놀며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으며 덕분에 일본어 공부에 관한 자신감과 언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교류는 내향형의 나에서 외향형의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넘치는 나로 발전할 수 있던 첫 번째 큰 도전이었다. 덕분에 앞으로도 나는 무엇이든 열심히 특히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유학)에도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11	이소망 (기획·홍보)	먼저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는 점을 밝힌다.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거창한 계기는 사실 없다. 그냥 대외활동을 찾아보다가 갑자기 이 활동이 눈에 띄었고 재미있어 보여서 신청했다. 첫 대외활동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나 면접을 준비하다보니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막상 뽑히고 나니 활동하는 날이 기다려졌다. 사전활동을 하면서 팀원들과 많이 만나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줌이나 통화로 많은 회의를 하면서 착착 준비되어가는 기분이라 재밌었다. 원래 계획처럼 3일 모두 한국측이 함께 줌을 진행했다면 더욱 재밌었을 것 같아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2일 차에 홈그룹 토의그룹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친해진 느낌이라 좋았다. 개인적으로 국가간교류의 꽃은 2주 동안 진행되는 팀 별 미션과 발표 준비라고 생각한다. 나는 모의국회와 선거가 껴있어서

11	이소망 (기획·홍보)	아쉽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해준 그룹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줘서 더 의미있는 활동이 되었던 것 같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 측이 모두 모여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는 처음 만났는데도 금방 이야깃거리가 생기고 친해져서 신기했다. 가볍게 시작한 활동임에도 무겁게 끝났고 내 21살에 가장 의미있는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12	김윤상 (기획·홍보)	본 활동 전 한국 참여 친구들과 진행한 사전활동, 본 활동 이외에 일본인 친구들과 발표 자료를 위해 했던 활동들이 정말 재밌었다고 느꼈고,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너무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본 활동 2주 동안 일본인 친구들과 공식 활동 이외에 라인으로 연락이나 회의를 진행하며, 쓰는 언어만 다르지 결국엔 우리 또래의 생각하는 게 같은 친구들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일본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13	최예린 (통역)	올해 국가간 온라인 청소년 교류에 감사하게도 통역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통역을 했던 경험은 그동안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만큼 모든 참가자가 기간 내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한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다. 주어지는 과제 하나하나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소년 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덕분에 통역도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임할 수 있었다. 통번역은 담당하는 분야에 따라 매번 새롭게 공부가 필요한 일인데, 이번에는 청소년 간 교류이다보니 신조어 등 청년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통번역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직역이 어려운 단어들을 풀어서 통역한 것이 상대 측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되었을 때, 스스로의 통번역 능력이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프로그램의 구성 자체도 가능한 많은 참가자와 교류할 수 있도록 디스커션 그룹과 홈그룹, 비공식 네트워킹 등으로 짜여져 있어, 짧은 기간임에도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느꼈다. 비록 통역은 개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담당하는 그룹의 참가자 분들이 통역도 교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게 느껴져 감사했다. 또 마지막 소감 공유 시간에도 '통역이 있어 원활한 교류가 가능했다'고 언급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뿌듯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국가 간 교류의 힘을 실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일 교류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4	이수정 (통역)	처음으로 참가한 한일 간 교류행사이기에 더 긴장했던 거 같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에 청소년분들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사전교육 때부터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다 같이 긴장한 상태에서 청소년 분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었다. 내 성격과 관계없이 교류를 원활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초반 자기소개를 비롯한 몇몇 활동을 내가 이끌었고 덕분에 청소년분들이 더욱 빨리 활동에 적응하시는 게 느껴졌다. 내 성격을 극복하고 통역 일도 수월하게 진행되어서 나 자신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행사 진행되는 동안 사회자 통역과 마지막 날에 총평 통역은 시작 직전에 받았기에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서 양국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활동에 참여해서 이바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15	이하은 (통역)	지금까지 회의나 발표 통역과 같은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업무를 주로 맡아왔는데, 처음으로 교류 활동 통역을 맡아서 신선했다. 또 어떻게 양국 참가자 분들이 편안하면서도 원활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통역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오래 고민해야 했었다. 물론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나 역시 그 과정을 즐기면 되는 것이었다. 정확하고 깔끔한 통역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의 통역으로 인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참가자들이 생각을 풍부하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면서, 자신의 통역에 자신감을 갖는 일이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통역에 집중하다 보니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다. 덕분에 좋은 경험을 더 쌓아갈 수 있었다. 비슷한 기회가 또 있다면 참여해보고 싶다.

5 자체평가

구분	평가
목표대비 달성도	■ 상 □ 중 □ 하
좋았던 점	* 팀 활동 관련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 온라인으로나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친구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무척 좋았다. 또한, 함께 미션이나 토의 등을 준비하며 국적과 공간을 넘어 하나된 느낌을 받았다. - 사전활동 때 한국 청소년팀만의 카드 굿즈를 만들었던 것이 좋았다. 만들고 완성품을 보니 뿌듯함도 느껴지고 청소년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 담당자분들이 한국 청소년을 위해 늘 힘써주시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좋았다. * 프로그램 관련 - 홈 그룹 친구들과 라인으로 나눈 대화들이 좋았다. 진짜 생생한 일상이 담긴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감정교류를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이 생긴 기분이라서 소중하고 애틋한 경험이었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진 상황인데도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 온라인으로나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친구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무척 좋았다. 또한, 함께 미션이나 토의 등을 준비하며 국적과 공간을 넘어 하나된 느낌을 받았다. - 목표였던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지기, 일본어 많이 기르기 등이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 일본 친구들과 책이나 미디어로는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또한, 일본 친구들과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어 좋았다. - 여러가지 미션을 함께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보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	* 팀 활동 관련 - 활동 전반에 걸쳐 팀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대표 등 일부 팀원들이 남들의 배로 고생했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웠다. - 팀원들을 대면으로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활동을 준비하는 내내 회의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회의의 분위기를 풀기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등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었고 실제로 만났던 3차 교류 때에서야 팀원들과 친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 프로그램 관련 - 교류 활동이 진행되고 나서부터 일정이 다소 빡빡하게 짜여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 상대국의 언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일본 친구가 몇몇 있었기에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 대면으로 만나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점이 아쉽다.

6 차기 참가자를 위한 조언

구분	조언 내용
사전활동	- 본격적으로 사전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팀원들과 거리감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의 속내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어야 솔직하게 의견이 교환되고 업무를 조화롭게 분담하면서 사전활동 준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대국가 청소년들과 교류하기 전에 한국 측 청소년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업무는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여 업무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저희는 1차, 2차 교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준비 물품에 관한 이야기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 사전활동을 진행하기 전, 앞으로 자신이 이 활동을 통해 얻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인연을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문화발표를 통해 상대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토의 활동을 통해 어떤 배움을 얻어가고 싶은지 등 다양한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 사전활동 때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코디네이터와 퍼실레이터 담당자분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교류활동	- 교류 활동이 시작되고 난 후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풍부한 표정과 긍정적인 반응,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분위기를 가볍고 즐겁게 이끌고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없앨 필요가 있는데, 무리해서라도 텐션을 올려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향후 교류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도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일정 종료 후 저녁에 진행되는 문화교류 시간에 꼭 참여하여 서로의 관심사 공유나 잡담 등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추천합니다. 평소에 취미가 맞는 타국 또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좋은 추억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의 민감한 문제 등은 화제로 꺼내는 것을 삼가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말을 할 때는 통역분들을 배려해서 끊어서 말하길 바랍니다. 통역분들이 양국 청소년의 말을 통역해주실 때에는 통역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말로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 교류 활동이 끝난 후 통역분들이 없어 청소년들끼리 대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국에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청소년들을 배려해서 천천히 말하거나 짧은 말이라도 상대국의 언어로 말하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간단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의 비공식 교류같은 경우 통역이 원활하게 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감안을 하거나 기초회화를 공부하고 온다면 더 많은 상대국가 청소년들과 대화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른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가 이곳에 친구를 만들고, 그와 소통하기를 원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망설이는 것은 뒤돌아봤을 때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시다. 상대국의 언어를 잘하지 못해도 일단 말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역분이 함께하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 토론 주제를 미리 정해 놓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한 후 일본인분들과 얘기하면서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부터 한국팀 주제를 정해 버리다 보니 나중에 주제가 다시 정해졌을 때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해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일본어 인사라도 알아두시면 더욱 친해지기 쉬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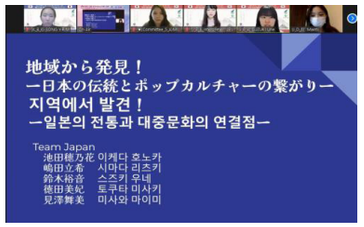
통역	- 통역 및 번역 업무의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일본 측 통역과도 미리 소통하여 역할 분담 상황을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행사 진행하는 동안 펜과 메모장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 문장을 통역해야 될 경우 중간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 자신이 맡은 그룹의 사전과제 등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두고 주제 관련 전문용어를 미리 숙지해둬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국에서는 같은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숙지해둬야 합니다. - 사회자 진행 통역을 맡은 경우에는 미리 시나리오를 보면서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홈 그룹과 디스커션 그룹 모두 처음은 서로 어색해서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통역이 먼저 오늘의 활동 목표를 리마인드 해주거나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을 정해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면 더욱 원활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 2일차 활동이 끝나고 2주 동안의 홈그룹, 디스커션 그룹의 개별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때 라인의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해 양국 청소년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데, 번역이 이상하게 되는 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정해줘야 합니다. 경험상 일상적인 단계의 문장들은 문제 없이 번역되는 편이고, 시사용어나 관용구와 관련된 직역, 오역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시사용어는 같은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도 한일 양국이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정해주면 좋습니다. - 2주 동안 회의 및 발표 준비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개인 일정을 어느 정도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이 청소년이라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해보고 떠오른 문장 몇 개를 일본어로 미리 번역해두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무슨 일본어 표현을 쓸까?” 같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완성도 있는 번역이 나오게 되고,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그 번역과 꽤 비슷한 문장이 현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 통역 진행 중 미숙했던 부분이 생겼다면 메모해두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완해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인터넷 상태에 따라서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을 경우 되묻는 것도 통역의 권한이니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 노트테이킹하는 습관을 들이되 메모에 열중하는 나머지 발언자의 요지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노트테이킹은 중심 단어나 고유명사와 같은 잊어버리기 쉬운 키워드를 잊지 않기 위한 보조장치일 뿐, 핵심은 어디까지나 음성을 집중해서 듣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 노트테이킹은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단어 또는 기호 위주로 해야하며 문장을 그대로 받아적으면 발언자의 속도를 절대 쫓아갈 수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참가자는 각자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종 그룹별 논의 중간에 참가자가 상대국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국어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본인에게 요청하거나, 통역이 개입하여 반드시 모든 팀원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비공식 네트워킹 시간은 본 프로그램처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디까지나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통역하셔도 됩니다. 비공식 교류 중에는 상대국 언어로 대화하고자 하는 참가자가 있으니, 그때그때 통역이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파악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역의 경우 비공식 네트워킹 시간 이외에는 교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비공식 네트워킹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제언	- 단체활동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신이 맡은 일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마감기한보다 빠르게 일을 처리하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 주어진 시간이 많아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생각하고 활동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무엇이든지 미리 진행하고 미리 끝내두시길 바랍니다. - 홈 그룹 말고도 토의그룹의 청소년과도 친해지려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토의그룹이라고 토의만 진행하기보다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비공식 교류는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공식 교류에서는 토론그룹과 홈그룹 멤버들끼리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비공식 교류는 모두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이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와서 늦은 시간까지 매일 참여했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날은 새벽 3시까지 떠들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꼭 참여하시길 바라요! - 외국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다가간다면 2주간 언어 실력이 크게 향상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언을 보시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활동을 신청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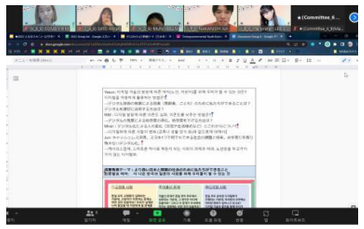
7 활동사진

(1일차) 3분 자기소개

(1일차) 한국 문화소개 발표



(1일차) 일본 문화소개 발표



(2일차) 그룹별 토의 진행

(3일차) 토의그룹 발표

(3일차) 미션 발표

8 기타 활동자료 목록

붙임	구 분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유형
1	사전활동	대표단 학생증	학생증 시안	JPG
2	사전활동	문화발표 PPT	한국 지리 및 기후, 전통문화 그리고 언어와 유행어 소개	pdf
3	사전활동	회의록	사전활동 회의 내용	압축 파일
4	교류활동	발표 스크립트	발표 대본	pdf
5	교류활동	활동 사진	교류 활동 사진	사진 압축 파일

Ⅲ 참고자료

1 청소년교류활동

1) 청소년교류활동의 정의

1 정의: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의 4)

***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법률 제7163호, 2004. 2. 9. 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의 4: 청소년교류활동 정의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립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8조 : 청소년교류센터의 설립 근거

2 광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서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 배양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및 국가 간의 우의와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활동

2) 청소년교류활동의 운영

1 정부: 여성가족부를 통해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청소년교류활동을 진행

2 지방자치단체: 외국 자매도시 등과 청소년교류활동 진행

3 민간부문: 청소년 및 협력 NGO 간 청소년교류사업 진행

2 청소년교류센터

1) 청소년교류센터란?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08년 설립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로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실무기관

2) 설립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추진방향

- 청소년의 국제이해 증진 및 세계시민으로서 역량 강화
-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의 교류 다양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 국내·외 청소년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4) 주요기능

- 국제활동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구
-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운영
- 국내·외 청소년 기관, 단체, 시설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 국제교류 참가자 사후활동 관리 및 활성화 지원
-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관리 및 개선
- 국제교류 정보의 체계적 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매뉴얼 개발

5) 운영사업

사업명	활동소개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파견, 초청)	청소년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 기반 조성 및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교류활동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 참가단	미래세대의 일원으로 청소년이 다양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활동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봉사를 주제로 한 국제협력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제교류활동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세계 속 한국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자기 주도적 체험 및 교류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국가관 형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제교류활동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한국 청소년과 국내 체류 유학생 간 팀별 교류를 통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고, 양국 우호도를 증진하기 위한 국내 기반의 국제교류활동
청소년 국외역사체험활동사업	국제교류활동의 새로운 모델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청소년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국내 기반의 국제교류활동
국제교류 참가자 사후활동 (글로버대표단)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교류활동을 홍보 및 지원하는 국내 기반의 국제교류활동

6) 기관정보

-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 전화번호: 02-330-2892~8
- 홈페이지: www.youth.go.kr/iye

2022년 국가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 운영사례집

인 쇄	2022년 12월
발 행	2022년 12월
발행인	손연기
발행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5층 02-330-2800(代)
인쇄처	(주)브랜뷰 02-6352-0417